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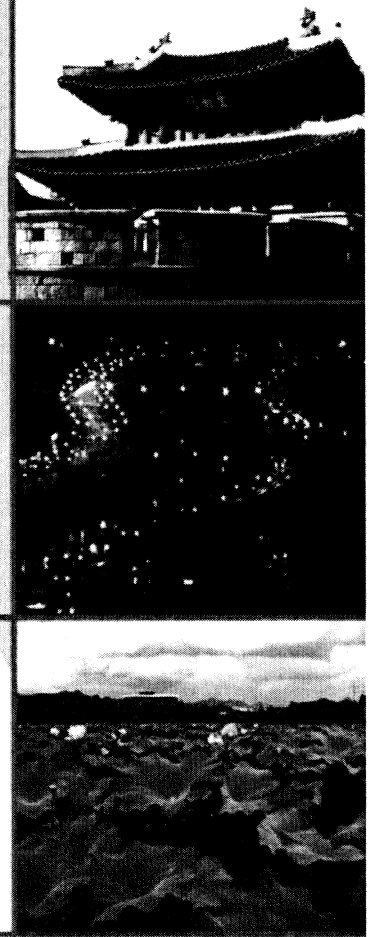
살고싶은 지식기반 광역도시 건설

11-6450000-000249
-01

2025년 전 주 권 광역도시계획

2009. 9

 전라북도



살고 싶은 지식기반 광역도시 건설

2025년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2009. 09

 전라북도

제 출 문

전라북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전라북도에서 의뢰한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09. 09

국 토 연 구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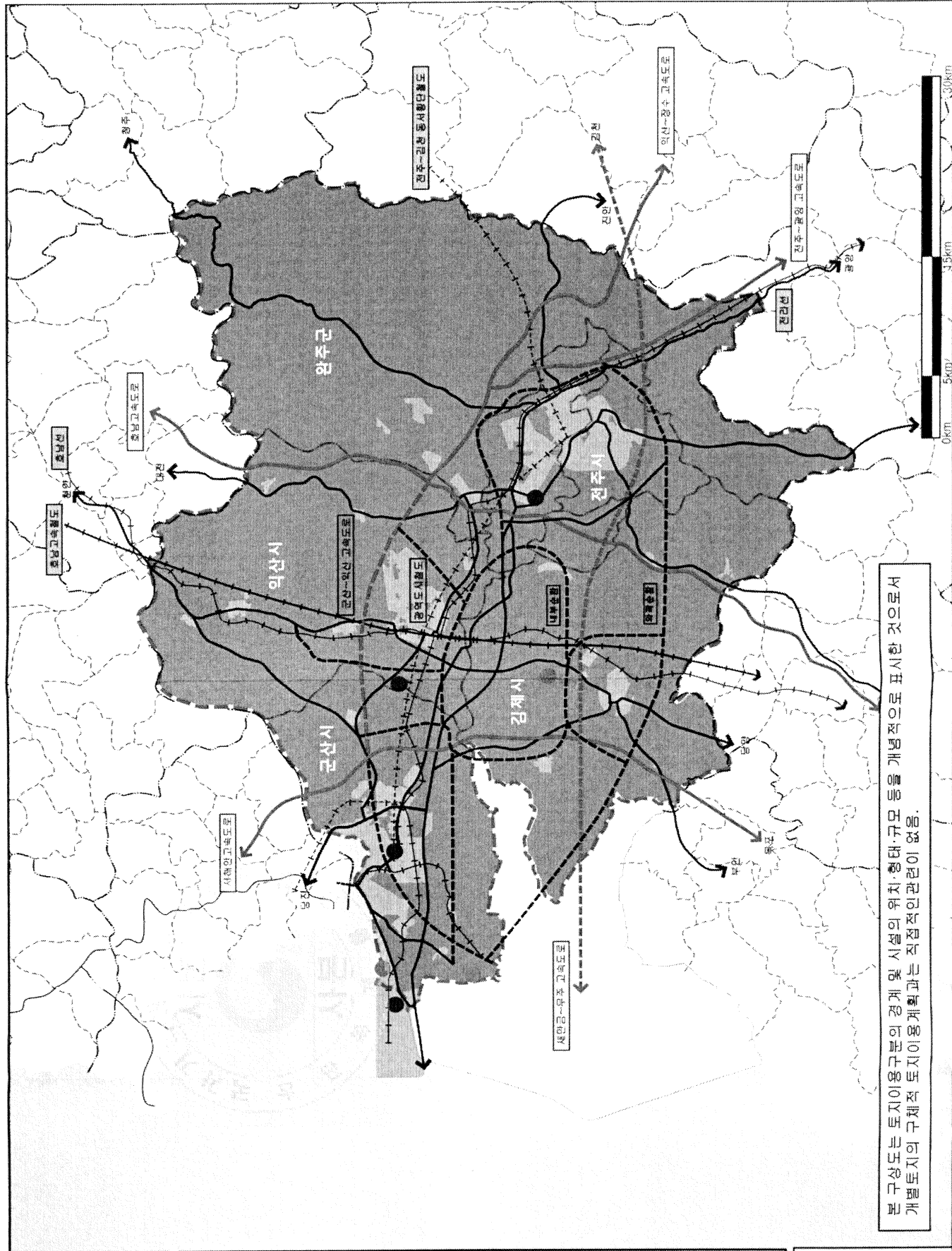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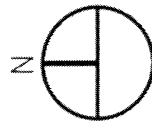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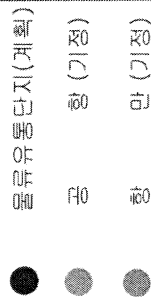
원 장 : 박 양 호

참여연구진

소 속	구 분	성 명	직 책	연구내용
국토연구원	연구책임·총괄	박 형 서	국토·지역연구실장	연구총괄
	부책임	진 정 수	토지·주택연구실 연구위원	정책기초 주택·토지이용
	연구원	임 영 태	교통연구실 책임연구원	기반시설
	연구원	김 의 식	국토·지역연구실 책임연구원	공간구조 도시발전 토지이용
	연구원	최 성 환	국토·지역연구실 연구원	정책기초 산업경제 공급시설
	연구원	김 영 단	국토·지역연구실 연구원	주택·토지이용 공간구조
전북발전연구원	부문책임	이 창 현	기획·조정팀장	계획권 설정 기반시설
	연구원	김 보 국	환경·지역개발팀장	환경·공급시설
	연구원	양 지 인	환경·지역개발팀장	환경·공급시설
대우엔지니어링	부문책임	변 홍 수	토목사업부 상무	토지이용 공간구조
	연구원	오 춘 근	토목사업부 부장	교통시설
	연구원	이 순 주	토목사업부 과장	교통시설
	연구원	김 민 성	토목사업부 과장	관광·환경
	연구원	허 영 민	토목사업부 대리	관광·환경
	연구원	우 희 진	토목사업부 대리	토지이용 공간구조

2025년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기본구상도

도
례



제 목 차 례

I.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의 개요 및 의의	3
1. 계획수립의 개요	3
2.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1
3. 광역계획권의 설정	20
II. 일반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35
1. 일반현황	35
2. 지역주민 설문분석	50
3. 발전 잠재력 및 제약요인	61
III. 계획수립의 목표와 전략	67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67
2. 전주권의 계획목표와 추진전략	79
3. 계획지표의 설정	86
IV. 공간구조의 개편	97
1. 공간구조의 현황과 과제	97
2. 광역공간구조의 개편방향	104
3. 전주권 공간구조의 설정	109

V. 부문별 계획 115

1. 광역토지이용계획 115
2. 광역교통계획 139
3. 광역공급이용시설계획 164
4. 녹지·여가 및 문화·관광계획 184
5. 환경보전계획 198
6. 방재계획 210
7. 생활권계획 219

VI. 집행 및 관리계획 231

1. 투자사업의 선정 231
2. 투자사업계획 233
3. 집행·관리체계 239
4. 파급효과 분석 240

표 차례

<표 I-1> 광역도시계획의 성격과 형식	7
<표 I-2>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권개발계획의 비교	8
<표 I-3> 광역도시행정의 종류와 내용	16
<표 I-4> 전북지역 기초행정협의회의 구성현황(2005.12 현재)	16
<표 I-5> 행정협의회의 개최내역(2005년 현재)	17
<표 I-6> 분석지표 및 산출근거	21
<표 I-7> 전북도 시·군별 기능별 중심기능 지수	22
<표 I-8> 전주시로부터의 거리별 해당 시·군	23
<표 I-9>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분석결과	24
<표 I-10>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 분석결과	27
<표 I-11> 광역상수도 공급망 현황	27
<표 I-12> 광역소각시설 건설계획	28
<표 I-13> 설치중인 매립장 현황	28
<표 I-14> 광역소각시설 건설계획	28
<표 I-15>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 분석결과	29
<표 I-16> 측정지표 적용결과 종합	30
<표 I-17> 전주권 광역계획권의 대안	31
<표 I-18> 전주권 광역계획권 대안별 특성 비교	32
<표 II-1> 시군별 행정구역 면적	35
<표 II-2> 경·위도상 위치	36
<표 II-3> 해안선 및 도서현황	39
<표 II-4> 도내 하천현황	39
<표 II-5> 인구현황 및 인구밀도	41
<표 II-6> 인구변화추이 및 증감율	42
<표 II-7> 시·군별 순인구 이동	42
<표 II-8> 수도권 유입현황(2000)	43
<표 II-9> 전북 경제활동인구	43
<표 II-10> 전라북도 산업별 총생산액	44
<표 II-11> 사업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44
<표 II-12> 시·군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45
<표 II-13> 시·군별 산업 및 농공단지현황	47
<표 II-14> 생활환경지표 현황	48
<표 II-15> 가구 및 주택보급율	49

차례

<표II-16> 시·군별 주택유형	49
<표II-17> 통근분석	54
<표II-18> 통학분석	54
<표II-19> 업무·쇼핑분석	55
<표III-1> 상위계획의 기본목표와 전략	67
<표III-2> 시·군별 발전전략 및 시책	78
<표III-3> 상위계획 및 관련기관의 인구추정	87
<표III-4> 시·군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추정	87
<표III-5>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자연적 증가분	89
<표III-6>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사회적 증가분	90
<표III-7>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의 인구지표 및 인구배분	91
<표III-8>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의 주요생활지표 설정	93
<표IV-1> 택지개발사업 현황	99
<표IV-2> 도시성장과 공간구조의 변화	101
<표IV-3> 공간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105
<표IV-4> 유형별 대안설정	106
<표IV-5> 공간구조 개편유형별 평가	107
<표IV-6> 광역계획권의 성장관리 및 개발축 설정	109
<표IV-7> 전주권의 교통축 설정	111
<표IV-8> 전주권의 녹지축 설정	112
<표V-1>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115
<표V-2> 시·군별 토지이용현황	115
<표V-3> 시·군별 용도지역 현황	116
<표V-4> 5개시·군 도시계획현황	116
<표V-5> 기본계획상 시군별 토지이용계획	117
<표V-6> 주거용지 수요추정	123
<표V-7> 상업용지 수요추정	124
<표V-8> 공업용지 수요추정	124
<표V-9> 도시화용지 산정결과	125
<표V-10> 개발가능지 산정	126
<표V-11> 도시용지계획	128
<표V-12> 도시화예정용지계획	129
<표V-13> 보전용지계획	129
<표V-14> 기타용지계획	130
<표V-15> 토지이용계획표	130

<표 V-16> 기능별·지역별 산업육성전략	131
<표 V-17> 기능별 주요시설	135
<표 V-18> 현행 시·군별 용지지역 규제현황	136
<표 V-19> 현황 및 관리대상지역의 설정	137
<표 V-20> 권역내 주요간선망	139
<표 V-21> 대상지내 도로망 체계현황	139
<표 V-22> 철도시설 현황	141
<표 V-23> 시·군별 도로시설현황	142
<표 V-24> 차량보유현황	142
<표 V-25> 통근·통학권 분석	143
<표 V-26> 전북도내 시·군간 시외버스 1일 운행횟수(회)	144
<표 V-27> 군산항 물동량 증가율	145
<표 V-28> 외항 컨테이너 화물지역별 수송통계	145
<표 V-29> 군산항 시설현황 및 물동량 수요예측	146
<표 V-30> 군산공항 이용현황	147
<표 V-31> 광역교통체계의 문제점	148
<표 V-32> 외부순환 및 내부순환도로 건설계획	160
<표 V-33> 고속(화)도로 건설계획	160
<표 V-34> 국도 및 지방도로의 건설계획	161
<표 V-35> 철도망의 건설계획	161
<표 V-36> 공항 및 항만시설의 확충계획	162
<표 V-37> 물류 및 유통센터 건설계획	162
<표 V-38> 광역교통계획에 따른 실천계획 종합	163
<표 V-39> 상수도급수현황	164
<표 V-40> 광역계획권내 상수도 용량 분석	165
<표 V-41> 상수도 보급량 전망 및 용량 수급분석	165
<표 V-42> 하수처리현황	166
<표 V-43> 하수처리시설용량 전망	166
<표 V-44>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67
<표 V-45>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전망	168
<표 V-46> 전주 광역권 잔여매립량 추정	168
<표 V-47> 착공중인 소각시설 현황	169
<표 V-48> 체육시설 현황	169
<표 V-49> 전주권 광역 및 지방상수도 수급량 예측	172
<표 V-50> 유형별 적정입지 기준	176
<표 V-51> 광역상수도 확충계획	181
<표 V-52> 하수처리시설계획	181
<표 V-53> 마을하수도계획	182

<표V-54> 하수처리시설추가계획	182
<표V-55> 광역쓰레기매립장 확충계획	183
<표V-56> 광역소각시설계획	183
<표V-57> 전주권 광역계획권 공원현황	184
<표V-58> 녹지현황	185
<표V-59> 관광자원 분포현황	186
<표V-60> 지역별 관광자원 이용현황	187
<표V-61> 4대관광권 및 권역별 관광기능	190
<표V-62>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	192
<표V-63> 목표연도 1인당 필요 공원면적 추정	197
<표V-64>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실천사업	209
<표V-65> 최근 5년간 풍수해 현황	210
<표V-66>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	212
<표V-67> 생활권의 설정	220
<표V-68> 전주생활권 정비방향	222
<표V-69> 완주생활권 정비방향	224
<표V-70> 군산생활권 정비방향	225
<표V-71> 김제생활권 정비방향	226
<표V-72> 익산생활권 정비방향	228
<표VI-1> 투자내역-도로계획	233
<표VI-2> 투자내역-철도계획	234
<표VI-3> 투자내역-공항 및 항만시설계획	234
<표VI-4> 투자내역-하수처리시설계획	235
<표VI-5> 투자내역-마을하수처리시설계획	235
<표VI-6> 투자내역-광역소각시설계획	236
<표VI-7> 투자내역-물류시설계획	236
<표VI-8> 투자내역-기타사업	236
<표VI-9> 시설별 투자총액	237
<표VI-10> 주체별 투자내역	237
<표VI-11> 단계별 투자내역	238
<표VI-12> 교통시설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	242
<표VI-13> 교토시설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	242
<표VI-14> 광역공급시설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	243
<표VI-15> 광역공급시설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효과	243
<표VI-16> 신규 총사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44
<표VI-17> 신규 총사업의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효과	244

그 립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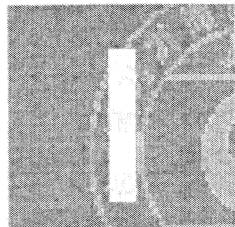
<그림 I-1> 5개시·군의 행정구역	5
<그림 I-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9
<그림 I-3> 연구수행체계 및 흐름도	10
<그림 I-4> 전북도내 지역별 지역중심기능 지수	22
<그림 I-5> 중심도시로부터의 거리	23
<그림 I-6> 전주로의 통근자비율과 전주로부터의 통근자비율	24
<그림 I-7> 전업농가비율	25
<그림 I-8> 인구밀도	26
<그림 I-9>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26
<그림 II-1> 위치도	36
<그림 II-2> 동북아의 위치	36
<그림 II-3> 개방형국토	37
<그림 II-4>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37
<그림 II-5> 전북의 지형·지세	38
<그림 II-6> 전주권의 지형·지세	38
<그림 II-7> 표고분석(전라북도)	38
<그림 II-8> 표고분석(전주권)	38
<그림 II-9> 전북지역의 수계	40
<그림 II-10> 전주권의 하천 및 유역	40
<그림 II-11> 기상현황	40
<그림 II-12> 전라북도 인구분포	41
<그림 II-13> 수도권 유입현황(2000)	43
<그림 II-14> 산업단지 현황도	46
<그림 II-15> 목표와 전략	50
<그림 II-16> 자연환경보전축면에서의 개발억제지역	51
<그림 II-17> 자연환경보전축면에서의 개발억제지역(지역별)	51
<그림 II-18>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의견	52
<그림 II-19>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의견(지역별)	52
<그림 II-20> 광역교통 중점사업	53
<그림 II-21> 광역교통사업(지역별)	53

<그림 II-22> 도시경관의 문제점	56
<그림 II-23> 녹지체계 구성요소	56
<그림 II-24> 광역시설의 배치	57
<그림 II-25> 혐오시설에 대한 의견	58
<그림 II-26> 지역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59
<그림 II-27> 지역내 방재상 취약점	60
<그림 II-28> 도시재해의 대책	60
<그림 II-29> 전주권의 SWOT 분석	64
<그림 III-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70
<그림 III-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전북)	70
<그림 III-3> 전주·군장광역권 추가권역 개발사업	71
<그림 III-4>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74
<그림 III-5> 전주권의 미래상	80
<그림 III-6> 미래상 및 기본목표와 부문별 실천전략과의 관계	85
<그림 III-7> 전북 연령별 인구구조(1995)	88
<그림 III-8> 전북 연령별 인구구조(2005)	88
<그림 III-9> 전주권 연령별 인구구조(1995)	88
<그림 III-10> 전주권 연령별 인구구조(2005)	88
<그림 IV-1> 전주권의 공간구조	98
<그림 IV-2> 군산시의 공간구조구상	102
<그림 IV-3> 전주시의 공간구조구상	102
<그림 IV-4> 익산시의 공간구조구상	102
<그림 IV-5> 김제시의 공간구조 구상	102
<그림 IV-6> 완주군의 공간구조	103
<그림 IV-7> 환대상형 공간구조의 특징	108
<그림 V-1>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117
<그림 V-2> 주변지역과의 관계	119
<그림 V-3> 도시간 상호보완적 기능분담체계 구축	120
<그림 V-4> 산업연계벨트 및 거점별 혁신클러스터 형성	121
<그림 V-5> 성장관리권역 기능배분과 광역복합지구	122
<그림 V-6> 경지정리지역	125
<그림 V-7> 농업진흥지역	125

<그림 V-8> 생태자연도	125
<그림 V-9> 보전산지	125
<그림 V-10> 상수원보호지역	126
<그림 V-11> 화귀성 분포	126
<그림 V-12> 도로시가화지역	126
<그림 V-13> 국토환경성평가	126
<그림 V-14> 개발가능지와 개발불가능지	127
<그림 V-15> 경사분석	127
<그림 V-16> 표고분석	128
<그림 V-17> 광역토지이용계획(안)	130
<그림 V-18> 전주권 산업연계벨트와 혁신클러스터 형성도	132
<그림 V-19> 지역혁신클러스터 연계체계	133
<그림 V-20> 모악산도립공원 위치도	136
<그림 V-21> 모악산도립공원 지형도	136
<그림 V-22> 지역교통체계	140
<그림 V-23> 철도시설현황	141
<그림 V-24> 통근·통학권	143
<그림 V-25> 군산항 전경	145
<그림 V-26> 한반도 개방거점 및 인프라 개발구상	149
<그림 V-27> 상위 및 주요현안 교통구상도	153
<그림 V-28> 광역순환체계의 구축	155
<그림 V-29> 고속도로망의 구축	156
<그림 V-30> 철도망의 구축	157
<그림 V-31> 광역교통시설구상	158
<그림 V-32> 광역교통계획(안)	159
<그림 V-33> 통합급수 모식도	171
<그림 V-34> 전주권 녹지분포 현황	185
<그림 V-35> 녹지체계구상도	189
<그림 V-36> 광역녹지여가공간계획	189
<그림 V-37> 권역별 관광개발구상	191
<그림 V-38> 생태통로의 구축	192
<그림 V-39> 광역여가활동구상	193
<그림 V-40> 만경강 생태가꾸기사업	194
<그림 V-41> 자연형하천조성	195
<그림 V-42> 주요관광루트	195

차 례

<그림 V-43>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현황	210
<그림 V-44> 시·군별 풍수해 피해현황	211
<그림 V-45> 재해위험지구 현황	212
<그림 V-46> 재해/재난별 관리체계	213
<그림 V-47> 자율방재능력 배양	218
<그림 VI-1> 사업선정 원칙	232
<그림 VI-2> 광역도시계획위원회	240
<그림 VI-3> 산업연관표 기본구조	241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및 의의

1. 계획수립의 개요
2.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3. 광역계획권의 설정

I.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의 개요 및 의의

1. 계획수립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1) 배 경

○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국토공간의 구조변화

- 참여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중에 있어 국토공간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됨

○ 교통,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광역적 정주체계 형성

- 지역간 교통망 확충, 정보통신의 발달, 자동차 보급·확대에 따라 시·군 단위에서도 일상 생활의 공간적 범위가 광역화됨에 따라 광역행정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

○ 자치단체들간 경합·상충·갈등의 증대

- 지자체들간의 경쟁적 신산업의 유치, 생활관련 기반시설의 중복투자 등 유사사업의 비효율적인 중복투자의 문제가 증대되고 있으며, 계획의 수립·집행·운영과정에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적 역할이 요구됨

○ 지역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요구

- 광역적 차원의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의 구축, 합리적 광역시설의 배치를 통한 도시의 적절한 성장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간 협력적 지역발전의 요구 증대

(2) 목 적

○ 전주권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 광역적 차원에서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 및 성장관리 등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

각 시·군 도시계획에 의한 집행상황 분석과 수정 체계를 검토하여 광역도시계획의 미래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

○ 지역의 통합성 증진을 통한 적절한 성장관리 도모

- 지역도시의 특성과 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상충되는 기능의 상호보완을 통하여 지역 전체의 성장관리를 도모
- 권역내의 지역간 연계성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광역시설에 대한 공동투자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 시가지 확산에 따른 환경훼손 및 무질서한 확산 방지

- 권역내 도시의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과 연담화를 제어하여 무질서한 확산 방지로 도시환경 개선
- 시가지의 광역화에 따른 환경오염 및 훼손 등 환경관리에 있어서의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보전 및 관리체제 수립

○ 광역시설의 적정배치 및 중복투자 방지

-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조를 통하여 광역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
- 전주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광역시설의 수요를 광역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 배치 및 공동 이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권역내 도시간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

2) 계획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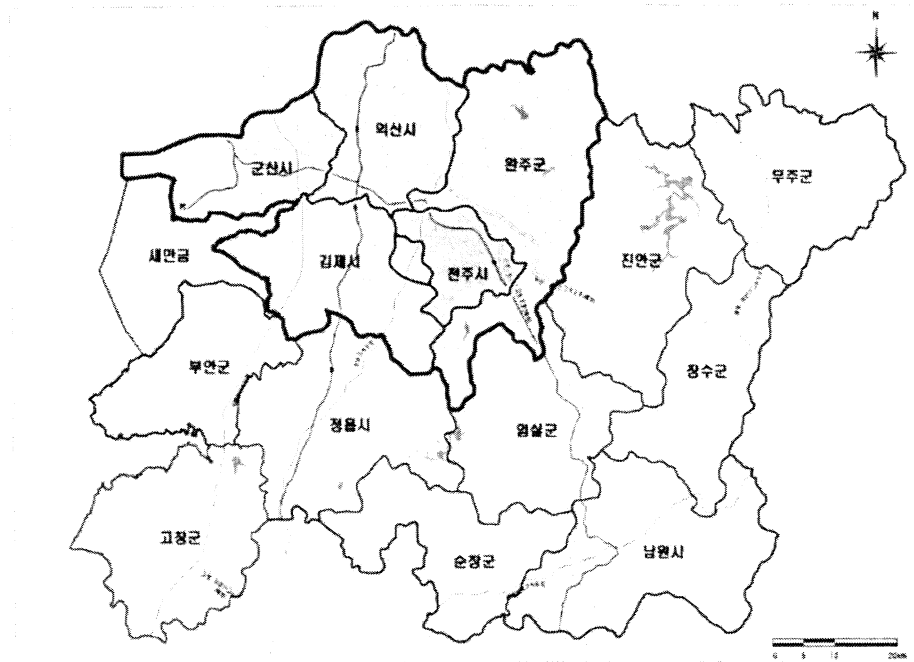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05년

○ 목표연도 : 2025년

(2)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 5개 시·군(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행정구역으로 설정함 (행정구역 육지부 면적 : 2,457.4km²)



<그림 1-1> 5개시·군의 행정구역

(3) 내용적 범위

○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와 광역도시권 세력의 검토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발전계획 등 상위계획과 전주·군장광역권개발, 새만금개발사업 등의 국토공간계획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목표와 전략을 수립
- 목표연도의 인구, 경제, 생활, 생산활동, 녹지·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지표전망과 공간형태 및 세력권 변화 등의 분석

○ 전주 광역도시권의 현황 및 특성분석

- 자연적 여건 및 인문·사회적 여건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경제적, 환경적 여건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광역도시권내 도시의 위계 등 광역도시권 현황을 제시

○ 전주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 구상

- 현재의 주요 개발축·교통축·녹지축과 도시성장 형태를 분석하여 공간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 공간구조에 따른 인구 및 기능배치상의 문제점을 진단
- 광역도시권의 장기적인 목표와 성장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2개 이상의 대안을 설정·평가

○ 부문별 개발구상 및 전략

- 각 도시별 특성에 따른 지역별 기능분담계획, 개발축, 교통축, 녹지축을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 문화·여가 공간 및 녹지체계 구축
-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의 방향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공급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광역계획권내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시설에 대한 계획 수립

○ 지역생활권별 정비방향

- 통근권과 인구밀도, 인구이동 및 거주인구의 특성을 고려 생활권별 정비과제 및 방향 제시
- 생활권별로 부문별 계획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방향을 제시

○ 집행 및 관리계획

- 계획의 단계별, 행·재정, 집행 및 관리계획을 수립

3) 계획의 성격과 지위

(1) 계획의 성격

○ 계획범위별

- 광역계획 : 공간적으로 “인접한 2이상의 도시와 주변지역을 대상범위로 수립”되므로 광역계획이라 할 수 있음
- 장기계획 : 시간적으로는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장기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 계획내용별

- 전략계획 : 본 계획은 광역계획권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하므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이용·개발·보전에 대한 전략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 정책계획 : 광역계획권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향을 체계화하는 정책계획(policy plan)이라고 할 수 있음

○ 계획운용변

- 지침계획 : 계획운용과 관련하여서는 광역계획권내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계획이라 할 수 있음. 즉, 광역도시계획은 하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기본틀(framework)을 제공하는 지침계획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협력계획 : “인접한 2이상의 도시와 주변지역을 대상범위로 수립”되므로 행정구역단위를 초월한 광역적 문제의 해결이나 공동의 지역목표 달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계획의 이해당사자(stakeholder)가 직접 참여·수립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협력계획(collaborative planning)이라 할 수 있음

<표 1-1> 광역도시계획의 성격과 형식

구분	계획의 성격		계획의 형식
계획 범위	광역계획	2개시·군이상	광역계획권 설정의 합리성 제시
	장기계획	20년 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방안 제시
계획 내용	전략계획	핵심과제 발굴	주요 이슈별 목표설정 및 해결책 제시
	정책계획	목표-수단의 설정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사항 제시
계획 운용	지침계획	기본틀 제공	하위계획수립에 대한 지침제시
	협력계획	협의 및 조정	수립기구 및 절차의 합리성 제시

자료 : 「국토연구원(1999), 광역도시계획 수립방안연구, p.35」, 일부수정

(2) 계획의 지위

○ 계획의 정의 및 지위

-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계획으로서 광역차원에서 접근하는 도시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볼 때 「도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2이상 기초지자체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계획범위로 하여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2이상의 기초지자체의 행정구역을 통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라 하더라도 경제개발 등과 관련된 계획은 도시계획과 구분하여 지역계획(regional planning)으로 분류하고, 광역도시계획은 경제개발 등도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주로 물적계획을 중심으로한 광역시설계획과 이의 실현을 위한 전략계획으로 한정함이 바람직함
- Peter Hall(1975:75)¹⁾도 경제개발과 관련된 광역적 차원의 계획을 국가적 광역계획(national regional planning)이라고 하여, 주로 물적계획과 관련된 보다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regional local planning)과 구분하고 있음

1) Peter Hall(1975:82), Urban and Regional Planning, Harmondsworth : Penguin Books Ltd. 1975 / 김용웅(1999:295), 「지역개발론」, 법문사

○ 광역권개발계획과의 관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는 광역개발권을 지정(제4조)하고 광역개발계획을 수립(제5조)하도록 하고 있음

-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고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목적은 동법 제1조(목적)에 규정하듯이 “인구의 지방정착유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이며, 이를 위해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임
- 이와 같이 광역개발계획은 국가적 차원의 균형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7조에서 광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로만 되어 있어 엄격히 말하자면 광역개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보기도 곤란함

<표 1-2>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권개발계획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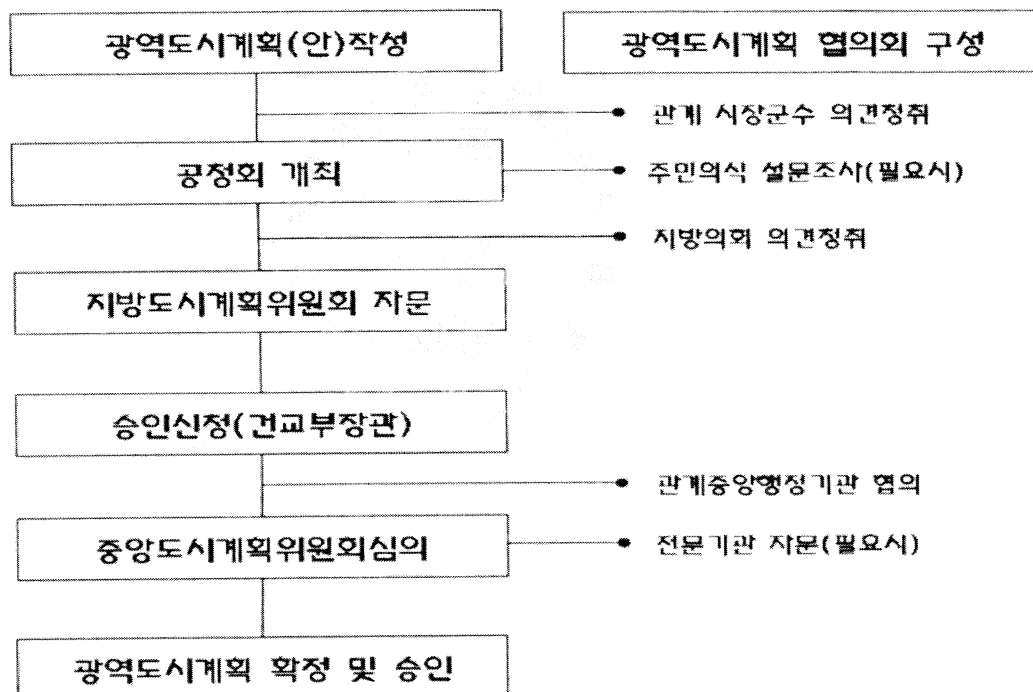
구분	광역도시계획	광역개발(사업)계획
계획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도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 국토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집중개발하거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광역적 지역계획
성격	광역적 도시계획	국가적 지역계획
근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역균형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수립권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
수립주기	20년 내외(지침)	국토종합계획 주기를 감안·결정
권역명	광역계획권	광역개발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선지 -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주거단지, 위락 등 토지이용 - 공공시설배치 - 문화·관광자원 개발 - 환경보전

자료 : 법제처(2005) 자료 재구성

4) 수립절차 및 연구수행체계

(1) 계획의 수립절차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는 광역도시계획(안)이 작성되면 광역도시계획협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건교부장관의 승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승인 됨
- 광역계획권 지정은 수립 이전에 지정하거나 혹은 광역도시계획 수립내용에 포함하여 승인 받을 수 있음



<그림 1-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2) 연구수행체계

○ 문헌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한 관련 자료 수집

- 전주광역권의 사회·문화·경제·환경적 여건 등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각종 통계 및 문헌자료, 관련법제,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며, 또한 외국의 광역도시계획의 사례를 조사 정리함

○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협의회, 외부전문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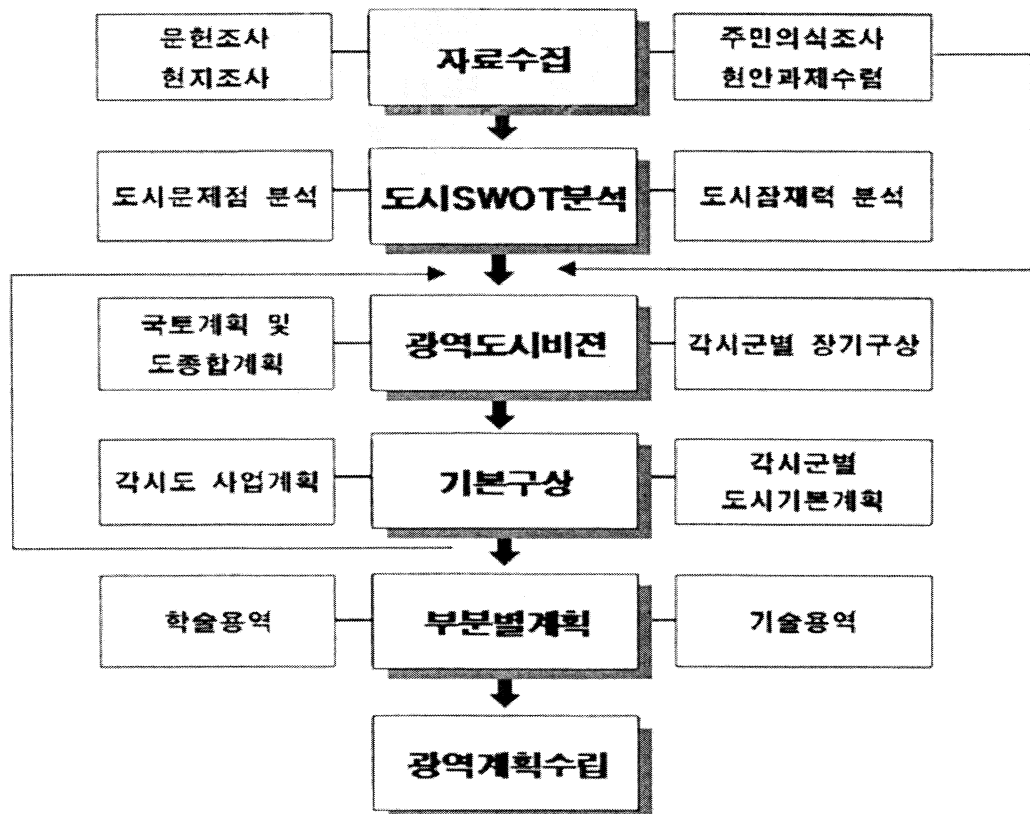
전주광역권의 권역 지정 및 장기발전구상을 위해 지역 주민 및 유관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 보고회 등 운영

- 과업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 및 협의회를 각 의견수렴내용과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구성, 운영함으로써 의견수렴기구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함

○ 연구의 전문성 확보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 및 협력연구

- 학술부문 : 연구의 전문성 확보와 연구 성과물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협력연구 수행방안을 마련함
- 기술부문 :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을 수행하면서 기초조사 및 인허가부분, 환경의 보전과 관리 등 기술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 기술관련 위탁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그림 1-3> 연구수행체계 및 흐름도

2.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 도시광역화와 광역도시 행정

(1) 광역도시행정의 필요성

- 생활권·경제권의 공유에 따른 도시광역화의 진행은 지역간에 교통, 통신, 상·하수도, 교육, 소방, 지역개발 등 지역간 협력²⁾을 요청하게 되며, 이는 광역도시행정으로써 대응하게 됨.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광역도시행정이 요구³⁾됨

○ 한정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편익 증진

- 각 도시의 지리적, 입지적,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력·재정 등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서비스를 독자적으로는 전부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지역의 자원을 공동으로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서비스 공급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

○ 부정적 외부효과의 내재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 개별 도시활동에서 비롯되는 도시간 상충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재화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타도시에 전가시키지 않으면서 관련시·군에 공유 및 분담시킬 수 있음

○ 지역격차 완화 및 균등한 기회 제공

- 광역도시권내에는 인구규모, 서비스의 질, 소득 등이 다양할 뿐 아니라 재정상의 격차로 인해 기반시설 공급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 광역계획권 관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함

2) 수질문제와 같은 환경문제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하여 해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계와 관련된 지역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임. 이와 같이 하나의 사안에 관하여 관련되는 지역이여러 곳일 경우 모든 지역이 공동으로 협력해야만 문제해결할 수 있음

3) 국토연구원(1999), 광역도시계획 수립방안연구, p.13, 내용에서 발췌함

I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의 개요 및 의의

○ 협조 및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

- 시·군단위의 행정구조는 광역적인 도시문제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광역도시행정에 대한 지역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집행 및 관리의 효과성 증대

- 교통, 상하수도, 환경 등 광역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들을 공간적으로 적절하게 배치하고 사업입지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등의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 광역도시행정은 보다 효과적인 집행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함

(2) 광역도시행정의 필요사례

○ 광역시설의 집행 및 운영의 비효율성과 갈등문제

- 상하수도시설의 과잉 및 중복투자

도내 자치단체의 상수도시설 가동률이 50.3%에 그치는 등 상수도에 대한 과잉 투자와 중복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익산, 완주 등 대부분 지역의 장래 상수도 수요예측도 일선 시군과 환경부, 건교부가 서로 다르게 산출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상수도 시설투자의 비효율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 상수도 시설용량(지방상수도+광역상수도)은 하루 128만1820톤이지만 실제 생산량은 64만4368톤으로 가동률이 50.3%에 그친다. (중간생략) 이처럼 각 시군마다 상수도 시설이 넘치는 것은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의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협의의 시스템이 없어 각 시군이 지방상수도 개발계획이 있고 시설용량이 여유가 있더라도 지방비가 투입되지 않는 광역상수도 개발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성원기자, 2006.01.25>

- 광역폐기물처리장 분담금 문제

전주시가 김제시와 완주군이 전주권광역폐기물처리장 분담금을 일부 확보함에 따라 이들 시군의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반입키로 했다.(중간생략) 이에 따라 전주시는 쓰레기 반입금지라는 강경조치를 철회하고, 이들 시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전주권광역처리장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 시군은 광역폐기물처리장비용 총 1273억원 중 전주시가 84%인 530억원, 김제시가 9%인 56억원, 완주군이 7%인 44억원을 분담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미납금 전액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이들 시군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줬기 때문에 쓰레기는 정상적으로 반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대식기자 : 2005.12.25>

○ 난개발에 따른 지역 환경자원의 훼손

- 각종개발사업과 불법 형질변경

도내 산림면적이 각종 개발사업과 불법 형질변경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5년동안 타용도로 전용된 산림면적은 2723ha로, 연평균 544ha가 감소했다. (중간생략) 이전까지 평균 6%대에 머물던 택지조성의 비율도 지난해 13%(62ha)로 급증하는 등 개발논리에 밀린 형질변경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규정을 악용한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와 함께 불법 형질변경이나 무허가 벌채 등으로 훼손된 산림은 2004년 95ha에 이어 지난해에는 70ha에 달했다. <김준호기자 : 2006.01.18>

- 그린벨트 해제후 난개발 문제

전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지역이 해제이후 농지 불법전용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월 그린벨트구역이 해제된 이후 해당구역에서 2년여 동안 농지전용 위반사례가 총 15건(3만2802㎡)이나 발생했다. (중간생략) 특히 농지전용 위반사례가 불법성토나 물건적치에서 각종 시설물설치까지 다양하게 벌어지면서 해당구역을 급속히 훼손하는 상태다. 호성동일대에서는 골재채취기나 선별기 등 시설물을 설치했다 적발됐으며 월드컵 경기장주변인 여의동일대에서도 스탬배관 등 공작물을 불법 설치했다 적발됐다. 또 장동이나 반월동 등 나머지지역에서는 각종 시설물을 신축하기 위해 불법전용한 것으로 드러나 기존 그린벨트를 크게 훼손할 전망이다. (중간생략) 실제로 최상의 자연환경을 보유했던 호성동일대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그린벨트구역을 크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난개발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구대식기자 : 2005.11.28>

○ 생활권·경제권 확대에 따른 생활교통의 불편 증대

- 통과교통과 내부교통의 혼재에 따른 생활불편

전주 동산동 우석여고~북전주농협에 이르는 700여m 구간과 동부우회도로 동산역~우석여고 입구 삼거리까지 290여m 구간에서 5년째 살고 있는 조모씨(41·전주시 동산동 대승아파트)의 교통정체를 피하는 요령이다. 출근시간 편도 1차선이 주도로인 이곳에 교통전쟁이 시작된다. 우석여고로 향하는 8대의 스쿨버스 행렬과 인근 아파트와 주택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량들, 전주인터체인지를 빠져 나와 이곳으로 향하는 차량들로 아수라장이 벌어진다. (중간생략) 게다가 동부우회도로와 녹두길(옛 팔달로) 간 1.1km를 잇는 도로개설 계획이 27년전 수립돼 있지만 도로확장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주민들의 불편이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전주 덕진구청은 동산역과 우석여고를 잇는 250m 구간도로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임상훈기자 : 2006.01.19>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따른 과제

전주시의 경전철사업이 기획예산처의 교통수요 예측조사요구로 또다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민자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 검토 의뢰중인 전주경전철사업에 대해 교통수요예측 재검증(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기획예산처는 경전철사업의 수요 분석을 잘못 예측할 경우 향후 손실보전금부담을 우려, 이 같이 재실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전주시의 경전철사업은 향후 교통수요예측에 대한 재검증절차를 거친뒤에야 민간사업지정 등 각종절차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중간생략) 시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타당성조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만큼 별다른 문제없이 시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시는 지난 99년 타당성 조사와 2000년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2002년 기본계획, 2005년 기본설계 등 4차례에 걸쳐 경전철타당성조사를 실시했었다. <구대식기자 : 2006.01.23>

○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적 대응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협력

'오는 9월까지 혁신도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준비한 뒤 2007년에는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토지보상 및 공사를 시작한다' 전북도는 2일 농촌진흥청과 토지공사, 전북발전연구원, 전북개발공사, 전주시, 완주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혁신도시추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어 '명품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세부추진 일정을 확정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추진기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올 상반기까지 최적의 혁신여건과 정주여건을 갖춘 살고 싶은 혁신도시 건설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9월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 광역교통계획 및 혁신도시 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혁신도시 구역을 지정키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혁신도시 개발방향과 공간배치 등을 위한 개발계획안을 준비하여 2007년에는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한 뒤 토지, 물건 등에 대한 보상에 착수하고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2007년 12월에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간생략) △혁신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및 연계사업 구상에 적극 협력하여 혁신체계가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한다 △혁신도시 성과공유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등 6개항의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곧바로 건교부에 혁신도시 개발착수 보고서를 제출하고 개발구역 안의 인구 토지 지장물 주변 교통현황 등 기초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성원기자 : 2006.02.02>

－ 혁신도시의 건설에 따른 토지이용 및 주변지역 관리

2일 열린 추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언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다음 회의때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생태(eco)도시 건설=정경춘 완주부군수는 획일적인 도시개발은 삭막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현재의 지형을 그대로 살리는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요하다면 금천저수지 등을 포함시키고 권역을 폭넓게 그려야 한다는 것. 전북도와 토지공사는 “에코도시와 U도시(유비쿼터스)는 기본”이라며 원칙적인 찬성의견을 밝혔다. △연담도시화=완주군은 혁신도시 예정지 중앙에 호남고속도로와 전주남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고압선 등이 있어 개발때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핵심지역은 외곽으로 넓히고 전주권 황방산 쪽은 완충지역으로 남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생략) <이성원기자 : 2006.02.02>

(3) 전주권의 광역도시행정체제⁴⁾

- －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에 걸치는 문제에 대하여 이른바 광역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법상 사무의 위탁, 행정협의회⁵⁾,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이 있음

- ① 사무의 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협력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위탁의 의미가 강함
- ②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사무에 대한 연락 및 조정을 도모하고, 광역적인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협의된 사항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다소 약함
-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자치단체의 사무 중의 한 개 또는 수 개를 공동 처리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합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여 설치하는 법인격을 가진 공공단체이며, 이는 조합의 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에 독자성 및 자유로운 의사발언 및 평등성을 보장해 주고 있음. 이러한 조합구성에 의한 협력방식은 프랑스와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4) 기초지자체의 배타적 독립성을 전제로 도시행정을 해 온 미국에서는 몇가지 유형의 광역도시행정체제를 운용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협력체제방법(cooperative approach), 단일기구방법(one-government approach), 이원적체제방법(two-level approach)의 3가지 유형¹⁾임

5)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의 연락·조정·광역종합계획 기타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기관을 말한다. 행정협의회에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합의된 결정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어 집행된다. 행정협의회에는 관리·집행위원회·연락조정협의회, 계획협의회 등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I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의 개요 및 의의

<표 1-3> 광역도시행정의 종류와 내용

구분	사무의 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구성 동기	시설·서비스에 대한 공동대응	관련사무에 대한 협의	회원자치단체간 합의
성격	협약 (공법상의 계약)	법인격 없음 (협의기구)	법인격 보유
사무 범위	특정서비스	제한없음	특정서비스
재원 조달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운영활성화 방안, 행정연구원(2003)

- 전북지역의 경우,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사무의 위탁 또는 지자체조합에 의한 업무협약⁶⁾은 없으며, 다만 5개의 기초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음. 현재까지 전주권 및 군산·서천권 행정협의회가 총 3회 19건이 이루어졌음

<표 1-4> 전북지역 기초행정협의회 구성현황(2005.12 현재)

지역	권역	참여자단체	구성년도
전북	전주권	전주시,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95.5.8
	군산권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96.5.15
	무진장권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97.1.15
	남원권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97.4.15
	군산·서천권	군산시, 서천군(충남)	97.8.1

자료1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운영활성화 방안, 행정연구원(2003)

자료2 : 전라북도 행정자치과(2005)

- 전주권 행정협의회⁶⁾의 경우, 주로 비선호시설에 대한 운영 및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다양한 광역적 업무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합의된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과, 부담금에 대한 지역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6) 전라북도 정보공개청구결과, 2005.12월 현재, 사무의 위탁, 지자체조합에 따른 업무협약은 없는 것으로 통보. (전북도청 자치행정과 이민숙 063-280-4225)

<표 1-5> 행정협의회 개최내역(2005년 현재)

구분	안전제목 및 주요내용	결과
전주권 행정협의회 (02.1.24) (5건)	광역폐기물관련 주민설명회(비선회시설)	합의
	재활용사업 운영사항(비선회시설)	합의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비선회시설)	합의
	관련지자체 예산부담협의회(재정,과세관리)	합의
	시설 및 운용분담금 부담(재정과세관리)	합의
군산·서천권 행정협의회 (03.1.15) (10건)	양시군 민간교류협의회 구성	합의
	금강건강달리기대회 공동개최	합의
	금강하구 철새서식환경 조성	합의
	악성가축전염병의 공동대처	합의
	장묘문화정착 상호협력	합의
	법정 전염병관리 정보교환	합의
	금강하구언쓰레기 공동대처	합의
	군·장광역권개발계획수립 협력체계 구축	합의
	금강하구둑 해변까지 항계 확장	합의
	국도 77호선 군장대교 가설	합의
군산·서천권 행정협의회 (03.11.5) (4건)	국도4호선 도로개설	합의
	꽃게잡어기 규정개정	합의
	국가균형발전계획수립 협력체계구축	합의
	개발사업의 중복투자 방지협력	합의

자료1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운영활성화 방안, 행정연구원(2003)

자료2 : 전라북도 행정자치과(2005)

- 이러한 광역적인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은 각종 협의체 구성을 통한 방법 이외에도 공간 계획상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는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광역적 계획(7)을 수립함으로써 광역적 도시문제에 대한 보다 종합적·지침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7)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교통계획, 광역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등이 이에 해당함.

2) 계획수립의 기대효과와 과제

(1) 기대효과

○ 광역적인 도시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 광역적인 도시문제에 대하여 단위도시계획구역 차원에서만 운용되는 도시계획적 대응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지역적 차원에서의 도시계획 및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
- 본 권역에는 혁신도시, 새만금사업, 호남고속철도, 김제공항 등 다양한 국책사업 및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에 있어 이에 따른 광역적 차원의 관리수단 제공

○ 광역시설의 배치 및 집행·관리의 효율성 증대

-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 건설·관리 및 운용방안, 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방안 등 계획수립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간의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광역시설의 배치 및 집행·관리의 효율성 증대

○ 지역정책의 체계화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 지역의 정책 및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광역계획권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향을 체계화함으로써 장기적 발전에 기여
- 공간구조 개편 및 성장관리 계획 등 계획권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체계적으로 제시
- 또한 각 시·군 도시계획에 의한 집행상황 분석과 수정 체계를 검토하여 광역도시계획의 미래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

○ 광역적 차원의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지침적 역할

-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체계상 중간적 성격, 즉, 상위계획으로써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발전계획, 하위계획으로써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군간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과 기준을 제공
- 또한,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를 위한 지속가능개발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가치를 더욱 증진시킴

(2) 실효성 담보⁸⁾를 위한 과제

○ 인력과 예산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계획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항상 실천의 문제임. 지금까지 수많은 계획이 그 실천수단이 부재하여 도상계획(paper plan)으로 머물렀음.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인력과 예산 그리고 협력관계가 확보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절차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의 보장

- 계획적 차원의 지침과 전략계획뿐만 아니라 행정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의무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 아닌 절차적 강제수단이 보장될 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음

○ 합의형성으로서의 갈등조정과정 반영

- 광역도시계획제도는 전반적으로 짧은 수립기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이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힘의 논리 혹은 정치논리에 의해 해결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합의형성으로서의 충분한 시간과 토론을 통한 갈등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8) 광역도시계획과 관리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국토연구원(2000) 10p. 참조

I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의 개요 및 의의

3. 광역계획권의 설정

□ 기본방향

- 광역계획권의 설정은 시·군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심도시로부터 반경거리를 이용하여 분석대상 시·군을 설정하며, 인구·교통량·생활권 등 기초자료조사 및 영향권 분석을 실시하여 광역계획권의 복수대안을 제시함
- 대안별 광역계획권으로서의 장·단점을 평가하여 최적대안을 결정함

□ 설정기준 및 분석

- 중심성기능지수 및 반경거리를 이용하여 중심도시 및 분석대상지역을 설정하며, 설정된 지역의 1)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2)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 3) 지역의 특수성 기준을 통하여 시·군 단위 분석을 실시함

□ 대안의 평가 및 선정

- 설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우선적인 대안(1)로써 제시하며, 일부항목에 관련된 시군을 포함하여 대안(2)를 제시함
- 대안별 장·단점 평가와 읍·면·동 단위의 보조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안을 도출함

1) 설정기준 및 분석지표

(1) 광역계획권의 설정기준

○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 광역계획권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판단하게 됨. 따라서 중심도시와의 기능적 연계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심도시로의 통근비율과 중심도시로의 통근과 중심도시로부터의 통근비율의 합을 이용하여 연계성을 검토하는 기준임

○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

-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은 단순히 중심도시와 연계된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도시와의 연계성과 같이 고려하여 광역계획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기준임

○ 지역의 특수성 기준

- 광역계획권 내의 지형·지세와 같은 자연환경, 지역고유의 인문환경, 광역행정 및 관련계획 등의 지역특수성을 기준으로 광역계획권을 설정

(2) 분석지표의 산출근거

<표 1-6> 분석지표 및 산출근거

구분	분석지표	산출근거
(1) 중심도시와 의 연계성	• 중심도시로의 통근비율	• $(\text{단위지역으로부터 중심도시로의 통근} \cdot \text{통학자수} / \text{단위지역의 통근} \cdot \text{통학수}) \times 100(\%)$
	• 중심도시로의 통근자 비율과 중심도시로부터의 통근자 비 율의 합	• $\{(\text{단위지역으로부터 중심도시로의 통근} \cdot \text{통학자수} / \text{단위지역의 통근} \cdot \text{통학수}) \times 100(\%)\} + \{(\text{중심도시로부터 단위지역으로의 통근} \cdot \text{통학자수}) \times 100(\%)\}$
(2)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	• 전업농가비율	• $(\text{전업농가수} / \text{단위지역 총가구수}) \times 100(\%)$
	• 인구밀도	• $\text{단위지역의 인구수} / \text{전체행정구역면적}$
	•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 $\text{도시적용지} / \text{전체행정구역면적}$
(3) 지역의 특수성 기준	• 광역시설이용권	• 광역 시설(광역공급처리시설 등)의 공동이용 권역
	• 자치단체간 협치	• 기초행정협의회의의 구성과 협치

(3) 분석대상지역의 설정

○ 중심도시의 설정

- 전북도내 시·군 단위별로 입지해 있는 주요시설을 이용하여 지역별 중심기능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의 중심기능지수가 260.2로 전체적으로 가장 우위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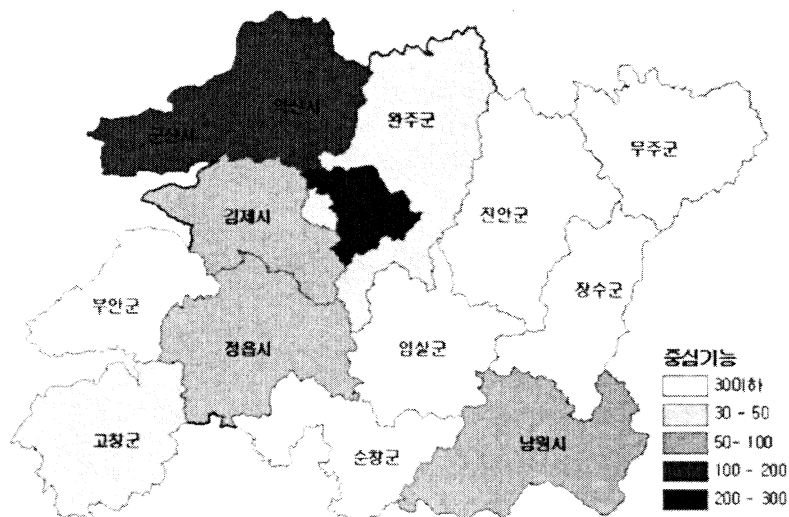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의 개요 및 의의

전주시의 중심기능은 상업기능, 금융기능, 의료서비스기능, 공원기능에 있어서 군산·익산 등 타 도시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능, 정보통신기능, 문화체육기능, 교육기능에 있어서는 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주시를 중심도시로 설정하여 분석대상지역을 설정하며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도시적 특성 등을 분석함

<표 1-7> 전북도 시·군별 기능별 중심기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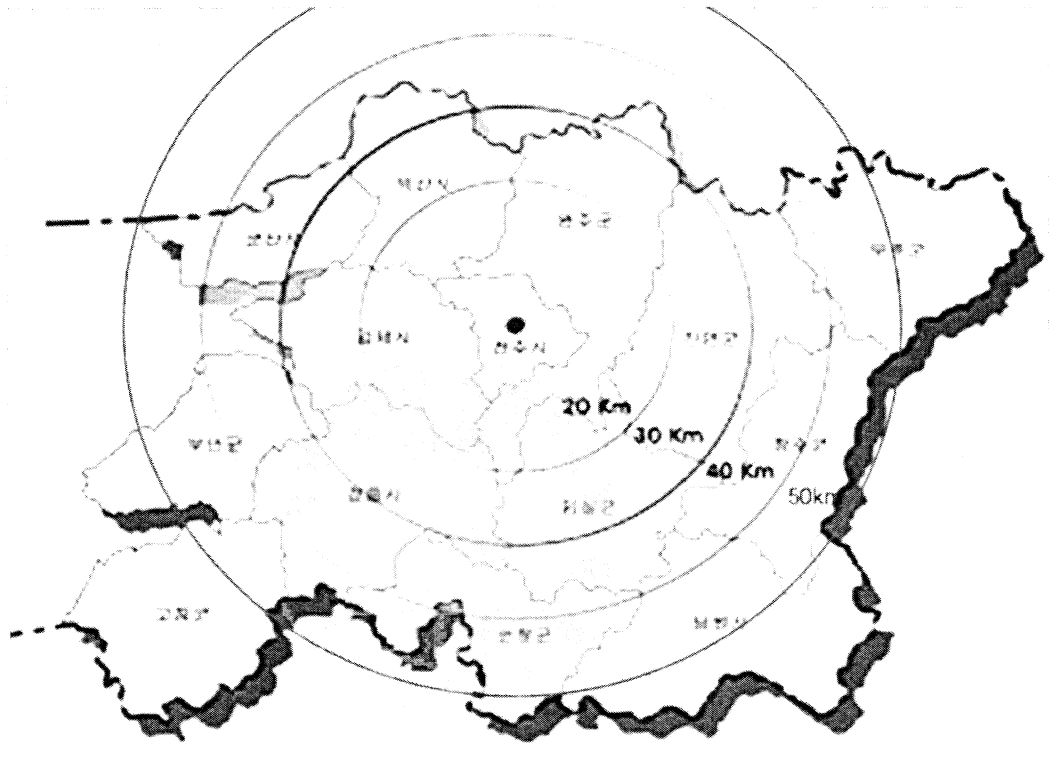
구분	공공 기능	상업 기능	금융 기능	의료 서비스 기능	정보 통신 기능	교육 기능	문화 체육 기능	복지 기능	공원 기능	계
평 균										
시	10.8	15.8	14.2	13.7	9.7	14.6	10.1	13.3	14.1	116.2
군	4.4	0.7	1.8	2.2	5.2	1.6	4.9	2.5	2.0	25.0
전주시	20.2	47.4	40.7	31.9	15.9	34.1	18.3	22.2	29.5	260.2
군산시	15.2	13.2	14.1	11.1	7.9	18.5	8.1	20.6	13.1	121.8
익산시	8.2	22.2	17.5	15.2	12.4	23.3	10.5	22.5	6.4	138.2
정읍시	7.3	0.9	5.8	8.9	7.4	5.0	8.7	5.0	1.5	50.5
남원시	7.2	2.9	4.1	7.9	7.4	2.8	7.1	5.3	7.6	52.3
김제시	6.6	7.9	3.1	7.2	7.2	3.6	7.9	4.2	26.3	74.0
완주군	4.6	0.5	0.7	4.7	5.8	8.5	4.5	9.3	6.9	45.5
진안군	4.8	0.8	1.4	3.2	5.1	0.2	6.6	0.0	4.2	26.3
무주군	4.2	0.5	2.3	0.3	4.3	0.3	5.3	0.0	0.0	17.2
장수군	4.9	0.8	1.0	0.2	4.3	0.5	2.2	1.0	1.2	16.1
임실군	3.2	0.8	2.0	0.4	5.4	0.5	5.1	1.2	0.2	18.8
순창군	2.9	0.7	2.3	0.7	5.1	0.4	6.4	1.1	0.0	19.6
고창군	4.9	0.9	2.3	4.1	5.8	1.4	5.6	7.6	2.3	34.9
부안군	5.8	0.5	2.7	4.2	6.0	0.9	3.7	0.0	0.8	2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00.0



<그림 1-4> 전북도내 지역별 지역중심기능 지수

○ 분석대상지역

- 전주시(전북도청)를 중심으로 볼 때, 전북 전체 시·군이 이에 포함되므로 전북 전체 시·군을 분석 대상으로 함



<그림 1-5> 중심도시로부터의 거리

<표 1-8> 전주시로부터의 거리별 해당 시·군

거리별	해 당 시 · 군
20km이내	전주,완주,익산,김제, (임실),(진안),(정읍)
30km이내	전주,완주,익산,김제,임실,진안, (정읍),(군산)
40km이내	전주,완주,익산,김제,임실,진안,정읍,군산, (부안),(순창),(장수),(남원)
50km이내	전주,완주,익산,김제,임실,진안,정읍,군산,부안,순창,장수, (남원),(무주),(고창)

주 : ()는 일부에 해당함

I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의 개요 및 의의

2) 설정기준에 따른 지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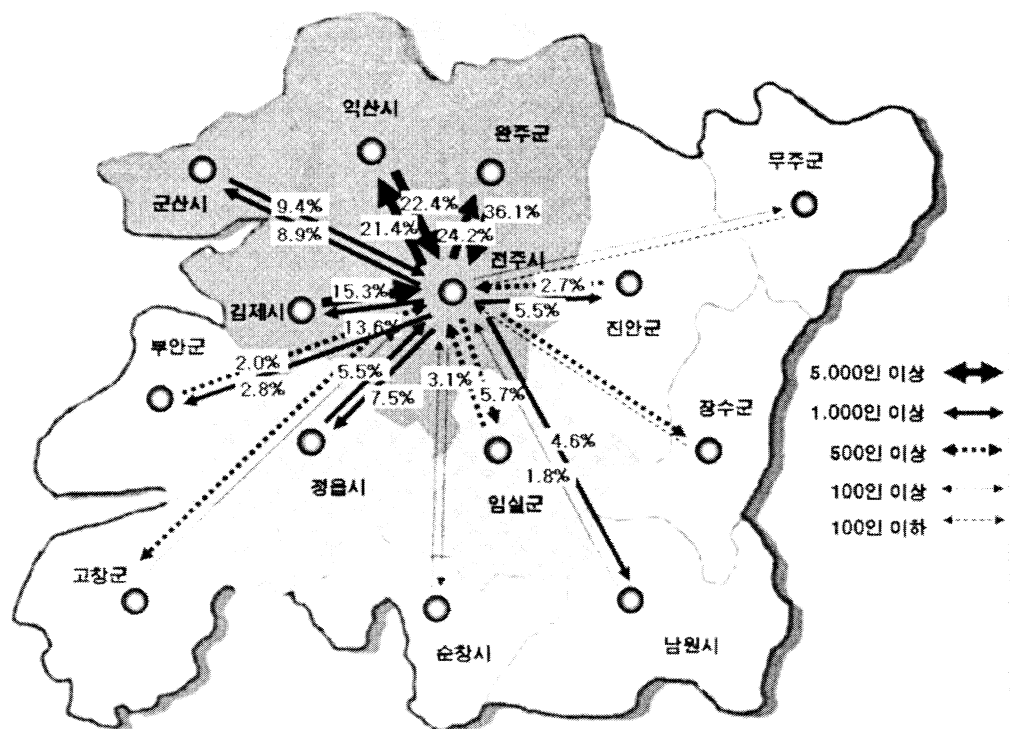
(1)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 통근·통학량 분석

- 주변 시·군에서 전주시로의 통근자비율과 통근 및 역통근자 비율의 합, 2개 지표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을 선정함
- 분석결과,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가 2개의 지표에서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9>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분석결과

구분	전주시로의 통근자 비율	전주시로의 통근자 비율과 전주시로부터 통근자 비율의 합
비교기준치	7.7%	15.4%
해당지역	완주(36.1%), 익산(22.4%), 김제(15.3%), 군산(9.4%)	완주(60.4%), 익산(43.8%), 김제(28.9%), 군산(18.3%)
기타	정읍(5.5%), 임실(3.1%)	정읍(13.1%), 임실(8.8%)
적합지역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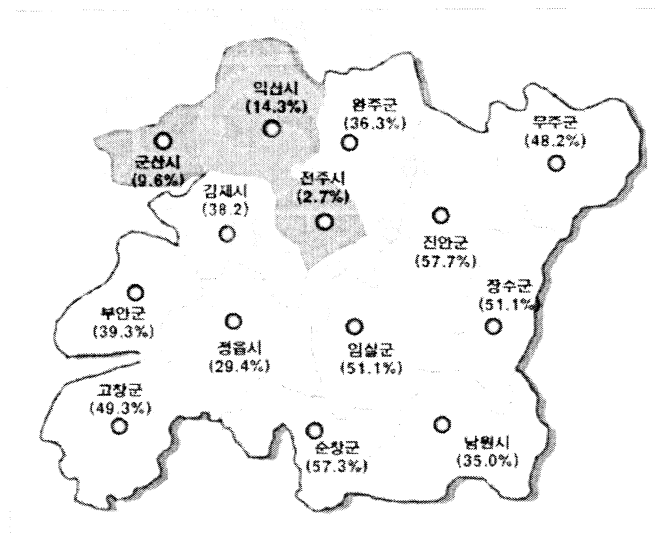
<그림 1-6> 전주로의 통근자비율과 전주로부터의 통근자비율

(2)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

-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 분석에서는 전업농가비율, 인구밀도,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함. 이 분석에서 3가지 지표 중에서 2가지 이상 만족하는 지역을 광역계획권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함

○ 전업농가비율

- 전업농가비율은 분석대상지역의 도시화정도를 설명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도시화 정도가 높은 곳은 향후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연담화를 이룰 수 있으므로 광역계획권 설정 지표로 사용함
- 전업농가비율의 산출식은 (전업농가수/ 단위지역총가구수)×100(%)으로 나타낼 수 있음
- 분석결과 전북평균 20.9%의 전업농가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업농가비율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지역은 전주(2.7%), 군산(9.6%), 익산(14.3%)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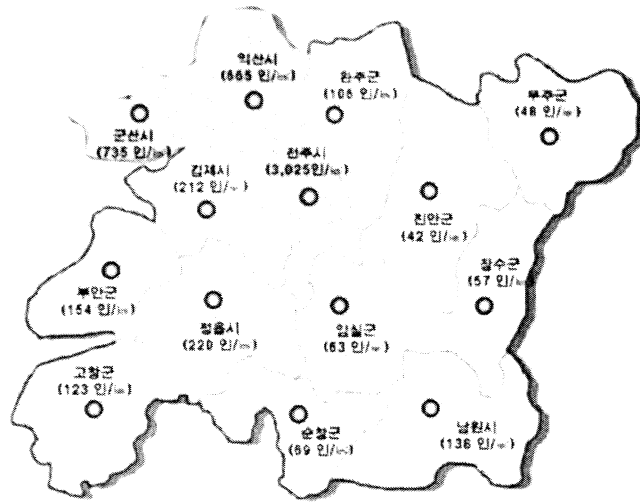


<그림 1-7> 전업농가비율

○ 인구밀도

- 인구밀도는 분석대상지역의 인구 밀집도를 분석하는 지표로서 높은 수치를 나타낸 지역 일수록 고밀지역으로 인구의 집중현상을 볼 수 있음
- 따라서 인구밀도 분석은 단위 시·군의 개발정도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고밀지역 내·외측, 광역적 차원에서의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분석결과 전북평균 인구밀도는 250인/km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상회하는 지역은 전주(3,025인/km), 군산(735인/km), 익산(665인/km)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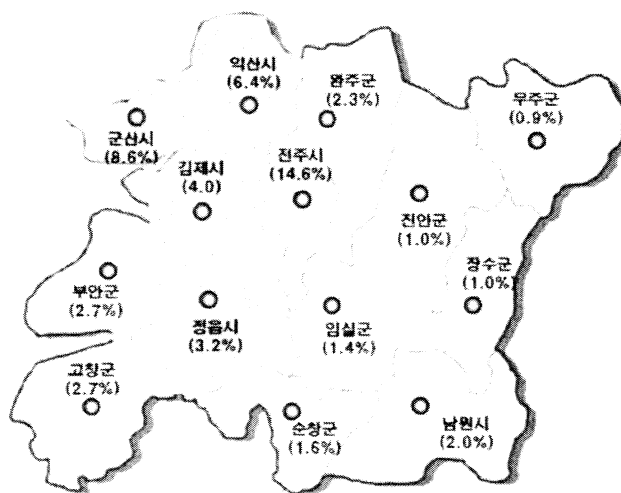
I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의 개요 및 의의



<그림 1-8> 인구밀도

○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 도시적 토지이용비율은 지목(地目)상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전체 행정구역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 이 비율은 지표를 나타내는 방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위 시·군의 도시적 특성을 반영하는 비율을 의미함
- 분석결과 대상지역 전체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평균은 3.0%이며, 이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전주(14.6%), 군산(8.6%), 익산(6.4%), 김제(4.0%), 정읍(3.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수성 분석결과

-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수성 분석을 위해 전업농가비율, 인구밀도, 도시적 토지이용비율의 지표를 사용하였음
- 각 지표의 비교 기준치를 상회하는 각각의 시·군을 해당지역으로 선정하게 되며, 3가지 지표 중 2가지 지표에 포함되는 시·군은 광역계획권 적합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함
- 분석결과 적합지역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로 나타났음

<표 1-10>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 분석결과

구분	전업농가비율	인구밀도	도시적토지이용비율
비교기준치	20.9%	250인/km ²	3.0%
해당지역	전주(2.7%) 군산(9.6%) 익산(14.3%)	전주(3,025인/km ²) 군산(735인/km ²) 익산(665인/km ²)	전주(14.6%) 군산(8.6%) 익산(6.4%) 김제(4.0%) 정읍(3.2%)
기타	정읍(29.4%) 남원(35.0%) 완주(36.3%)	정읍(220인/km ²) 김제(212인/km ²) 부안(154인/km ²)	고창(2.7%) 부안(2.7%) 완주(2.3%)
적합지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3) 지역적 특수성(광역시설이용 및 자치단체간 협치)

○ 광역시설이용권

- 광역상수도 공급망 : 상수도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군 등 대다수 지역에 걸친 공급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표 1-11> 광역상수도 공급망 현황

(단위 : km³, %)

시설(광역상수도)	수원	시설용량 (천m ³ /일)	운영 및 건설계획	해당지역
금강계통광역상수도	금강	300	비사용중	전주, 논산, 부여, 군산, 장항
섬진강계통광역상수도	동진강, 섬진강댐	90	운영중	정읍, 김제, 고창
부안담계통광역상수도	부안댐	87	운영중	부안, 고창
전주권(1)광역상수도	용담댐	700	운영중	전주, 익산, 완주, 김제, 군산, 서천
동화담계통광역상수도	동화댐	52	운영중	남원, 임실, 곡성, 장수

I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의 개요 및 의의

광역소각시설⁹⁾ : 전라북도내 광역시설은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에 이어 2단계로 생활권별로 권역별 소각시설을 전주권(전주, 김제, 완주), 지리산권(남원, 임실, 순창), 덕유산권(무주, 진안, 장수), 서남권(정읍, 고창, 부안)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설치할 계획임¹⁰⁾

<표 I-12> 광역소각시설 건설계획

구 분	처리권역	시설규모(톤/일)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비고
광역소각시설	전주·김제·완주	400 (200×2기)	2000~2006	1,046	

광역폐기물매립시설 : 2003. 12월 현재 도내 폐기물 매립시설은 총 15개소로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은 전주권(이서면 이성리¹¹⁾)에 1개소가 있으며, 사용가능 연수가 1.7년에 그쳐 현재 확대 설치중에 있음

<표 I-13> 설치중인 매립장 현황

구분	종 류	사업량(천㎡, 천㎥)		잔여용량 (천㎡)	비고 (공동이용권역)
		면적	용량		
5개소	-	443	2,864	551	
전주	광 역	85	990	140	전주, 김제, 완주
군산	-	108	1,182	137	
익산	-	170	412	150	

자료 : 전라북도, 환경백서, 2004.

물류유통단지 계획 : 전라북도내 물류유통단지 건설계획은 군장권, 전주-익산권, 남원권, 정읍권으로 총 58만평 규모의 물류유통단지 설치 계획이 있음

<표 I-14> 광역소각시설 건설계획

구 분	처리권역	시설규모(톤/일)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비고
물류유통단지	전주, 군산, 익산 등	58만평	2002~2014	7,07	

9) 자료 : 전라북도 환경백서, 2004.

10) 4개 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익산시는 1일처리능력 200톤 규모로 현재 환경부에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중에 있으며, 군산시는 현재 조성중인 폐기물매립시설 완료 후 2006년에 소각장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11) 면적 148,678㎡, 용량 1,925천㎥, 잔여용량 471천㎥

○ 기초행정협의회

- 전북지역의 경우, 1999년 이후 전주권 및 군산·서천권 등 5개의 기초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음
- 전주권 행정협의회는 전주, 김제, 익산, 완주, 임실군의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군산권은 군산, 익산, 김제의 3개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음
- 그 이외의 무진장권, 남원권, 군산·서천권은 전주권 광역계획권 이외의 지역으로 나타났음

○ 광역시설이용 및 자치단체간 협치 분석결과

- 전주권 광역상수도(용담댐)를 이용하는 시·군은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김제시, 군산시, 서천시이며, 서천은 충청남도에 속하므로 제외함
-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이 설치중에 있으며, 처리권역으로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을 포함하고 있음
-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공동이용권역으로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을 포함 하고 있음
- 전북지역 기초행정협의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주권(95.5.8)에 전주시,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군산권(96.5.15)에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가 참여하고 있음

<표 1-15>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 분석결과

구분	광역시설이용권			기초행정협의회
	광역상수도	광역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해당지역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김제시, 군산시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 군산시, 임실군
적합지역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김제시, 군산시			

I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의 개요 및 의의

3) 분석종합 및 대안설정

(1) 분석지표의 적용결과 종합

○ 선정기준 및 분석지표 결과

- 전주권 광역계획권 설정을 위하여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 광역시설이용 및 자치단체간 협치에 대한 지표를 분석하였음
- 적합지역 선정기준은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중에서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과 '도시적 특성' 중에서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 중에서 협치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
- 지표에 대한 적합지역 선정기준 적용결과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의 5개 시·군이 선정되었음. 그러나 정읍의 경우, 도시적 토지이용비율이 적합하게 나타났으며, 임실의 경우 자치단체간 협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음

<표 1-16> 측정지표 적용결과 종합

구분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부안	정읍	임실	진안	무주	순창	장수	고창	남원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전주시로의 통근자비율	●	●	●	●	●	×	×	×	×	×	×	×	×	×
	전주시로의 통근자비율과 역통근자비율의 합	●	●	●	●	●	×	×	×	×	×	×		×	×
도시적 특성	전업농가비율	●	●	●	×	×	×	×	×	×	×	×	×	×	×
	인구밀도	●	●	●	×	×	×	×	×	×	×	×	×	×	×
	도시적토지이용비율	●	●	●	●	×	×	●	×	×	×	×	×	×	×
지역 특수성	광역시설이용권	●	●	●	●	●	×	×	×	×	×	×	×	×	×
	자치단체간 협치	●	●	●	●	●	×	×	●	×	×	×	×	×	×

주 : 적합지역 (●), 비적합지역 (×)

(2) 대안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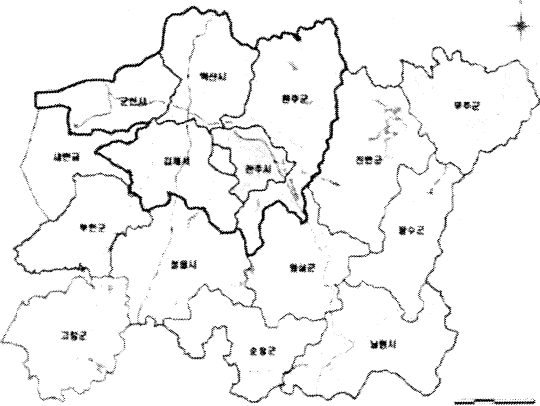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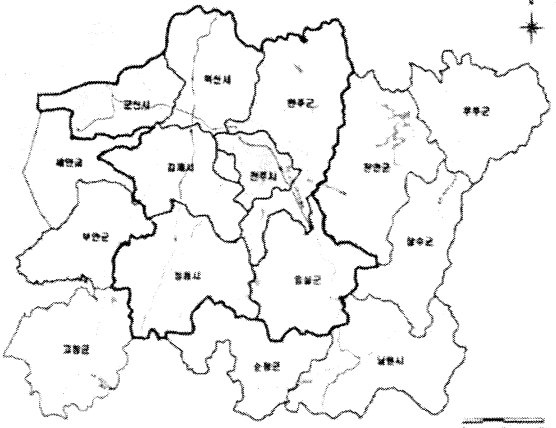
○ 대안(I)

- 설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나타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의 5개 시·군을 대안(I)로 설정

○ 대안(II)

- 설정기준에 적합한 5개 시·군과 일부 분석지표에서 적합지역으로 나타난 정읍시와 임실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을 대안(II)로 설정

<표 1-17> 전주권 광역계획권의 대안

대안 (I)	대안 (II)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5개 시·군 + 정읍시, 임실군
	
인구 : 약 1,404 천인 (전북 1,916천인, 전북인구의 73%) 면적 : 2,457 km ² (전북 8,050km ² , 전북면적의 31%차지)	인구 : 약 1,571 천인 (전북 1,916천인, 전북인구의 82%차지) 면적 : 3,747 km ² (전북 8,050km ² , 전북면적의 47%차지)

* 새만금지역의 경우,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추후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새만금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

(3) 종합 및 최적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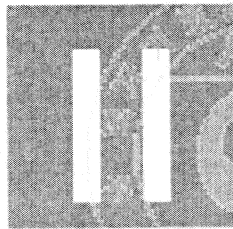
○ 대안별 종합

- 검토결과, 대안(Ⅱ)는 계획지역의 거대화, 광역시설 배치 등에 대한 연계성이 미약하고 계획권 확대에 따른 투자비용이 증대, 광역 행·재정 계획상의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음
- 따라서 대안(Ⅰ)을 광역계획권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표 1-18> 전주권 광역계획권 대안별 특성 비교

구 분	대안(Ⅰ)	대안(Ⅱ)
대상 지역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정읍, 임실
특 징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내용의 실현 가능성 제고 · 정책추진 및 투자효율성 제고 가능 · 지역간 기능배분상의 효율성 증대 · 계획효과 집중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내재화 가능성 증대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확대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북부지역에 대한 편중적 계획형성 · 지역내 인구유입의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역의 거대화 · 광역시설 배치 등에 대한 연계성 미약 · 계획권 확대에 따른 투자비용 증대 · 광역행·재정 계획상의 갈등야기

‘전주권 광역계획권 지정’은 2006년 4월 2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2분과위원회로 수권위임되었으며, 5월11일 제2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전주권 광역계획권이 지정됨 : 5개 시·군(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의 행정구역(육지부 전체 2,457.4km²)



일반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1. 일반현황
2. 지역주민 설문분석
3. 발전 잠재력 및 제약요인

II. 일반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1. 일반현황

1) 입지적 여건

(1) 행정구역 및 면적

- 전주권은 행정구역상 4개시(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와 1개군(완주군)으로, 총면적은 2,457.5km²로 전북 전체면적 8,047.5km²의 30.5%에 해당함

완주군	김제시	익산시	군산시	전주시
33.4%	22.2%	20.6	15.4	8.4

- 완주군은 전주광역권의 33.4%에 해당하는 820.92km²로서 5개시·군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며, 다음으로 김제시 22.5%, 익산시 20.6%, 군산시 15.4%, 전주시 8.4%의 순서임

<표 II-1> 시군별 행정구역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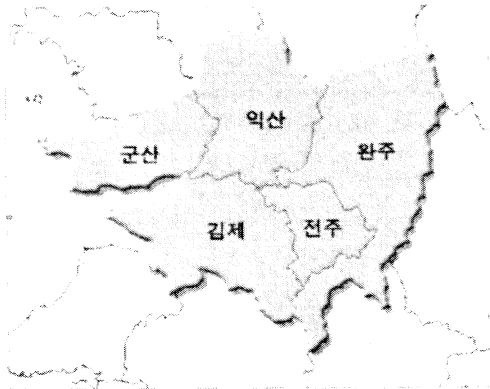
구 분	계 획 구 역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면 적(km ²)	%	시	군	구	계	읍	면	동
계	2,457.50	100.0	4	1	2	131	5	49	77
전주시	206.22	8.4	1	-	2	40	-	-	40
군산시	378.19	15.4	1	-	-	30	1	10	19
익산시	506.97	20.6	1	-	-	29	1	14	14
김제시	545.20	22.2	1	-	-	19	1	14	4
완주군	820.92	33.4	-	1	-	13	2	11	-
전북대비율(총계)	8,050.65	30.5	6	8	2	251	14	145	92

자료 : 전북 및 각시군 통계연보 2004

일반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2) 위 치

- 본 계획권의 북부는 충남의 서천군, 논산시, 금산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동남부는 진안군, 임실군, 정읍시, 부안군과 접해 있으며 서쪽은 서해와 접하여 위치함



<그림 II-1>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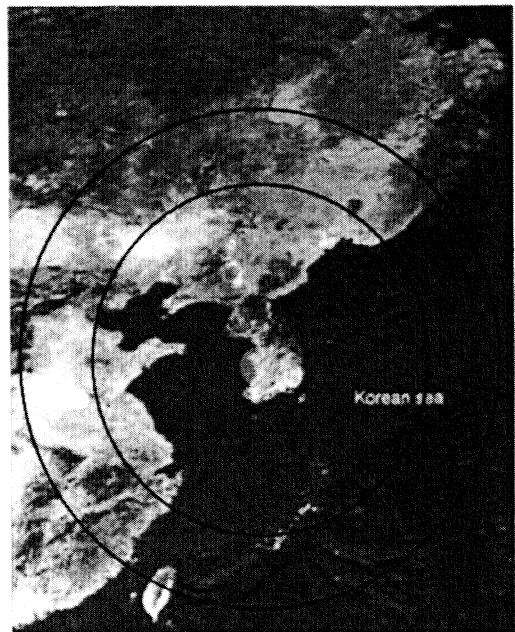
<표 II-2> 경·위도상 위치

구 분	지 명	극 점
동 단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동경 127°22' 〃 북위 36°02' 15" 〃
서 단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동경 125°58' 05" 〃 북위 36°07' 25" 〃
남 단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동경 127°06' 〃 북위 35°37' 〃
북 단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	동경 126°58' 00" 〃 북위 36°09' 15" 〃

(3) 입 지

○ 한강해 경제권의 교류중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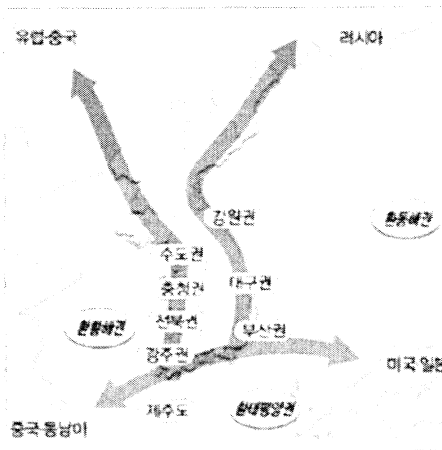
- 세계 국제물동량은 2000~2010년 연평균 5%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동북아 주요항만의 해상 물동량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임
- 군산항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이 증대되고 있으며 농산물, 광물 등 서해안 교역의 중앙에 입지함으로써 높은 잠재력을 보유
- 중국의 황해연안지역, 특히 중국정부가 대외교역의 거점으로 개방하고 있는 대련, 연태, 청도, 상해 등 주요 도시가 400해리 정도의 거리에 입지하고 있어 국제교류의 관문역할 수행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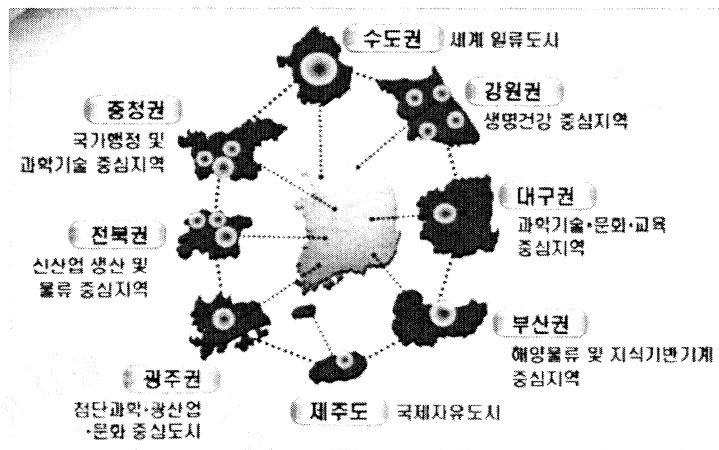
<그림 II-2> 동북아의 위치

○ 개방형(π형) 국토축의 서해축

- 대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π형) 국토발전축에서 서해축선상에 위치하고 있음
- 목포, 군산, 인천, 신의주로 이어지는 서해축은 중국 등 동북아를 향한 국제물류·비즈니스, 신산업, 문화관광 기반의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음



<그림 II-3> 개방형국토



<그림 II-4>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발전의 중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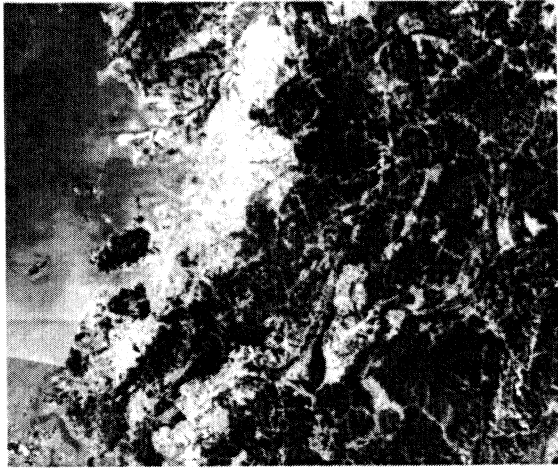
- 본 권역은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간 상생을 촉진하는 다핵연계형 국토구조상 전북권의 핵심지역으로 친환경 지향의 농업고도화와 자동차기계 및 에너지산업 중심의 신산업지대를 이루고 있음
- 또한, 국토 서남부지역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균형적인 국토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입지적 이점과 충청권과 광주권 등 인접 지역으로의 유리한 접근성을 지니고 있음

2) 자연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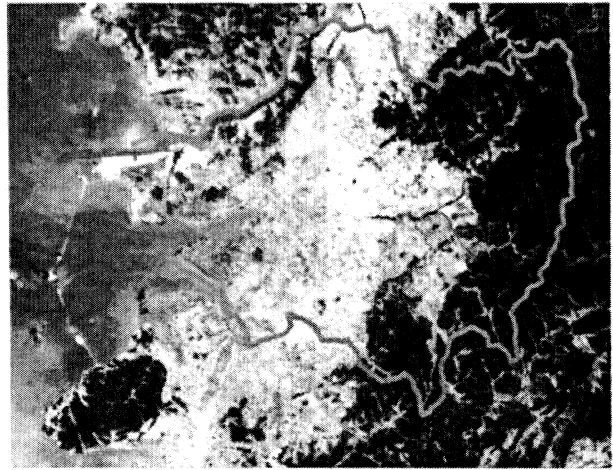
(1) 지형·지세

- 전체적으로 동고서저의 계단식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노령산맥의 지류인 기린봉, 고덕산, 모악산, 완산칠봉을 중심으로 동부산악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 동부산악지대와 군산반도를 제외하면, 평균고도 50m이하의 저지형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만경강, 동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넓은 서부평원지대를 이루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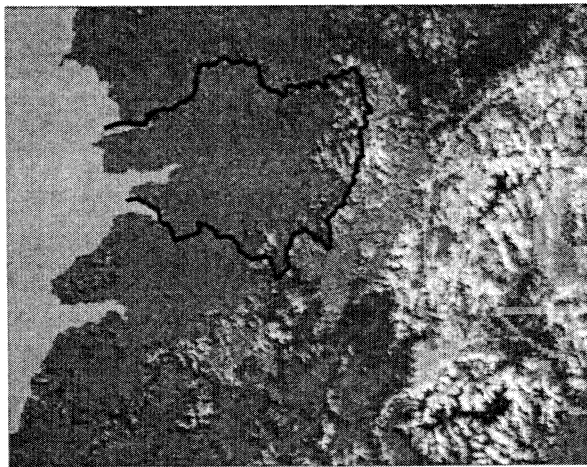
일반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그림 II-5> 전북의 지형·지세



<그림 II-6> 전주군의 지형·지세



<그림 II-7> 표고분석(전라북도)



<그림 II-8> 표고분석(전주군)

(2) 지질 및 토양

- 지질은 중생대 쥐라기에 속하는 편마상 화강암 및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익산에서 전주까지 화강편마암이 분포하며, 만경강 남쪽에는 같은 중생대 쥐라기이나 시기가 늦은 대보화강암으로 구성
- 편마상 화강암과 충적층의 경계는 대체로 해발 10m가 그 경계로 보이며 밭과 임야 등의 구릉지는 편마상 화강암지역에, 논 등의 평탄지역은 충적층에 속함
- 토양은 구릉지에서는 편마상 화강암이 과거 온난한 기후 아래에서 심층 풍화되어 이루어진 적색황토가 덮여 있어서 배수가 양호하며, 평야지역은 김토질의 회색토 및 충적토로서 배수가 약간 불량함

(3) 해안 및 도서현황

- 서해안은 리아시스식 해안으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며, 수산양식 및 간척자원이 풍부하나 금강하류에서 유출되는 토사로 인해 선박의 입·출항이 어려운 실정임
- 군산시와 김제시의 경우, 215.4km에 이르는 해안선과 접하고 있으며, 70개의 도서들이 산재하고 있음

<표 II-3> 해안선 및 도서현황

(단위:km, 개소)

구 분	해안선(도서포함)	도서현황			
		계	유인도	무인도	인구
군산시	178.8	63	16	47	4,795
김제시	36.6	2	-	2	-

자료 : 전북 및 각시군 통계연보 2004

(4) 하천 및 수계

- 동부산지에서 발원한 금강은 동서·남북방향으로 산악지대를 우회하면서 서해로 유입되고 있으며,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동서방향으로 평야지대를 형성하면서 서해로 유입되고 있음
- 만경강의 상류지역은 7~8월 집중 강우시 하천 범람 및 서해의 조수 역류 현상이 발생하여 침수지역을 유발

<표 II-4> 도내 하천현황

(단위 : 개, k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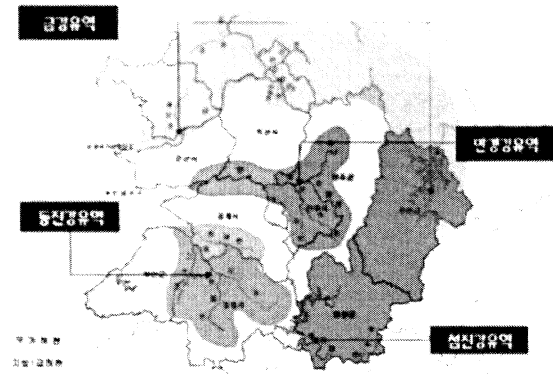
구 분	하천수	총연장	요개수	기개수	미개수	개수율(%)
계	490	3,245.0	4,615.9	3,036.2	1,580.2	65.8
직할하천(국가하천)	11	286.0	357.2	357.2	0.0	100.0
지방하천(지방1급하천)	9	146.0	155.7	129.9	25.8	83.4
준용하천(지방2급하천)	470	2,813.0	4,103.0	2,549.1	1,554.4	62.1

자료 : 전북 및 각시군 통계연보 2004

일반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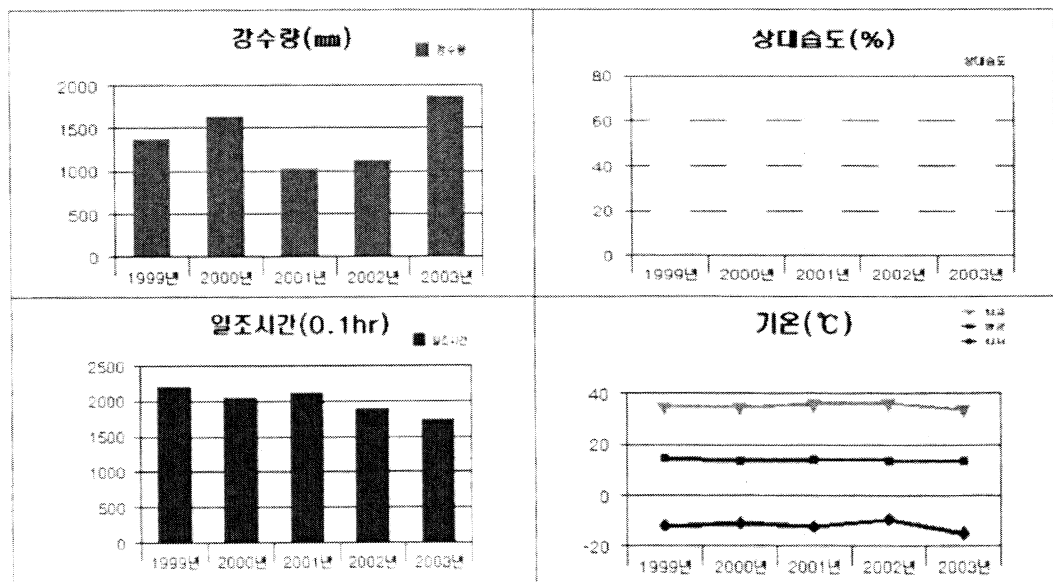
<그림 II-9> 전북지역의 수계



<그림 II-10> 전주권의 하천 및 유역

(5) 기후 및 기상

- 전주권 지역은 온난성 기후대로 하계는 고온다습하고, 동계에 한랭건조하며 지형적 영향으로 남북간보다는 동서지역간의 기후차이가 큼
- 서부평야지역은 서해영향으로 연간 기온차이가 적고 강수량이 동부지역보다 적은 반면, 동부산지는 기온차가 크고 강수량도 많은 편임
- 전주권의 평균기온은 13.6℃이며, 지역중심인 전주시의 1월 평균기온은 영하 -1.6℃이고, 8월의 평균기온은 24.4℃로 기온차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연평균 강수량은 1,328mm로 다우지역에 속하며, 6~9월에 연강수량의 절반이 집중
- 평균풍속은 2.1m/s이고 풍향은 계절에 따라 1~6월은 서풍, 7~8월은 남풍, 9~12월은 북서풍이 주풍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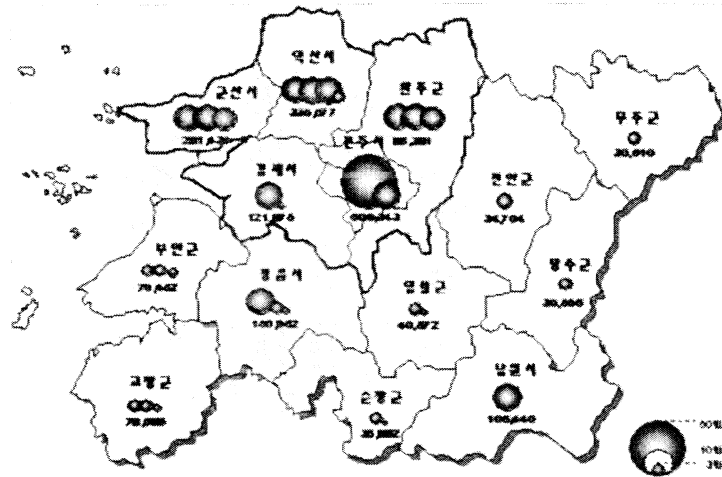
<그림 II-11> 기상현황

3) 인문·사회적 환경

(1) 인구

○ 인구 현황

- 2003.12.31 현재 5개·시군의 총인구는 1,413,338명이며, 이는 전라북도 전체의 72%에 해당하며, 면적대비 기준인 30.5%에 비해 매우 높은 인구비율을 보임
- 시·군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전주시에 620,374명(43.9%)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익산시 327,536명(23.2%), 군산시 269,865명(19.1%), 김제시 111,339명(7.9%), 완주군 84,224명(6.0%) 순의 분포를 나타냄



<그림 II-12> 전라북도 인구분포

<표 II-5> 인구현황 및 인구밀도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자		여 자		인구밀도 (인/km ²)
	명	%	명	%	명	%	
전주권(계)	1,428,099	100.0	704,728	49.9	708,610	50.1	935
전주시	620,374	43.9	306,550	49.4	313,824	50.6	3,008
군산시	269,865	19.1	136,002	50.4	133,863	49.6	714
익산시	327,536	23.2	163,455	49.9	164,081	50.1	646
김제시	111,339	7.9	55,527	49.9	55,812	50.1	204
완주군	84,224	6.0	43,194	51.3	41,030	48.7	103
전북대비율(총계)	1,962,867	72.0	974,354	72.3	988,513	71.7	244

자료 : 전북 및 각시군 통계연보 2004

일반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 인구 변화

전라북도의 인구는 1995년~2003년 동안 연평균 0.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5개시·군의 인구는 1995년 이후 연평균 0.2%의 증가율을 보임

이러한 5개시·군의 인구증가는 주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한 증가가 두드러지며, 이러한 인구유입에도 불구하고 전주권의 인구는 2001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표 II-6> 인구변화추이 및 증감율

(단위 : 명)

구 분	전라북도	전 주 권					
		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1999	2,015,531	1,402,398	600,343	281,431	335,677	121,875	86,381
2000	2,006,500	1,425,707	622,238	278,577	336,651	116,211	84,327
2001	2,013,923	1,438,004	623,897	277,680	337,240	115,683	87,081
2002	1,961,572	1,441,581	626,069	273,086	332,545	111,462	84,937
2003	1,962,867	1,428,099	620,374	269,865	327,536	111,339	84,224
증감율	감0.3%	증0.2%	증1.1%	감0.3%	감0.1%	감1.8%	감0.3%

자료 : 전북 및 각시군 통계연보 2004

○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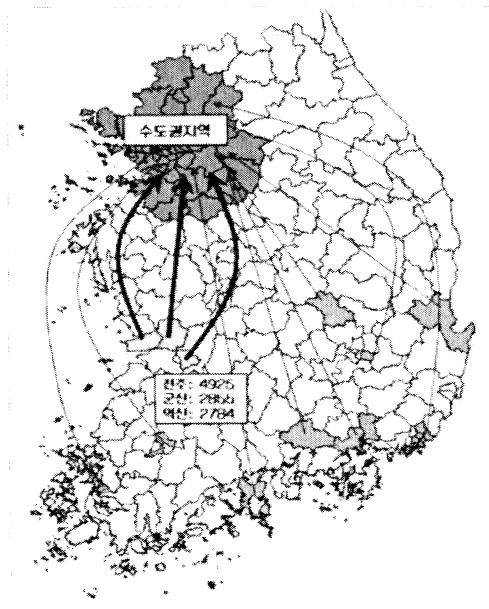
- 1996~2000년까지 수도권 인구유입에 기여한 시·군으로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정읍시 등 전북도내 시·군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
- 2003. 12. 31 현재 시·군별 인구 순이동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순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순유출이 가장 큰 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전주, 익산, 군산시의 경우 인구대비 유출폭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감안한다면 인구의 안정성장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음

<표 II-7> 시·군별 순인구 이동

(단위 : 명)

시·군별	현 재	전 출	시 도 간		순 이 동
			전입	전출	
전주시	618,819	37,771	25,588	32,400	-8,583
군산시	268,639	7,536	11,218	14,260	-4,220
익산시	325,238	12,915	13,518	18,409	-6,270
김제시	110,710	8,702	5,985	6,239	-
완주군	83,649	10,403	4,080	4,161	-1,083
계	1,407,055	77,327	60,389	75,469	-20,156

자료 : 전북 및 각시군 통계연보 2004



<그림 II-13> 수도권 유입현황(2000)

<표 II-8> 수도권 유입현황(2000)

순위	해당시·군	유출(명)
1	전북 전주시	4,925
2	광주 북구	4,462
3	경남 창원시	3,126
4	경북 포항시	2,999
5	대구 수성구	2,943
6	전북 군산시	2,855
7	전남 여주시	2,836
8	전북 익산시	2,784
9	전남 목포시	2,701
10	부산 부산진구	2,522
11	부산 사하구	2,401
12	광주 남구	2,156
13	경북 구미시	2,152
14	부산 해운대구	2,102
15	경남 마산시	2,100

(2) 경제 및 산업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 64세미만의 경제 참여인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취업률 97.3%, 실업률 2.7%로 경제 활동 참가율은 50.0%를 차지하며,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는 1,458천명이고, 비경제 활동인구는 508천명을 나타나고 있음

<표 II-9> 전북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구 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	실업률 (%)
		계	취업자	실업자				
1994	1,437	851	832	20	586	59.2	97.6	2.4
1995	1,458	870	854	16	587	59.7	98.2	1.8
1996	1,468	874	854	19	595	59.5	97.8	2.2
1997	1,478	875	853	22	603	59.2	97.5	2.5
1998	1,486	873	826	47	613	58.7	94.6	5.4
1999	1,488	866	820	45	623	58.2	94.8	5.2
2000	1,489	846	840	26	623	58.2	97.0	3.0
2001	1,484	877	851	26	608	59.1	97.0	3.0
2002	1,472	862	841	21	611	58.6	97.6	2.4
2003	1,458	860	837	23	598	59.0	97.3	2.7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KOSIS)

일반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 경제활동면 총생산

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년 3.5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04년 3.06%를 차지함

<표 II-10> 전라북도 산업별 총생산액

(단위 : 억원)

구분	계 (생산총액)	전국대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총액	비율	총액	비율	총액	비율
1994	13,939	3.43%	2,052	14.7	3,367	24.2	8,521	61.1
1995	14,991	3.44%	2,196	14.6	3,229	21.5	9,565	63.8
1996	16,188	3.54%	2,391	14.8	3,573	22.1	10,225	63.2
1997	17,099	3.53%	2,196	12.8	4,250	24.9	10,653	62.3
1998	14,957	3.41%	2,122	14.2	3,229	21.6	9,606	64.2
1999	16,433	3.30%	2,454	14.9	3,914	23.8	10,064	61.2
2000	17,160	3.28%	2,411	14.1	4,289	25.0	10,461	61.0
2001	17,561	3.22%	2,554	14.5	4,088	23.3	10,920	62.2
2002	17,977	3.10%	2,295	12.8	4,276	23.8	11,406	63.4
2003	18,854	3.06%	2,291	12.2	4,597	24.4	11,966	63.5
2004	19,927	3.06%	2,786	14.0	5,319	26.7	11,821	59.3

자료 : 전북 통계연보 2004

- 총생산액에 따른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1차산업이 14%, 2차산업이 25%, 3차산업이 60% 내외로 과거 10년동안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으며, 다만, 2001년 이후 2차산업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사업체 및 종사자수

- 2003년말 현재, 전북의 산업비율을 살펴보면, 1차<2차<3차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체수는 119,717개소이고 종사자는 470,976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11> 사업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구분	사업체수(개소)					종사자수(명)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122,113	121,548	118,429	119,443	119,717	458,658	470,946	468,326	478,066	470,976
1차산업	230	217	170	179	181	2,148	2,281	1,636	2,211	2,341
%	0.2	0.2	0.1	0.1	0.2	0.5	0.5	0.3	0.5	0.5
2차산업	10,137	10,065	10,063	9,928	9,451	83,634	86,952	88,164	86,811	84,042
%	8.3	8.3	8.5	8.3	7.9	18.2	18.5	18.8	18.2	17.8
3차산업	111,746	111,266	108,196	109,336	110,085	372,876	381,713	378,526	389,044	384,593
%	91.5	91.5	91.4	91.5	92.0	81.3	81.1	80.8	81.4	81.7

자료 : 전북 통계연보 2004

<표 II-12> 시·군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단위 : 명)

구 분	전 북	전 주	군 산	익 산	김 제	완 주
계	119,717 (470,976)	38,812 (154,202)	17,748 (69,620)	19,409 (86,422)	6,223 (24,472)	4,233 (22,160)
농업및임업	167 (2,312)	11 (266)	10 (133)	20 (279)	24 (463)	5 (80)
어업	14 (29)	-	2 (4)	1 (2)	-	-
광업	87 (895)	6 (31)	9 (147)	27 (347)	2 (33)	2 (21)
제조업	9,364 (83,147)	2,145 (13,297)	1,192 (14,459)	1,870 (21,854)	701 (6,610)	435 (9,375)
전기·가스·수도사업	101 (2,351)	10 (665)	26 (395)	10 (333)	5 (65)	3 (40)
건설업	3,067 (22,005)	977 (8,809)	429 (2,983)	320 (2,380)	184 (913)	102 (654)
도소매업	35,839 (85,185)	11,749 (31,601)	5,473 (12,482)	5,561 (14,344)	1,766 (3,938)	1,125 (2,212)
숙박/음식업	23,437 (59,168)	7,106 (20,130)	3,781 (8,607)	3,815 (9,676)	1,033 (2,364)	921 (2,092)
운수업	11,055 (26,562)	3,971 (9,716)	1,591 (4,600)	1,806 (9,676)	688 (1,397)	445 (1,036)
통신업	460 (5,675)	105 (1,722)	55 (806)	59 (869)	26 (413)	23 (291)
금융, 보험업	1,404 (20,583)	455 (7,726)	183 (2,857)	205 (3,548)	75 (852)	34 (316)
부동산 및 임대업	2,627 (9,369)	1,246 (4,595)	385 (1,441)	363 (1,561)	80 (199)	99 (210)
사업서비스업	2,205 (12,931)	1,037 (5,721)	341 (2,078)	306 (2,516)	85 (344)	47 (880)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834 (25,748)	120 (7,751)	107 (3,114)	96 (2,919)	72 (1,728)	43 (585)
교육서비스업	5,476 (47,786)	2,044 (17,096)	786 (6,552)	968 (8,904)	257 (2,127)	186 (2,365)
보건, 사회복지사업	2,923 (23,759)	906 (9,415)	352 (2,735)	482 (4,428)	156 (304)	133 (886)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4,585 (11,119)	1,896 (4,718)	630 (1,347)	796 (1,909)	176 (394)	133 (272)
기타공공수리/개인 서비스업	16,042 (32,322)	4,968 (10,943)	2,396 (4,880)	2,704 (5,729)	893 (1,639)	557 (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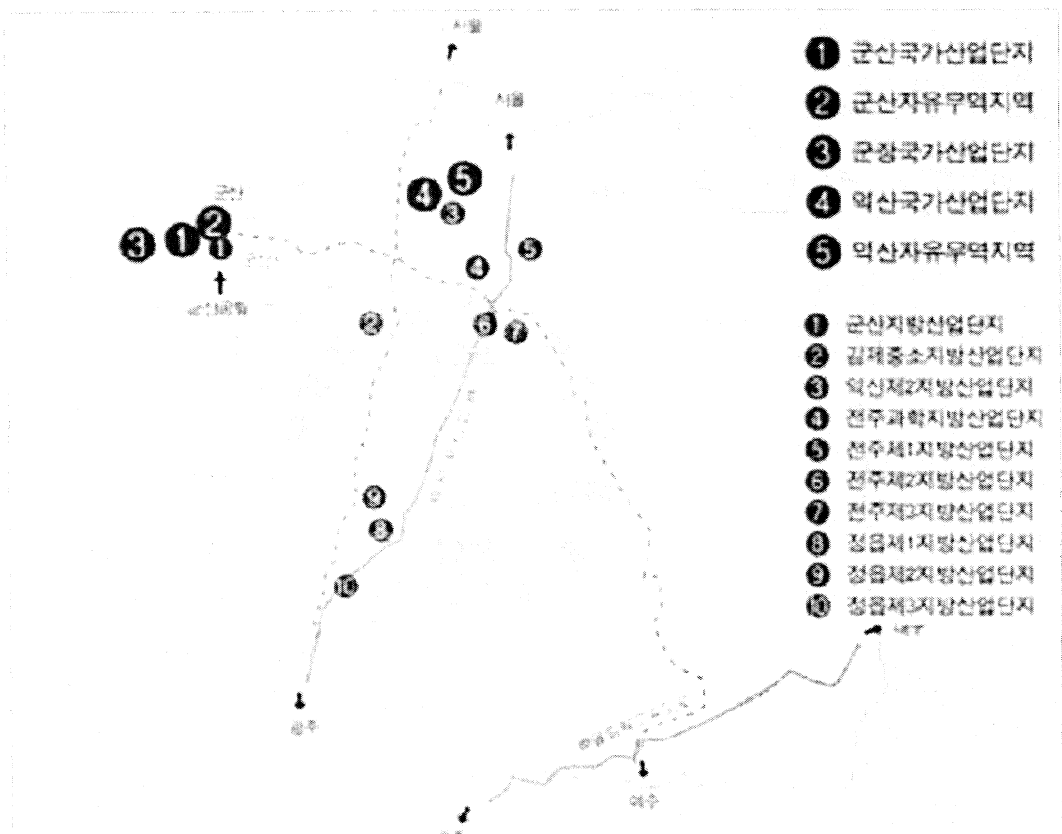
자료 : 전북 통계연보 2004

일반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 산업 및 농공단지

대상지내 국가산업단지 5개소, 지방산업단지 6개소, 농공단지 12개소의 현황을 나타냄

-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제1, 2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등의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군산은 국가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 군산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성산·서수·옥구등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그림 II-14> 산업단지 현황도

<표 II-13> 시·군별 산업 및 농공단지현황

구분	단 지 명	총면적 (천㎡)	분양대상 면적 (천㎡)	분양면적 (천㎡)	입주 업체수	가동율 (%)	종업원수 (명)	생산액 (억원)	수출액 (천불)
국가산업단지	소 계	24,109	13,532	7,801	270		11,072	18,167	865,445
	군산국가산업단지	6,843	4,786	4,786	91	79.0	5,629	16,522	507,910
	군산자유무역지역	1,256	1,157	-					
	익산국가산업단지	1,035	872	869	146	87.7	3,777	847	249,116
	익산자유무역지역	311	294	291	28	100.0	1,600	189	108,419
	군장국가산업단지	14,664	6,423	1,855	5	81.0	66	609	-
지방산업단지	소 계	20,240	14,531	12,660	569	83.0	26,557	43,471	546,400
	전주제1산업단지	1,683	1,283	1,283	101	92.0	3,576	5,140	159,000
	전주제2산업단지	687	558	558	38	100.0	966	621	16,000
	완주산업단지	3,358	2,605	2,605	85	94.0	7,185	7,199	157,000
	군산지방산업단지	5,641	3,932	3,932	61	87.0	5,035	23,401	20,000
	익산제2산업단지	3,309	2,547	2,547	124	87.0	6,630	4,956	150,000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3,074	1,861	521	37	57.0	481	186	5,400
농공단지	소 계	4,537	3,811	3,747	493	87	9,475	13,150	170,789
	군산성산농공단지	142	126	126	6	66.7	173	427	23,528
	군산서수농공단지	287	239	239	44	76.9	881	993	15,427
	군산옥구농공단지	140	106	106	24	90.0	263	172	
	익산삼기농공단지	131	113	113	23	91.3	413	607	6,517
	익산황등농공단지	149	120	120	51	98.0	266	440	
	익산남산농공단지	128	109	109	10	77.8	35	70	
	김제원촌농공단지	145	122	122	17	93.8	285	203	
	김제황산농공단지	73	55	55	10	100.0	361	217	
	김제만경농공단지	216	180	180	17	93.3	406	783	
	김제서흥농공단지	280	237	237	27	93.9	565	654	1,200
	김제봉황농공단지	233	204	204	32	90.0	440	205	
	완주이서농공단지	398	389	389	3	100.0	379	358	6,635

자료 : 전북 통계연보 2004

일반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3) 생활환경 및 주택

○ 생활환경 지표현황

전라북도 및 전주권의 생활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14> 생활환경지표 현황

구 분			전북대비	전 북	대상지
면 적	총 면 적	km ²	30.5	805,065	245,750
인 구	총 인 구	천인	72.0	1,915	1,404
	경제활동인구(16-64)	인	74.7	1,339,931	976,458
주 택	가구수(일반가구)	가구	69.3	536,492	371,956
	주택수	천호	70.4	672,111	473,110
	주택보급률	%	98.6	97.01	96.62
의 료	병원수	개소	77.9	1,781	1,388
	병상수	개소	76.9	16,615	12,773
도 시 공 원	도시공원수	개소	84.8	296	251
	도시공원 면적	천m ²	83.8	8,196	6,872
	1인당 도시공원면적	m ²	85.8	24.0	20.6
도 로	도로연장	m	57.1	1,745,181	996,061
	도로포장율	%	120.9	57.5	69.5
	1인당 도로연장	m	63.6	1.1	0.7
상수도	상수도보급률	%	91.2	79.4	72.4
	시설용량	ℓ	78.1	1,121,020	875,220
	급수량	ℓ	81.0	597,194	483,916
	1일1인당 급수량	ℓ	95.5	383	365.6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인구	인	87.6	1,268,396	1,111,074
	하수도보급률	%	94.8	66.8	63.3
사 회 복 지 문 화	사회복지 시설수	개소	79.0	81	64
	수용인원	인	82.6	5,112	4,222
교 육 (대학교)	대학수	개소	100.0	11	11
	학생수	인	100.0	111,164	111,164

주: 지역총생산 전국치는 시도합계 수치이며, 팔호안의 산업구조는 전국 시·도 평균치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2004/전라북도

○ 가구 및 주택

- 전주권내 가구수는 468,497세대, 주택은 408,738호로 주택보급률은 95.62%임
- 완주군의 주택보급률은 102.62%로 이농현상으로 인한 주택과잉공급을 나타내고 있음

<표 II-15> 가구 및 주택보급률

구 분	가구(세대)	주택수(호)	주택보급률(%)
계	468,497	408,738	95.62
전주시	201,263	187,691	91.66
군산시	90,642	51,501	91.44
익산시	109,436	102,253	93.79
김제시	40,903	40,353	98.60
완주군	26,253	26,940	102.62

자료 : 전북 및 각시군 통계연보 2004

○ 주택 유형

- 전국대비 전북의 주택보급률은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나타냄
- 시·군간 주택보급률을 보면 김제, 완주등 도시화가 상대적으로 더딘 지역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이농현상으로 주택의 수는 증가하지 않으나, 인구의 감소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임
- 주택유형별을 살펴보면, 단독 및 아파트의 비중이 90%이상을 차지하며 전국대비 주택유형별 점유율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냄

<표 II-16> 시·군별 주택유형

(단위 : 호, %)

구 별	가구수	합 계	주 택 보급률 (%)	단 독 주택	아파트	연 립 주택	다 세 대 주택	다 가 구 주택	비 거 주 용 건 물 내 주 택
전국		12,639,000	101.20	-	-	-	-	-	-
전북	656,910	564,281	97.01	268,597	260,313	18,516	4,640	2,693	15,345
전주	201,263	187,691	91.66	59,460	116,049	3,344	2,700	1,690	4,448
군산	90,642	51,501	91.44	473	44,865	3,151	-	134	2,878
익산	109,024	102,253	93.79	43,918	53,889	2,822	1,310	-	-
김제	40,903	40,358	98.60	30,004	7,834	682	93	7	1,738
완주	26,253	26,940	102.62	20,304	6,191	6,302	172	1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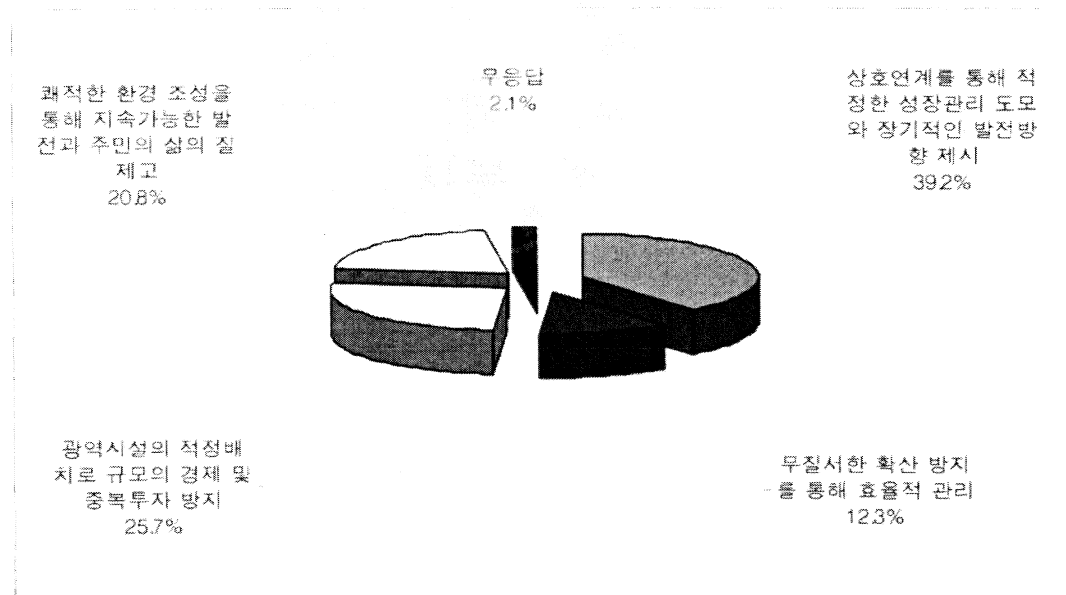
자료 : 전북 통계연보 2004

2. 지역주민 설문분석

1) 지역주민 설문결과

(1) 목표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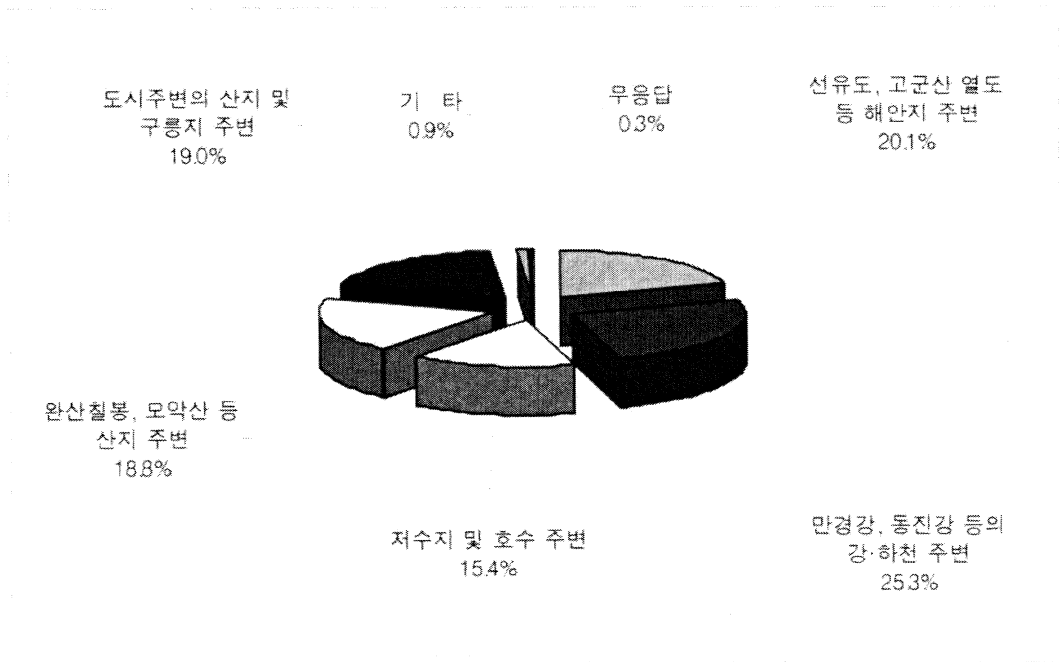
- 광역계획권의 중점 목표에 대하여 '상호연계를 통해 적절한 성장관리 도모와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에 보다 많은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광역시설의 적정배치'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의견도 상당수 보임
- 또한, 김제시와 완주군은 타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인 만큼 광역시설의 적정배치와 규모의 경제 및 중복투자 방지 등 재정적 여건과 관련된 항목에 많은 의견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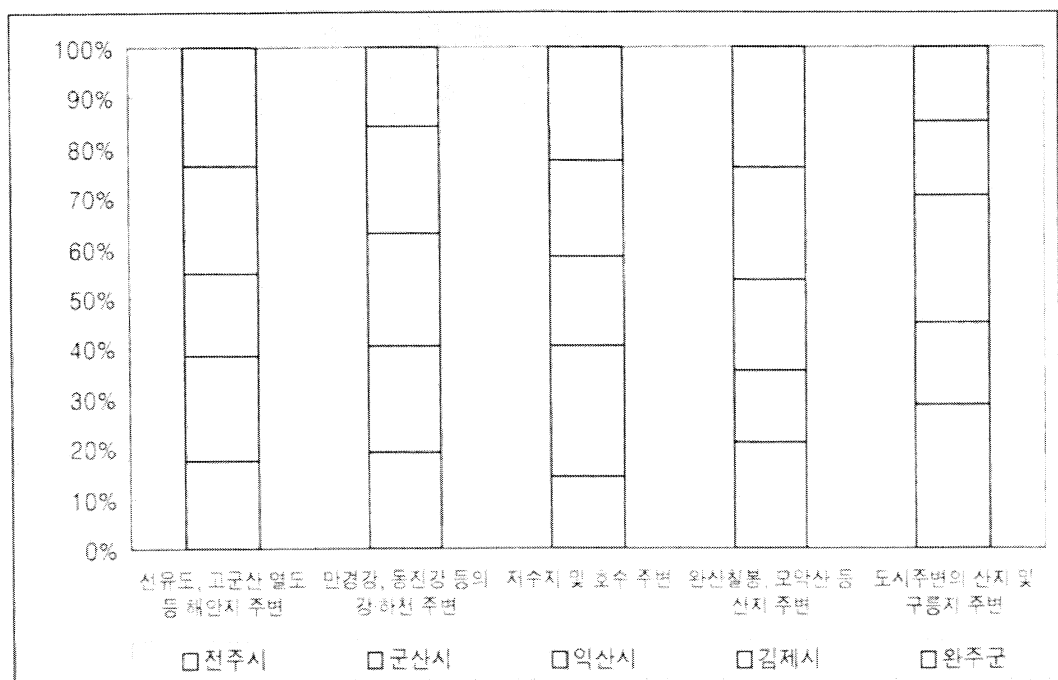
<그림 II-15> 목표와 전략

(2) 광역토지이용

- 응답자 전체적으로 자연환경보전 측면에서 만경강, 동진강 등의 강 하천 주변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억제해야 하는 곳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선유도, 고군산 열도 등 해안지역도 비교적 높은 비중의 억제지역으로 고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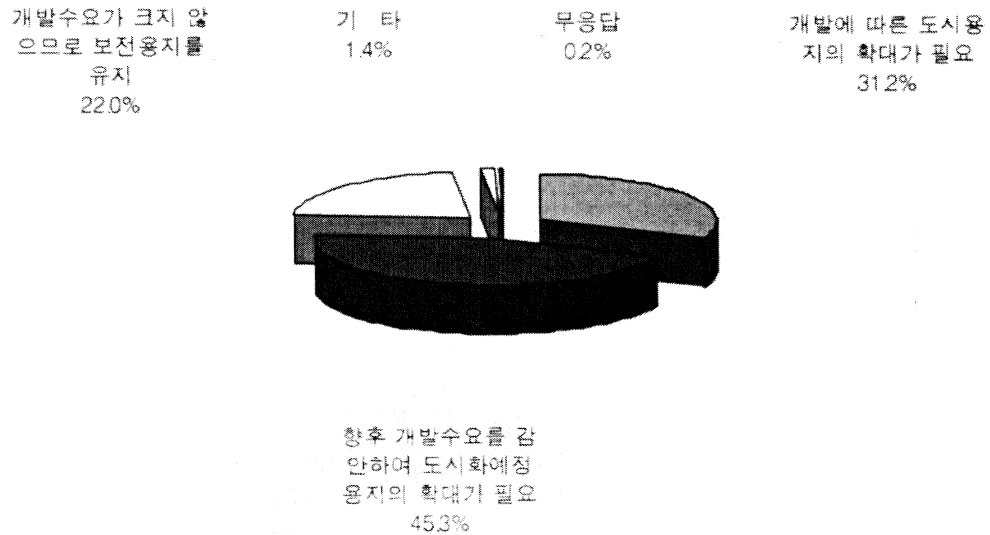
<그림 II-16> 자연환경보전측면에서의 개발억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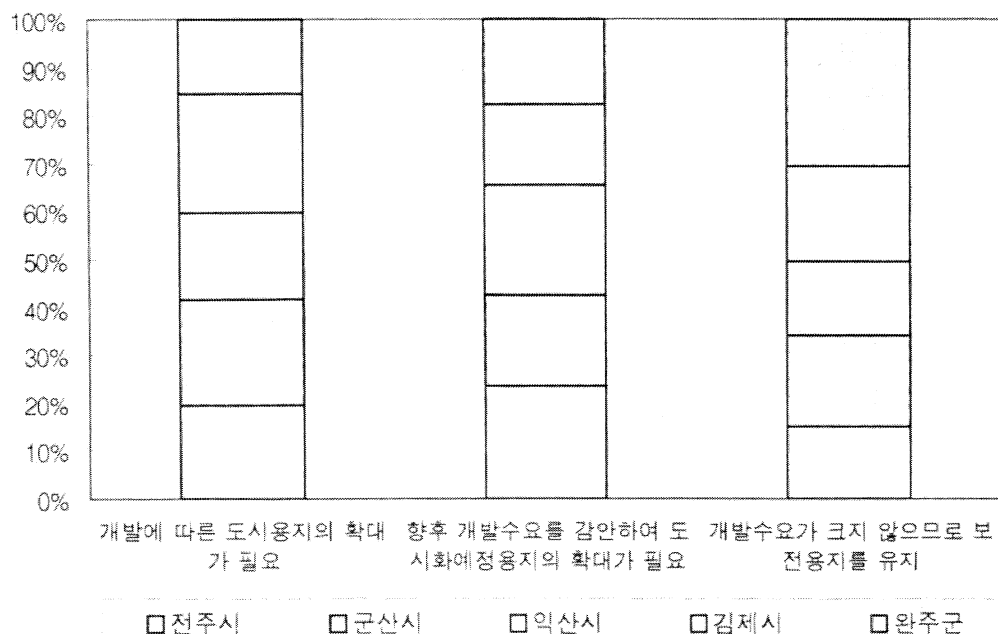
<그림 II-17> 자연환경보전측면에서의 개발억제지역(지역별)

일반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반면, 향후의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도시화예정용지의 확대와 개발에 따른 도시용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개발과 보전의 양면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개발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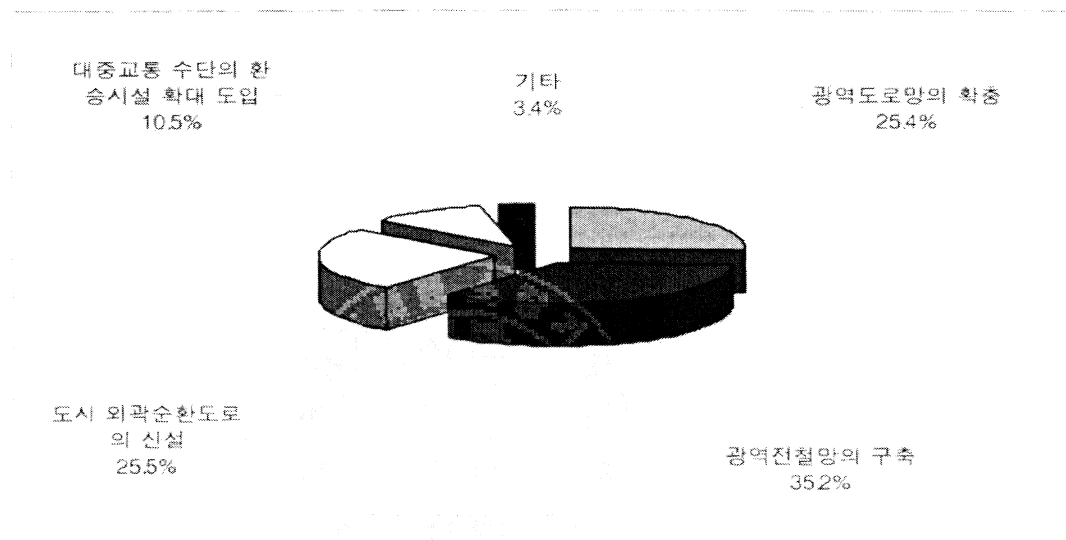
<그림 II-18>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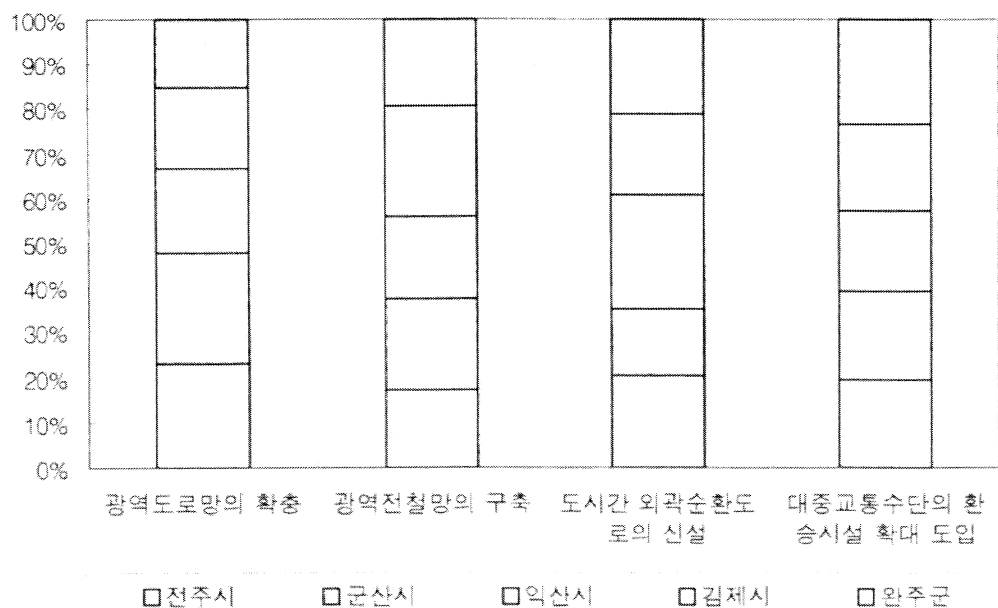
<그림 II-19>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의견(지역별)

(2) 광역교통부문

- 광역권내 지역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강구될 수 있는 중점 교통사업들로는 광역전철망의 구축, 도시 외곽순환도로의 신설 등에서 뚜렷한 특징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다만, 5개 시·군 지역별로 큰 특이점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도시인 전주시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가진 완주군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타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수단의 환승체계에 대한 의견을 다수 보임



<그림 II-20> 광역교통 중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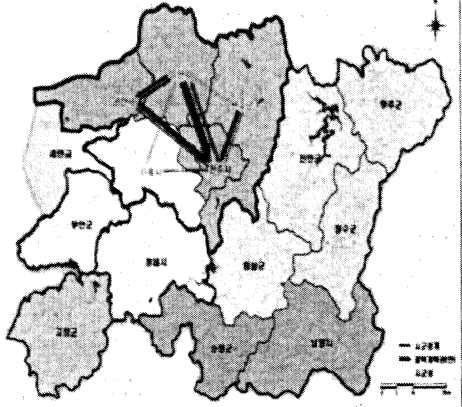
<그림 II-21> 광역교통사업(지역별)

일반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 통근

<표 II-17> 통근분석

O \ D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계
전주		11 (23.4)	23 (48.9)	5 (10.6)	8 (17.1)	47 (100)
군산	29 (60.4)		18 (37.5)	0	1 (2.1)	48 (100)
익산	43 (61.4)	21 (30.0)		4 (5.7)	2 (2.9)	70 (100)
김제	5 (53.6)	0	4 (44.4)		0	9 (100)
완주	24 (85.7)	0	3 (10.7)	1 (3.6)		28 (100)
기타	4 (3.8)	2 (6.1)	1 (2.0)	0	0	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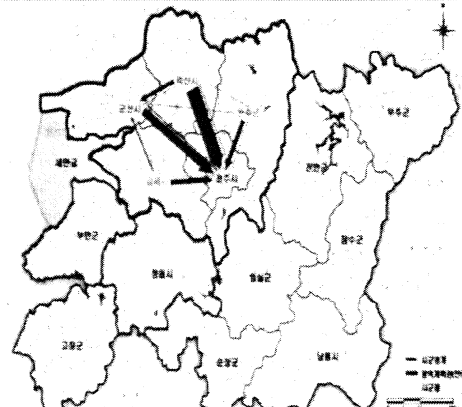


- 전주시 거주자가 통근을 위해 가장 빈번한 관계성을 갖는 지역은 익산시-군산시-완주군의 순으로 익산시가 가장 높으며, 전주시외의 4개 시·군지역은 전주시로의 통근을 위해 가장 빈번한 통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북지역에 있어 전주시의 중심기능 수행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즉, 전주시 거주자 가운데 48.9%의 통근자는 익산시 소재 직장 통근을 위해 이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군산시 지역에도 23.4%의 통근자가 있음을 보이고 있음. 반면, 군산, 익산, 김제, 완주 거주자는 전주시가 직장 출근을 위한 목적통행지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통학

<표 II-18> 통학분석

O \ D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계
전주		19 (41.3)	12 (26.1)	7 (15.2)	8 (17.4)	46 (100)
군산	99 (88.4)		8 (7.1)	3 (2.7)	2 (1.8)	112 (100)
익산	245 (81.1)	46 (15.2)		5 (1.7)	6 (2.0)	302 (100)
김제	54 (70.1)	21 (27.3)	2 (2.6)		0	77 (100)
완주	52 (89.7)	5 (8.6)	1 (1.7)	0		58 (100)
기타	5 (33.3)	2 (13.3)	2 (13.3)	5 (33.3)	1 (6.7)	1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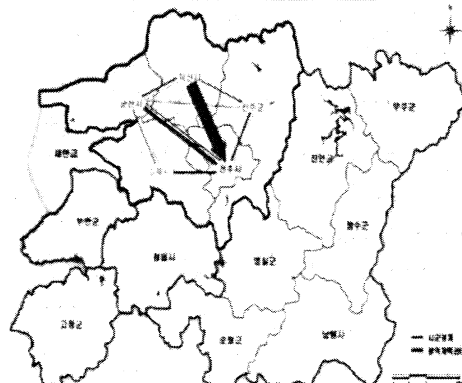


- 전주시에서 타 지역으로의 통학빈도는 군산시, 익산시 순이며, 전주시 외 4개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통학빈도 측면은 전주시로의 통학이 절대적임
- 전주시로의 통학정도는 완주군,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순을 보임

○ 업무·쇼핑

<표 II-19> 업무·쇼핑분석

O \ D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계
전주		33 (66.0)	4 (8.0)	2 (4.0)	11 (22.0)	50 (100)
군산	79 (63.7)		10 (8.1)	26 (21.0)	9 (7.2)	124 (100)
익산	216 (70.0)	43 (14.0)		15 (4.9)	34 (11.1)	308 (100)
김제	51 (65.0)	26 (33.3)	1 (1.8)		0 (0.0)	78 (100)
완주	42 (73.7)	14 (24.6)	1 (1.7)	0		57 (100)
기타	10 (90.9)	1 (9.1)	0	0	0	1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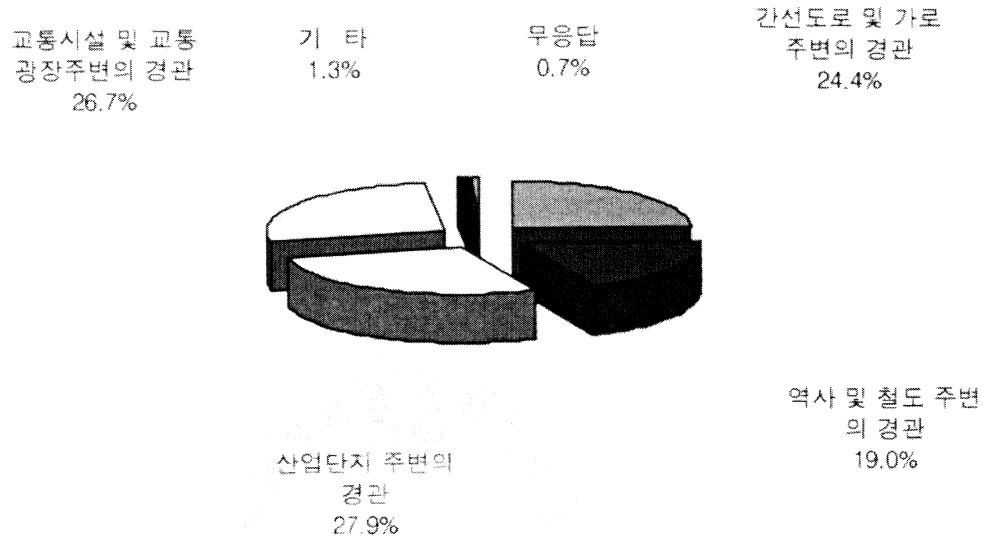
- 전주시 거주자의 거주지역으로 업무통행은 군산시, 완주군 순으로 통근, 통학과는 다른 행태를 보임
- 전주시를 제외한 4개 시·군지역의 지역외 업무통행은 전주시로 집중되고 있으며, 다만 군산시에서 김제시로, 김제시에서 군산시로, 완주군에서 군산시로의 분포정도는 상당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체적으로 가설정된 광역도시권내에서 전주시로의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발생량이 우위에 있음
- 전주시로부터 타 지역으로의 쇼핑을 위한 통행 빈도는 군산, 익산, 김제시 순이면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군산시와 익산시 등 이들 두 지역간 쇼핑을 위한 통행 빈도는 비슷한 수준에서 상호 지역에 목적지를 두는 경향이 존재함
- 다만, 김제시의 경우는 군산시와 익산시로의 쇼핑을 위한 통행 빈도가 높은 실정임

(4) 녹지관리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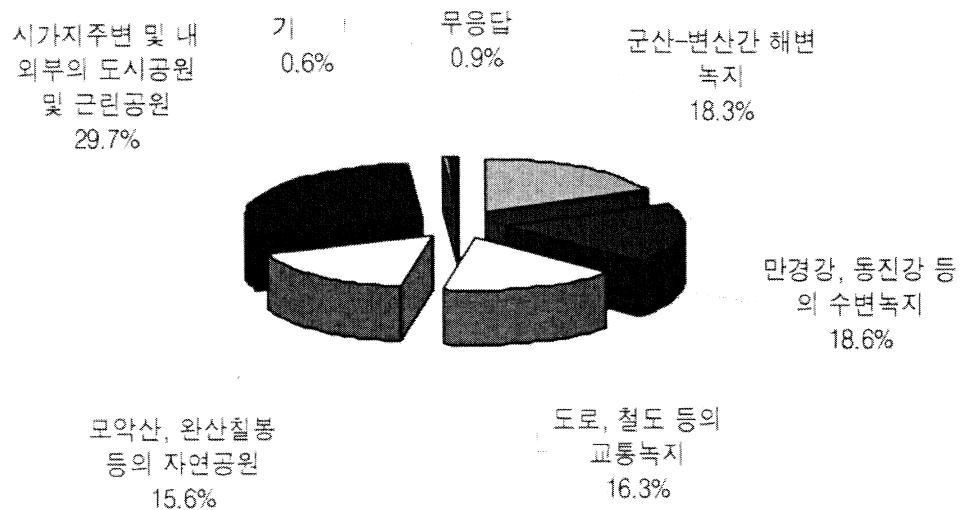
- 도시경관에 대한 주요 영향 요인으로 산업단지 주변의 경관과 교통시설 및 교통광장주변의 경관을 가장 높게 꼽고 있으며, 가장 많은 문제점을 보유한 지역으로 인지하고 있음

일반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생태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도심 녹지체계 구성의 주요 요소로 응답자의 약 30.0%가 시가지 주변 및 내·외부의 도시공원 및 근린공원이라고 응답하여 주거생활 가까이에 존재하는 오픈스페이스의 중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아울러 선적 시설이면서 도시민에게 여유로움을 주는 수변 및 해변녹지 공간의 중요성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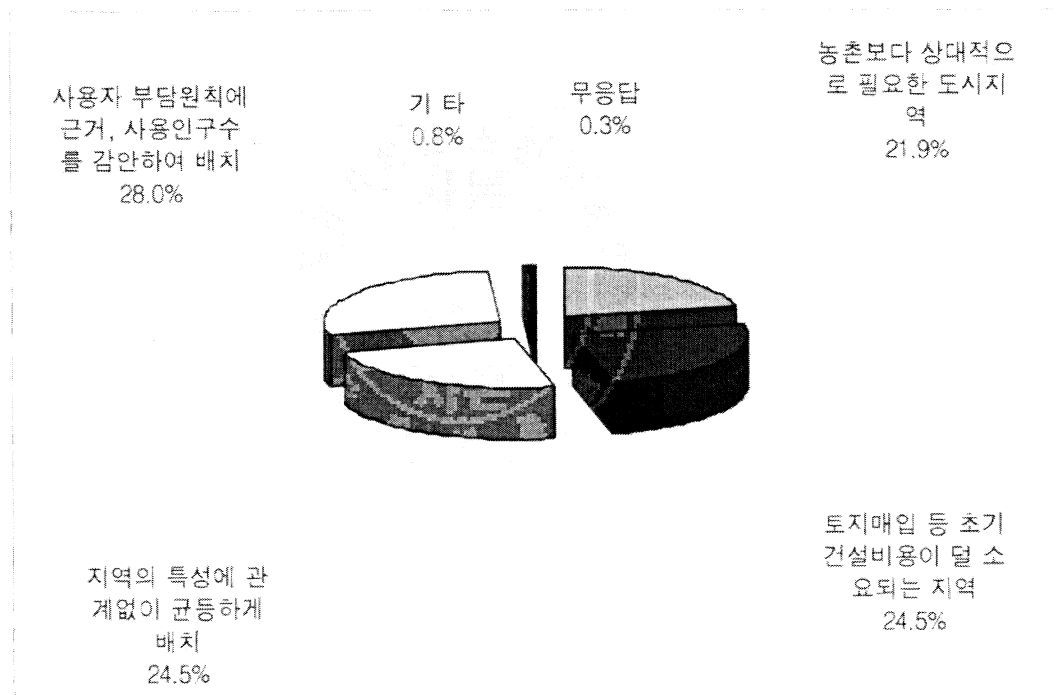
<그림 II-22> 도시경관의 문제점



<그림 II-23> 녹지체계 구성요소

(5) 광역공급이용시설부문

- 광역시설은 시설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지역주민이 입지를 매우 강하게 기피하는 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혐오시설의 입지방안에 대해 광역도시권내 주민은 대체로 어느 한 특정요인에 따라 입지결정원칙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 보다는 다면적 요인이 상호연결시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종합할 수 있음
- 즉,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수를 보유한 도시지역에 입지해야 한다는 생각과 수혜권내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배치해야 한다는 의식,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 소요재원이 저렴한 지역을 탐색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유사한 비중으로 응답되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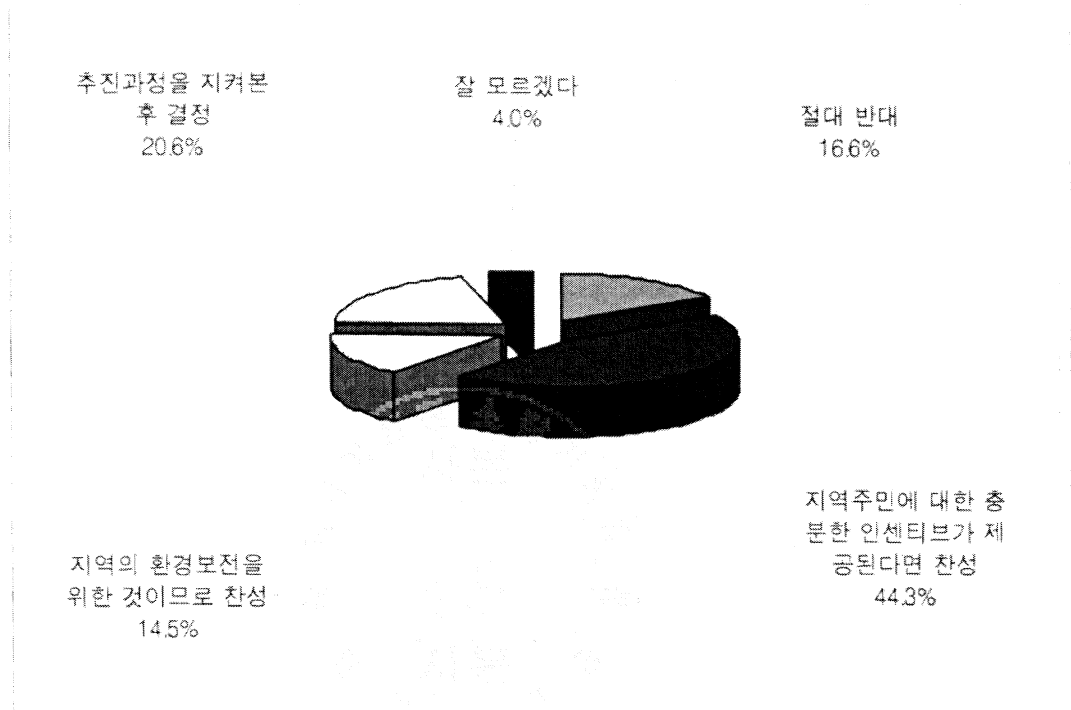


<그림 II-24> 광역시설의 배치

- 다만, 설문문항 특성상 균등한 배치에 대한 의견항목 외에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수용인구수를 감안한 배치유형은 상호 연계성을 갖는 문항이라 할 수 있어서 주로 수혜자 원칙에 근거한 배치방식이 적합하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과반수 정도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봄

일반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대체로 5개 시·군지역별로는 큰 차이없이 유사한 구조로 광역시설가운데 혐오시설의 배치방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혐오시설 입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극단적인 반대와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므로 찬성한다는 의견보다는 정책 입안과정을 관망한 후 유치를 희망하겠다는 신중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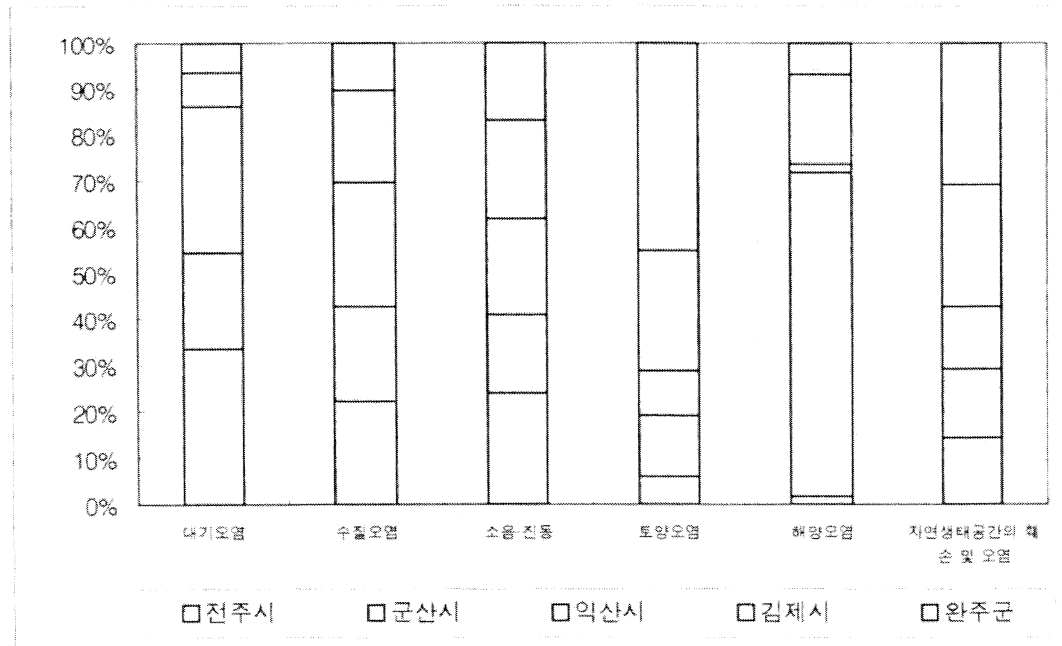


<그림 II-25> 혐오시설에 대한 의견

- 특히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과 추진과정에 대한 관망여론이 57.6%에 달해 지역내 혐오시설 입지시 신중한 정책전개와 다양한 정책 접근 등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6) 환경보전부문

- 응답자 대부분은 소음·진동과 대기오염이 가장 많은 문제점을 진 환경오염부문으로 인지하고 있음
- 시·군별 응답형태를 살펴보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전주, 군산, 익산의 경우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답하여 주로 생활환경과 연관성이 있으며, 김제, 완주,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소음·진동, 자연생태공간의 훼손 및 오염, 토양오염 등이 심각하다고 답하고 있어 자연환경과 연관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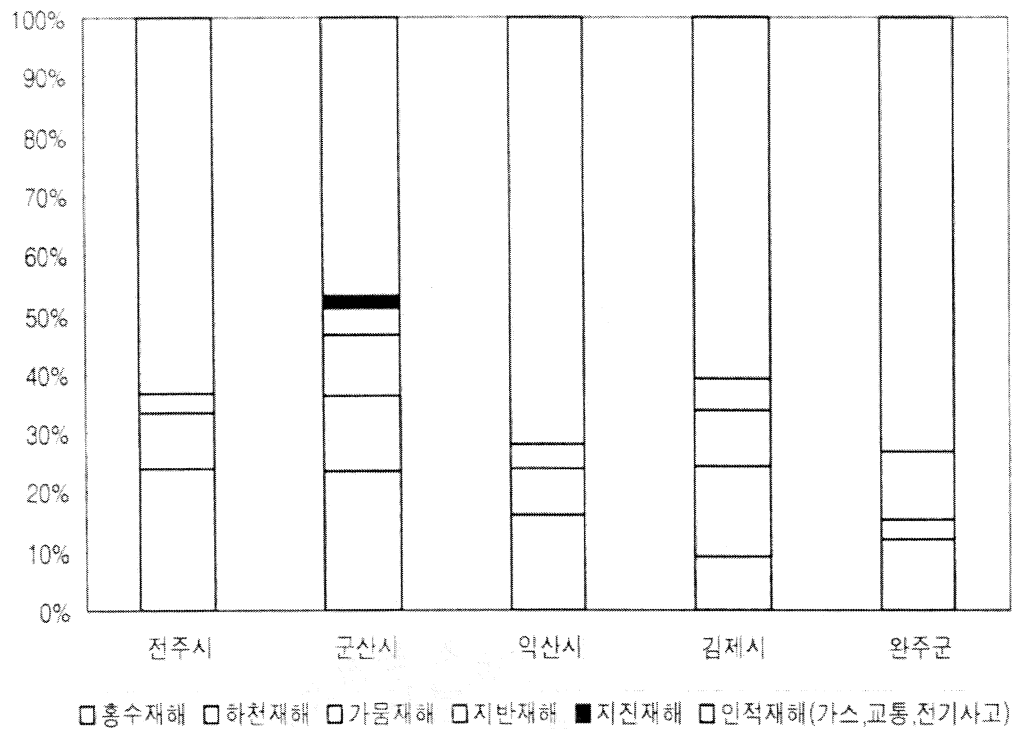


<그림 II-26> 지역별 환경오염에 대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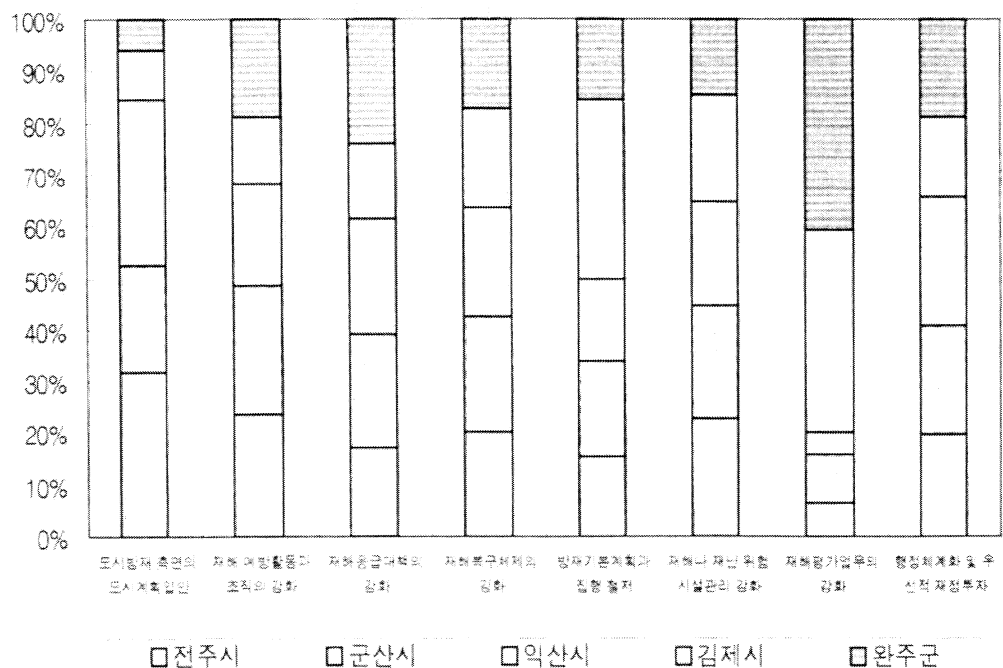
(7) 방재부문

- 가장 시급히 강구해야 할 1순위 방재대책은 인적재해(가스, 교통, 전기사고)이며, 2순위로는 홍수재해, 3순위로는 하천재해인 것으로 나타남
- 익산, 김제, 완주의 경우 방재상 취약점으로 인적재해를 꼽고 이에 대한 대책강구에 60.0%이상이 응답을 하고 있어 군산시보다 가스, 교통, 전기사고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대책의 필요성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음
- 도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방재 측면의 도시계획입안을 1순위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재해 예방활동과 조직을 강화, 재해복구체제의 강화의 순으로 나타남. 재해방재를 위해 사전예방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의견임

일반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그림 II-27> 지역내 방재상 취약점



<그림 II-28> 도시방재 대책

3. 발전잠재력 및 제약요인

1) 국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 세계경제체계의 확대와 동북아시아 경제성장 활성화

- 보호무역주의 붕괴로 무역, 해외투자, 기술이전 등에 있어 국경이 장애가 되지 않는 초국경 세계경제시대 전개
- 유럽, 북미, 아세안 등 각 지역간·국가간 경제블럭화가 형성되어 지역간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게 되며, 다양한 지역연합의 필요성 제기
- 중국의 급속한 성장 및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적 성장은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함에 따라 역내 교역량의 증대가 예상되며, 이에 맞는 여건의 형성이 필요

○ 첨단지식기반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와 혁신환경의 중요성 증대

- 정보통신 인프라의 보급을 통하여 지식정보교류의 확대와 전자·생명공학 등 첨단산업과 지식정보산업이 향후 경제발전을 주도할 것임
- 과거 자본, 노동력, 자원 등의 요소투입의 외형중심의 성장전략에서 탈피하여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모색하여야 함
-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중심의 산업단지에서 산업클러스터로 전환할 전망이며,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학습과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시 될 것으로 전망

○ 지방화 시대의 정착과 지역발전의 기회 확대 및 경합·갈등 증대

- 지방의 권한 확대와 세계시장질서 속에서의 역할 증대로 창의적·자립적 발전 기회가 확대될 전망
- 국가 경쟁력은 지역경쟁력에 의해 좌우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지역의 자립적 개발 및 연계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임
- 지방화의 추진에 따라 지역개발에 대한 자율적인 노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경합·갈등, 분쟁의 조정이 주요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

일반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욕구증대

- 주 5일 근무제 도입, 고속철도 개통에 의한 당일 생활권 시대, 정보화 시대 개막 등으로 국민의 시간 및 공간이용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전망
-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욕구 증대 및 환경친화적인 주택 및 쾌적한 녹색교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

○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인식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증대

- 다양한 산업 및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을 강화하고 계획적 토지이용체계 구축이 중요시될 전망
-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원칙아래 향후 개발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하고,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각종 계획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계획체계를 구축하여 후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필요성 증대

2) 전주권의 여건변화와 전망

○ 환황해경제권 및 서해발전축의 중심지역으로 성장예상

- 제4차 국토종합발전계획상에서 전북은 서해발전축(목포-군산-인천-(신의주-중국))의 중심 지역으로 기대해져가는 환황해경제권(중국 등 동북아지역)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 여건의 개선 예상

- 새만금개발사업, 혁신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낙후되어가는 전북지역의 활로를 열어 줄 수 있으며, 지역발전의 여건변화와 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 광역교통과 군장신향, 전주·군장산업단지 등 신산업지대 조성 등은 향후 전북권의 생산·물류·유통 기능을 확충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생산·물류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

○ 신산업지대 구축 및 지연산업의 구조개편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빠른 기술이전과, 기술혁신으로 인해 지연산업의 구조개편과 에너지산업 및 자동차기계 중심의 신산업으로 개편 예상

○ 생활권의 광역화 및 도시 환경의 질적 상승 욕구 증대

- 교통·통신망의 확충, 자동차 보급의 확대는 정보, 물자, 사람의 이동에 대해 시간과 비용을 줄임으로써 광역적 생활권 형성을 유도하게 될 것임. 이와 더불어 광역생활화 현상은 주변 지역의 환경파괴와 연관되어 나타날 것이며, 이로 인해 도시민의 주거환경 및 지역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것임
- 또한, 소득증대로 인하여 도시민의 삶의 형태는 다양한 문화생활, 질적으로 우수한 주거환경,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 등이 증대되어 삶의 질적이 차원에서 도시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취될 것임

3) SWOT 분석

(1) 강점 및 잠재력

○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 및 새로운 발전축으로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 새만금, 혁신도시 건설,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고속 광역교통 입지로 빠른 성장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음
-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에서 제시한 발전축 가운데 서해안축의 중심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과의 교역증대로 인해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지역고유의 문화·예술과 경관·환경자원 보유

- 백제역사문화자원, 해양휴양자원, 청정산악휴양자원, 전통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잠재력이 높음
- 금강 및 만경강을 비롯한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친환경적인 지역 및 도시개발을 위한 우수한 지역여건을 지니고 있음

○ 산업클러스터 형성의 실현 잠재력을 보유

-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은 향후 전주권의 전략산업 유치와 이를 통한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대한 실현가능성 보유
- 또한 군장산업단지, 군산외국인투자지역, 새만금 지구 등 풍부한 공업 및 농업용 토지자원 확보의 용이성으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수도권 및 대전권 등의 주요 광역권의 접근성이 용이

- 서해안고속도로의 완공과 호남고속철도, 군장신항 등 대규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실현이 예상됨에 따라 본 권역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

일반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건설, 공공기관이전 등 국가균형발전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이행됨에 따라 국토중심이 수도권에서 대전권으로 변화된 것으로 전망

(2) 약점 및 위협요인

○ 취약한 산업구조 및 생산기반 보유

- 1차산업의 비중이 16.1%로 전국에 비해 3배정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2,3차 산업은 각각 30.4%와 53.5%로 취약한 산업기반을 보이고 있음. 또한 지역총생산액은 2003년 현재 약 3.1%로 낮은 실정임

○ 지역의 중심성 부재 및 지속적 인구유출

- 5개시·군은 자립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 상호연계성이 부족하고 선도적인 중심도시의 기능이 약하며,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하여 인재의 외부유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광역교통시설 및 지역간 연계교통망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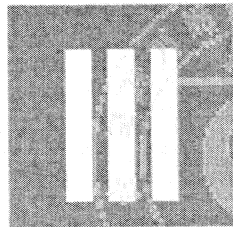
- 5개 시·군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은 군산~전주~익산축 중심의 동과교통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권역내 지역간 연계망이 미흡
- 또한, 대중교통체계 및 광역교통시설이 미흡하여 지역간 정체구간이 증가되고 있으며 간선도로망의 단절 및 시내교통의 혼잡으로 권역 내·외부의 비효율성이 잠재하고 있음

○ G.B해제와 산업개발 수요증가로 인한 환경훼손 및 난개발 우려

-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호남고속철도,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실현됨에 따라 산업 및 도시개발 수요가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환경훼손 및 난개발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강점(strength)	단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예술, 경관 및 토지자원 풍부 ● 첨단산업 및 산업클러스터 등 잠재력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한 산업구조 및 생산기반 미비 ● 지역내 도시간 상호기능연계 미흡 ● 도시간 경쟁으로 투자의 비효율성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책사업의 전개 및 국토발전축상 성장잠재력 ● 국가기간망 구축으로 접근성 및 입지여건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확산에 따른 환경훼손 및 난개발 ● 지역 중심성 및 경쟁력 저하에 따른 인구유출 현상

<그림 II-29> 전주권의 SWOT 분석



계획수립의 목표와 전략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2. 전주권의 계획목표와 추진전략
3. 계획지표의 설정

III. 계획수립의 목표와 전략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표 III-1> 상위계획의 기본목표와 전략

구분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전주·군장권 광역개발계획	제3차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계획 기초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거점시설의 확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국가거점지역으로 육성
계획의 기본 목표	I. 상생하는 「균형국토」 II.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III. 살기좋은 「복지국토」 IV.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V. 번영하는 「통일국토」	I. 비유점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 구축 II. 신속·안전·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실현 III.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교통망의 구축	환경해경제권의 거점으로 국제적인 생산·교역 전진기지 구축	I.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집적경제 기반구축 II. 개성있는 세계적인 지역문화 창출 III.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 전략	6대 추진전략 1.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2.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쟁과 통일 기반 조성 3.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4. 아름답고 인간적인 도시주거 환경 조성 5.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6.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전북권: 신산업 생산 및 물류기지 기본목표	2000~2009 1. 기존 간선교통망 확충사업의 완공과 지역간 수송아로구간의 배소를 우선적으로 추진 2. 간선교통축을 다변화하여 지역간 수송수요를 분산·조정하고 전국 차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 3. 신공항·신항만 등 국제교통시설의 확충으로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화 기반을 조성 4. 남북교류협력지원을 위해 남북교통망 국원을 추진	1. 신산업지대의 조성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지역경제권 형성 및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 2. 첨단기술 및 정보화시대의 대비하기 위하여 경제적 하부구조와 아울러 쾌적한 생산·생활환경 창출 등 친환경적인 미래형 물적기반을 조성 3. 백제문화권 등 역사유적과 해양휴양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위락거점을 조성 권역별 개발방향	7대 추진전략 1. 지역의 통합성 증진을 위한 공간개발 2. 개성있는 친환경적 지역장주기반산업 육성 3.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지식기반산업 육성 4. 세계와 지역을 통합하는 교통·정보인프라 구축 5.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보전 및 자원개발 6.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7.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품격의 생활·복지환경 조성 권역별 개발방향
	1) 환경해권 및 새로운 국토발전축의 중심지역 2)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신산업 중심지역 3) 세계적인 맛·맛·소리 문화의 창조지역	2010~2019	1. 산업업무중심권(군산, 서천): 국제교류거점 형성, 국제항, 신산업지대, 업무교역도시건설 2. 배후생산지원권(익산, 김제, 논산): 유통 및 주거단지 중심개발, 연관부품 관련산업단지 건설 3. 내륙관광문화권(익산, 부여): 역사문화 및 자원의 발굴·복원·보전, 교육·문화 및 위락기능 담당	1. 중심대도시권(전주시, 완주권): 전북발전의 핵심거점으로 행정 및 중추관리기능, 영상산업수도 등 첨단산업의 메카, 전통문화의 배후지원기능, 관광·전문서비스 등 복합기능 2. 국제생산·교육권(군산시, 익산시, 김제시일부) 군장산업단지, 잠신허, 군산자유무역지역, 전주권신공항 및 새민금지구조성 등 첨단산업기반구축, 대규모, 임해형생산, 국제적 교육 및 물류기능
	발전방향 1. 새로운 국토축 형성에 부응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강화 2. 지역간 광역교통·물류체계 구축 및 지역정보화 추진 3.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4. 전통문화중심 및 영상문화산업수도화로 지역자원을 세계화 5. 청정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와 정주환경 개선 6. 자치행정역량 강화와 인적·지리적 협력사업의 우선 추진	1. 간선교통망의 지속적 확충과 철도중심의 고속·대량 간선교통망을 구축 2. 남북·동서교통축의 확충과 미연결 구간 연결 등 국가기간교통망을 완성 3.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국가 역할수행을 위한 교통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1)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2005-2020) : 전북권

(1) 계획목표 : 신산업 생산 및 물류 중심지역

(2) 추진전략

○ 새로운 국토축 형성에 부응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강화

- 전주~익산~군산 연담대도시권과 주변도시권을 아우르는 전주·군장광역권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
- 복합기능의 '미래형 혁신도시'를 육성하고, 전략산업 관련 국가공공기관을 유지하여 클러스터를 형성

○ 지역간 광역교통·물류체계 구축 및 지역정보화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지역간 연계강화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 육성과 산업생산체제의 고도화를 위해 지역혁신 주체들간에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
- 전략산업과 지역고유의 전통산업 활성화
- 전주~익산~군산을 주축으로 하고, 익산~김제~정읍을 보조축으로 하는 T자형 전략산업벨트와 혁신클러스터를 조성

○ 전통문화중심 및 영상문화산업수도화로 지역자원을 세계화

- 풍부한 지역문화자원을 세계적인 관광자원화
- 권역별 자원특성에 따라 역사문화관광·산악휴양관광·해양문화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등을 연계하여 국제적인 복합관광 및 레저단지 조성 추진
- 전통문화공간 조성을 인력양성, 전통문화산업 육성,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통해 전주권을 전통문화중심지역으로 육성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1) 계획목표

○ 국가교통체계의 구조적 통합의 강화

- 국가교통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고효율 교통체계를 구축
- 교통수단간 보완성과 대체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교통수단간 연계를 강화

○ 교통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 교통수단별 특성을 감안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교통시설의 확충과 병행하여 교통안전, 환경보호 등 질적 교통 추구

○ 양질의 교통서비스 개발을 위한 참여와 경제의 확대

- 공급자위주의 교통정책에서 탈피하여 국가, 기업, 국민 등 다양한 주체의 입장에서 교통정책을 추진
- 교통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
-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교통산업의 구조개편

○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국제수준 교통망의 구축

- 동북아 교통·물류거점 기지조성
- 전국의 반일생활권화

(2)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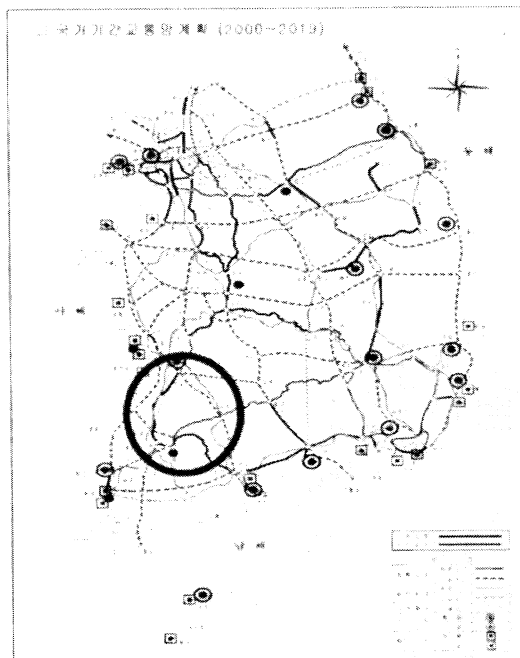
○ 2000-2009

- 기존 확충사업의 완공과 지역간 수송애로구간의 해소를 우선적으로 추진
- 간선교통축을 다변화하여 지역간 수송수요를 분산·조정하고 전국차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
- 신공항, 신항만 등 국제교통시설의 확충으로 동북아 교통·물류중심지화 기반조성
-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남북교통망 복원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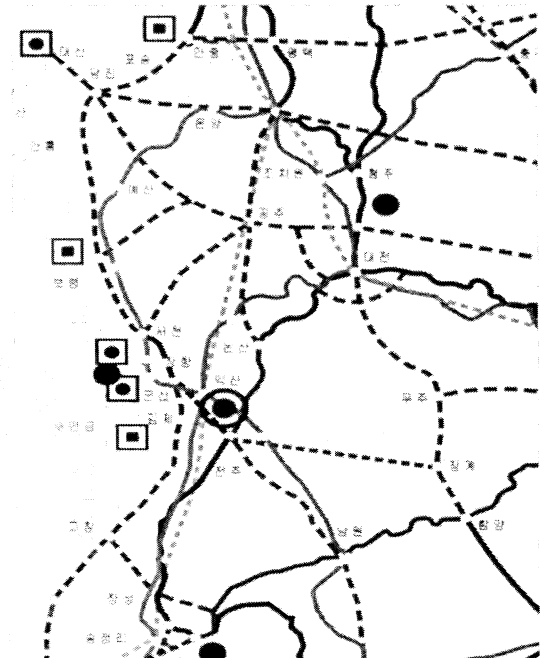
계획수립의 목표와 전략

○ 2010-2019

- 간선도로망의 지속확충과 전도중심의 고속 대량 간선 교통망을 구축
- 남북·동서축의 화충과 미연결 구간 연결 등 국가기간교통망을 완성
-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국가 역할수행을 위한 교통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를 지속추진



<그림 III-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그림 III-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전북)

3) 전주·군장권 광역개발계획(2001-2011)

(1) 계획목표 : 환황해경제권의 거점으로서 국제적인 생산·교역 전진기지 구축

(2) 추진전략

○ 국제기능유치 및 지원을 위한 업무·지원서비스 기반구축

- 환황해경제권의 국제적 생산 및 교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의 제약요인인 행정업무·지원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항만 및 공항건설,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조성 등 국제적 교류시설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광역권을 지방의 세계화거점 및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

○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첨단복합산업벨트 구축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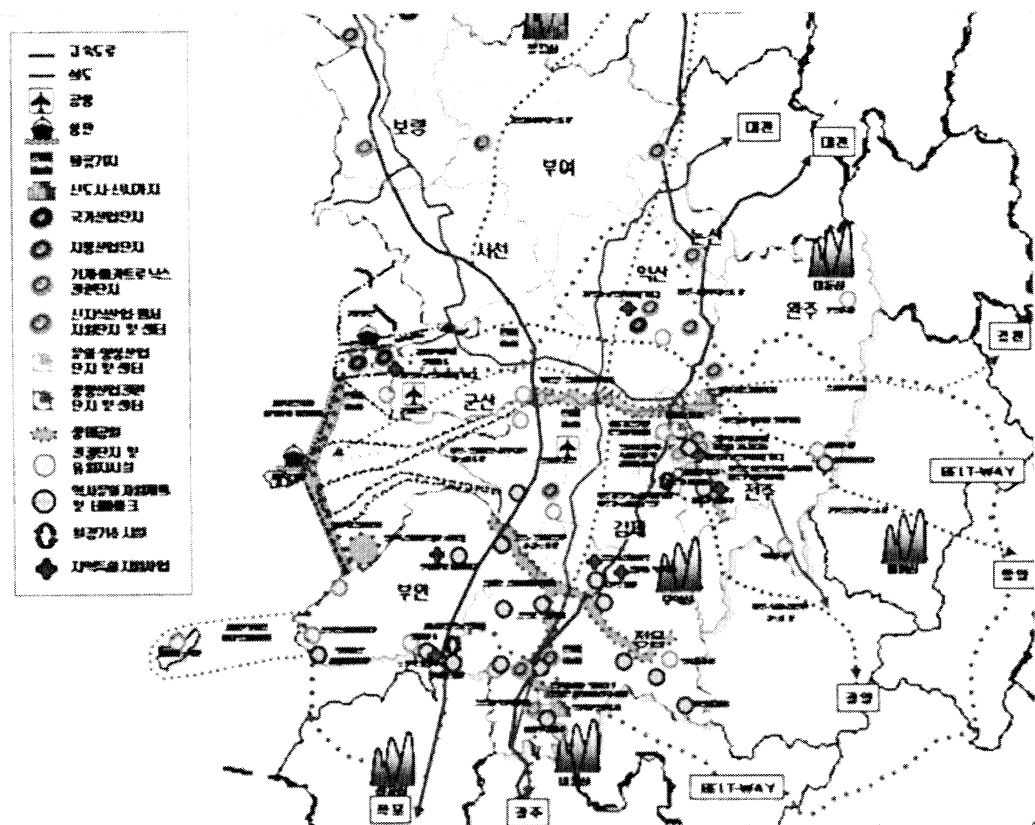
- 제조업 위주의 산업개발에서 탈피하여 자족적인 지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전문지원서비스업 등 복합적인 산업기능 수행지역으로 육성하며 지역내 기업유치 촉진 및 산업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특화 및 첨단산업 위주의 산업벨트 및 산업클러스터 형성촉진을 지원하고 산업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 지역문화·관광자원간 종합적인 네트워크와 관광거점시설 구축

- 다양한 지역문화자원 및 역사·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문화·관광루트 등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경유형 관광지대로의 전략을 방지하기 위해 상징적인 관광거점시설 및 고급숙박시설을 확충

○ 생태자원의 보전과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 새만금지구, 내장산, 국·도립공원 등 생태거점 보유로 이들간의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지역생태기반을 조성하고, 광역환경보전체계의 구축으로 종합적인 환경보전 및 관리대책을 수립



<그림 III-3> 전주·군장광역권 추가권역 개발사업

4) 제3차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2000-2020)

(1) 계획목표 :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국가거점지역으로의 육성

○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집적경제 기반구축

- 환황해경제권의 국제적인 경제·교류거점 육성을 위해서 지역의 개방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세계화 전진기지를 구축
- 환황해권 생산·교역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제항만·공항 등 물적기반과 경쟁력 있는 집적경제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연구개발, 첨단산업 육성, 국제교역 및 업무기능을 확충

○ 개성있는 세계적인 지역문화 창출

-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위해 고유한 정체성과 매력을 지녀야하며,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개방성을 갖추어야 함
- 세계적인 지역문화창출에는 지역문화 수준의 세계화와 함께 개발적인 주민의식 및 제도의 확립이 전제되어야함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며, 차세대를 위한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임
- 지역내 문화적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 사회적 조건 및 물적환경의 개선과 함께 교육·문화·의료 등 인적 자원개발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탁월성을 높이는데 중점

(2) 추진전략

○ 지역의 통합성 증진을 위한 공간개발

- 도시기능 전문화와 지역중심성 강화를 위한 개발권 구상
- 도시간 기능보완·연계 강화를 위한 개발축의 설정

○ 개성있는 친환경적 지역정주기반산업 육성

- 인간중심의 친환경적 도시생활기반 구축
- 지역특성을 살린 농·산어촌 및 특수지역 개발

○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지식기반산업 육성

- 농림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화
-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신산업의 육성

○ 세계와 지역을 통합하는 교통·정보인프라 구축

- 국제교류거점 시설조성과 간선교통체계의 구축
- 광역도시교통체계 구축과 첨단교통·정보인프라 구축

○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보전 및 자원개발

- 지역의 경관과 생태를 고려한 지역생태 통합네트워크 구축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등 공급처리시설 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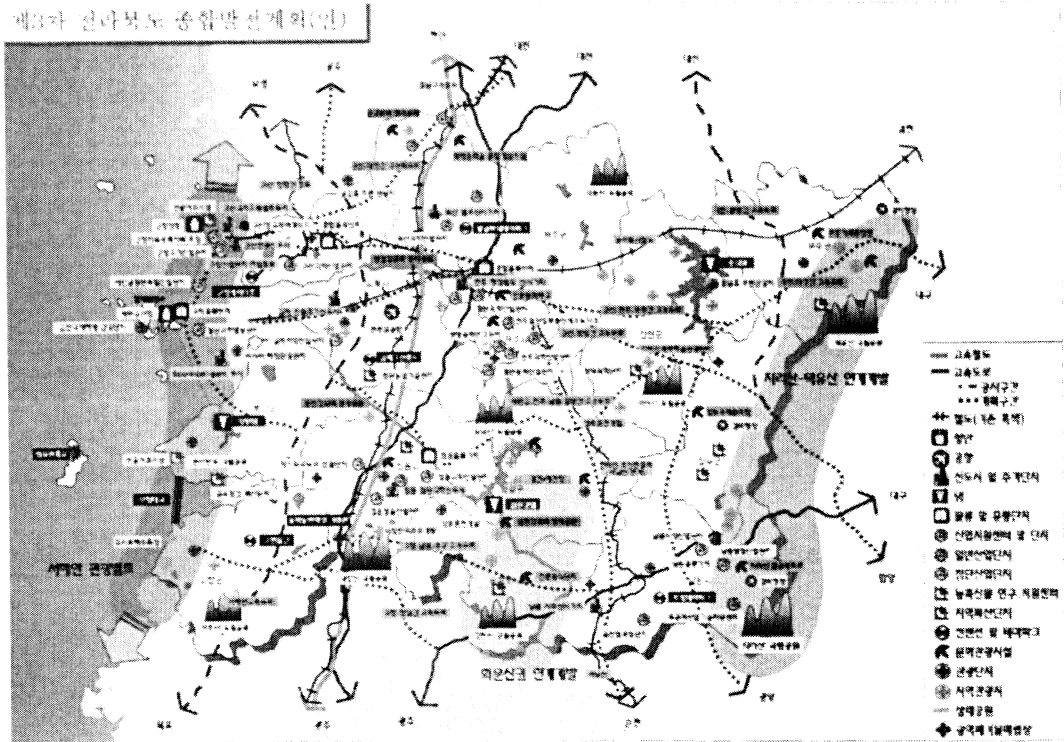
○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과 문화·여가 활성화
- 경관 및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산업 육성
- 세계적인 지역문화 창출과 국제교류·협력 강화

○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고품격의 생활·복지환경 조성

- 전통과 문화에 바탕을 둔 쾌적한 주거경관 조성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및 생활기반 조성

계획수립의 목표와 전략



<그림 III-4>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5) 시·군별 발전방향

(1) 전주시 :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창조적 문화도시

○ 한강해경제권 시대 국토중서부의 거점지역으로서 지역중심기능 강화

- 군장신항, 호남고속철도, 공항,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함양고속도로 등 국가간선교통체계 구축
- 전주~익산~군산간 광역전철 등 광역적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 전북지역내 행정 및 중추관리도시로서 기능강화와 광역도시권 조성

○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첨단·정보산업기반 확충

- 멀티미디어산업의 지역거점 육성으로 영상산업 및 지식산업수도 기반 구축
-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지식산업기반 확충 및 창업, 개발, 업무지원서비스 산업 육성

○ 세계적으로 개성있고 고유특성을 지닌 전통적인 문화예술기반 육성

- 문화·전통적 예향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전통문화특구, 향토역사박물관 조성
- 문화도시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거리, 보행자전용공간, 국제영화제, 문화시민운동 및 축제 개최 등

○ 역사문화와 환경적 쾌적성을 살린 녹색생태도시 건설

- 지역주민에게 환경적 쾌적성을 제공하기 위한 자전거시범도로, 보행시설, 저밀도 주거단지, 친수공간 등 친환경적 여건조성
- 노면경전철 등 친환경적인 도시교통체계 도입

(2) 군산시 : “국제적 생산 및 교역도시”

○ 국제적인 생산·교역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접근성 개선

- 한강해경제권의 거점으로서 입지적 특성을 살린 국제자유무역도시 구축을 위한 유치기반 조성
- 공항, 항만, 물류기지 등 국제교류기반 확충과 전국적 연계교통망, 정보인프라 구축
-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교통체계 확립

○ 해양자원과 주변자원을 활용한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 기반구축

- 해수욕장, 방조제, 새만금 등 해양자원과 주변자원을 활용한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 기반 구축
- 대규모 산업단지의 위락과 휴양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라스베이거스형 국제위락단지 조성 및 산업관광 활성화
- 역사문화 유적자원의 정비를 통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복합적 관광루트개발

○ 배후생산지원도시로서 균형적 도시공간 구조 및 친환경적 생태도시 창출

- 국제자유무역도시 조성에 대비하여 산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도시기능 조성
- 충분한 녹지공간, 인간중심의 도시편의시설 확보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 청정한 도시 건설

계획수립의 목표와 전략

- 기존 시가지의 정비, 만경강 생태하천, 수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적 생태도시 창출
-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기반확충

(3) 익산시 : “물류와 특화산업 기반을 갖춘 역사문화도시”

○ 교통건전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물류 및 유통중심도시 기능 강화

- 전주~익산~군산 연담도시권내 배후공단의 화물과 농산물의 집·배송기능을 담당토록 물류유통단지 등 유통도시 기반확충
- 군장국가산업단지, 전주3공단, 전주과학산업단지 등과 연계

○ 보석·석제가공 및 니트산업으로 특화된 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 지역특화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조성
- 귀금속, 보석 및 석재 관련산업과 보석박물관, 보석대학 등의 유기적인 연계와 섬유패션, 니트산업을 활성화시켜 보석 및 패션도시로 특화

○ 역사자원과 종교자원의 세계화를 위한 지역이미지 구축

- 마한·백제문화자원의 복원 및 보전을 통한 성지순례 활성화 등 마한·백제시대의 문화 관광도시 부각
- 원불교, 천주교, 미륵신앙 등 세계적 종교도시로서의 면모를 강화하여 지역의 종교적 색채강화

○ 도시개발의 친환경적 기법 등 자연생태계 순환기능을 지닌 생태도시 육성

- 도시와 농촌경관의 조화를 살린 전원적인 도시개발,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등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 위락공간 제공

(4) 김제시 : “대규모 영농기반을 갖춘 생산지원도시”

○ 새만금간척사업,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전주권 신공항 및 군장광역권 배후거점도시로서 물류중심기능 강화

- 고속도로, 공항 및 철도연계 물류센터, 농축수산물 유통단지 등 개발

○ 환경보전형 농업육성 등 쌀의 브랜드화 추진

- 유기농산물 생산확대 및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과 연계한 환경보전형 농업육성
- 체류관광형 관광농업(그린투어리즘)의 육성 및 쌀의 차별화와 고부가가치화(브랜드화) 추진

○ 지역특성을 살린 경관정비를 통하여 환경시범도시로 조성

- 도시내 녹지공간 확충, 계획적 택지개발지구의 저밀도 전원주거단지 조성유도, 자전거시범도시 조성

○ 새만금지구와 연계한 해양관광단지조성 등 도시배후 전원 및 관광기능 수행

- 전원실버도시 개발, 건강휴양온천 특화, 노인종합복지센터 조성 등 실버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
- 김제평야를 활용한 관광상품 및 축제, 새만금지구와 연계한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독자적인 관광자원 개발

(5) 완주군 : “첨단산업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생산적 배후전원지역”

○ 대도시 근교의 배후전원 주거 및 휴양공간으로 육성

- 친환경적 도시개발 및 경관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대안적 전원주거공간 제공
- 호반휴양지, 계곡 등 위락 및 휴양기능 강화

○ 첨단산업 유치 육성으로 독자적인 생산기능 보유

- 자동차, 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로 지역의 독자적인 생산기능 보유
- 전주의 영상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 근교 및 생태영농기법을 통한 농산물의 대도시 직판매

- 농산물유통단지 등의 조성으로 대도시 소비시장에의 영농출하물 직판매, 지역적 입지특성을 살려 경계 활성화 도모
- 화훼생산, 유기농기법에 의한 청정채소 생산 등 영농단지 조성

계획수립의 목표와 전략

<표Ⅲ-2> 시·군별 발전전략 및 시책

시·군	발전목표	발 전 전 략
전주 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창조적 문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황해경제권 시대 국토중서부의 기점지역으로서 지역중심기능 강화 •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첨단·정보산업기반 확충 • 세계적으로 개성있고 고유 특성을 지닌 전통적인 문화예술기반 육성 • 역사문화와 환경적 쾌적성을 살린 녹색생태도시 건설
군산 시	국제적 생산 및 교역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인 생산·교역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접근성 개선 • 해양자원과 주변자원을 활용한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 기반구축 • 배후생산지원도시로서 균형적 도시공간 구조 및 친환경적 생태도시 창출
익산 시	물류와 특화산업 기반을 갖춘 역사문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결절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물류 및 유통중심도시 기능 강화 • 보석·석재가공 및 니트산업으로 특화된 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 역사자원과 종교자원의 세계화를 위한 지역이미지 구축 • 도시개발의 친환경적 기법 등 자연생태계 순환기능을 지닌 생태도시 육성
김제 시	대규모 영농기반을 갖춘 생산지원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거점도시로서 물류중심기능 강화 • 환경보전형 농업육성 등 쌀의 브랜드화 추진 • 지역특성을 살린 경관정비를 통하여 환경시범도시로 조성 •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도시배후 전원 및 관광기능 수행
완주 군	첨단산업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생산적 배후전원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근교의 배후전원 주거 및 휴양공간으로 육성 • 첨단산업 중심의 유치 육성으로 독자적인 생산기능 보유 • 근교 및 생태영농기법을 통한 농산물의 대도시 직판매

주 :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 p.449~461

2. 전주권의 계획목표와 추진전략

1) 기본 방향

○ 전체성(全體性)의 원칙

-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본 계획은 개별 시·군 행정구역 단위를 초월한 광역적 문제의 해결이나 공동의 지역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립되는 지역적 차원의 계획임
- 따라서, 광역적인 차원에서 현재와 미래의 공간변화에 적응·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전체의 발전방향제시라는 전체성의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설정뿐만 아니라 부문별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전체라는 공동의 번영을 기조로 삼아야 함

○ 다양성(多樣性)과 균형성(均衡性)의 원칙

- 다핵연계형의 국토공간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에서는 지역자립형의 경제권을 구축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어, 본 계획에서도 지역내 시·군별 다양성을 기반으로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통합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이러한 균형성의 원칙과 다양성의 원칙하에 공간구조구상 및 토지이용, 광역교통, 광역시설계획·배치·이용 등 부문별 계획의 실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ESSD)의 원칙

- 권역에는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예정에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선계획·후개발이라는 원칙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개발의 정(+)의 효과를 최대화하며, 부(-)의 효과는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음
- 공간개발에 있어서도 불가역성(irreversibility)이 존재하므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하에 보전과 개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후세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는 계획수립을 하여야 함

2) 전주권의 미래상 및 계획목표

(1) 전주권의 미래상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살고 싶은 지식기반 광역도시의 건설

- 과거(The Past), 보전(Conservation) :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자연자원 등에 대한 보전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및 다양성 구축의 의미
- 현재(The Present), 공생(Symbiosis) : 전주, 익산, 완주는 혁신도시 입지지역으로 전주권의 혁신주체로서 대변할 수 있으며, 혁신주체로서 지역의 중심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주변지역과의 상호연계를 통한 균형발전 즉, 공생적 발전의 의미
- 미래(The Future), 변화(Change) : 새만금 사업 및 군산지역에 신산업 생산지대 추진으로 지역의 새로운 변화상을 제시 전주권의 미래변화 의미



<그림 III-5> 전주권의 미래상

- 과거·현재·미래의 의미는 시·공간상의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는 것으로서 과거의 역사·전통문화에 대한 보전과 현재의 도시문화 및 공생의 발전, 그리고 미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전주권이 지니고 있는 많은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대처와 노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2) 전주광역권의 계획목표

목표 1	지역의 통합성을 증진을 통한 지역혁신의 유도
------	--------------------------

- 현재, 권역내에는 혁신도시 건설을 비롯하여 고속철도건설 등 다양한 국책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어 기타 지역개발사업들과 광역적 차원에서의 상호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통합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주시 일대의 미래형 혁신도시의 건설은 지역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시·군간 통합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를 매개로 지역의 통합성 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목표 2	기능의 분담 및 상호연계를 통한 적절한 성장관리 도모
------	-------------------------------

- 환황해경제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권, 남북내륙축의 서해안중심 등 전주권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특성을 지역경쟁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권역내 시·군간 물질·비물질 네트워크를 강화하여야 함
- 현재는 정보화 시대로서 교통·물류·시설 등의 기능연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문화 등 비물질 기능의 네트워크를 통한 시·군간 상호연계성 강화, 광역계획권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

목표 3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중복투자의 방지
------	-------------------------

- 광역시설은 여러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시설의 성질에 따라 배치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합리적 광역시설의 배치기준을 마련,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

계획수립의 목표와 전략

- 또한, 시설에 따라서는 님비현상과 쾰피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협의와 조정을 통한으로써 지역이기주의적 자립형 또는 떠남기기형 도시 계획시설의 배치가 아닌 협력적인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목표 4	산업클러스터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
-------------	-------------------------------------

- 첨단·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도래는 지역산업의 구조변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는 향후 전주권의 지역전략산업 및 특화산업에 대한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음
- 전북 서북부 지역에는 석유·의복업체와 자동차, 기계, 조립금속이 집적되어 있어 산업클러스터로의 발전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혁신주체들 간의 상호협력과 상호학습을 유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역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영상문화도시 조성과 같은 사업은 전주권의 신 산업형성을 유도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이를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목표 5	쾌적한 정주환경 확보 및 문화적 삶의 질 제고
-------------	----------------------------------

- 무분별한 난개발과 시가지의 확산은 환경자원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개별 시·군의 환경관리방안을 포함하여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의 확보 및 삶의 질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내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사회적 참여와 여가선용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목표 6	해양·역사·문화자원 개발을 통한 복합 관광거점 유도
-------------	-------------------------------------

- 전주권은 동쪽으로 산악지형과 서쪽으로는 해양, 그리고 각 지역마다의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임. 따라서 이들 자원들의 개별적 활용보다는 복합적 이용을 위하여 복합관광 거점을 형성시켜 복합적 관광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부문별 추진 전략 및 연계 방안

(1) 공간구조

○ 지역 통합성을 증진하는 공간구조의 구축

- 인접한 주변 광역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시·군별 혁신역량을 강화 필요. 이를 위해서는 광역적인 차원의 통합형 공간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간 마찰을 최소화하는 공간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공간체계의 형성

- 균형적인 기능분담과 상호기능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공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현재의 개별 시·군의 도시성장과 개발을 포용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2) 기능분담 및 토지이용

○ 시·군별 기능분담 및 연계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현재의 시·군별 고유기능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인 기능분담과 연계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권역내 산업벨트 및 산업클러스터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혁신클러스터의 육성

- 산업의 첨단화·지식화는 지연산업의 낙후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역산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연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며 동시에 자동차부품소재, 방사선융합기술, 신에너지산업, 농생명공학 등과 같은 첨단지식산업을 육성 및 인근 학·연과의 연계를 강화, 산업클러스터 형성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공간수요의 합리적인 배분과 균형적인 토지이용

- 공간구조상의 도시별 기능분담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계획을 유도하고 자족적인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용지 및 용도지역을 계획적으로 분산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 및 연담화 방지

- 한정적인 토지자원은 한 번 개발이 이루어지면 원상태로 돌릴 수 없는 불가역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통한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 및 연담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3) 광역교통

○ 지역의 통합성 증진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통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광역교통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혁신도시건설, 새만금개발사업, 산업클러스터 등 다양한 개발사업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의 구축이 요구됨

○ 상호교류 확대에 따른 간선교통체계의 정비

- 생활권 및 경제권 확대에 따른 지역간 교류의 증대는 기존 교통체계의 정비와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간선도로망의 확충, 광역전철망 도입의 검토, 외곽순환도로의 신설 등 광역적 차원의 정비와 시설도입이 필요함

(4) 광역공급·이용시설

○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투자효율성 증대

- 광역시설은 여러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시설의 성질에 따라 배치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광역시설의 설치기준을 바탕으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함

○ 님비(NIMBY)와 뽐피(PIMFY)시설의 적정배치를 통한 지역화합

- 권역의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발전은 님비와 뽐피에 얽힌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에서부터 발생된다고 생각할 수 있음. 따라서 지역이기주의적인 자립형, 떠넘기기형 도시계획시설의 배치가 아닌 협력적이며 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

(5) 여가공간 및 녹지관리

○ 시가지의 무분별한 확산방지 및 녹지네트워크의 구축

- 지역내에는 다양한 개발사업에 따라 환경자원의 훼손 우려, 시가지의 무분별한 확산 등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데 부정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녹지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함

○ 환경자원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여가·문화공간의 마련

- 산악과 수경, 해안경관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독창적인 테마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가 및 문화공간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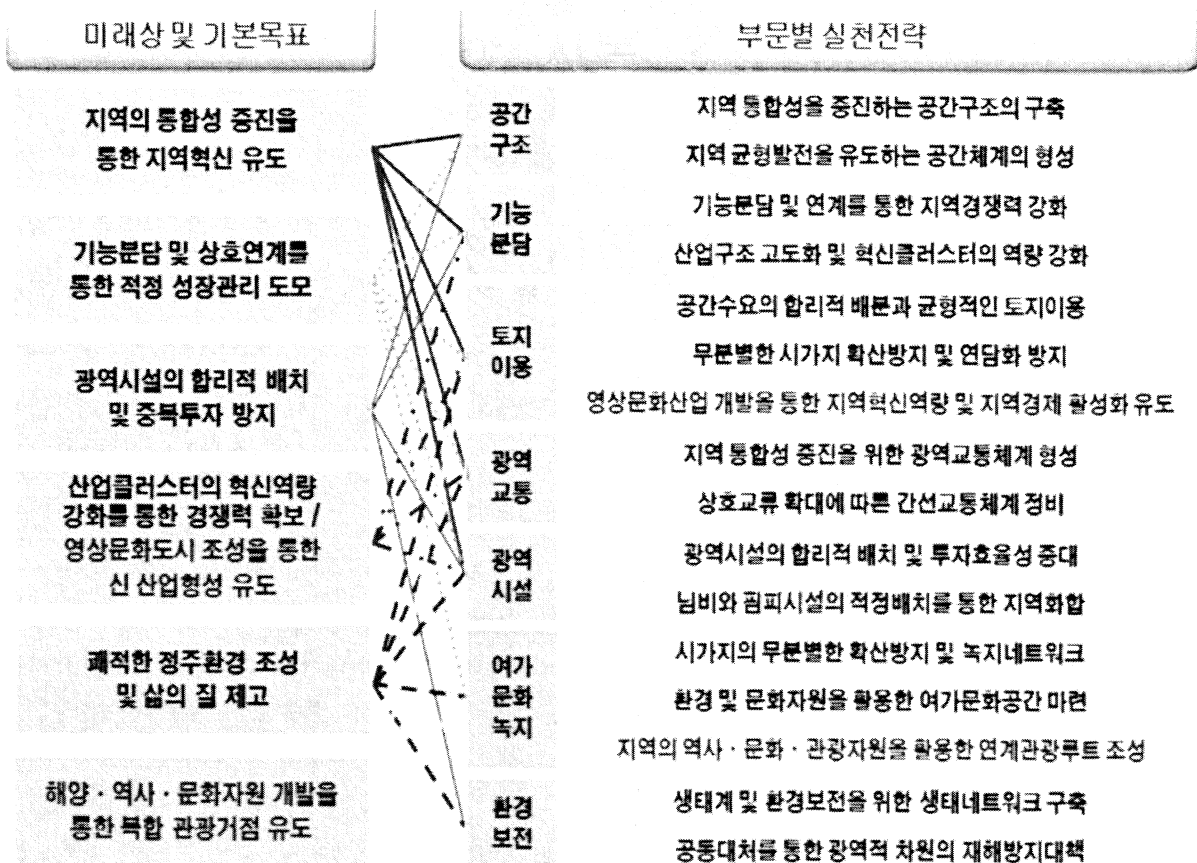
(6) 환경보전 및 재해방지

○ 생태계 및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 대기오염의 저감, 수질보전 등 시·군 차원의 환경보전계획을 광역적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생태적으로 민감한 호수, 습지 등의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종합적 생태관리 체계를 형성함

○ 공동의 방재대책수립을 통한 광역적 종합재해방지대책 마련

- 만경강과 동진강의 유역별 수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자연재해에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광역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며, 수해, 위험물재해, 산불, 가축방역 등의 재해에도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함



<그림 III-6> 미래상 및 기본목표와 부문별 실천전략과의 관계

3. 계획지표의 설정

1) 인구지표의 설정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이들 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인구지표 또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지침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은 권역내 복수 지자체에 연관되는 도시 문제에 중점을 두게 되므로 개별도시의 사회경제적 변화요인을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본 계획의 인구지표를 하위계획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시·군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소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지표로 활용되도록 설정함

(1) 지표설정의 전제 및 방법

○ 전제

-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의 인구지표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인구지표를 고려하며, 기존의 인구지표에서 전주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표를 선정
- 인구지표설정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추계.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계방법은 모형에 의한 추정과 자연증가분 및 사회적증가분을 고려한 추정 방법을 제시
-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은 조성법 및 과거추세연장법을 제시하고 있음. 과거추세연장법에 의해 인구지표를 설정할 경우 전주 광역권은 도·농 통합시의 출범으로 과거 인구데이터의 시계열적인 분포가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표를 설정

○ 방법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된 인구지표 추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며, 세가지 방법에 의해 추정된 지표들의 상호비교를 통해 최종적인 지표를 설정
- 첫째,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인구지표를 종합·분석 함. 이는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의 인구지표 설정시 타당성 및 인구지표 설정의 적정성을 고려하기 위함임
- 둘째, 모형에 의한 추정은 조성법을 사용하여 추정
- 셋째, 사회적증가분은 기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유입인구규모를 수용

(2) 상위 및 관련계획상의 인구추정

○ 상위계획 및 관련기관의 인구추정

- 통계청에서 추정한 전라북도 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연평균 -1.28%)를 나타내며, 도 종합발전계획의 경우 약간 상승(연평균 0.47%)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통계청과 도종합발전계획상의 인구추정치의 오차는 통계청의 경우 자연증가분만을 이용한 인구추정치이며, 도종합발전계획은 수리적 모형과 사회적 증가분 및 정책효과를 반영한 수치이기 때문임

<표Ⅲ-3> 상위계획 및 관련기관의 인구추정

(단위:천인)

구 분	2005	2010	2015	2020	2025
통계청	1,819	1,701	1,596	1,497	1,407
전주권	1,328	1,242	1,165	1,093	1,027
도종합발전계획	1,961	2,035	2,074	2,113	2,154
전주권	1,432	1,486	1,514	1,543	1,572

자료 : 통계청 추계인구, www.kosis.nso.go.kr,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2001

주 : 전주권 인구는 과거 10년동안 전북에서 전주권이 차지하는 비율 73%를 적용하여 산정

○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추정

-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는 각 시·군별 인구추정치를 나타내며 이를 단순 합한 값을 전주 광역권 인구 추정치로 나타냈음. 특히 시·군별 기본계획은 현재 수정계획 중이기 때문에 도 종합발전계획의 목표 연도 인구추정치와 상당한 오차를 보이고 있음

<표Ⅲ-4> 시·군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추정

(단위:천인)

구 분	2005	2010	2015	2020	2025
광역권	1,507	1,658	1,842	2,072	2,163
전주시	660	760	810	850	883
군산시	263	300	350	450	515
익산시	322	340	360	390	420
김제시	106	110	140	148	150
완주군	84	95	100	103	105

자료 : 각 시·군 기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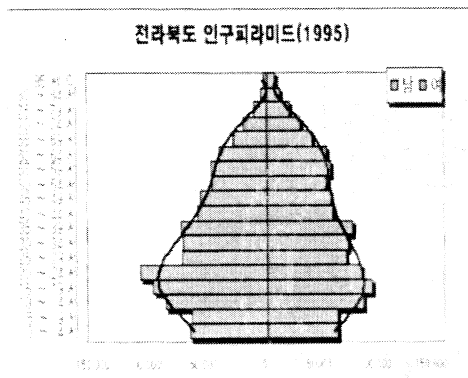
주1: 전주시는 2006, 2011, 2021년의 인구이며, 완주군은 2020년부터 본 계획에서 별도로 추정된 인구임.

주2: 본 계획에서 2025년 추정인구는 2020년까지 추정된 각 시·군의 인구를 바탕으로 별도로 추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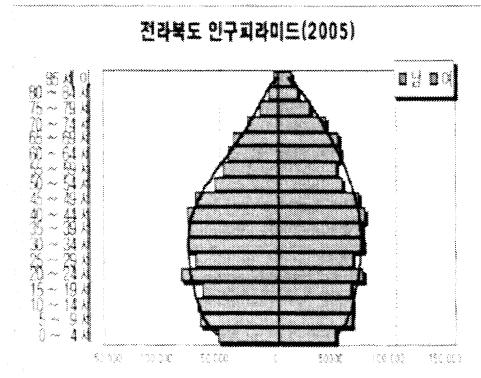
(3) 모형에 의한 추정

○ 전라북도 및 전주권 인구구조 분석

- 전라북도의 1995년과 2005년도 현재의 인구피라미드를 통한 구조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 전북 연령별 인구구조(1995)그림은 인구피라미드의 5가지 유형¹⁾ 중 종형(bell type)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종형의 특징은 방추형(constrictive type)의 상태보다 출생률이 다시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모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 전북 연령별 인구구조(2005)그림은 포탄형(beehive type)에 가까운 인구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포탄형의 특징은 저출생·저사망의 선진국형 인구구조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인구구조는 부양인구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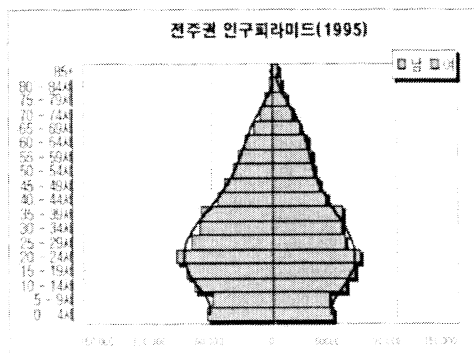


<그림 III-7> 전북 연령별 인구구조(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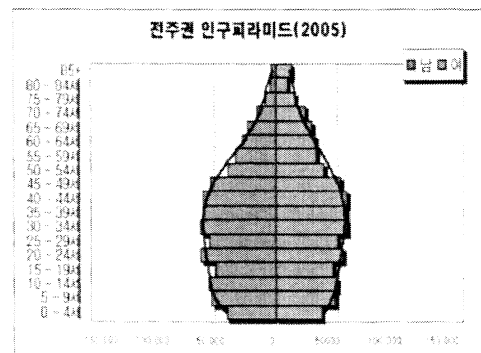


<그림 III-8> 전북 연령별 인구구조(2005)

- 또한 전주 광역권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그림 III-9> 전주권 연령별 인구구조(1995)



<그림 III-10> 전주권 연령별 인구구조(2005)

- 전주 광역권은 1995년 전라북도 인구구조와는 달리 전주권 연령별 인구구조(1995)그림과 같이 방추형(constrictive type)의 구조를 나타내며 이는 인구가 감소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을 대변하고 있음

1) 한주성, 「인구지리학」, 1999, 139쪽, 자료를 참조

- 전주권 연령별 인구구조(2005)그림은 전라북도의 인구구조와 같은 포탄형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인구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전주 광역권은 점차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조성법을 이용한 전주권 인구추정

- 전주권의 목표연도 인구는 2004년도 인구를 바탕으로 출산율과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2001년 생명표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추정결과 전주권의 2025년 총 인구는 1,451,852명으로 나타났음

<표Ⅲ-5>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자연적 증가분

(단위:명)

구분	기준년도 (2004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비고
전주권	1,395,647	1,424,326	1,441,056	1,453,699	1,451,852	2001년 생명표 적용
전주	622,472	638,751	651,750	660,227	663,056	출산율 0.0324
군산	263,120	264,184	263,345	260,670	255,855	출산율 0.0233
익산	322,378	331,347	338,367	343,037	345,002	출산율 0.0395
김제	105,195	106,084	105,920	104,939	103,376	출산율 0.0446
완주	82,482	83,960	84,674	84,826	84,563	출산율 0.0467

(4) 사회적증가분 추정

○ 광역권 내 시·군별 사회적 증가분 산정

- 시·군별 사회적 증가분은 각 시·군의 기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개발사업 중 본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실행시킬 수 있는 사업만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음
- 시·군별 개별 사업의 사회적 증가분의 추정은 목표연도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추정되지 않은 연도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 단계의 사회적 증가분을 그대로 반영²⁾
- 본 계획의 사회적 증가분을 각 시·군별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표Ⅲ-6>과 같으며, 목표연도 전주권의 총 사회적 증가분의 계획인구는 383,148명으로 나타났음

2) 단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사회적 증가분은 2014년을 기준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목표연도까지의 단계별 인구는 전주권의 인구구조를 판단하여 적용토록 함. 완주군의 경우 또한 2014년을 기준으로 수립되어 조성법을 이용하여 다시 추정토록 함.

계획수립의 목표와 전략

<표 III-6>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사회적 증가분

(단위 : 명)

구분	인구유발사업	2025계획인구	추진사항
전주권		383,148	
전주시	소계	160,944	
	전주혁신도시건설	33,000	08년 착공
	친환경산업단지1지구	45,000	08년 착공
	친환경산업단지2지구	48,000	2010계획
	친환경산업단지3지구	34,944	2010계획
군산시	소계	149,145	
	대지개발3개소	15,710	사업추진중
	비응향개발	5,354	사업준공
	군산국가산업단지	16,515	사업준공
	군장국가산업단지	111,566	사업준공
익산시	소계	35,998	
	삼기, 낭산 신규산업단지	29,300	사업착공
	한방과학산업단지	3,220	사업착공
	황궁산업단지	3,480	사업추진중
김제시	소계	31,624	
	백산산업단지	26,800	사업착공
	실버테마파크	4,824	사업추진중
완주군	소계	5,437	
	완주제2사업단지조성	5,437	실시설계중

(5) 인구지표 종합

-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의 인구지표는 기본적으로 자연적 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을 바탕으로 설정됨
- 자연적 증가분은 모형에 의한 추정으로 설정되며, 본 계획에서는 조성법을 사용하였음. 추정결과 전주권의 목표연도 인구는 1,451,852명으로 추정되었으며, 본 계획에서 적용될 자연적 증가 인구는 1,452,000명으로 결정함
- 사회적 증가분은 기 승인된 각 시·군 도시기본계획상의 사업들 중 본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실행시킬 수 있는 사업만을 선택하여 선정하였음. 본 계획에서 적용될 사회적 증가 인구는 383,000명으로 결정함. 이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음

<표 III-7>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의 인구지표 및 인구배분

구분		인구	비고
계획인구		1,835,000명	100.0%
- 자연적증가		1,452,000명	79.1%
- 사회적증가		383,000명	20.9%
시군별	전주	824,000	44.9%
	군산	405,000	22.1%
	익산	381,000	20.8%
	김제	135,000	7.4%
	완주	90,000	4.9%

※ 광역도시계획은 권역내 복수 지자체에 연관되는 도시 문제에 중점을 두게 되므로 개별도시의 사회경제적 변화요인을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본 계획의 인구지표를 하위계획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시·군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소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지표로 활용되도록 설정함

2) 생활지표의 설정

- 주요도시생활지표는 목표연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함. 그러나 본 계획에서는 미래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구의 유동성을 주었기에, 광역도시계획시설의 지표는 시설의 적정한 비중을 판단하여 산정

○ 주택

- 현재 주택보급율은 92.4%로 나타났으며, 향후 2025년에는 110%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표를 설정하며, 가구당 인구수는 현재 2.9인에서 소가족화 경향을 감안하여 2.8인으로 설정. 따라서 목표 연도인 2025년에는 약 16만호의 추가적인 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녹지

- 전주권의 현재 1인당 공원면적은 4.9㎡로 나타났음. 이를 2025년에는 12.5㎡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3,152㎡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추가적인 공원 면적을 충당하기 위해 광역녹지공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

계획수립의 목표와 전략

○ 교통

1인당 자동차대수는 0.3대이며 목표 연도의 경제성장을 감안하여 1인당 0.5대의 자동차대수를 지표로 설정하였음. 이러한 경우 2025년에는 92만대로 증가되어 총48만대의 자동차대수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교통량 증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활한 교통량 처리를 위한 도로신설이 필요

○ 상수도

- 84.7% 현재 보급률에서 목표 연도 97% 설정 보급률 증대. 이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임

○ 하수도

- 80.3%이 현재 보급률에서 수질환경보전을 위해 97%로 확대.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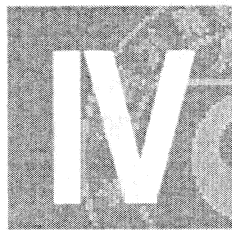
○ 폐기물

- 1인당 폐기물 배출량은 0.9%이나 2025년에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1인당 폐기물 배출량을 0.7%로 지표설정. 또한 수단별 폐기물 처리비율을 매립(현재:57%→목표연도: 50%로 감소: 기본매립+소각재 매립), 소각(현재:2%→목표연도:17%증대), 재활용(현재: 45%→목표연도: 60% 증대)로 설정

<표 III-8>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의 주요생활지표 설정

구 분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현황(2004)						2025년
		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계획지표
인구(인)		1,835,000	824,000	405,000	381,000	135,000	90,000	1,835,000인
총 가구수(가구)		478,713	204,772	91,909	110,595	40,510	30,927	665,731가구
가구당 인구수(인)		2.9	3.0	2.9	2.9	2.6	2.7	2.6인
주택	주택수	442,279	181,857	84,027	102,301	40,330	33,764	665,731호 (약 22만호 추가필요)
	주택보급율(%)	92.4	88.8	91.4	92.5	99.6	109.7	115%
공원 녹지	도시공원면적(천㎡)	18,182	6,583	4,505	5,015	1,352	727	21,365천㎡
	공원(개소)	304	119	69	63	40	13	-
	1인당면적(㎡)	4.9	5.4	6.3	2.9	3.8	5.5	12.5㎡
교통	자동차수(대)	439,437	95,508	82,304	99,822	33,248	28,555	920,000대
	1인당자동차수	0.3	0.3	0.3	0.3	0.3	0.3	0.5대
상수도	급수인구(인)	1,189,603	600,728	236,265	280,613	71,997	25,039	1,693,850인
	상수도보급율(%)	84.7	96.2	88.6	86.5	68.0	30.1	97.0%
	시설용량(㎡/일)	917,520	305,300	188,200	287,100	23,200	113,720	-
	급수량(㎡/일)	500,858	244,728	125,584	106,112	17,105	7,329	-
	가동율(%)	54.6	80.2	66.7	37.0	73.7	6.4	-
	1인1일급수량(ℓ)	425	407	532	378	238	293	-
하수도	하수처리인구(인)	1,124,415	587,917	217,251	257,041	41,425	20,781	1,693,850인
	하수도처리율(%)	80.1	94.2	81.5	79.2	39.1	25.0	97%
폐기물	처리인구	1,394,996	623,602	260,634	322,378	105,900	82,482	1,835,000인
	인구비(%)	99.3	99.9	97.8	99.3	100.0	99.1	100%

주 : 목표연도 기준지표는 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그리고 폐기물종합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음. 또한 폐기물 지표설정 중 인구비는 전체인구에서 폐기물 처리인구를 단순 비율로 나타낸 것임



공간구조의 개편

1. 공간구조의 현황과 과제
2. 광역공간구조의 개편방향
3. 전주권 공간구조의 설정

IV. 공간구조의 개편¹⁾

1. 공간구조의 현황과 과제

1)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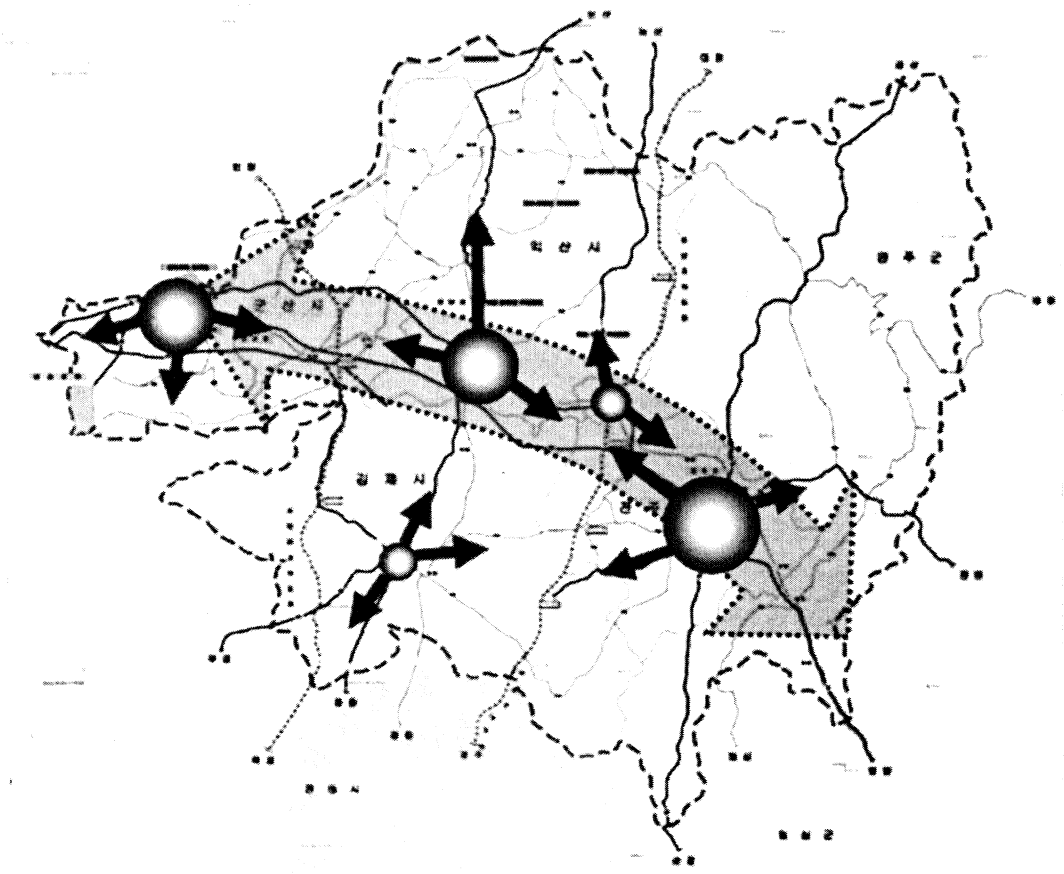
○ 선형구조에 따른 통합적 연계구조의 미흡

- 시·군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도시성장과 발전은 광역적 차원에서 볼 때, 지역의 통합성을 이루지 못하여 지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러한 지역경쟁력 저하는 외부로의 인구유출을 야기하고 투자자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주기반 및 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의 공간위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개별 시·군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통합적 광역도시 공간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상호연계성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의 미비

- 시·군간 통근·통학량(1일기준)을 살펴보면, 전주시와 완주군이 18,656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주시와 익산시가 13,987명, 전주시와 김제시가 9,158명, 군산시와 익산시가 8,491명의 순으로 나타남
- 5개 시·군의 유기적 기능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상형 순환교통망을 구축하고 내부연계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본 권역에는 4개 노선의 고속도로, 6개 노선의 국도, 그리고 17개 노선의 지방도가 있으나, 도로연계체계가 복잡하고 지역간 우회도로가 없어 국도27, 23호선 등에 특정구간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임
- 또한, 본 권역에는 익산을 분기점으로 호남선, 전라선, 군산선이 지나고 있으나, 이는 타 지역간의 연계교통으로써 지역내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면을 지니고 있어 지역간 이동에 주로 도로교통에 의존함

1) 본 권역에는 상위계획으로써 제3차 전북도종합발전계획과 전주·군장광역권개발계획이 기수립되어 있으며, 이들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시간적·공간적 대상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 그러나 이들은 공간계획이라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본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를 진단하고 개편방향을 모색하는데 다소간에 중복성이 존재함



<그림 IV-1> 전주권의 공간구조

○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간 연계구조 미약

- 시·군별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 38,812개(44.9%)로 가장 많은 업체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군산시 17,748개(20.5%), 익산시 19,409개(22.4%), 김제시 6,223개(7.2%), 완주군 4,293개(5%)의 분포를 보임
- 제조업의 경우, 전주, 군산, 익산의 3개시를 포함한 전북의 서북부 지역에 집적되어 있어 산업 클러스터로의 발전잠재력을 지님
- 업종별로는 357개 업체가 집중된 석유·의복과 388개 업체가 집중된 자동차, 기계, 조립금속이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님
- 따라서, 클러스터의 유형에 따라 해당 클러스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광역적인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클러스터의 혁신역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시가지 확산과 난개발 문제

- 1980년이후의 시·군별 택지개발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 효자1지구를 시발점으로 2004년말 현재 총24지구의 공영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고, 2000년 이후에도 9개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예정에 있음

<표Ⅳ-1> 택지개발사업 현황

(면적 : 천㎡)

택지개발사업	계			1999년이전			2000년이후		
	개소	면적(천㎡)	세대수	개소	면적(천㎡)	세대수	개소	면적(천㎡)	세대수
광역계획권	24	12,240	92,754	15	7,847	56,224	9	4,393	36,530
전주시	12	7,228	51,422	8	5,557	36,571	4	1,671	14,851
군산시	7	2,551	24,842	4	1,028	12,423	3	1,523	12,419
익산시	4	1,987	13,110	2	788	3,850	2	1,199	9,260
김제시	1	474	3,380	1	474	3,380	-	-	-
완주군	-	-	-	-	-	-	-	-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행정과 공개자료, 2005

- 시군별 확산방향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기존시가지의 서남부지역(효자동, 삼천동, 평화동)과 동북부지역(인후동, 송천동)으로, 군산시는 기존시가지의 서남부지역(나운동, 수송동, 미룡동)으로, 익산시는 기존시가지(마동, 영등동)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졌고, 최근에 들어 동북부 지역(부송동)으로의 확산현상을 보임
- 이러한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은 기반시설배치 및 투자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키고 지역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공간구조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광역적인 차원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방향설정이 필요함
- 또한, 전주시 그린벨트 전면해제 이후, 관리계획의 부재는 다양한 형태의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개별 시·군의 환경보전대책을 포함하여 광역적 차원의 녹지축과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함

2) 관련계획상 공간구조의 과제

(1) 제3차 전북도종합발전계획

○ 중첩형 공간구조로의 전환

- 제2차 전북도종합발전계획(1982~91)에서는 이러한 연담도시권의 특성을 지역의 공간개발 전략으로 사용하여, 연담도시권, 서부평야권, 동남부산악권 등 3개의 지역생활권 조성을 제시함
- 그러나, 지역간 연계성 부족, 지역의 특수성 반영의 어려움, 상호 배타성의 문제²⁾ 등으로 이를 수정, 제3차 전북도종합발전계획(2000~2020)에서는 지역의 통합성 증진 및 종합적 발전을 위한 중첩형 공간개발구상으로 전환함
- 전주시와 완주군을 중심으로 한 전북발전의 핵심거점으로 행정 및 중추관리기능, 영상산업수도 등 첨단산업의 메카, 전통문화의 배후지원기능, 관광·전문서비스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함
-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일부)를 중심으로 하여 군장산업단지, 군장신항, 군산자유무역지역, 전주권 신공항 및 새만금지구 조성 등 첨단산업기반 구축, 대규모 임해형 생산, 국제적 교역 및 물류기능을 담당토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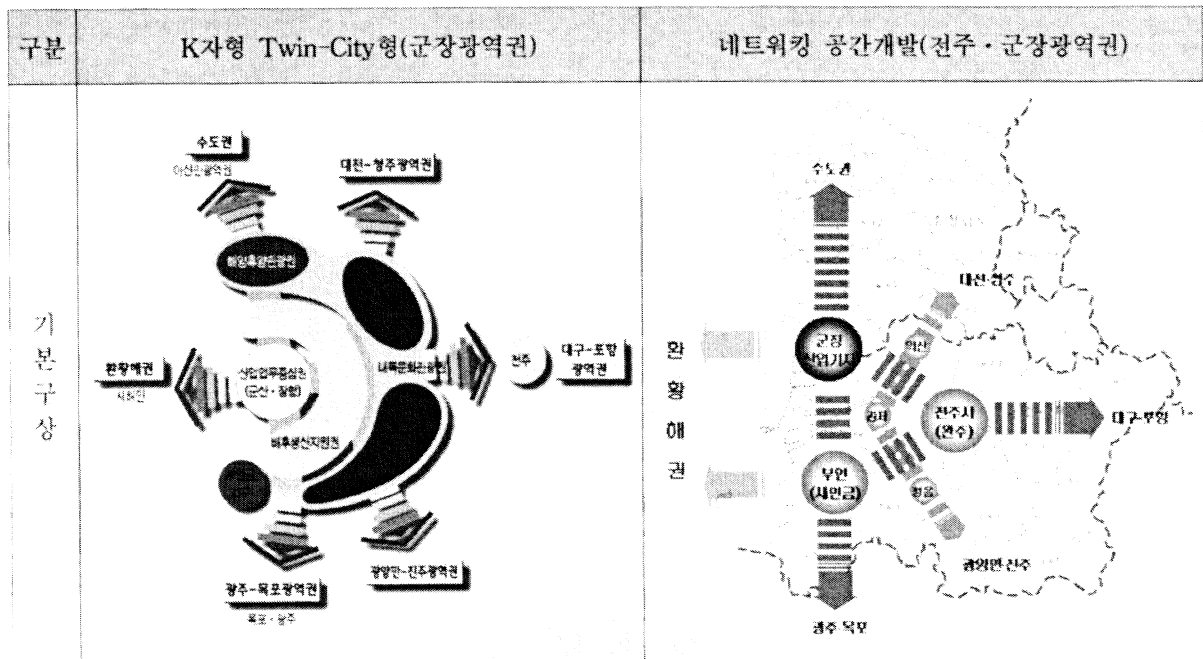
(2) 전주·군장권 광역개발계획

○ 통합 개발축으로의 전환

- 기존 군장광역권개발계획에서는 산업업무중심권(군산, 장항)을 중심으로 K자형, 장기적으로는 H자형의 개발축과 지역특성에 따른 Twin-City형 개발방식을 제시
- 그러나, 전주가 추가된 전주·군장광역권개발계획에서는 지자체간 마찰을 최소화 하기위한 공간개발전략으로 지역거점도시간의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상승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통합개발축을 구상

2) 첫째, 지역간 연계 및 기능적 보완관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이를테면 전주시는 지역 중심도시로 주변지역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생활권이 분리된 단점이 있다. 둘째, 도내 시·군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 서부해안지역이나 동부 산악지역의 경우에도 지역의 특성이 상이하여 다양한 개발이 요구되나 기존 생활권 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셋째, 기존의 생활권은 상호 배타적인 공간범역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주민활동의 공간 범위와 중첩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제3차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 pp.90~91)

<표Ⅳ-2> 도시성장과 공간구조의 변화



자료 : 전주·군장관역권 추가권역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연구 (최종보고서)

- 군산·장항광역권과의 연계성, 지역특성과 개발잠재력을 고려하여 기능을 특화·연계시킨으로써 지역개발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지역고유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네트워킹 공간개발 구상
- 전주·군장광역권을 한강해경제권의 국제적 생산·교역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제생산·교역권, 첨단산업·문화권, 해양휴양·생태권의 3개 중심권, 그리고 배후산업권을 포함하여 4개 개발권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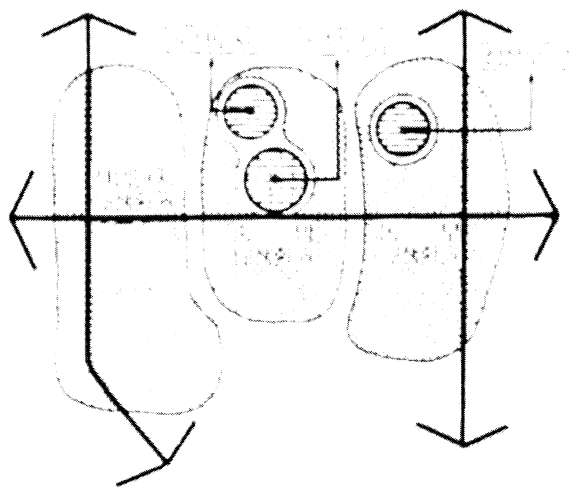
(3) 시·군별 공간구조구상

○ 전주시 : 개방형 공간구조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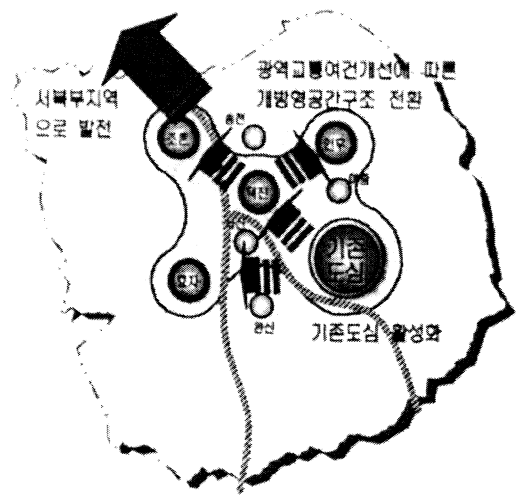
- 기존 1도심과 지역4도심(효자, 덕진, 인후, 조촌)을 중심으로 서북부지역 축선의 개발
확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개방형 공간구조로 전환을 모색

○ 군산시 : 내륙 및 해안 연계형의 공간구조 전환

- 현재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141·142·143·144·145·146·147·148·14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161·162·163·164·165·166·167·168·169·170·171·172·173·174·175·176·177·178·179·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200·201·202·203·204·205·206·207·208·209·210·211·212·213·214·215·216·217·218·219·220·221·222·223·224·225·226·227·228·229·230·231·232·233·234·235·236·237·238·239·240·241·242·243·244·245·246·247·248·249·250·251·252·253·254·255·256·257·258·259·260·261·262·263·264·265·266·267·268·269·270·271·272·273·274·275·276·277·278·279·280·281·282·283·284·285·286·287·288·289·290·291·292·293·294·295·296·297·298·299·300·301·302·303·304·305·306·307·308·309·310·311·312·313·314·315·316·317·318·319·320·321·322·323·324·325·326·327·328·329·330·331·332·333·334·335·336·337·338·339·340·341·342·343·344·345·346·347·348·349·350·351·352·353·354·355·356·357·358·359·360·361·362·363·364·365·366·367·368·369·370·371·372·373·374·375·376·377·378·379·380·381·382·383·384·385·386·387·388·389·390·391·392·393·394·395·396·397·398·399·400·401·402·403·404·405·406·407·408·409·410·411·412·413·414·415·416·417·418·419·420·421·422·423·424·425·426·427·428·429·430·431·432·433·434·435·436·437·438·439·440·441·442·443·444·445·446·447·448·449·450·451·452·453·454·455·456·457·458·459·460·461·462·463·464·465·466·467·468·469·470·471·472·473·474·475·476·477·478·479·480·481·482·483·484·485·486·487·488·489·490·491·492·493·494·495·496·497·498·499·500·501·502·503·504·505·506·507·508·509·510·511·512·513·514·515·516·517·518·519·520·521·522·523·524·525·526·527·528·529·530·531·532·533·534·535·536·537·538·539·540·541·542·543·544·545·546·547·548·549·550·551·552·553·554·555·556·557·558·559·560·561·562·563·564·565·566·567·568·569·570·571·572·573·574·575·576·577·578·579·580·581·582·583·584·585·586·587·588·589·590·591·592·593·594·595·596·597·598·599·600·601·602·603·604·605·606·607·608·609·610·611·612·613·614·615·616·617·618·619·620·621·622·623·624·625·626·627·628·629·630·631·632·633·634·635·636·637·638·639·640·641·642·643·644·645·646·647·648·649·650·651·652·653·654·655·656·657·658·659·660·661·662·663·664·665·666·667·668·669·670·671·672·673·674·675·676·677·678·679·680·681·682·683·684·685·686·687·688·689·690·691·692·693·694·695·696·697·698·699·700·701·702·703·704·705·706·707·708·709·710·711·712·713·714·715·716·717·718·719·720·721·722·723·724·725·726·727·728·729·730·731·732·733·734·735·736·737·738·739·740·741·742·743·744·745·746·747·748·749·750·751·752·753·754·755·756·757·758·759·760·761·762·763·764·765·766·767·768·769·770·771·772·773·774·775·776·777·778·779·780·781·782·783·784·785·786·787·788·789·790·791·792·793·794·795·796·797·798·799·800·801·802·803·804·805·806·807·808·809·810·811·812·813·814·815·816·817·818·819·820·821·822·823·824·825·826·827·828·829·830·831·832·833·834·835·836·837·838·839·840·841·842·843·844·845·846·847·848·849·850·851·852·853·854·855·856·857·858·859·860·861·862·863·864·865·866·867·868·869·870·871·872·873·874·875·876·877·878·879·880·881·882·883·884·885·886·887·888·889·890·891·892·893·894·895·896·897·898·899·900·901·902·903·904·905·906·907·908·909·910·911·912·913·914·915·916·917·918·919·920·921·922·923·924·925·926·927·928·929·930·931·932·933·934·935·936·937·938·939·940·941·942·943·944·945·946·947·948·949·950·951·952·953·954·955·956·957·958·959·960·961·962·963·964·965·966·967·968·969·970·971·972·973·974·975·976·977·978·979·980·981·982·983·984·985·986·987·988·989·990·991·992·993·994·995·996·997·998·999·1000·1001·1002·1003·1004·1005·1006·1007·1008·1009·1010·1011·1012·1013·1014·1015·1016·1017·1018·1019·1020·1021·1022·1023·1024·1025·1026·1027·1028·1029·1030·1031·1032·1033·1034·1035·1036·1037·1038·1039·1040



<그림 IV-2> 군산시의 공간구조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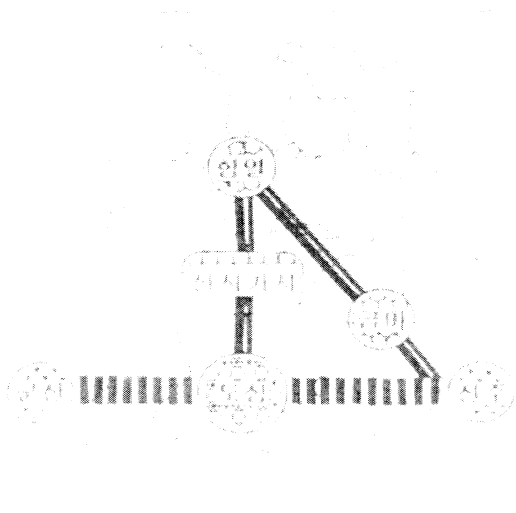
<그림 IV-3> 전주시의 공간구조구상

○ 익산시 : “L”형 또는 “△”형의 공간구조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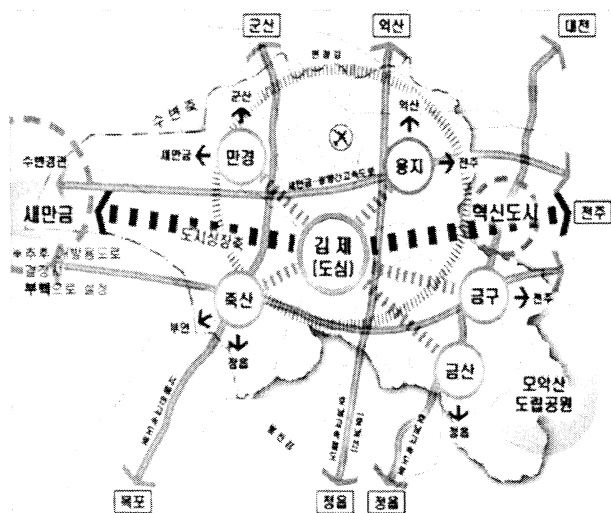
- 전주, 익산, 군산의 “-”자형 산업축을 기반으로 “1”자형 남북 행정축을 강화하여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문화축과 연계 “△”형의 공간구조 모색

○ 김제시 : 인접지역 및 생활권간 연계형의 공간구조 전환

- 현재 개별적인 중심을 갖는 다핵체계를 1도심 4부도심의 통합성을 도모한 기능별 생활권 구상, 인접지역 및 생활권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계형의 공간구조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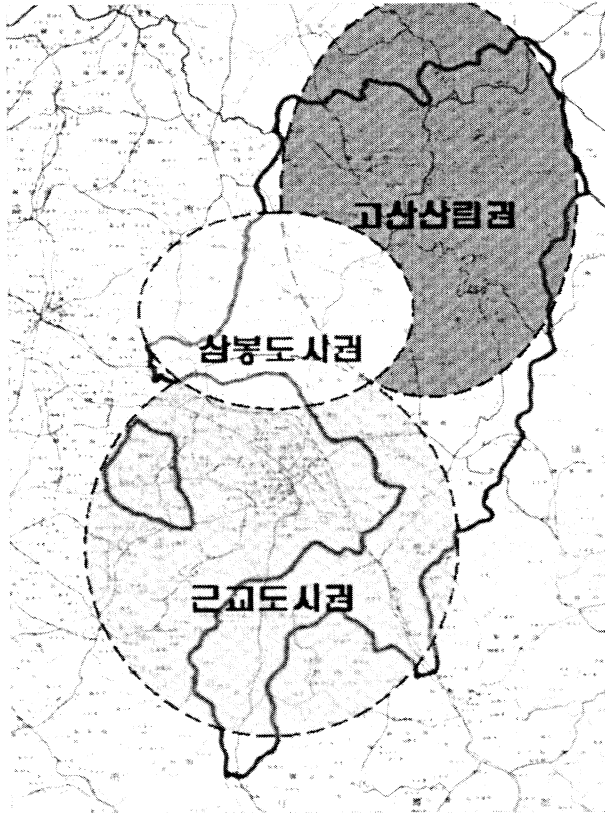
<그림 IV-4> 익산시의 공간구조구상



<그림 IV-5> 김제시의 공간구조 구상

○ 완주군 : 네트워크 도시공간구조로의 전환

- 개발권과 생활권 및 관광권의 통합관리형의 공간구조 모색



<그림 IV-6> 완주군의 공간구조

- 삼봉도시권
 - 전주광역도시권의 배후 거점도시권으로서 육성
 - 삼례읍: 교육문화 및 물류유통 중심도시개발 유도
 - 봉동읍: 첨단산업기지의 산학협력 및 정주 생활거점
- 고산산림권
 - 산림휴양 및 관광중심지로 육성
 - 익산·마한백제문화권, 대전광역도시권 및 무진장관광권과 연계
 - 대둔산 도립공원주변 거점관광지구 및 고산 거점관광지구 조성
- 도시근교권
 - 시설원예 등 도시근교농업의 활성화 및 친환경농업 추진
 - 녹색농원(Green Farm)의 체계적인 조성으로 도농간 교류 강화
 - 모악산-구이저수지 연계 도시근교위락공간등 거점관광지구 조성

2. 광역공간구조의 개편방향

1) 기본방향

○ 공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골격구상

-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에서는 역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위해 대외적으로 개방형(π 형), 대내적으로 다핵연계형 국토구조축을 구상하고 있음
- 전주권을 포함하여 전북지역에는 고속철도, 새만금사업, 혁신도시건설 등 다양한 국책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어 공간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조로의 개편이 요구됨

○ 권역 전체의 경쟁력 확보 및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공간배치

- 주변 광역권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군별 혁신역량을 광역적인 차원으로 통합, 네트워크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시·군간 상승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공간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자체간 마찰을 최소화하는 공간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내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공간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함

○ 시·군간 기능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통합성을 증진하는 공간체계

- 개별 시·군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도시성장과 발전은 시가지 확산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시키며 이는 지역 전체의 발전잠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제3차 전북도종합발전계획에서는 지역의 통합성 증진 및 종합적 발전을 위한 중첩형 공간개발을 구상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통합형 공간구조로의 공간개편이 필요함

○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구상

- 개별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은 기반시설배치 및 투자의 비효율성을 야기시켜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광역적 차원의 합리적 기반시설의 배치 및 이용을 유도하는 공간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가지확산에 따른 도시 연담화는 광역적 녹지체계의 단절을 야기시켜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연담화 방지 및 광역적 녹지체계관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간구조의 구상이 필요함

<표Ⅳ-3> 공간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구분	주요 내용	
공간구조		■ 공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골격구상
		■ 권역 전체의 경쟁력 확보 및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공간배치
		■ 시·군간 기능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통합성을 증진하는 공간체계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구상
축설정	개발축	■ 5개시·군의 개발전략과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개발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광역권의 공간변화에 대응
	교통축	■ 개발축과 장래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5개시·군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통축을 설정
	녹지축	■ 광역계획권 내·외부의 녹지체계를 고려, 개발축 설정에 따른 연담화를 방지하고 녹지자원이 가급적 단절되지 않도록 네트워크화

2) 유형별 대안설정

(1) 유형1 : 다핵다권-네트워크형

- 현재의 다핵형 구조를 유지·확대하면서 주변지역과의 기능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
- 지역중심기능을 집중시키지 않고 개별 시·군에 분산, 네트워크화하여 지역전체의 발전을 유도

(2) 유형2 : 거점중심-방사형

- 현재의 계층적 구조상 우위에 있는 지역의 중심성을 보다 확대·강화시키는 전략
- 지역중심기능을 특정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주변 타광역권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전체의 발전을 유도

(3) 유형3 : 균형발전-환대상형

- 현재의 다핵형 구조를 유지·확대하면서 주변지역과의 순환구조를 보다 강화시키는 전략
- 개별 시·군의 중심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통합성을 강화시켜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

<표 IV-4> 유형별 대안설정

구분	다핵다권-네트워크형	거점중심-방사형	균형발전-환대상형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계층적 구조를 유지·확대하면서 주변지역과의 기능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 • 지역중심기능을 집중시키지 않고 개별 시·군에 분산, 네트워크화하여 지역전체의 발전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계층적 구조상 우위에 있는 도시의 중심성을 보다 확대·강화시키는 전략 • 지역중심기능을 특정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주변 타광역권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계층적 구조를 유지·확대하면서 주변지역과의 순환구조를 보다 강화시키는 전략 • 개별 시·군의 중심기능을 유지·확대하면서도 지역의 중심기능을 강화시켜 지역통합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
개념도			
공간구상도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공간위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기능분담 및 네트워크 정비를 통하여 광역계획권의 연계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공간위계상 우위에 있는 도시의 중심기능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써 지역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시·군의 도시성장 및 개발을 포용하면서도 지역의 통합적 상호연계를 강화시키며 국토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지님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된 개별기능의 통합적 연계체계가 부족하여 광역계획권의 경쟁력 및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계획권의 균형개발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편중된 투자로 인한 시·군간 갈등유발의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인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초과시설투자가 필요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시·군간 협력적 관계가 요구됨 • 중첩지역의 난개발 우려

3) 최적 대안

(1) 최적대안 설정

- 대안(1), 대안(2), 대안(3)을 공간체계, 지역 및 도시성장, 기반시설, 네트워킹, 지역협력차원에서 비교한 결과, 대안(3)의 경우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 최적대안으로 선정함
- 이는 현재 다핵형 공간구조를 균형발전 환대상형인 대안(3)의 공간구조로 개편함으로써 도시의 개별적 성장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감소시키고 도시간 기능연계와 통합성을 강화, 다변화하는 국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

<표Ⅳ-5> 공간구조 개편유형별 평가

구분	다핵다권-네트워크형(1안)	거점중심-방사형(2안)	균형발전-환대상형(3안)
공간체계	○	◎	●
지역성장	○	●	◎
기반시설	◎	○	○
도시성장	◎	○	●
네트워킹	◎	○	●
지역협력	◎	○	●

주 : 강함(●), 보통(◎), 약함(○)

(2) 환대상형의 특징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전체의 일체감 확보

- 상호보완적 기능분담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중앙부를 지역민의 공유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의 향상이 기대

○ 개별 도시의 개발수요에 탄력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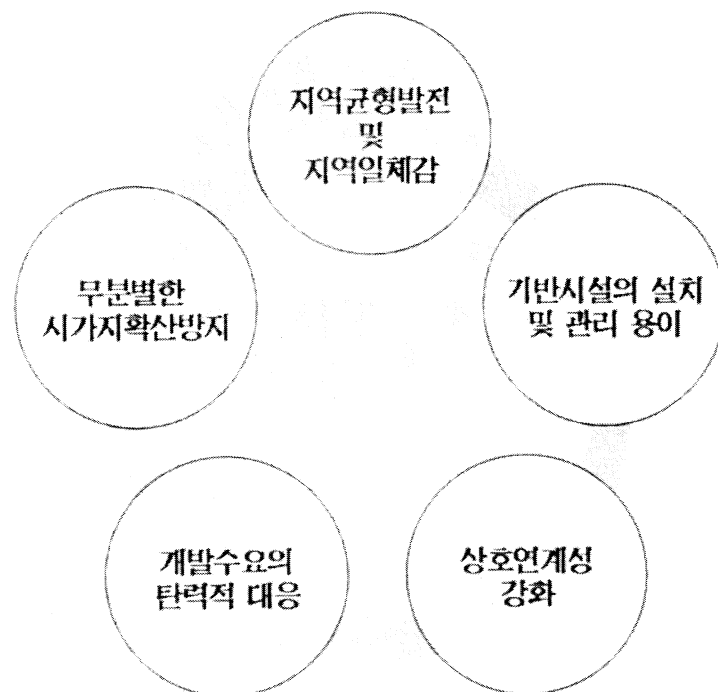
- 십자형의 개발축을 따라 거점별로 동시개발이 가능하고, 권역 외부지역과의 연계가 수월하여 외부와의 연계가 용이하여 개발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도시건설이 가능함

○ 환상형의 성장관리축을 통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 방지와 도시성장관리가 용이

- 십자형 개발축은 내부와 외부의 영향에 따른 탄력적인 도시건설이 가능하나, 도시의 외연적 확산 및 연담이 이루어질 수 있음. 따라서 환상형의 성장관리축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도시성장 관리에 용이함
- 또한 개발축 주변의 녹지축 형성과 환상형 녹지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주변녹지로의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개별 시·군의 녹지축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

○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용이

- 도시광역화에 따른 광역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광역 시설로의 접근성이 편리하여 관리 및 운영이 용이함



<그림 IV-7> 환상형 공간구조의 특징

3. 전주권 공간구조의 설정

1) 골격구상 : 십자형 개발축 + 환상형 성장관리축

-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간 상호연계성을 강화하는 환대상형 구조를 적용함
- 환대상형 공간구조는 십자형의 개발축과 환상형의 성장관리축으로 구성됨
- 십자형 개발축은 기존 T자형의 내부완결형의 공간구조에서 외부의 개발여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정됨. 또한 기존의 권역 내부의 도시간의 개발 과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시키는 축임
- 환상형 성장관리축은 외부의 개발 과급효과와 내부의 개발여건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도시간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의 성장관리축임
- 시·군별 발전구상을 토대로 전주권 광역계획권의 권역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표 IV-6> 광역계획권의 성장관리 및 개발축 설정

성장관리 및 개발축의 설정	
구상도	
성장관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시·군 중심의 시가지 확산을 광역적 차원에서 성장관리를 유도하는 성장관리축 설정 • 개발의 개념에서 벗어나 개별 도시성장을 관리하고 연담화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성장관리의 개념임
개발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시·군의 적정한 성장관리를 유도하는 환상형 성장관리를 보완하는 십자형 개발축 설정 • 권역간 기능연계를 강화하고 남북간 동서간 개발압력을 적정하게 수용함

2) 교통축의 설정 : $4 \times 3 + 2R$

○ 남북축

- 부안-김제-군산-당진으로 이어지는 제1축, 정읍-김제-익산-논산으로 이어지는 제2축, 정읍-전주-완주-대전으로 이어지는 제3축, 그리고 순창-전주-완주-청주로 이어지는 제4축을 설정함
- 제1축에는 서해안고속도로, 국도29호선이 해당하며, 제2축에는 KTX, 호남선, 국도23호선이 지나고 있음. 제3축의 경우, 호남고속도로, 국도1호선, 21호선이 지나며 제4축에는 국도17호선, 27호선이 지나고 있음

○ 동서축

- 새만금-익산-전주-장수를 잇는 제1축, 군산-익산-전주-임실을 잇는 제2축, 새만금-김제-전주-김천을 잇는 제3축을 설정함
- 제1축에는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기계획)가 건설중에 있으며, 제1축을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까지의 연장계획(신규)을 제시함
- 제2축에는 연담권 교통의 중심인 국도21, 26, 27호선이 전주-익산-군산을 잇고 있으며, 도로교통을 보완하고 대량수단을 위한 광역도시철도(신규)를 도입
- 제3축에는 동서고속화도로를 반영(신규), 권역 하부지역에 대한 연계교통을 강화하여, 새만금지역과의 교통수요에 대응토록 함

○ 순환축

- 5개시·군의 외곽을 순환하는 순환축을 설정함으로써 지역간 이동시 불필요한 내부교통을 배제하여 이동시간을 보다 단축하고 편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간 연계를 보다 강화시킴
- 순환축의 설정은 선형중심의 지역교통체계를 통합시켜주고 지역간 순환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광역권 전체의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연계축

- 개별 시·군간 연계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5개 시·군간 통합적 내부연계체계가 미흡하므로 간선도로의 신설 또는 정비를 통해 순환적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 따라서, 각 시의 외곽순환도로와 연계되는 5개 시·군의 내부 순환적 기능을 강화하는 내부 연계축을 설정함

<표 IV-7> 전주권의 교통축 설정

교통축의 설정	
구상도	
남북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1축 : 부안-김제-군산-당진(기존) • 남북2축 : 정읍-김제-익산-논산(기존/기계획) • 남북3축 : 정읍-전주-완주-대진(기존) • 남북4축 : 순창-전주-완주-청주(기존)
동서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1축 : 새만금-익산-전주-장수(기존/신규) • 동서2축 : 전주-익산-군산-임실(기존) • 동서3축 : 새만금-김제-혁신도시-전주-무주(신규)
연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간선도로망 및 시 외곽순환도로 정비를 통한 연계축 선정(신규)
순환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의 내·외부를 순환하는 순환도로 건설(신규)

4) 녹지축의 설정 : 수경·산악·해안축 + 녹지벨트

○ 수경축

- 본 권역에는 금강, 만경강, 동진강이 동서로 흐르고 있어 금강 수계를 중심으로한 수경1축, 만경강 수계를 중심으로 수경2축, 동진강 수계를 중심으로 수경3축을 설정함

○ 산악녹지축

- 본 권역의 동부는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대둔산, 운장산, 만덕산, 모악산으로 이어지는 산악녹지축을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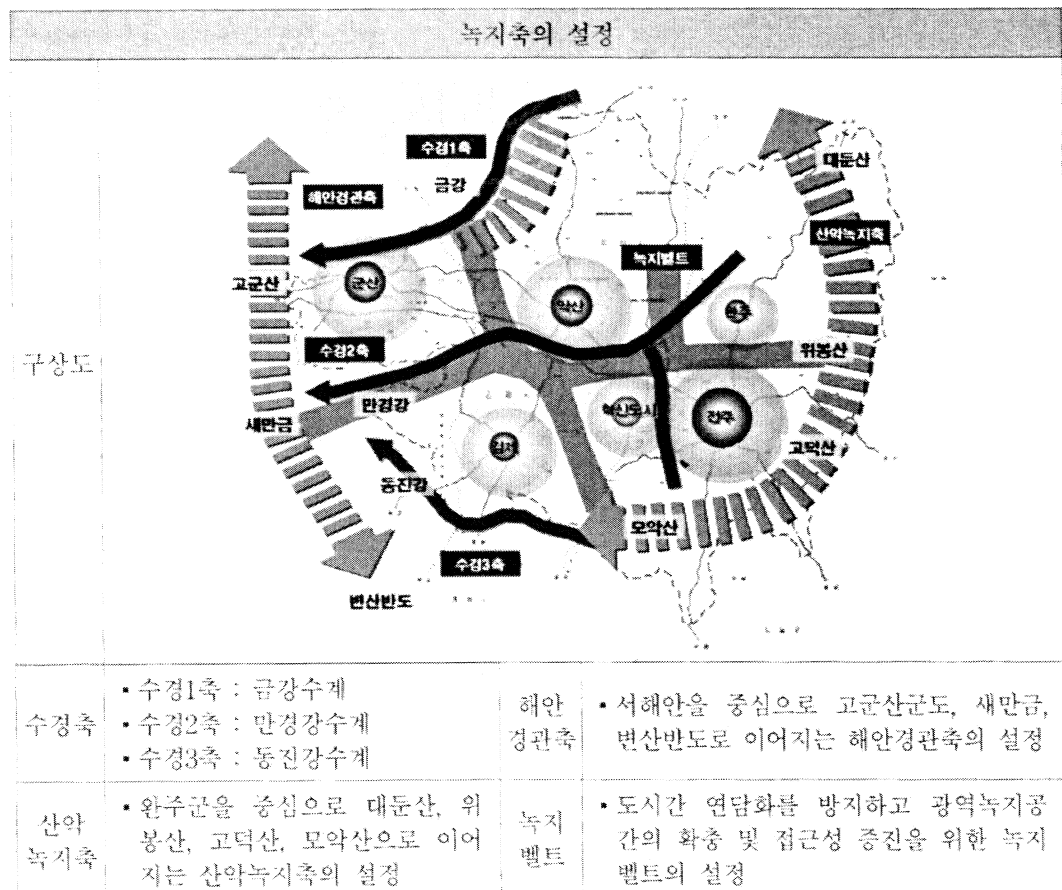
○ 해안경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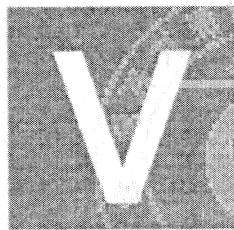
- 군산시와 김제시의 경유, 서해안과 접해있으며, 군산의 고군산군도,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해안경관축을 설정함

○ 녹지벨트

- 개별 시가지 확산에 따른 도시간 연담화를 방지하고 광역계획권의 녹지체계관리 구축을 위한 녹지벨트를 설정함

<표 IV-8> 전주권의 녹지축 설정





부문별 계획

1. 광역토지이용계획
2. 광역교통계획
3. 광역공급이용시설계획
4. 녹지·여가 및 문화·관광계획
5. 환경보전계획
6. 방재계획
7. 생활권계획

V. 부문별 계획

1. 광역토지이용계획

1) 현황분석 및 과제

(1) 현황 분석

○ 지목별 현황

- 전주권의 지목별 토지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도시적 토지이용(시설용지)율이 전북평균 5.9%를 상회하는 지역은 전주시 20.5%, 군산시 12.9%, 익산시 11.2%, 김제시 7.6%이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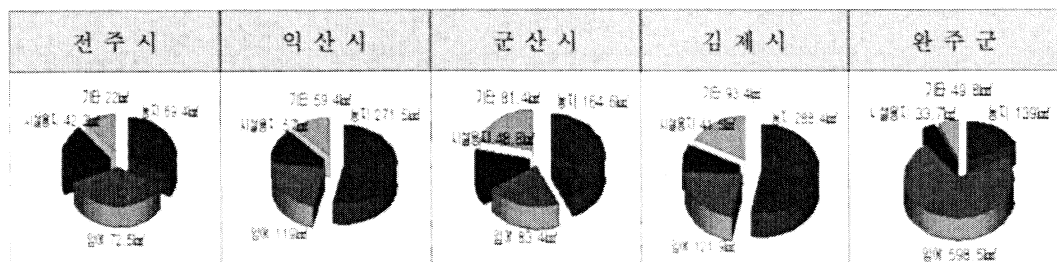
<표 V-1>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km, %)

지역	계	도시적 토지이용					비도시적 토지이용					도시적 토지이용 (%)
		소계	대지	공장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전	담	임야	기타	
전북	8,050.65	475.12	31.89	20.47	237.52	185.23	7.80	665.41	1608.06	4582.78	711.45	5.90
전주권	2,457.48	223.27	26.03	12.45	87.50	97.29	1.17	206.80	718.29	995.21	309.44	9.10
전주	206.22	42.27	2.08	4.36	12.11	23.73	0.92	20.11	48.98	72.48	21.45	20.50
군산	378.19	48.85	10.08	2.50	16.28	19.98	0.85	21.64	112.21	83.37	81.28	12.92
익산	506.97	57.04	6.20	2.63	21.40	23.81	1.53	59.48	210.05	118.97	59.90	11.25
김제	545.20	41.45	2.31	1.57	19.91	17.65	0.68	58.41	226.65	121.93	96.07	7.60
완주	820.92	33.68	5.36	1.39	14.80	12.12	0.19	47.16	90.40	398.46	50.74	4.10

자료 : 전북 통계연보 2004

<표 V-2> 시·군별 토지이용현황



자료 : 전북 통계연보 2004

주 : 농지는 전, 담, 과수원, 목장용지의 합계이며,

시설용지는 대지, 학교용지, 도로용지, 공장용지의 합계임

또한, 용도별로 분류하여 보면, 임야면적이 40.5%로 가장 많았고, 농지면적이 38.0%, 기타면적이 12.5%, 시설용지 9.1%의 순으로 권역내에는 임야와 농지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

○ 용도지역 현황

- 전주권의 도시지역면적은 행정구역면적의 23.9%에 해당하며, 이중 주거지역 11.7%, 상업지역 1.6%, 공업지역 6.9%, 녹지지역 68.3%를 차지하고 있음
- 비도시지역의 경우, 행정구역면적의 76.1%에 해당하며, 이중 관리지역 38.3%, 농림지역 35.4%, 자연환경보전지역 6.2%를 차지하고 있어 비도시지역중 농림지역의 비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함

<표 V-3> 시·군별 용도지역 현황

(단위 : km²)

구분	행정구역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소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주권(계)	2,457.38	665.70	78.27	10.49	45.54	454.42	76.48		1,870.19	717.07	1,036.62	116.47
전주시	206.21	197.60	31.34	4.20	6.28	155.76	0.00		8.61	5.63	2.71	0.27
군산시	378.06	207.48	17.49	3.21	27.50	82.64	76.22		249.07	120.56	126.63	1.87
익산시	507.01	69.13	16.95	1.67	5.85	44.64	0.00		437.88	205.35	215.14	17.38
김제시	545.18	40.84	7.79	0.85	0.33	31.59	0.26		504.34	262.74	213.37	28.22
완주시	830.92	150.65	4.70	0.56	5.58	139.79	0.00		670.29	122.79	478.77	6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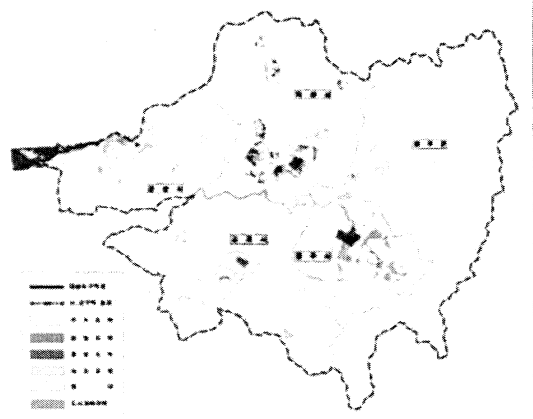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04

주1 : 군산시의 미지정 면적, 76.22km²는 해면부임, 따라서 행정구역면적에서 제외됨

주2 : 시군별 면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삭하였으며, 전주권 합계는 이를 합산함.

<표 V-4> 5개시·군 도시계획현황

구분	개소	지역명
전주시	1	전주
군산시	3	군산, 대야, 임피
익산시	6	익산, 황등, 함열, 여산, 용안, 준포
김제시	5	김제, 만경, 죽산, 금구, 금산
완주군	3	삼례, 봉동, 고산



○ 토지이용계획 현황

- 2004년말 현재, 전주시(2021년)는 2003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군산시(2016년)는 1999년에, 익산시(2016년)는 2002년에, 김제시(2016년)는 1998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 (완주군의 경우, 군종합개발계획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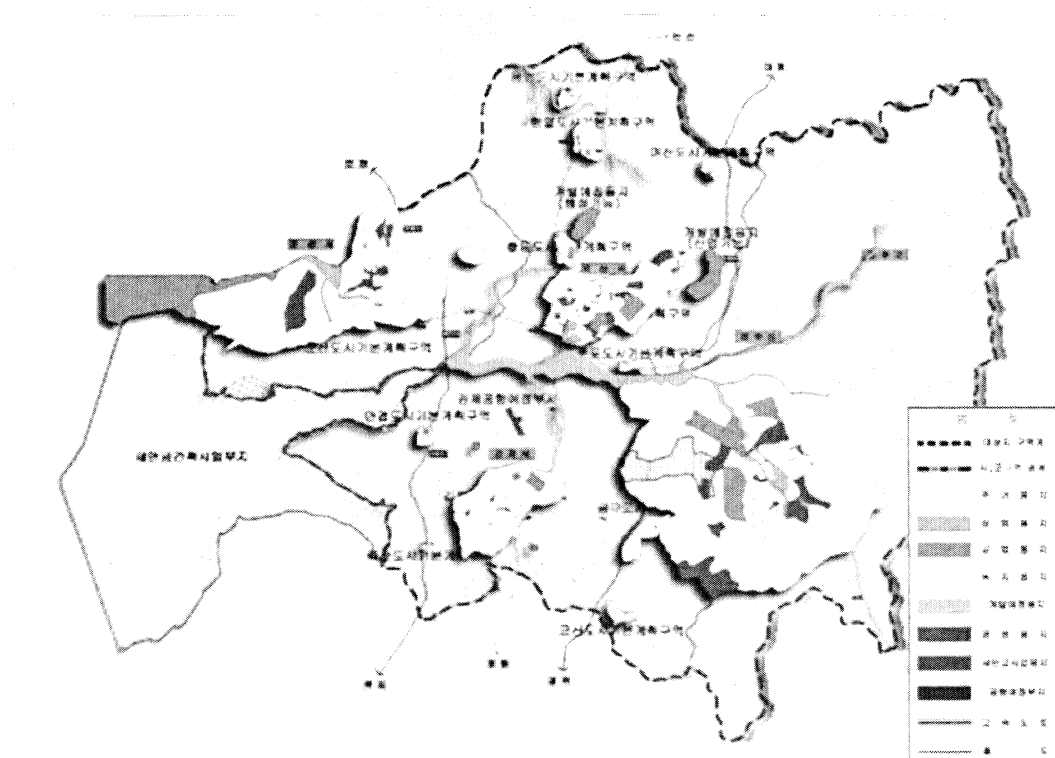
<표 V-5> 기본계획상 시군별 토지이용계획

(단위 : km)

구분	계획인구 (명)	계획구역 면적	시가화 예정용지	보전용지	시가화용지				
					소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
전주시	85만	206.21	9.42	263.89	39.87	30.08	3.74	6.05	0.00
군산시	54만7천	952.00	0.00	879.09	72.89	34.60	7.50	30.7	0
익산시	44만1천	134.28	0.00	0.00	69.13	16.95	1.67	5.85	44.64
김제시	18만5천	545.18*	0.00	41.64	16.15	12.12	1.93	2.10	0.00
완주군	-	-	-	-	-	-	-	-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04

주 : 시·군별 세부면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삭하였으며, 전주권 합계는 이를 합산함. 김제시(*)의 경우, 계획구역면적이 545.18km²로 되어 있으나, 용지면 합계가 상이함



<그림 V-1>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2) 현안과제

○ 주변 광역권과의 상호보완적 기능연계 필요

- 대전·청주권 및 광주권이 주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권이 공주·연기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어 주변 광역권과의 상호보완적 기능연계가 필요함
- 또한 본 권역의 상당부분이 전주·군장광역개발권에 포함되어 있어 계획수립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기능연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지역특화 및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 시·군별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따른 특화기능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 도시간 특성 및 잠재력 극대화를 통한 지역전체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기능분담 및 연계가 필요함
- 이와 더불어, 클러스터의 유형화를 통한 지역차원의 클러스터 강화정책을 도출,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수요의 합리적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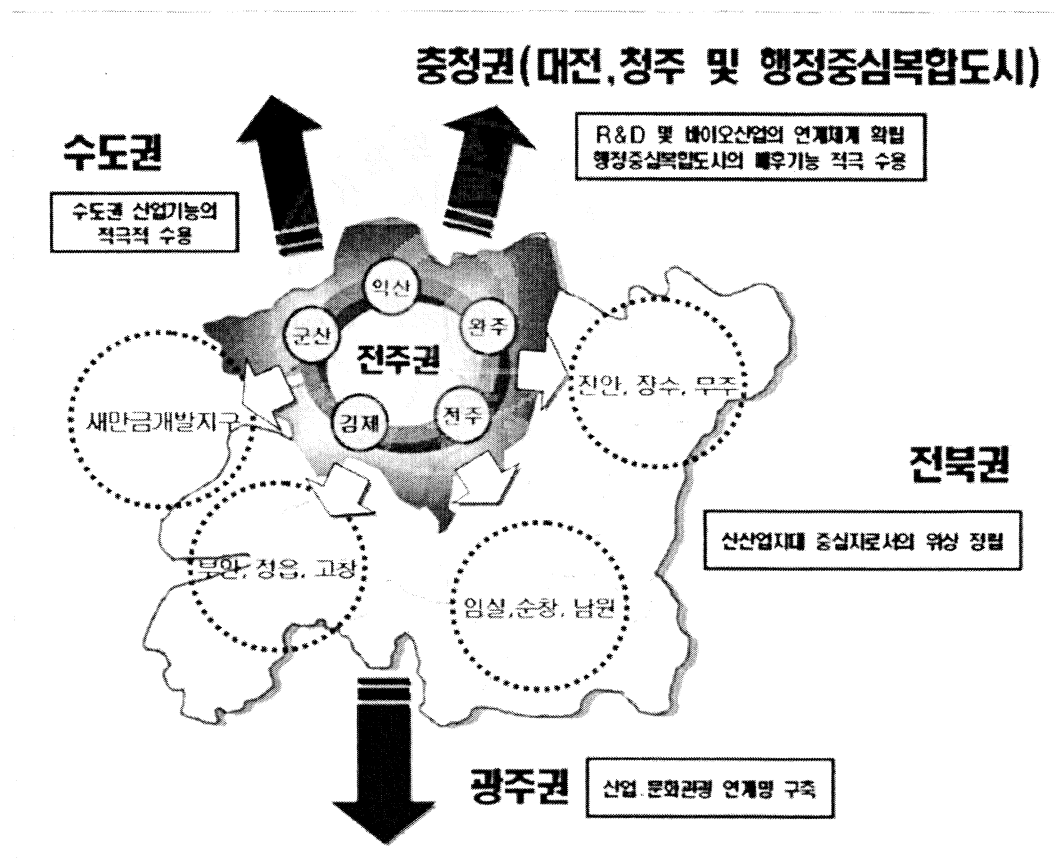
- 지역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압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장기적 토지수급을 전망하여 공간수요를 합리적으로 배분해야하며, 공간구조에 따른 개발축, 교통축, 기능분담체계를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분산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성장과 단계별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용도를 배분하며 단계별 토지수요에 따른 토지이용을 구상하여 무질서한 시가지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광역토지이용의 기본구상

(1) 인접 광역권과의 상호보완적 관계형성

- 수도권 : 공간구조 재편 및 질적 고도화를 통해 국제물류 및 금융·비즈니스, 지식 기반 산업 중심지로 위상을 재정립
- ⇒ 수도권의 산업이전 적극 수용

- 충청권 : R&D 및 바이오산업,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교육·연구·물류 및 지식 기반 산업의 특화육성
⇒ R&D 및 바이오산업의 연계체계 확립,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기능 수용
- 전북권 : 친환경 지향의 농업·생명산업 고도화와 자동차기계 및 에너지 관련 산업 중심의 신산업지대 구축
⇒ 신산업지대 중심지로서의 위상 정립
- 광주권 : 광산업, 에너지 등 첨단미래산업의 육성과 자연자원·친환경 농어업·향토문화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지대로 육성
⇒ 산업·문화관광 연계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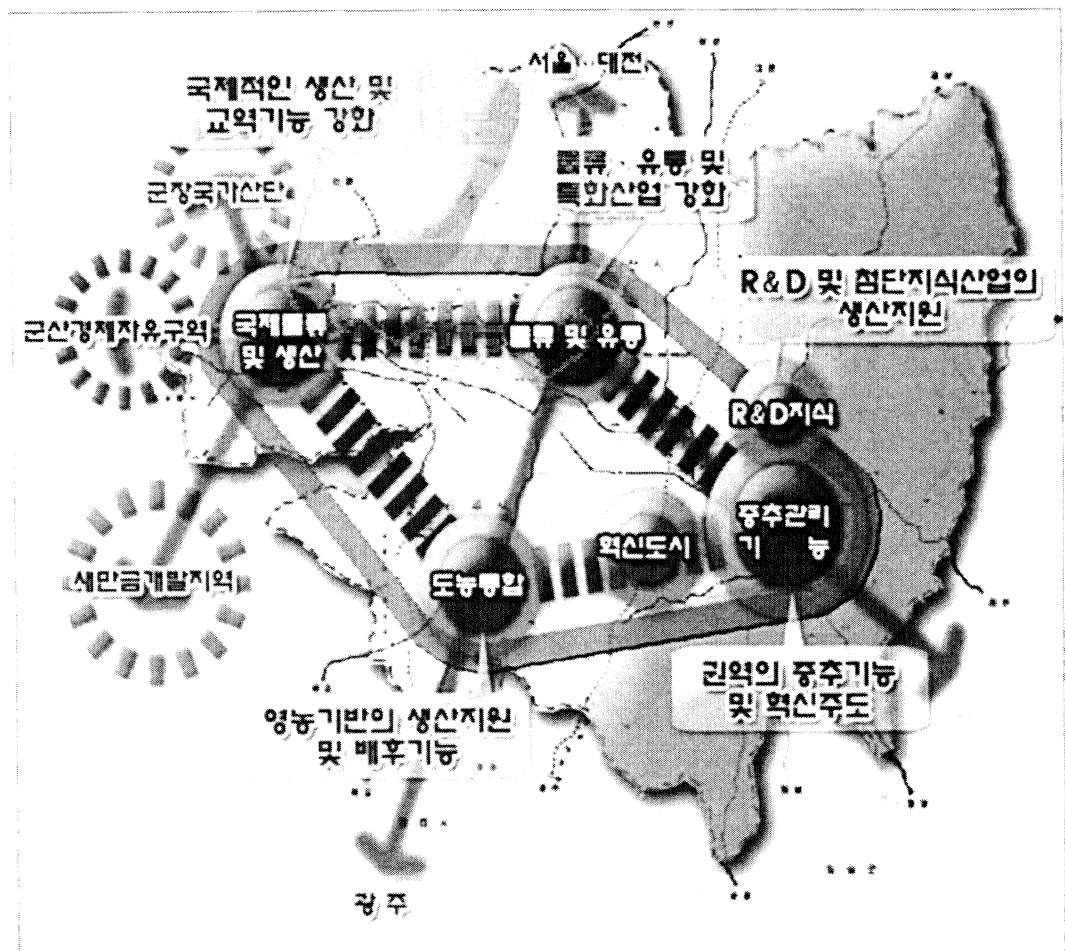


<그림 V-2> 주변지역과의 관계

(2) 지역내 상호보완적인 기능분담체계의 구축

- 전주시는 전주권의 행정,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서 중추관리기능을 수행하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첨단정보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더불어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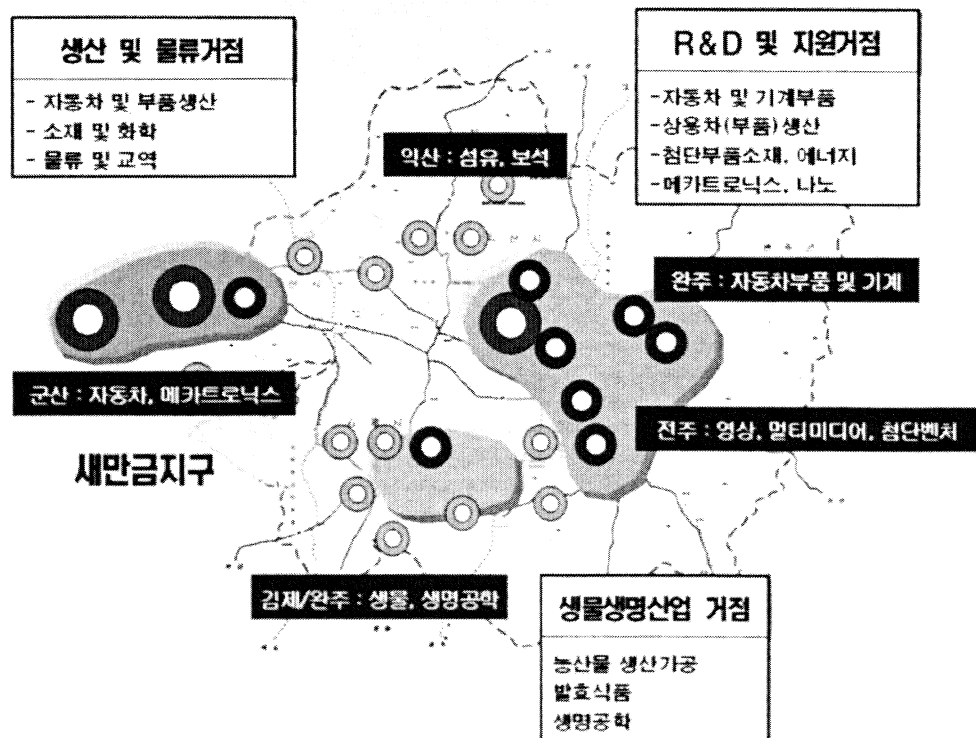
- 군산시는 국제적인 생산 및 교역진진기지로의 역할을 강화하며, 해양자원과 주변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만금의 배후생산지원도시로서 역할 증대
- 익산시는 교통의 결절지로서 물류 및 유통 기능을 강화하며, 보석·식재가공, 니트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의 기반을 구축, 더불어 역사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지역이미지를 강화함
- 김제시는 대규모 영농기반의 생산거점 지원을 통하여 신산업지대의 배후기능을 수행하며, 지역특색을 살린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새만금지구와 연계된 도농복합형의 전원 및 관광기능을 수행
- 완주군은 대도시 근교의 배후전원도시 및 휴양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첨단산업 중심의 생산기능을 보유함으로써 생산적 배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근교 및 생태영농 기법을 통한 지역농업을 특성화함



<그림 V-3> 도시간 상호보완적 기능분담체계 구축

(3) 신산업 등 산업연계벨트 강화 및 혁신클러스터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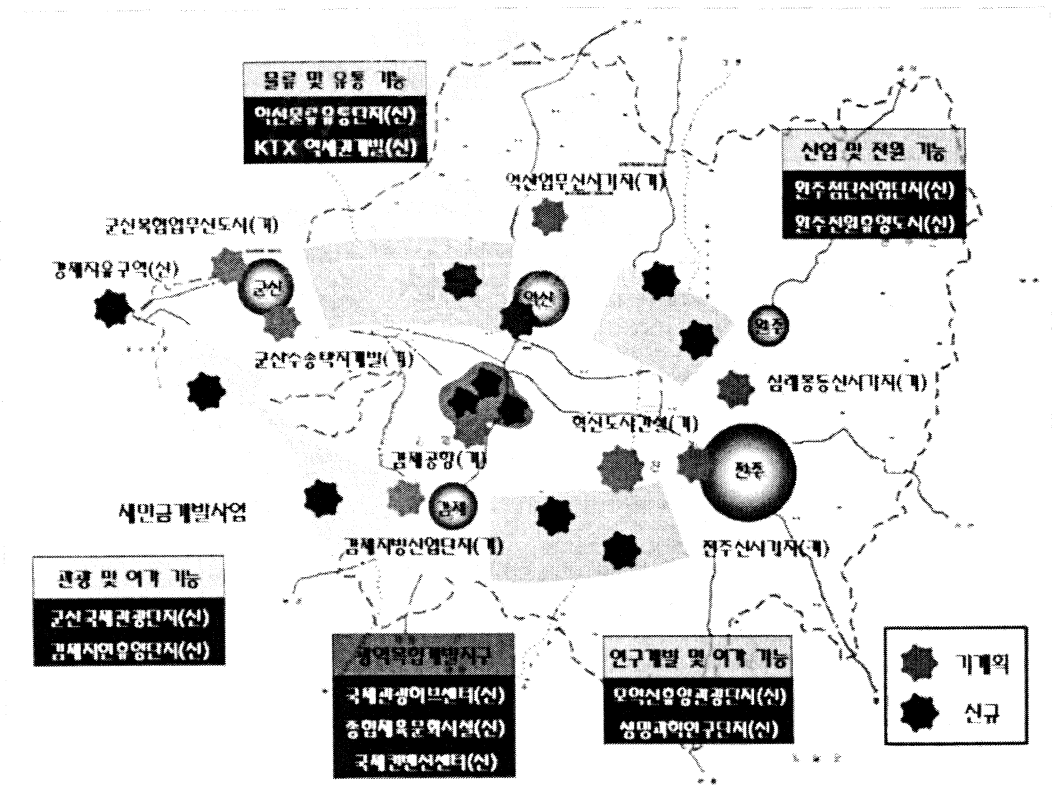
- 산업연계벨트 : 군산(자동차, 메카트로닉스)~익산(섬유, 첨단기계)~전주(R&D 및 S/W개발, 나노기술)~완주(신생에너지 S/W생산)~김제(생물·생명, 식품)간 산업연계벨트를 강화하며,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인접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산업 및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 지역별 거점 : 군산지역에는 자동차, 부품생산, 소재 및 화학, 물류 및 교역을 중심으로 생산 및 물류거점을 마련하고, 전주와 완주일대에는 자동차 및 기계부품생산과 지원, 첨단부품소재산업, 메카트로닉스, 나노, 자동차IT융합기술 등 R&D 및 지원거점을 마련하며, 김제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는 농산물생산, 발효식품, 생명공학 등 생물, 생명산업거점을 구축
- 혁신클러스터 : 현재 자동차(부품) 중심의 단순생산클러스터 형태로 집적화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를 기계산업과 연계하여 자동차 부품 및 기계 클러스터, 전북지역의 농산물 생산과 연계한 생물·생명 클러스터, 소재개발 및 디자인 개발 등 제품개발, 공정기술개발과 같은 기술혁신을 통한 니트산업 클러스터를 육성



<그림 V-4> 산업연계벨트 및 거점별 혁신클러스터 형성

(4) 공간수요의 합리적 배분과 균형적인 토지이용

- 전주광역권내의 내부순환도로 중심지구와 광역복합지구로 지정하여 광역 펌피시선인 국제기능과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등을 유지하여 5시·군 시민들의 이용에 편의성을 제고
- 성장관리권역에 배분되어야 할 기능은 여가·휴양기능, 물류·유통기능, 관광·문화기능, 산업·전원기능으로 구분
- 기능배분의 원칙은 도시간의 특성과 연계된 기능을 부여토록 함에 있어서 익산시의 교통 및 서비스 특성, 군산시의 제조업과 해양자원특성, 전주시의 전통도시, 업무 및 학원도시 성격과 완주군의 자연자원, 김제시의 공항과 농생명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분



<그림 V-5> 성장관리권역 기능배분과 광역복합지구

3) 실 천 계 획

(1) 수급전망과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 용도별 수요추정

■ 주거용지

- 주거용지의 토지 소요면적은 지역별 추계된 계획인구와 주거지 평균인구밀도 방식과 주택수 1호당 부지면적 산정방식 중 최소값을 적용.
- 목표연도(2025년) 계획인구 추정치 : 1,835천인
- 주거용지에 거주하는 인구 추정치 : 1,652천인(1,835천인의 90% 적용)
- 각 시·군별 인구밀도 기준은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 원단위를 비교·적용
- 목표연도 주거용지 수요 : 9,781 ha(추가소요면적 : 1,954 ha)
- 주거용지면적 산정식

$$R_a = \sum_{i=1}^n p_i / d_i \quad R_a = \text{주거용지 면적}, d_i = \text{주거임지별 인구밀도(인/ha)}$$

p_i = 주거임지별 상정인구(인), i, n = 주거임지별 인구밀도 계층구분

주 : 주거용지 면적산정시 주거임지별 인구밀도의 계층구분 세분화하지 않고, 주거지역의 총면적으로 산정

<표 V-6> 주거용지 수요추정

구 분	계획인구 (인)	주거용지내 수용인구	2025년 계획밀도 (인/ha)	2025년수요면적(ha)		현재면적 (ha)	추가 수요면적 (ha)
				평균인구밀도에 의한 방식	주택수와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식		
전주권	1,835,000	1,651,500	172	9,781	10,978	7,827	1,954
전주시	824,000	741,600	200	3,708	4,931	3,134	574
군산시	405,000	364,500	160	2,278	2,421	1,749	529
익산시	381,000	342,900	180	1,905	2,272	1,605	210
김제시	135,000	121,500	100	1,215	818	779	436
완주군	90,000	81,000	120	675	536	470	205

주 : 도시지역 인구1인당 주거지역 면적(3004㎡, 도시계획현황)을 원단위면 시군별 주거지역 인구밀도(인/ha) : 전주 106인/ha, 군산 132인/ha, 익산 165인/ha, 김제 58인/ha, 완주 84인/ha임

■ 상업용지

- 지역별로 추계된 계획인구와 상업지역 이용인구를 적용하여 추정
- 목표연도(2025년) 계획인구 추정치 : 1,835천인
- 상업지역 이용인구 : 1,670천인(상주인구의 85% + 주간유통인구)
 - * 주간유통인구의 경우, 시·군간 이동량을 고려, 전체 상주인구의 6%를 적용함
- 상업용지 산정을 위한 1인당 점유면적, 건물의 평균층수, 건폐율 및 공공용지율 등의 각 시·군별 기준은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 원단위를 비교하여 적용
- 목표연도 상업용지 토지수요 : 1,424ha
- 상업용지면적 산정식

$$A = \frac{n * a}{N * r * (1-p)}$$

A : 상업지역면적 n : 상업지역이용인구
 a : 1인당점유면적 N : 평균층수
 r : 건폐율 p : 공공용지율

<표 V-7> 상업용지 수요추정

구 분	계획인구 (인)	이용인구 (인)	1인당점유 면적(m ²)	평균 층수	건폐율 (%)	공공 용지율(%)	2025년 수요 면적(ha)	현재 면적(ha)	추가소요 면적(ha)
전 주 권	1,835,000	1,669,850	-	-	-	-	1,424	1,049	375
전 주	824,000	749,840	15	4	70	30	574	420	154
군 산	405,000	368,550	15	3	70	30	376	321	55
익 산	381,000	346,710	15	4	70	30	265	167	98
김 제	135,000	122,850	15	3	70	30	125	85	40
완 주	90,000	81,900	15	3	70	30	84	56	28

■ 공업용지

- 2025년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공업용지의 면적추정은 기 승인된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추정된 공업지역의 면적과 산업입지 원단위에 의한 추정값 중 최소값을 적용하여 산정함
- 추정결과 시·군 도시기본계획상의 공업용지가 가장 작은 값이므로 이를 공업용지 면적으로 결정함

<표 V-8> 공업용지 수요추정

구 분	도시관리계획 공업지역(ha)	2025년수요면적(ha)	
		시·군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	산업입지 원단위에 의한 공업용지 수요추정
전주권	4,554	5,084	5,407
전주시	628	628	2,428
군산시	2,750	3,070	1,193
익산시	585	585	1,123
김제시	33	243	398
완주군	558	558	265

■ 도시화용지 산정결과

<표 V-9> 도시화용지 산정결과

(단위 :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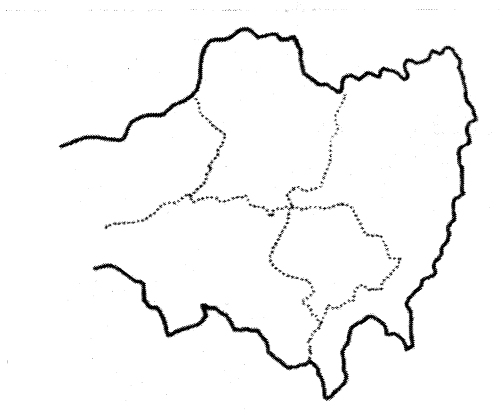
구 분	도시화용지 수요면적	주거지역 수요면적	상업지역 수요면적	공업용지 수요면적
전 주 권	16,289	9,781	1,424	5,084
전 주	4,910	3,708	574	628
군 산	5,724	2,278	376	3,070
익 산	2,755	1,905	265	585
김 제	1,583	1,215	125	243
완 주	1,317	675	84	558

주 : 도시화용지 : 도시용지 + 도시화에성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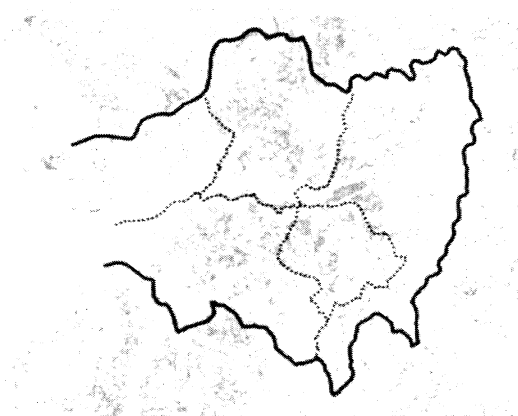
○ 보전용지 및 개발가능지 분석

■ 보전용지 분석

- 보전적 가치가 있는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상수원보호구역, 희귀성 분포, 도립공원 등 보전용지 선정에 필요한 분석결과를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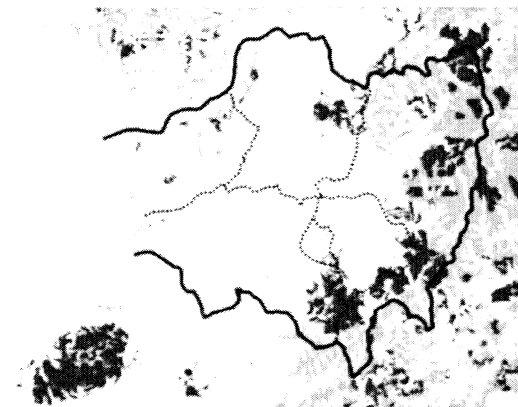
<그림 V-6> 경지정리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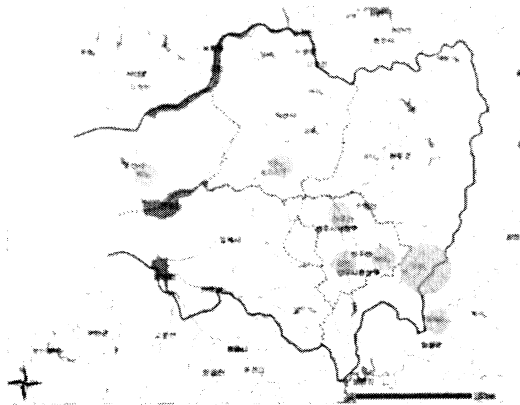
<그림 V-7> 농업진흥지역



<그림 V-8> 생태자연도



<그림 V-9> 보전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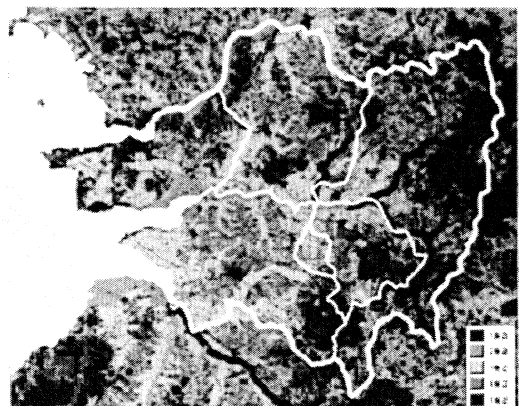
<그림 V-10> 상수원보호지역



<그림 V-11> 회귀성 분포



<그림 V-12> 도시화가화지역



<그림 V-13> 국토환경성평가

■ 개발가능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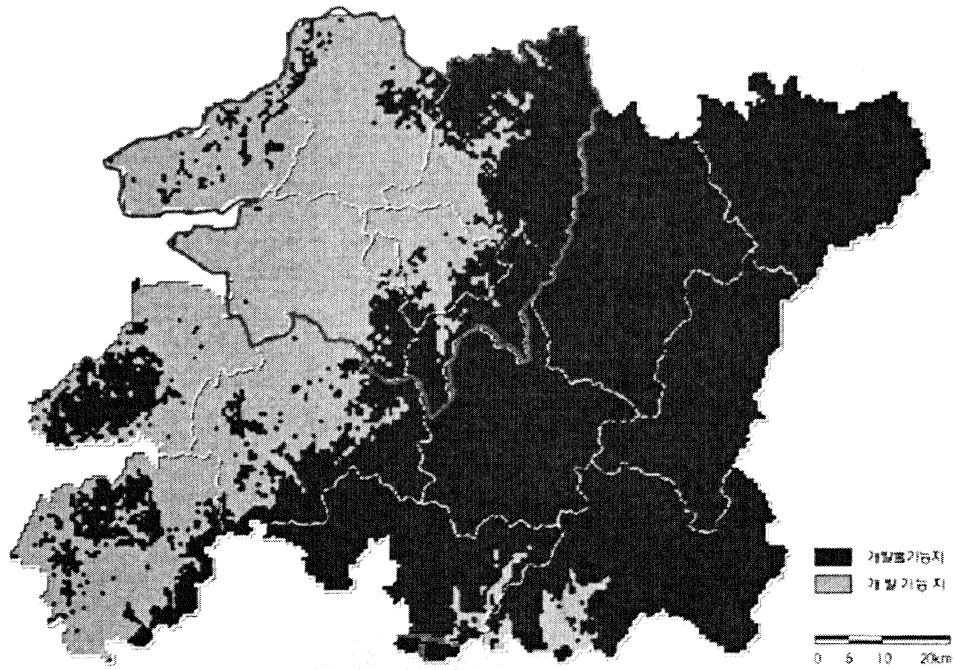
- 표고 100m미만과 경사도 20%미만을 동시에 만족하는 지역을 개발가능지로 산정

<표 V-10> 개발가능지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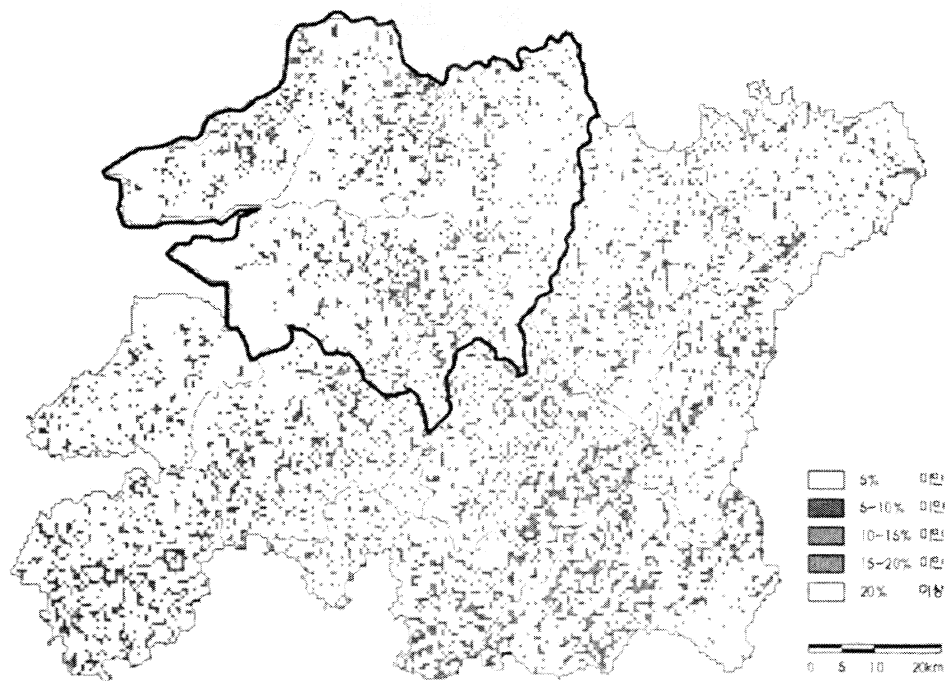
(단위 : km², %)

구 분	행정구역	개발가능지	가용지 비율
전 주 권 (계)	2,459.41	2,369.57	83.60
전주시	206.20	149.21	72.36
군산시	380.06	346.88	91.27
익산시	507.06	453.06	89.35
김제시	545.19	480.20	88.08
완주군	820.90	627.00	7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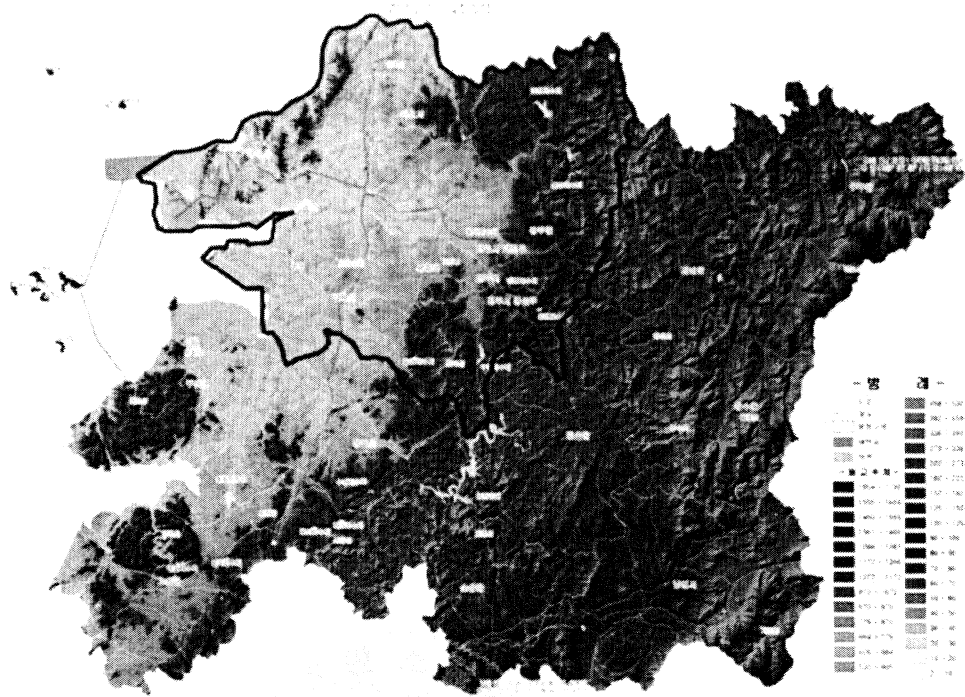
주 : 개발가능지의 분석 기준은 지형상 표고 100m미만이면서 경사 20%미만을 동시에 만족하는 지역을 의미



<그림 V-14> 개발가능지와 개발불가능지



<그림 V-15> 경사분석



<그림 V-16> 표고분석

○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 도시용지
 - 도시기본계획상의 주거, 상업, 공업용지, 도시관리계획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 향후 목표연도의 인구수급계획과 관련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도시용지내 미개발지와 도시화진행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용지를 선정
 - 지역별로 적절한 인구추정 후 이를 바탕으로 기 지정된 도시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적정 배분

<표 V-11> 도시용지계획

계획기준	토지이용
• 도시계획재정비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 도시기본계획상의 주거, 상업, 공업용지	- 5개 시, 군 및 읍,면지역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용지

- 도시화 예정용지
 - 도시화예정용지는 광역계획권의 개발면도, 인구증가, 소득증가와 도시간·생활권간 균형개발, 개발축, 도시간의 연담화방지, 환경오염 예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
 - 향후 대규모개발사업 및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와 유통단지 등을 포함하며,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포함

<표 V-12> 도시화에정용지계획

기본방향	계획기준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중 장래 도시용지로 이용할 지역 • 개발제한구역 중 조정가능지역 ※ 개발축·교통축·녹지축, 도시 공간 연단화 방지, 환경오염예방 등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락지구,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에정용지 • 산업 및 유통단지 개발예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신시가지 및 택지개발지구 - 전북 혁신도시에정용지 - 유통단지 - 각 시군의 도시화진행률을 바탕으로 도시화에정용지 반영

- 대규모 개발사업은 수도권 집중억제 등 국가정책과 광역계획권의 토지이용방향, 개발밀도, 개발소요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략적인 위치와 개발방향을 제시함
- 산업배치에 대하여는 관련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배치계획을 수용하여 전략을 제시, 다만, 광역계획권 차원에서 시·군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 보전용지

- 지침상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중 보전할 지역, 도시공원,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에 필요한 지역, 호소·하천구역 및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중 보전할 지역 등임
- 본 계획에서는 보전용지의 설정을 크게 농업부문, 녹지부문,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고려함으로써 지역의 녹지율 감소에 따른 보전대책을 마련함

<표 V-13> 보전용지계획

구분	계획기준	토지이용
녹지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 보전임지 및 자연경관 양호지역 • 호소, 하천구역 및 수변구역 • 도시기본계획상 공원·보전용지 • 관리계획상 보전녹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악산/대둔산 도립공원 - 도심지내 도심공원 - 보전산지중 생태1,2등급 - 만경강 주변 생태보전지구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 - 관리계획상 보전녹지지역
농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정리지역
기타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에 필요한 지역 • 기타 보전이 필요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원의 수질보전 필요지역 - 기타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또한,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하여 보전용지로 설정함으로써 지역별 녹지훼손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만경강을 비롯하여 대상지내 주요하천과 호소를 보전용지를 설정함
- 모악산도립공원의 경우, 보전용지로 설정하되,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광역적 차원의 대책과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환경훼손에 따른 광역녹지체계의 단절을 방지

■ 기타용지

-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등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거나 토지특성에 따라 보전용도로 설정한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용지, 도시화예정용지 및 보전용지를 제외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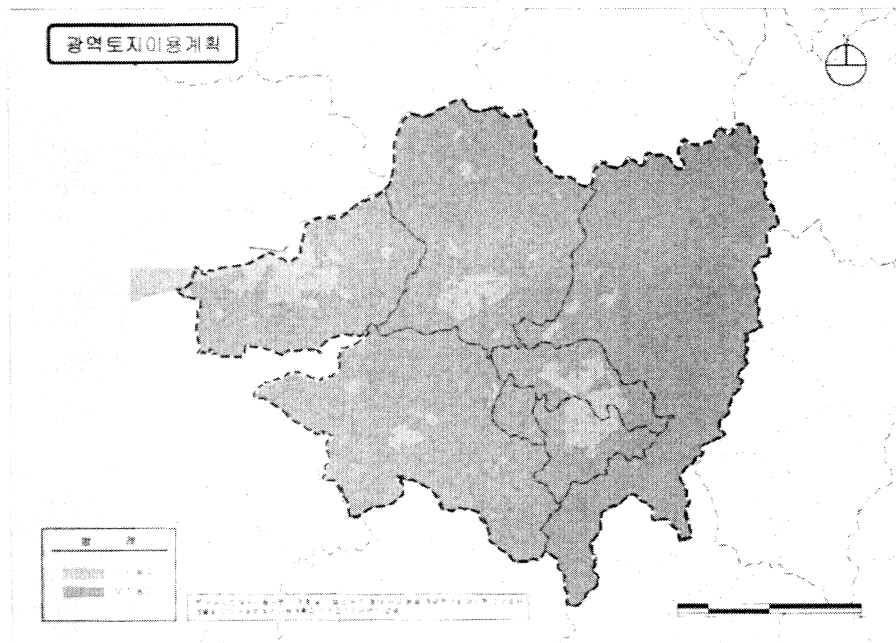
<표 V-14> 기타용지계획

기본방향	지침 및 기준	토지이용구상
•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등 계획적 관리 및 보전용도로의 설정이 필요한 지역	•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등 계획적 관리 필요지역 • 도시용지, 도시화예정용지 및 보전용지 제외지역	• 도시용지, 도시화예정용지 및 보전용지를 제외한 지역

<표 V-15> 토지이용계획표

(단위 : km)

구 분	총계 (행정구역 면적)	소계	도시화 예정용지		기타용지	보전용지
			도시용지	도시화 예정용지		
전 주 권	2,459.41	162.89	134.30	28.59	1,023.55	1,272.97
전 주	206.20	49.10	41.82	7.28	98.83	58.27
군 산	380.06	57.24	48.20	9.04	194.30	128.52
익 산	507.06	27.55	24.47	3.08	246.03	233.48
김 제	545.19	15.83	8.97	6.86	278.95	250.41
완 주	820.90	13.17	10.84	2.33	205.44	602.29



<그림 V-17> 광역토지이용계획(안)

※ 본 구상도는 토지이용구분을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개별토지의 구체적 토지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 산업연계벨트 및 산업클러스터의 육성방안

○ 기능별·지역별 거점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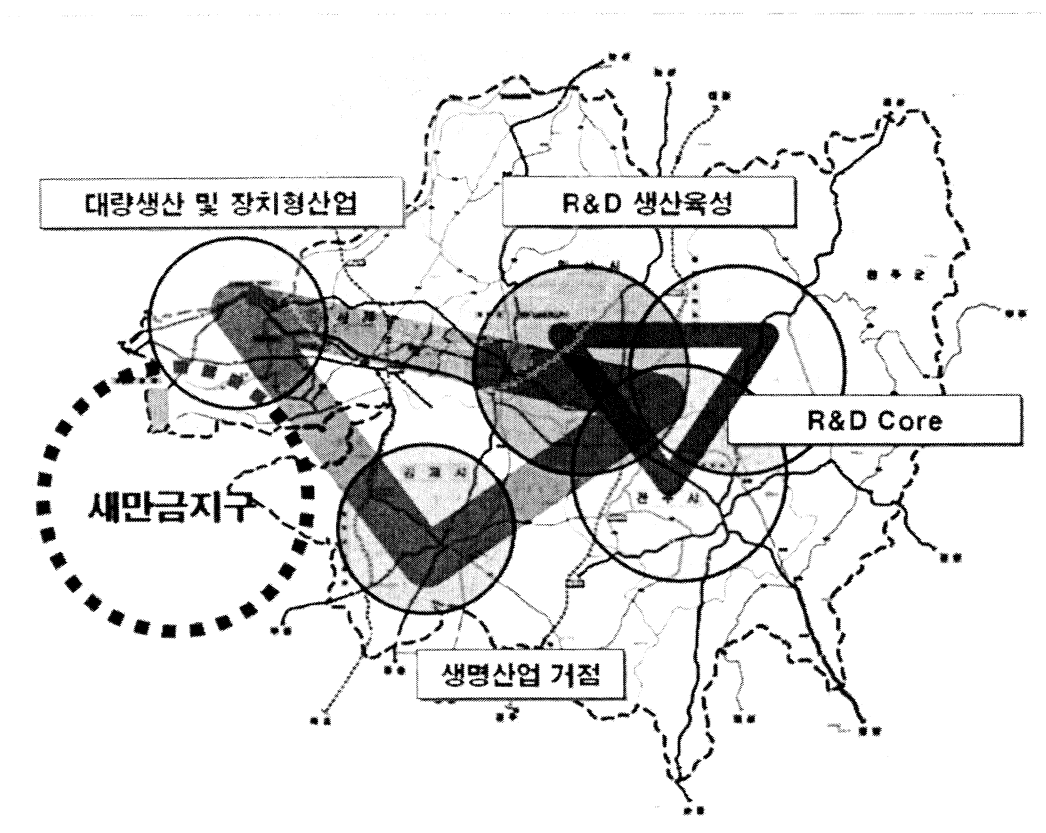
- 5개 시·군을 각각 군산(생산 및 물류거점), 전주·익산·완주(R&D 및 지원서비스, 정밀기계, 나노기술), 김제(생물·생명거점)로 기능 거점화를 마련
- 현재 유지되고 있는 지역별 산업단지 내 기존 산업들의 구조고도화와 기능별 산업들의 집적을 유도하여 각 지역별 제시된 기능별 산업들을 거점화 시킬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구조고도화 및 지역별 거점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음

<표 V-16> 기능별·지역별 산업육성전략

거점(지역)		지역별 산업	산업 구조개편	실천계획
전주·익산·완주	전주	R&D, S/W개발, 나노기술, 지원서비스	· R&D 위주의 고도 개발 산업위주 지역으로 유도 · 기존산업 정비를 통한 기능별 고집적화	· 전주 1,2산업단지 재정비 시도 · 재정비단지 기업 군산의 산업단지 내 소궤지화 지역으로 이전 유도 · 재정비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유도 일부는 복합형태로 개발 · 주변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고급인력 수급 · 익산,완주와 연계된 새로운 공동개발지 입지선정
	완주	신재생에너지, S/W 생산	· IT,NT 개발산업과 연계된 고집적 개발지역 · 정밀기계산업 생산지역	· 전주를 중심으로 한 R&D 및 S/W 산업의 육성지 및 생산지로 기능특화 · NIT, 정밀기계 산업과 연계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익산	섬유,자동차 및 첨단기계	· NT,IT기술 생산육성지역 ·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 개발·생산육성지역	· NT 기술의 독자화 및 전주와의 연계를 통한 섬유산업의 특성화 · 첨단기계 및 기계생산의 특성화와 군산과의 연계할 수 있는 검용부품소재 산업
군산		자동차(상용) 및 부품	· 대규모 산업단지의 일부 용도 변환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 개발지역과 육성지역을 연계한 대량생산지역	· 산업단지 일부를 외국인전용투자지역 혹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전용단지 등으로 지정 유도 · 산업단지 소궤지화를 통한 기능유사 중소기업종 입지 유도, 또한 임대단지개발도 고려 · 대량 생산 체계를 통한 생산거점화 · 자동차 연계부품산업 유치를 통한 기계장치산업 집적화
김제		생물·생명, 일반기계	· NBT, NIT 특성화 집적 · 일반기계생산 집적	· 혁신도시의 BT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 · NBT, NIT 등 생물연관 산업의 독자적 수행화를 실시 · BT산업의 연계를 통한 식품 클러스터 형성 유도

○ 산업연계벨트 조성과 혁신클러스터의 육성

- 산업연계벨트와 혁신클러스터 형성은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지역의 혁신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할 수는 없음. 다만 이 두 가지를 동시·체계적으로 실행하였을 경우 전주권의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 전주권의 산업연계벨트 및 혁신클러스터는 전주, 완주를 중심으로한 R&D Core의 기술개발 및 지원업무 → 익산지역의 R&D 생산육성 → 군산의 대량생산 및 장치형 산업으로 이루어진 클러스터를 형성시킬 수 있음
- 단 김제시의 경우 혁신도시로 입주하는 생물·생명산업과 연관된 산업의 기술개발을 담당하도록 하며, 이와 더불어 BT(Biotechnology)산업을 동시에 육성 주변 R&D 육성지역과의 연계를 도모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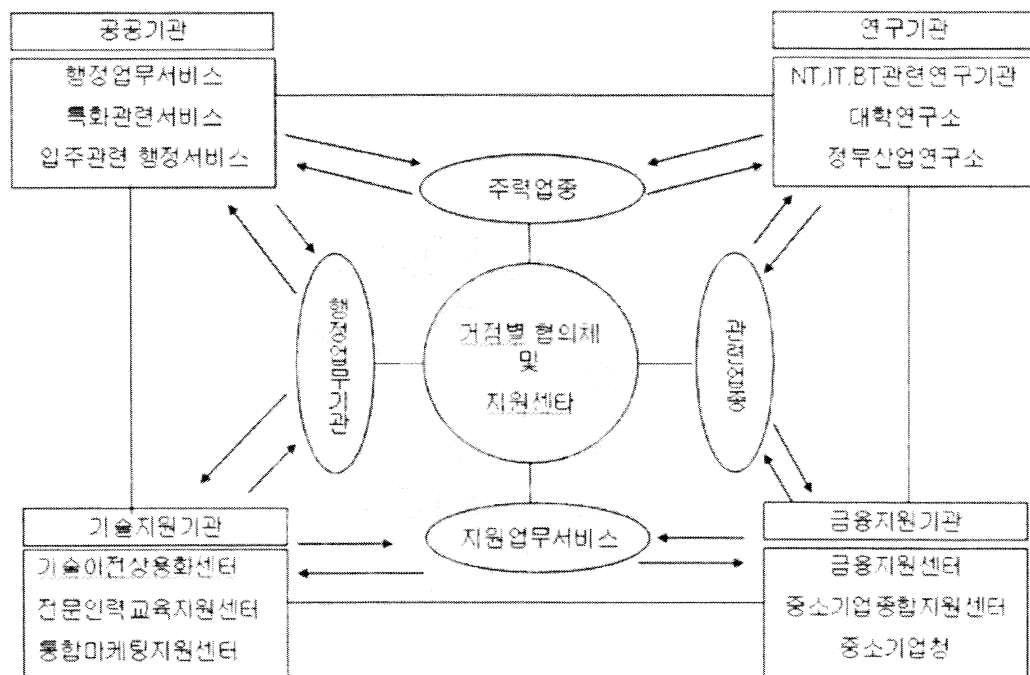


<그림 V-18> 전주권 산업연계벨트와 혁신클러스터 형성도

○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협의체 및 지원센터 조성

- 전주권의 산업연계와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협의체 및 지원센터의 건립이 필요하게 됨

- 협의체는 가칭 “전주광역도시권 산업협력 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으로는 권역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관련 사안들을 협의하고, 밖으로는 기술이전 및 기술창출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센터는 광역적 성격으로서 복합단지 내 그 위치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과학박람회와 신제품 전시회 등 다양한 성격의 기술이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며, 기술개발과 연구지원을 위한 고급인력 교육 및 양성, 종사자의 고급인력화 및 재교육, 행·재정 지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복합적 기능을 부여한 센터 건립



<그림 V-19> 지역혁신클러스터 연계체계

(3) 성장관리권내 기능별 주요시설 운영계획

○ 광역복합지구의 운영

- 광역복합지구는 5개 시·군의 공공시설수요를 충족시키고 광역공공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이해관계의 조정적 역할을 수행함
- 국제컨벤션센터, 국제학원, 종합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복합적 기능의 시설조성과 더불어 광역녹지공간의 확충을 통한 친환경적 생태지대를 형성함으로써 계획적 복합광역도시, 광역권의 랜드마크(landmark), 친환경시범도시건설에 기여함

- 친환경적 수변공간과의 연계 : 수변공간에 대한 기대치는 현재보다 증가할 전망이며 따라서 수자원의 보전과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필요함. 만경강을 중심으로 친환경적 수변테마파크 등 수변공간과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

○ 물류 및 유통시설의 운영

- 전주, 익산, 군산을 기점으로 하는 종합물류센터와 새만금 국제물류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본 사업대상지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의 물류거점과의 연계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함
- 특히,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구성을 통한 친환경농수산물 생산·유통의 통합적 관리는 지역 내 농업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여 농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향상시킴. 또한, 김제의 산업생명공학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농업 및 유통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산업 및 전원시설의 운영

- 산업의 집적화로 업종간 생산비용을 절감 및 정보구축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며, 탈 도시화로 인한 전원도시 건설로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수요를 충족함
- 완주첨단산업단지 : 기계조립, 통신 및 컴퓨터제조업, 전자부품조립등 완주지역 산업의 기 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테마별 산업의 조성(테크노타운, 벤처기업타운, 지식산업 및 소프트웨어단지 등)을 통해 타 도시에 갖추어지지 않은 선진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미래형 산업단지의 기반을 확보
- 완주전원도시 : 주변의 모악산도립공원과 만경강의 친수공간이 접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향상 및 소득의 증대로 인해 향후 전원형 주거공 간의 수요가 증가. 이에 완주군은 21C주거형 전원신도시의 구성을 통해 인구의 유입과 소득증대의 효과를 발생

○ 관광 및 여가시설의 운영

- 주 5일 근무, 소득의 증가 등 관광여건을 수용하며, 관광 및 여가 기반조성을 통한 삶의 여유 증대에 기여함
- 왕궁보석테마파크 : 익산의 보석가공 및 생산은 전세계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꾸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익산을 중심으로 보석박물관, 체험학습장 등의 지역의 특색에 맞는 테마파크 조성과 국제박람회 등을 유치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

- 전통특산단지 : 전통문화재 및 음식 등 다양하고 볼거리가 많은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 전통재래박물관 및 전통먹거리장터, 전통예절학습장과 민속촌등을 조성, 외국관광객 및 국내관광객의 유치를 통해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랜드마크적 기능을 조성하여 행정, 문화, 예술의 모범적인 대표적 광역도시로서 상징성을 부여

○ 여가 및 휴양시설의 운영

-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여가 및 휴양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자연자원이 풍부한 도시주변에 여가 및 휴양시설을 운영함
- 모악산휴양여가단지 : 모악산을 중심으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휴양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여가 및 휴양수요에 부응하는 원스톱서비스(의료, 주거, 체육, 문화, 여가, 휴양 등)를 제공함
- 모악산관광레저타운 : 산림휴양림조성, 농어촌관광휴양사업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여가 및 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적 여가공간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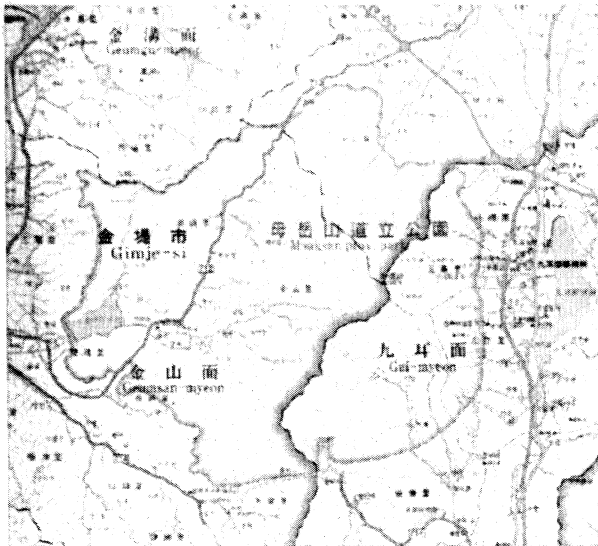
<표 V-17> 기능별 주요시설

기능별	입지	주요시설
광역 복합지구	권역내부	• 국제컨벤션센터, 국제학원, 종합체육시설, 문화시설, 김제공항부지 등
물류·유통	군산-익산	• 물류 및 유통단지 조성, 고속철도역세권 등
산업·전원	완주-진주	• 전원도시, 실버타운, 전통특산단지 등
관광·여가	김제-군산	• 국제관광단지, 자연휴양단지 등
여가·휴양	진주-김제	• 모악산 휴양·여가단지개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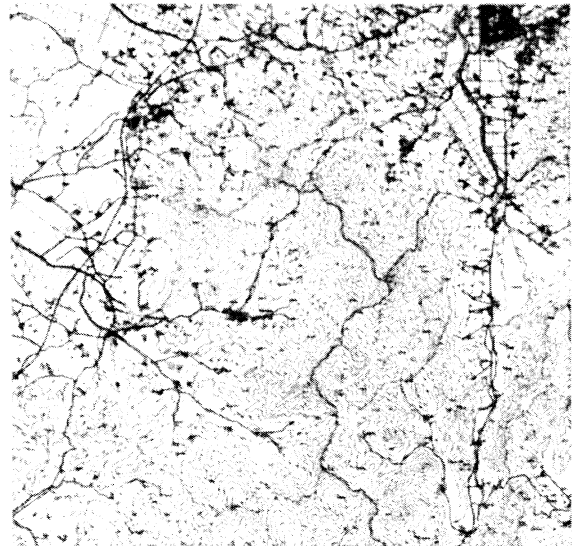
(4) 모악산 주변지역의 관리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모악산 도립공원은 전체 면적 42.22km²으로서 행정구역상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공원법상 공원으로 1971년 12월에 지정됨
- 전체면적 42.22km² 중 9.5km²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관리되어 왔으나,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마련시 전주권은 시가지확산의 우려가 적어 구역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면해제지역으로 결정됨



<그림 V-20> 모악산도립공원 위치도



<그림 V-21> 모악산도립공원 지형도

-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03.06.26)이후에는 용도지역에 의한 관리방법 이외에 별도의 구체적 관리방안이 미수립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 용도지역 및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허가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표 V-18> 현행 시·군별 용지지역 규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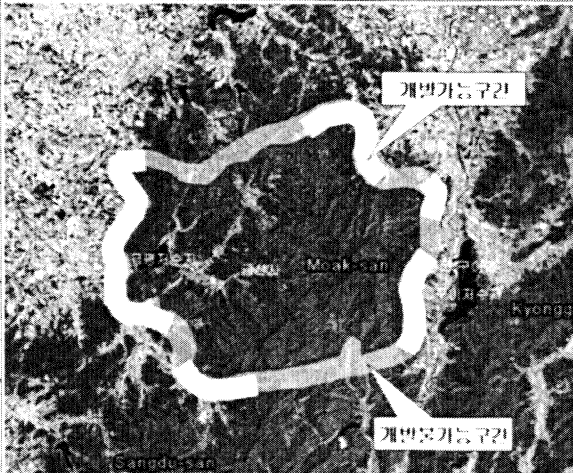
용도지역/ 행위제한내용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20	20
	용적률	100	100	100
	높이	4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20	20	20
	용적률	100	100	100
	높이	4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20	20	20
	용적률	50	100	100
	높이	4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관리지역	건폐율	40	40	40
	용적률	80	80	80
	높이	4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농림지역	건폐율	20	20	20
	용적률	80	80	80
	높이	없음	없음	없음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	20	20
	용적률	-	80	80
	높이	없음	없음	없음

- 모악산공원의 경계표고는 전주, 김제의 경우 약 100m, 완주군의 경우 약 200m에 해당하며, 생태자연도 1,2등급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개발특성은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점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진입도로 여건이 좋은 지역은 국도 또는 지방도 등을 따라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광역적 차원의 관리방안이 요구됨

○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대상지역의 설정

- 모악산 주변지역이 자칫 무분별하게 개발될 경우, 자연경관이 훼손되어 결과적으로 모악산의 역사·문화적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음
- 역사·문화, 자연경관, 환경적 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른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따라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대상지역의 범위를 공원경계로 부터 1km내외를 설정하여 시·군별 또는 공동의 협의체에서 관리토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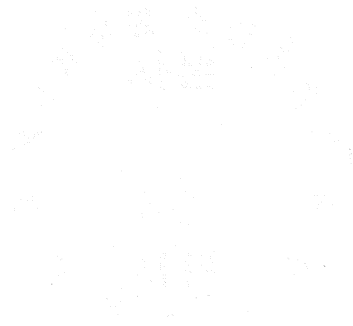
<표 V-19> 현황 및 관리대상지역의 설정

구분	도립공원 면적	개발가능지역 (개발불가능지역)	
합계	42.22km ²	28km구간 (14km구간)	
전주	3.13km ²	4km구간 (2km구간)	
김제	28.2km ²	13km구간 (8km구간)	
완주	19.87km ²	10km구간 (4km구간)	

○ 관리방안 및 집행전략

- ① 관리대상지역 모니터링 : 모악산 주변지역의 개발수요를 최소화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원경계로부터 1km내외를 관리대상지역으로 설정, 개발가능지역과 개발불가능지역을 구분하고 개발가능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 ㉠ 개발행위의 규제 : 개발행위의 경우, 현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규제토록 하며, 다만, 광역적 성격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광역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함.
- 개발어제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표고, 경사도, 입목본수도 등 시·군조례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규제토록 함
- ㉡ 세부계획 통제 : 건축물 등 세부계획에 대하여는 시·군별로 필요시에 용도지구중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통제토록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해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시설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함
- ㉢ 지속적인 관리의 추진 : 해당 기초자치단체별로 관리대상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되, 시·군별 관리방향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는 시·군 공동의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광역교통계획

1) 현황분석 및 과제

(1) 현황분석

○ 도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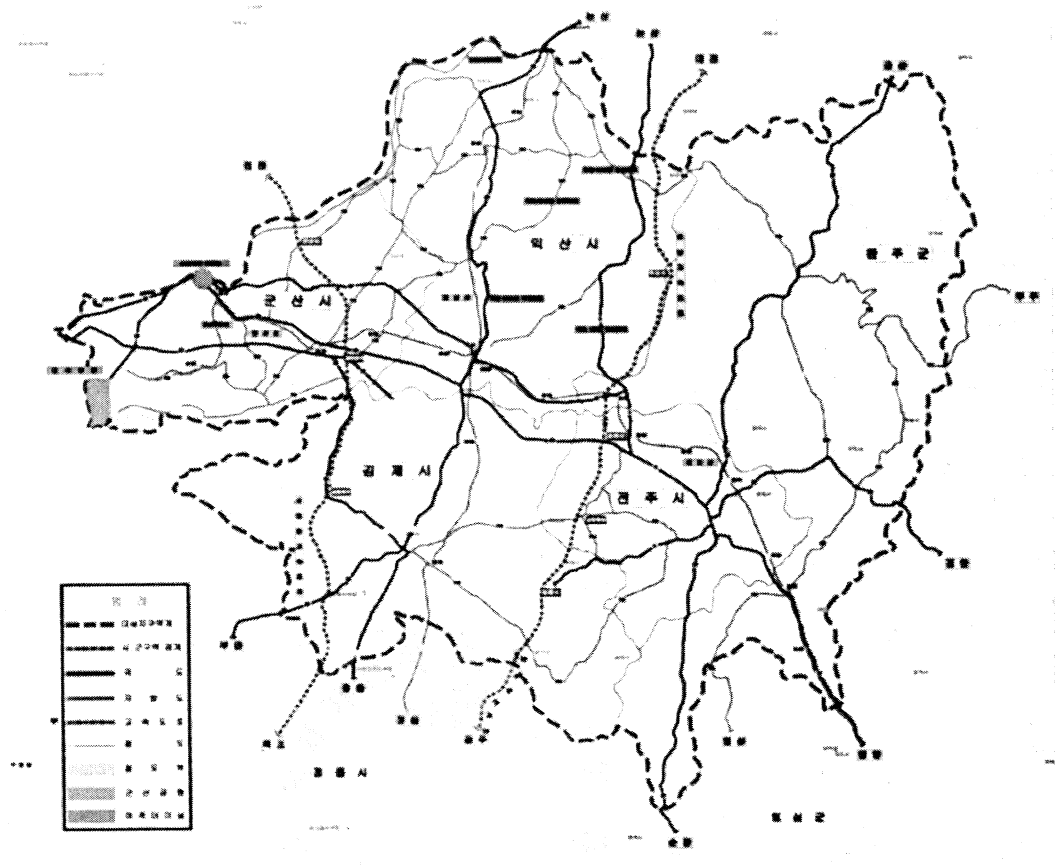
- 동고서저형의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주요 도로망은 동서축보다는 남북축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권역내 주요간선망은 군산~익산~전주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 남북방향으로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국도 1호선, 17호선, 21호선, 23호선, 29호선이 지나며, 동서방향으로 군산~함양간 고속도로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건설중에 있으며, 국도 26호선, 27호선 등이 지니고 있음

<표 V-20> 권역내 주요간선망

방 향	구 간	권역내 노선명
남북 방향	계	7개 노선
	대전~광주	고속국도 1호선(호남고속도로)
	서울~목포	고속도로 1호선(서해안고속도로)
	논산~장성	국도 1호선
	금산~곡성	국도 17호선
	논산~영광	국도 23호선
동서 방향	부여~장성	국도 29호선
	계	2개 노선
	군산~보령	국도 21호선
	옥구~함양	국도 26호선

<표 V-21> 대상지내 도로망 체계현황

- 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 국 도 : 1, 17, 23, 26, 27, 29호선
- 지 방 도 : 643, 718, 702, 720, 706, 722, 709, 732, 710, 735,
711, 749, 712, 771, 714, 799, 716



<그림 V-22> 지역교통체계

○ 철도체계 및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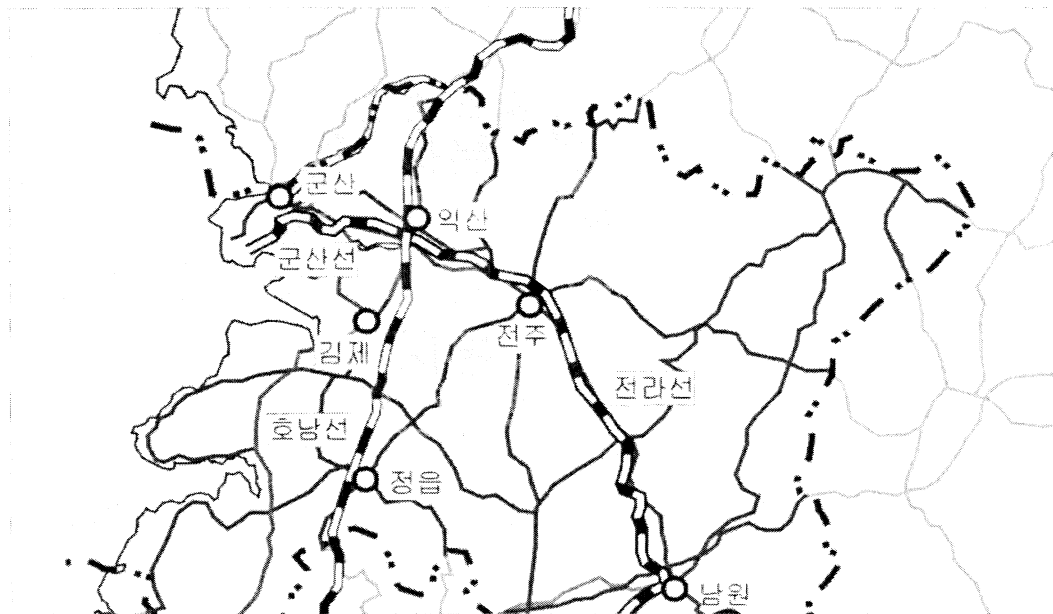
- 본 권역에는 익산을 분기점으로 호남선, 전라선, 군산선과 화물전용의 북전주선 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화물전용 2개역을 포함하여 21개소의 정차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대상지내 철도노선의 경우, 주로 지역간 연계노선으로서 지역내 교통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이는 지역내 교통에 있어 주로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이유이기도 함
- 또한, 군산-장항간 철도가 단절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송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서해안을 중심으로한 여객 및 물동량의 이동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고속철도사업, 전라선 및 호남선의 복선전철화사업 등은 향후 새만금개발사업,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지역개발사업과 함께 지역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표 V-22> 철도시설 현황

(단위:km)

노 선	구 간	연 장	선로형태	역(개소)	비 고
계	-	219.1	-	42	-
호남선	용동-백양사	81.9	복선(일부구간)	15	-
전라선	익산-금지	100.8	단선	20	-
군산선	익산-군산	23.1	단선	5	-
북전주선	동산-북전주	1.7	단선	1	화물전용

자료: 철도청, 철도통계연보, 2003.



<그림 V-23> 철도시설현황

○ 도로시설

- 본 사업대상지를 관통하는 국도의 대부분은 기존의 2차선에서 도로 확충사업을 통해 현재는 4차선으로 확폭이 되어 있으며, 사업이 미진한 곳에서는 지금도 확충공사를 하고 있음
- 대상지의 도로 포장율은 국도 및 고속도로를 제외한 지방도의 경우 포장율이 현저히 낮으며, 주로 농촌의 물동량의 이동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음
- 5개 시·군의 도로포장율을 보면 80.7%로 전북지역보다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척되면서 통행발생량 집중으로 도로포장율의 높은 수치를 보임

<표 V-23> 시·군별 도로시설현황

(단위: km, %)

구 분	계		고속 국 도	국 도		지 방 도		시 · 군 도	
	연장	포장율		연장	포장율	연장	포장율	연장	포장율
시 계	2,972.8 (100.0)	77.4	117.7 (4.0)	533.6 (17.9)	91.3	747.4 (25.1)	82.3	1,574.0 (53.0)	68.6
전주시	378.6 (100.0)	99.1	5.2 (1.4)	59.6 (15.7)	97.0	21.8 (5.8)	100.0	291.9 (77.1)	99.5
군산시	530.0 (100.0)	81.5	8.8 (1.7)	103.1 (19.5)	72.0	115.7 (21.8)	74.7	302.3 (57.0)	86.9
익산시	487.3 (100.0)	72.0	16.3 (3.3)	71.8 (14.7)	97.8	123.6 (25.4)	91.7	275.6 (56.6)	54.8
정읍시	571.6 (100.0)	70.7	34.4 (6.0)	113.4 (19.9)	100.0	156.8 (27.4)	80.0	267.0 (46.7)	49.1
남원시	526.5 (100.0)	76.4	42.0 (8.0)	94.0 (17.9)	100.0	158.2 (30.0)	85.1	232.0 (44.1)	56.7
김제시	478.7 (100.0)	70.1	11.0 (2.3)	91.5 (19.1)	84.7	171.3 (35.8)	77.9	204.8 (42.9)	55.6

○ 차량보유

- 대상지내 차량보유대수 현황을 보면 승용차가 365,922대로 전체의 64.5%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화물차(27.2%), 승합차(5.0%) 순으로 나타남

<표 V-24> 차량보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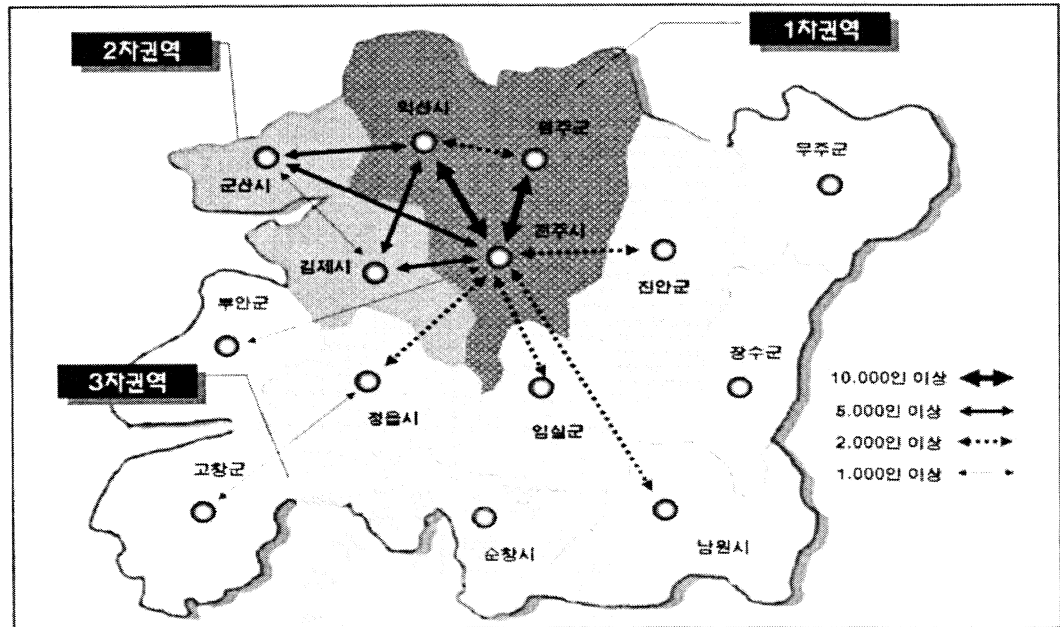
(단위: 개수)

구 분	계	차 량 의 구 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전 북	567,025	365,922	45,328	154,162	1,615	84,053
전 주	189,603	137,015	14,783	37,495	310	21,051
군 산	80,539	56,638	6,330	17,427	357	8,751
익 산	97,887	64,638	8,113	24,957	179	11,349
김 제	32,766	18,394	2,427	11,793	152	8,157
완 주	27,594	15,572	2,389	9,440	193	4,843

○ 전북도내 통근·통학

- 내부통행량을 제외한 1일 기준 지역간 통행량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18,656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주시와 익산시가 13,897명, 전주시와 김제시가 9,158명, 군산시와 익산시가 8,941명 순으로 나타남

- 이를 바탕으로 전주권의 통행량을 5,000인 이상 지역을 기준으로 권역을 분류하였을 경우,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1차 권역과 2차 권역으로 분류되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이 포함됨



<그림 V-24> 통근·통학권

<표 V-25> 통근·통학권 분석

통근·통행량	해당 시·군	1일통행량	비 고
10,000인 이상	전주시 ⇄ 완주군	18,656명	전주, 완주, 익산
	전주시 ⇄ 익산시	13,987명	
5,000인 이상	전주시 ⇄ 김제시	9,158명	전주, 김제, 군산, 익산
	군산시 ⇄ 익산시	8,491명	
	전주시 ⇄ 군산시	5,845명	
	익산시 ⇄ 김제시	5,253명	
2,000인 이상	전주시 ⇄ 정읍시	4,310명	전주, 정읍, 임실, 진안, 완주
	전주시 ⇄ 임실군	2,968명	
	전주시 ⇄ 진안군	2,784명	
	익산시 ⇄ 완주군	2,520명	
	전주시 ⇄ 남원시	2,211명	
1,000인 이상	부안군 ⇄ 전주시	1,576명	부안, 전주, 김제, 군산, 고창, 정읍
	김제시 ⇄ 군산시	1,397명	
	고창군 ⇄ 정읍시	1,062명	

·주 : 분석자료 : 통계청(KOSIS.nso.go.kr), 통근통학량 자료 재구성

○ 시외버스 운행권

전주시에서 시외버스 일일 운행횟수가 가장 높은 구간은 전주-군산시 561회, 전주-익산 364회, 익산-군산 369회로 가장 많게 나타났음

시외버스 일일 운행횟수를 통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은 전주시를 중심으로 뛰어난 반면 군산, 익산, 정읍, 남원과 같은 기타 시군 도시는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완주군의 경우 다른 군 지역의 자료와는 달리 상당히 적은 시외버스 운행횟수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대중교통체계가 전주시와 통합관리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또한 임실군의 경우 전주시와의 운행횟수는 높게 나타났으나 절반 이상이 남원시를 목적지로 하는 노선의 경우지로 나타남

<표 V-26> 전북도내 시·군간 시외버스 1일 운행횟수(회)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주														
군산	561													
익산	364	369												
정읍	175	30	44											
남원	219	-	-	3										
김제	204	73	110	31	-									
완주	30	6	20	2	-	3								
진안	100	10	10	-	3	-	-							
무주	24	-	-	-	14	-	-	22						
장수	59	10	10	-	13	-	-	55	30					
임실	267	-	-	-	186	-	-	12	-	-				
순창	74	-	-	4	49	-	-	5	8	7	57			
고창	123	36	24	87	-	61	2	-	-	-	-	-		
부안	185	44	84	50	-	227	3	-	-	-	-	-	49	

주 1) 경유지는 구간마다 출발-목적지로 구분하여 운행횟수에 포함하였음

2) 모든 노선은 왕복운행함

자료 : 전라북도시외버스운송조합 내부자료(2005년 현재기준)

○ 향만 및 물동량

- 군산항의 향만물동량은 2006년 현재 군산외항 1.2부두를 포함하여 연간 5,803톤에 이르고 있으며 연평균 5.9%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향만물동량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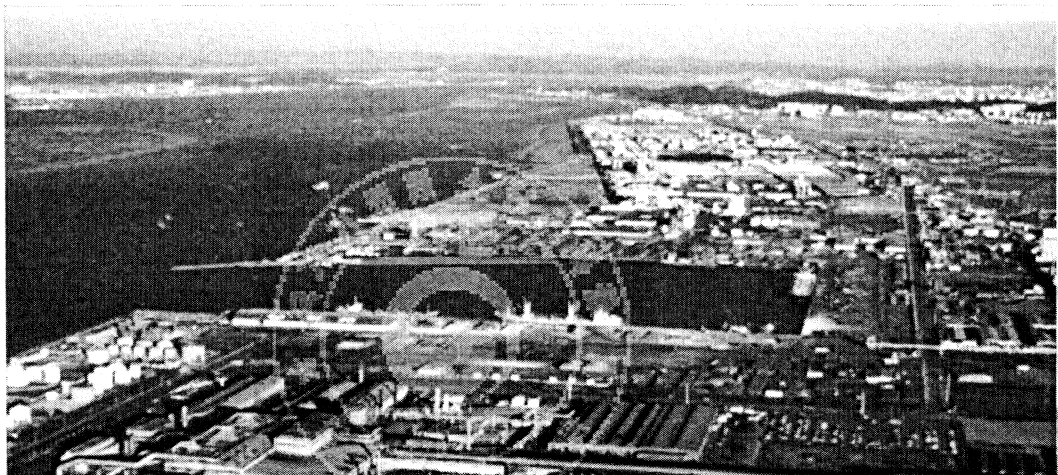
- 군산항의 하역능력은 물동량의 증가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장기적으로 시설확보와 하역장비의 기계화·정보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V-27> 군산항 물동량 증가율

(단위:천톤, %)

연도 \ 항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증가율 (2001~2005)
물동량(A)	12,006	12,776	15,827	16,561	17,078	15.0

자료: 해양수산부, 항만현황, 각 연도



<그림 V-25> 군산항 전경

<표 V-28> 외항 컨테이너 화물지역별 수송통계

(단위:천톤)

지 역	소 계	내국선	외국선	비 고
일 본	5,203	-	5,203	-
극동아시아	62,140	9,093	53,047	-
동남아시아	13,188	5,403	7,785	-
총 계	80,531	14,496	66,035	-

자료: 해양수산부, 항만현황, 각 연도

- 군산항의 주요취급화물은 유류25%, 목재15%, 시멘트12%등 전체대비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군산, 익산 등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물동량시설은 1997년을 기준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13,889(천톤)의 하역능력을 갖추게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물 확보율면에서도 140%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표 V-29> 군산항 시설현황 및 물동량 수요예측

시설현황	방파제(m)		안벽(m)		물양장(m)		집안능력(m)
	0		2,434		1,239		24선식
물동량 시설수요 (천톤)	구 분	1997	1998	1999	2006	2011	
	총화물량	12,045	0	11,470	0	0	
	시설소요	8,973	8,074	9,250	9,678	9,887	
	하역능력	3,602	8,526	7,596	7,596	13,869	
	시설물확보율	40.10	105.60	82.10	78.50	140.29	
주요취급화물	유류(25%), 목재(15%), 시멘트(12), 광석(6%), 양곡(6%), 기타(36%)						

자료 : 해양수산부, 항만편람, 각 년도

○ 공 항

- 사업대상지내 군산공항은 민항기가 취항하고 있는 유일한 공항이나 시설이 협소하고 낙후되었으며, 공군기와 중복이용 등의 제약을 받고 있기에, 향후 예상되는 항공수요 대응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지리적으로 북서쪽에 위치하여 대상지내 이용객의 공항 이용시 접근성이 떨어지며, 착륙료를 미군에 부담하여 여론이 악화되고 시설보수비의 경제적 부담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현재 군산공항에서는 군산~서울, 군산~부산, 군산~제주 노선이 취항중이며, 1996년부터는 서울, 제주 노선에 대한항공 외에도 아시아나 항공도 운항하고 있으며, 연간 수송인원은 연간147,843여명으로 하루 평균 40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997년을 기점으로 이용객이 급격히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이용을 위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이동간 거리와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해석되며, 향후 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군산공항을 대체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돌볼 수 있는 대체부지의 확보가 필요함

<표 V-30> 군산공항 이용현황

연 별	국 내 선			
	계		도 착	
	여 객(명)	화 물(kg)	여 객(명)	화 물(kg)
1997	445,310	2,941,105	221,234	1,313,734
1998	281,745	1,071	137,940	401,040
1999	240,222	737,034	124,995	306,495
2000	263,379	994,977	132,389	278,544
2001	238,994	2588.1	120,601	1110.7
2002	238,994	2608.1	120,601	1110.7
2003	147,843	2,137.90	73,318	662.8

자료: 건설교통부 내부자료, 각년도

(2) 문제점 분석

○ 공간구조 측면

- 전주·익산·군산을 잇는 산업도로 중심의 지역간 연계망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생활권 확대에 따른 5개 시·군간 교통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한 결과 특정구간의 정체, 우회도로의 증설 등 지역간 교통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 또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확충되는 개별 시가지의 도로계획은 광역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계획되지 못한 결과 지역내 통과교통과 상충되어 체계적인 교통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음

○ 가로망구조 측면

- 시·군별 가로망구조를 살펴보면, 김제시와 전주시는 집중적인 가로망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군산시와 익산시는 부정형의 격자구조망을 이루고 있어 상호연계체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는 도시 광역화에 따른 시·군간 기능연계를 약화시키고 도심으로의 교통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광역도시권 도시구조로서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없음

○ 교통수요 및 공급측면

교통발달에 따른 자동차 보유대수 및 이용율의 증가를 고려할 때, 도로교통의 이용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만금개발사업, 혁신도시건설, 백제문화권 개발 등 다양한 지역 개발사업들이 예정에 있어 지역의 교통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따라 장래(목표년도) 지역간 도로 및 도시내 주요가로 교통처리용량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광역교통체계의 개편을 통한 시·군간 연계체계 구축 등 교통체계의 효율적 이용방안이 필요함

○ 교통운영·관리측면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다기능의 교통구조를 하나의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장래 수요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개별적 교통운영관리체계에서 광역적 종합운영관리체계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함
- 또한, 권역내에는 호남선, 전라선, 군산선이 지나고 있으나, 이는 권역외부로의 연계교통으로서 지역내 교통에 있어 주로 도로교통에 의존, 광역전철망의 확충 등 새로운 시설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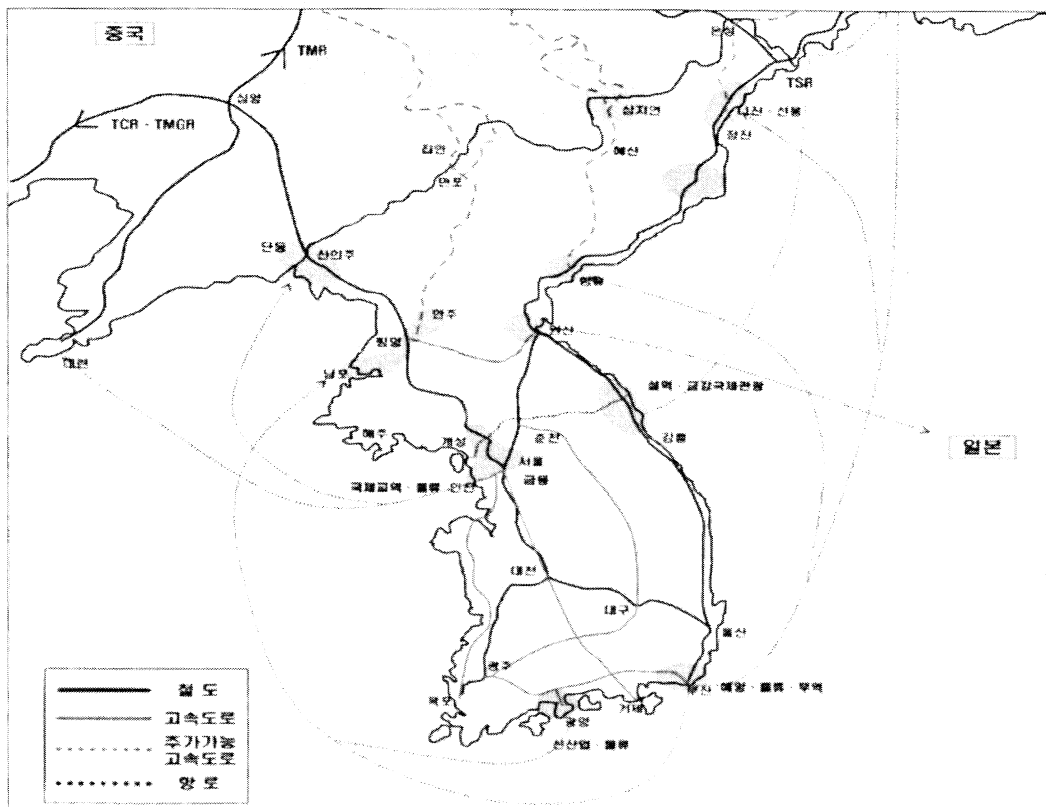
<표 V-31> 광역교통체계의 문제점

구 분	내 용
공간구조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익산-군산을 잇는 산업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는 지역생활권 확대에 따른 시·군간 교통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도시성장에 따른 개별시가지의 교통망 확충은 지역내 통과교통과 상충되어 효율적인 교통계획수립이 어려움
가로망구조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가로망체계가 상이하고 이로인해 연계체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도로망체계의 복잡함은 시·군간 기능연계를 약화시키고 도심으로의 교통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교통수요 및 공급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유대수 및 이용율의 증가는 도로교통의 이용을 증대시키며 지역내 다양한 개발사업들로 인한 교통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 현재의 지역간도로 및 도시내 주요가로의 교통처리용량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광역교통체계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모색필요
교통운영 관리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시설간 통합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장래수요에 효과적 대처가 필요하며 따라서 광역적 종합운영관리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됨 · 지역내의 교통은 주로 도로교통에 의존하고 있어 광역전철망의 구축등 새로운 시설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교통부문)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지역간 연계강화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되는 고속간선망을 구축하고,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고속철도 운행효과를 극대화
 - 군장산업단지와 연계한 대량화물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전주~익산~군산간 복선 전철화, 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을 추진
 - 동서지역간 물류수송을 위한 동서횡단철도와 국토 내륙수송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부의 내륙철도 확충을 추진
 - 전북의 주요 관광문화권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의 구축을 검토
 - 물류중심지 기반을 조성하고, 주요 교통결절지역에 종합물류거점을 조성하며, 지역별 유통단지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에 유통단지를 조성



<그림 V-26> 한반도 개방거점 및 인프라 개발구상

(2) 국가기간망계획(200-2019)

-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구축(남북7개축×동서9개축)**
 - 남북제1축 :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 남북제2축 : 문산-서울-천안-전주-광주-완도
 - 동서제7축 : 군산-대구-영천-포항(군산~함양, 정부의 대구-영천)
- **대량·대중수송기능의 간선철도망 구축**
 - 호남고속철도 : 정부측과 함께 우리나라 양대축인 서해안축 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목포간 고속철도 건설을 검토·추진
 - 호남선·전라선 정비 : 5대 간선철도의 전철화 집중투자 원칙에 따라 호남선 전구간 전철화를 추진하며 장래 수소수요를 감안하여 전라선(익산~여수간)을 단계적으 복선전철화
 - 대도시권 광역전철망 정비 : 수도권 및 대전, 대구, 광주, 부산권 등 대도시권 광역전철망 사업을 간선철도망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기타 미연결구간의 철도신설등은 수송수요, 투자재원 등을 감안하여 장기과제로 검토·추진(김천~전주 등)
-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권역별 지방공항 확충·신설**
 - 호남권 : 군산공항의 운항제한과 항공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전주공항을 건설
- **선진국 수준의 해운항만 경쟁력 확보**
 - 새만금신항 : 대중국 교역증대 및 새만금 사업지원
 - 군산항 : 기본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항만시설 정비
 - 권역별 항만 배후수송망 구축 : 호남권의 경우, 군장항, 새만금항, 목포항, 광양항 등 항만물동량을 호남지역 및 인접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해 국도21호선(군산~전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서남권산업철도(목포신외항~일로)등 배후수송망을 확충

(3) 제3차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교통부문)

- 국제적 교류거점시설 기반구축 및 기능 활성화
 - 국제적 교류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군산자유무역지구 및 배후 물류기지 건설
 - 전주권신공항의 건설을 통해 동북아지역 국제교류거점 교두보를 확보
 - 철도연계망을 구축하고, 국제도시기반을 조성. 이와 관련하여 호남고속철도, 호남선 전철화, 전라선 복선전철화,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전주권신공항 연계도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동서횡단철도(새만금~전주~진안·무주~김천) 및 서남선 철도(수도권 서부지역~군산~광양) 등의 건설을 추진
- 지역의 통합성 증진을 위한 간선교통체계 구축
 -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및 광양지역과의 연계 원활화와 지역내 거점도시간 연계를 위하여 3x4 간선교통망을 구축
 - 수도권과 동남권 및 광양 등을 잇는 남북 및 동서축 간선도로망 구축을 추진
- 광역도시교통체계 구축과 신교통수단의 도입
 - 도시의 광역화와 대도시권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산~익산~전주~(김제)~부안간 삼각연계 광역도시교통망체계를 구축
 - 광역도시권 첨단교통시스템(ITS), 통합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검토
 - 중심도시와 주변농촌지역간의 대중교통망 연계체계를 확충함으로써 도내 각 지역간 접근성을 대폭 개선
- 지역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광역교통 여건의 개선
 - 전주-익산-군산 연담도시권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체계 구축
 -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광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군산-포항간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전라선을 복선화 하는 등 고속도로, 철도망을 확충정비

(4) 서해안고속도로주변 개발계획

- 과업 목표
 -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서해안 국토개발축 형성기반의 조성 및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역개발방안 마련과 각종 개발사업의 지역간 연계 또는 기능분담을 통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투자방안을 마련
- 공간적 범위(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3개 도 15개 시·군을 포함)
 - 충남(2시 3군) : 서산시, 보령시, 당진군, 홍성군, 서천군
 - 전북(2시 2군) :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 전남(1시 3군) : 목포시,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
 - 서해와 인접한 2개 군 : 충남 태안군, 전남 신안군

(5) 전라북도 주요현안사업

■ 고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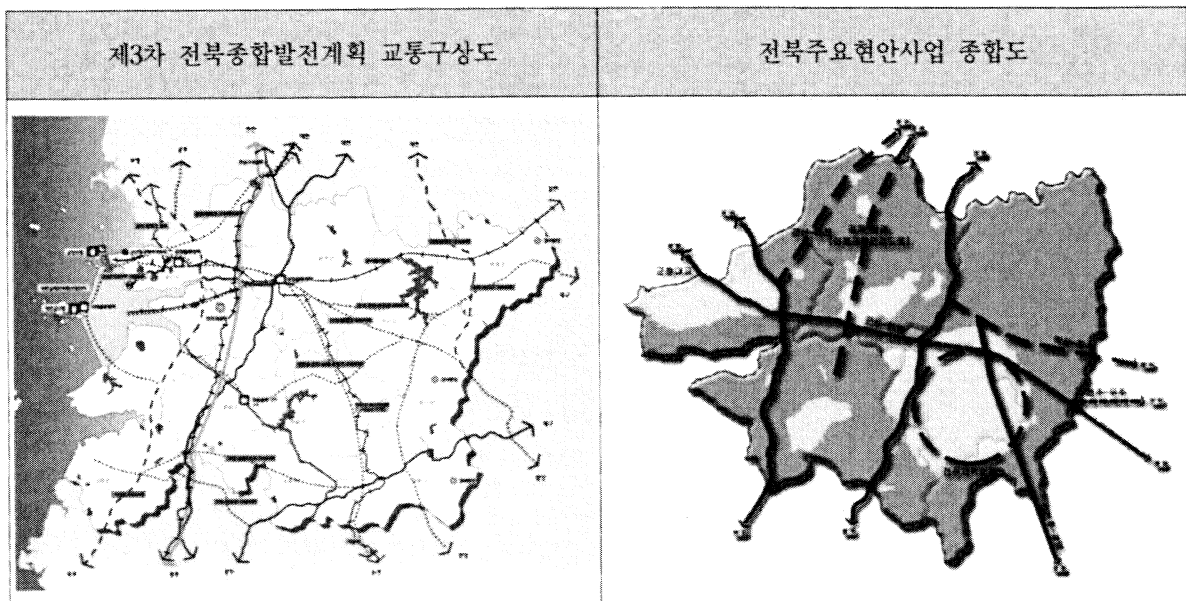
사업 유형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출처
고속 (화) 도로	①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 공사 진행 중(41%진행) : 2008년 준공예정 	도중점 사업
	②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전주~임실~남원~구례~광양) • 공사 진행 중(11%진행) : 2009년 준공예정 	도중점 사업
	③	논산-전주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전주시 화정동(논산JTC~익산JTC~전주IC : 6~8차로 확장) : 2008년 	도중점 사업
	④	부주-대구간 고속도로 전주까지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전주까지 연장 (국가기간망교통계획 2010~2019)) 	전주시 도시기본 계획

■ 국도 및 일반도로

사업 유형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관련계획
도로	①	군장대교건설 (국도4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국도4호선 시점)~서천, 장항(군장산업단지 장항측) 	도중점 사업
	②	군장산업단지 진입도로 (군산-대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임피면~익산시 용안면 	도중점 사업
	③	김제공항 연결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제-강경(33.5km) 	3차도 종합
	④	전주외곽순환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관면-구이면-(전주)용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중부) 	도중점 사업
	⑤	황등-오산간 도로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대체우회도로(국도23호 대체) 	도중점 사업
	⑥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6.6km중 익산시 5km가 시가지 통과 	익산시
	⑦	구이-이서-용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대체우회도로 	도중점 사업
	⑧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5km 	완주군

■ 철 도

사업 유형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관련계획
철 도	①	호남고속철도 건설	서울~목포간(전북구간:81.6km)	도중점사업
	②	군산~장항간 철도	군산 대야~장항	도중점사업
	③	전라선 복선전철화	익산~순천간	도중점사업
	④	군산선 복선전철화	익산~군산 대야간	도중점사업
	⑤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군산 대야~군산산업단지	3차도종합
	⑥	동서횡단철도 건설	새만금~군산(~익산~)전주~김천	중장기 국책사업
	⑦	서남선 철도	수도권 서부지역~군산~전라선~동광양	3차도종합
	⑧	광역도시전철	전주~익산~군산(새만금 연담 복선전철)	3차도종합
	⑨	경전철 계획	장래 서부신시가지 연결 연장노선 계획	전주도시기본계획
	⑩	군장산업단지 순환경전철	군장산업단지 순환	3차도종합



<그림 V-27> 상위 및 주요현안 교통구상도

3) 광역교통계획의 수립

(1) 기본방향

○ 통합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

- 기존 지역간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와 철도, 그리고 상위계획의 도로망 및 철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도시간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통합성을 증진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축
- 개선방안 수립 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연결기능 강화, 시내교통과 지역간 통과교통의 상충 배제, 지역간 교통의 시내도심 우회 및 순환도로 검토, 광역교통체계 전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중점 검토

○ 지역간 간선기능의 도로망 개선

- 가로망 정비 및 개선방안은 가로의 기능 및 위계정립 방향에서 수립하되, 기능의 부여는 각 시설입지에 대한 접근성과 이동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
- 미 연결구간(missing link)의 보완과 기하학적 구조가 불량한 가로를 우선 개선하여 가로의 연계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며, 도 시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을 분리시키는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광역화에 대처

○ 교통수요의 다양화 및 신교통수단의 도입

- 대도시에서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와 주요 간선도로에 집중되는 노면교통량의 증대는 새로운 대용량 운송체계의 도입의 필요성을 낳고 있으며, 이러한 운송의 대량성, 신속성, 빈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하철, 전철, 경량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도입검토
- 새로운 대량 운송수단의 도입은 막대한 건설비와 재정적 부담을 필요로 하므로 도입에 앞서 기존체계의 운영효율 극대화와 도시의 재정능력 및 수요예측 등 타당성 평가를 통해 장기적 계획하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광역교통체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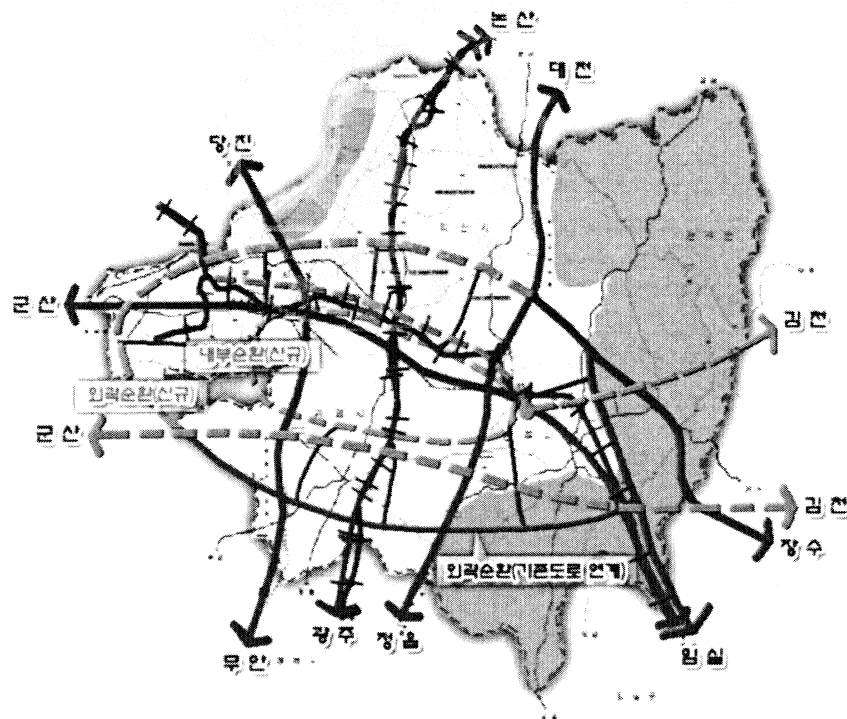
■ 광역순환체계의 구축

① 전주권 외부순환도로 : 신규

- 5개 시·군을 연계한 광역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고 향후 새만금개발지역 및 혁신도시 입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순환도로를 구축하며 개별 시·군의 외곽순환도로와 연계되도록 구상

② 전주권 내부순환도로 : 기존도로 연계 및 일부신규

- 현재의 내부연계망 정비 또는 신설을 통하여 시·군간 연계성을 향상시키고, 외곽순환도로와의 접근을 유도함으로써 교통 과부하 현상을 차단, 효율적인 교통계획 및 토지이용을 유도함



<그림 V-28> 광역순환체계의 구축

※ 순환도로체계구축 : 통행량분석결과, 5개 시·군은 통행량 증가와 더불어 1일 5,000인 이상으로 상호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2025년 전주권의 인구변화(143만→183.5만)와 1인당자동차대수의 증가(0.3대→0.5대)를 고려할 때, 순환체계의 교통망이 요구됨. 이러한 순환체계의 구축은 불필요한 통과교통의 발생을 억제하며, 지역간 직접교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간 연계를 강화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간 연계체계의 강화

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 기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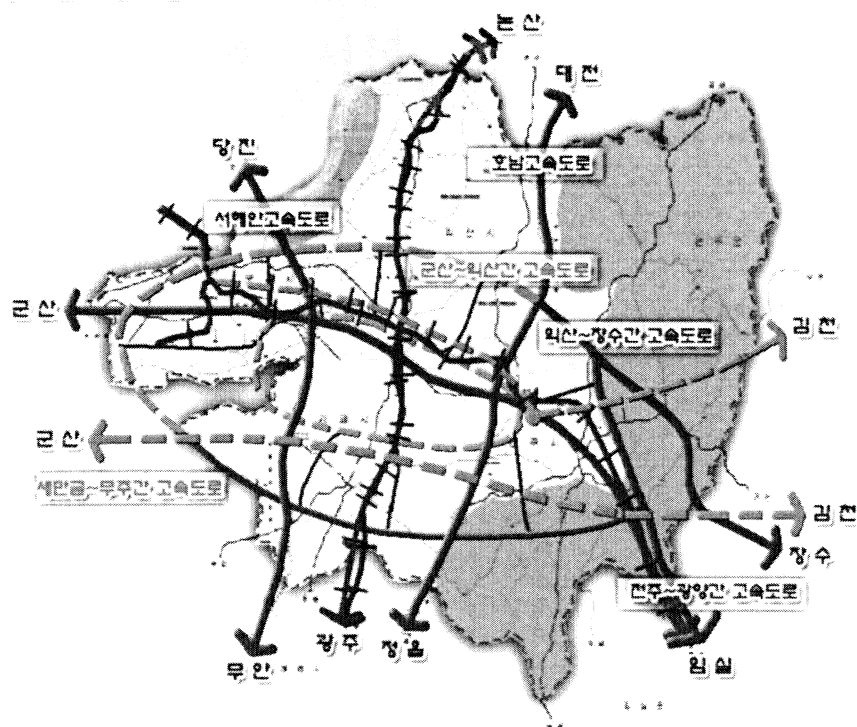
-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는 군장산업단지와 광양만 산업단지를 연결할뿐만 아니라 호남 고속도로 및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연결로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증진시킴. 또한 광양·남원·전주·익산·대진 등 거점도시간 연계를 강화하고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한 지역연계 강화

② 군산-익산(함양)간 고속도로연장 : 신규

- 군산-함양간 고속도로연장은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건설을 새만금지역까지의 연장하는 동서연결 고속도로망 확충계획이며, 이를 통해 동서간 물류비용 절감효과 및 지역간 교류증대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

③ 새만금-무주간 동서고속화도로 : 신규

- 호남-영남간 지역적 교류의 증진과 상위계획인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을 적극 수용하여 새만금-김제-혁신도시-전주-무주를 잇는 동서간 횡단고속화도로를 반영, 전주권 내 새만금과 연계한 동서간 교통체계 구축



<그림 V-29> 고속도로망의 구축

④ 호남고속철도 : 기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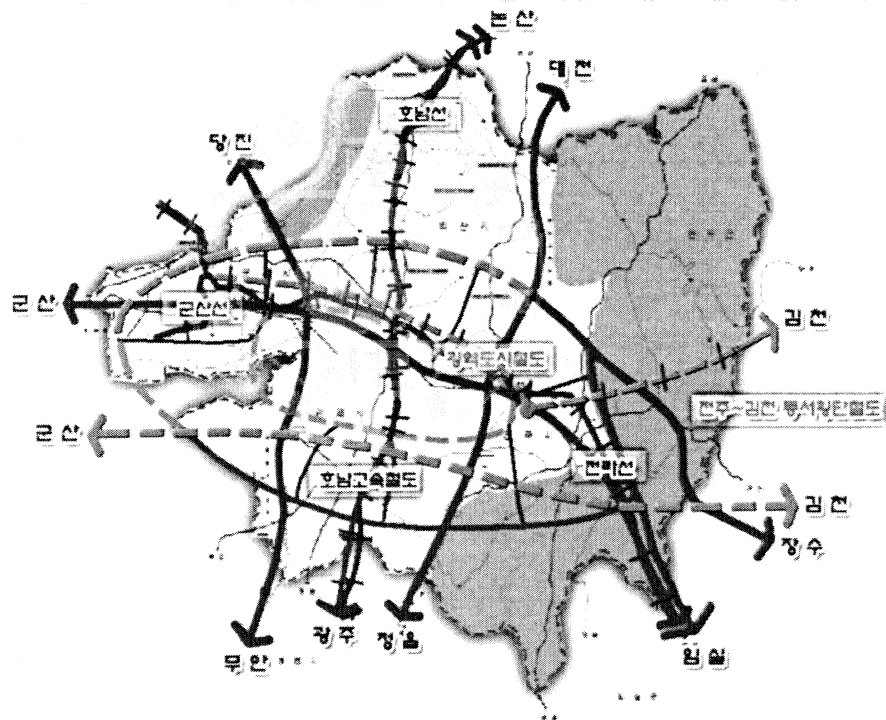
- 서해안시대 도래로 급증이 예상되는 철도수요 대비 및 경부고속철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호남지방 철도시설의 조기개선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⑤ 광역도시철도 : 신규

- 도시의 광역화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산-익산-전주-혁신도시를 잇는 광역도시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주민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고 도로교통의 집중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

⑥ 전라선·군산선 복선전철화 : 기계화

- 전라선 전 구간 전철화를 추진하며 장래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전라선(익산~여수간)을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



<그림 V-30> 철도망의 구축

⑦ 동서 횡단 철도

- 본 광역권의 남측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이며, 전주-김제-군산-새만금(남측)을 연결, 장래 새만금과 남측부의 연결하는 주요 철도 역할을 수행

⑧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 기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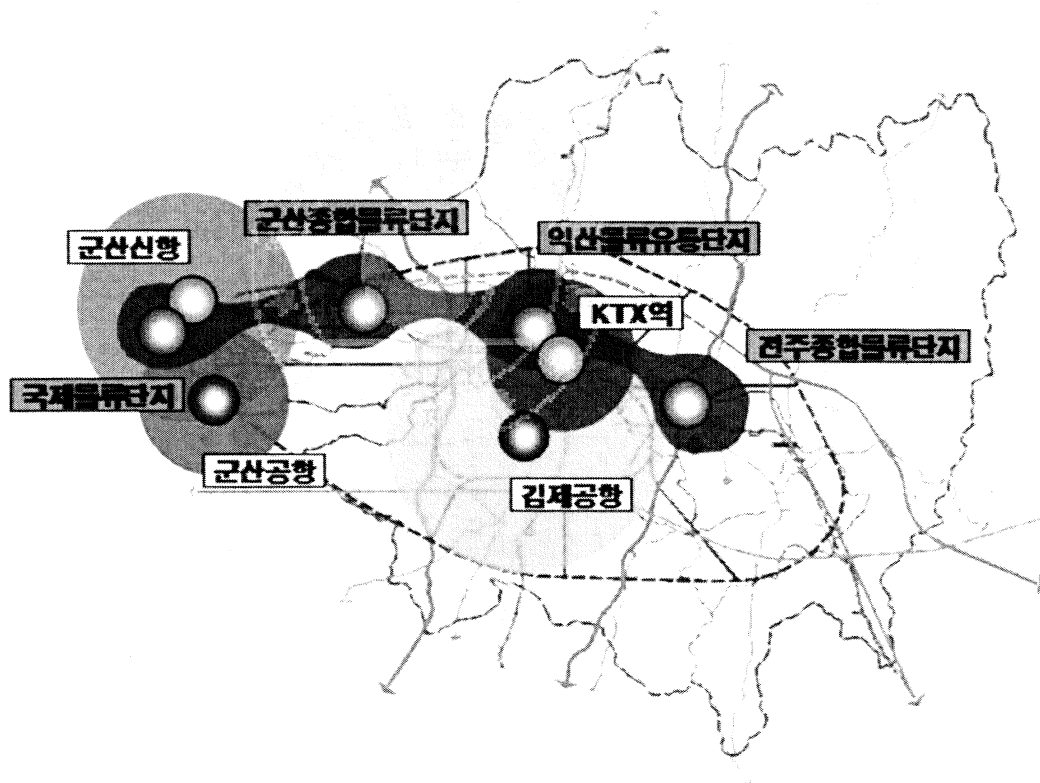
- 군장국가산업단지의 복합 수송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하고 서해안 중부권과 대중국 및 동북아권 교역항의 연계구축

-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유도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촉진으로 원활한 수출 체계 확충 시급하며, 중국과의 교역확대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철도 연결망 조기구축 필요

■ 광역교통시설 구상

① 군산신항만 : 기계화

- 물류·산업·관광등 지역적 혹은 광역적 차원에서 새만금 신항만을 통해 국제적 규모의 교통 기능을 부여
- 중국과 수출입시 내륙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지로서 수심확보와 항만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기업입주 및 대형선상의 기항 유도



<그림 V-31> 광역교통시설구상

② 군산공항 활성화 : 기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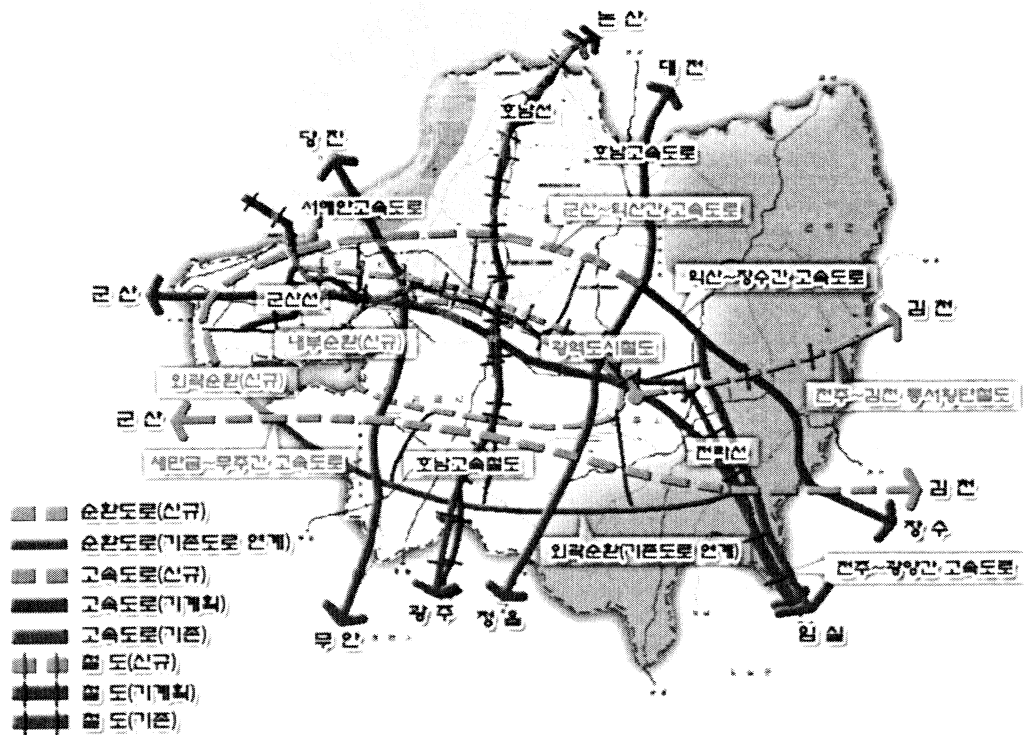
- 현재 이동간 거리와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며, 지리적으로 북서쪽에 위치하여 대상 지내 이용객의 공항이용의 접근성이 약함
- 향후 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따른 대체부지의 확보가 필요함

③ 김제공항 : 기계화

- 광역적 차원의 미래교통수단의 제시와 향후 국제화, 지방화 사대에 대비
- 향후, 개발여건과 주변상황을 고려, 미래핵심 교통수단으로써 이용가치 증대

④ 종합물류단지 : 기계화/신규

- 군산 및 경제자유구역, 전주, 익산을 중심으로 종합물류망을 구축, 새만금 국제물류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새만금-군산-익산-전주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류유통단지가 필요
- 기계화된 군산 및 전주지역이외에 익산 및 군산경제자유구역 추진지역에 추가조성함으로써 광역종합물류망을 유도하며, 광역교통체계를 고려하여 배치



<그림 V-32> 광역교통계획(안)

4) 실천 계획

(1) 외곽순환 및 내부순환도로의 건설

- 5개시·군을 연계한 광역적인 접근성의 확보, 향후 새만금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감안하여 외곽순환도로 및 내부순환도로를 건설함
- 외곽순환도로의 건설은 군산(새만금)-김제-전주-완주-익산의 외부를 순환하는 교통체계로써 불필요한 통과교통의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간 직접교통을 활성화
- 내부순환도로의 건설은 도시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내 내부간선기능도로와 연계함으로써 도시광역화에 따른 행정·교육·문화의 동질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특정 간선도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순환시킴

<표 V-32> 외부순환 및 내부순환도로 건설계획

구분	사업명	구간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시행주체	비고
신규	외부순환도로	전주-완주-익산-군산-김제 순환형 (연장 약 134km)	22,000	2010~2025	전교부	5시군
신규	내부순환도로	전주광역시내 내부순환형 연계 (연장 약 51km) 35km 구간신규	6,500	2016~2025	전교부	5시군

(2) 고속(화)도로의 건설

-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논산~전주간 고속도로(확장)가 건설 중에 있어 취약한 동서간의 연계체계를 강화할 수 있음
- 군산~함양간 고속도로(연장)의 건설은 새만금개발지역까지의 동서연결 고속도로망 확충 계획이며 물류비용 절감효과 및 지역간 교류를 증대시킴

<표 V-33> 고속(화)도로 건설계획

구분	사업명	구간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시행 주체	비고
신규	군산-익산(함양)간 고속도로연장	군산-함양고속도로와 함양~울산고속도로와의 연계	16,500	2009~2014	도로 공사	국가기간망 계획
기계획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전남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전주~임실~남원~구례~광양)	19,858	1998~2009	도로 공사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신규	새만금-무주간 고속화도로건설	새만금-김제-혁신도시-전주-무주 (대진~통영간 고속도로와 접속)	12,161	2006~2013	전교부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3) 국도 및 지방도로의 건설

- 권역내 주요도로 38개 노선의 확·포장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제공.

<표 V-34> 국도 및 지방도로의 건설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시행주체	비고
기계획	주요도로 확·포장사업	38개 노선	60,478	2001~2015	전라북도	

(4) 철도망의 건설

- 원활한 물류 및 여객수송을 위해 호남고속전철의 추진 및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군산~장항간 철도 등 지역내 철도연계망의 신설이 요구됨
- 전라선 및 군산선의 복선전철화를 통해 하루 물류 및 인구수송량을 증대시키고, 광역도시 철도를 건설하여 군산에서 혁신도시까지의 연계교통망을 신설. 또한 동서횡단철도는 전주에서 새만금까지의 남부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설.

<표 V-35> 철도망의 건설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시행 주체	비고
기계획	호남고속철도 건설	서울~목포간 약 322.6km (전북 구간 81.6km)	124,340	2001~2015	철도 공사	국가기간망 계획
기계획	전라선 복선전철화	익산~순천간 154.2km (전북구간 104.7km)	11,678	2002~2010	철도 공사	국가기간망 계획
기계획	군산선 복선전철화	익산~대야의 연장 약 11km구간	3,958	2007~2011	철도 공사	국가기간망 계획
신규	광역도시철도	군산-익산-전주-혁신도시 (연장 약 41.5km)	8,500	2010~2025	철도 공사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신규	동서횡단철도	전주-김제-군산-새만금 (전체구간 123.7km, 전주권:약 60km)	11,090	2020~	철도 공사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5) 공항 및 항만시설의 확충

- 군장신항의 경우, 환 황해권의 교류거점으로서 대중국 교류를 위한 국제항만시설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항만기능 뿐만 아니라 군산자유무역지역 조성을 통하여 복합적인 물류 및 국제교류기능을 담당토록 육성
- 군산공항, 김제공항의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개발여건을 고려, 새만금지구와 연계하여 건설을 추진토록 함

<표 V-36> 공항 및 항만시설의 확충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시행 주체	비고
기계획	군산 신항만 건설	군장국가산업단지 복합수송체계 구축 도유제 10.0km, 안벽 6.9km, 방파제 4.2km 등,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등	10,250	1990~2011	해양 수산부	
기계획	김제공항건설	김제시 백산면/양덕면 일원	미확정	1999~	서울지방 항공청	
신규	군산공항확충	군산공항의 시설 관리 및 확충	25	2007~2015	전라 북도	

(6) 물류센터 및 유통센터의 확충

- 국제물류센터 및 4개소의 권역단위 종합물류센터와 농축수산물 유통센터를 건설하여 항만과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함
- 철도·항만·해운·항공·무역·금융을 연계한 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이버 물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표 V-37> 물류 및 유통센터 건설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시행 주체	비고
기계획	세계물류박람회 물류혁신 지원센터건립	오식도동 814번지 건축 3,200평 물류박람회 개최	144	2005~2007	전라 북도	
기계획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수송차량 등 유통기지	73	2004~2006	전라 북도	
기계획	전주종합물류 유통단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일대 15만평규모 (농수산물유통 및 축산종합물류단지)	1,100	2010~2015	전라 북도	
기계획	군산종합물류 유통단지	군산시 개정면일대 10만평 규모 (제조업물류지원 및 화물터널)	900	2008~2013	전라 북도	
신규	익산종합물류 유통단지	유통시설, 화물터널, 집배송센터 등	3,400	2010~2015	전라 북도	
신규	산업단지내 종합물류단지	군산시 소룡동 일대 - 기계산업물류지원센터 - 화물터널 및 차량기지	800	2010~2020	전라 북도	

(7) 신교통수단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ITS)

- 도시의 광역화와 친환경적 교통수요 증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역전철망 구축을 검토하되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건설함
- 또한, 친환경적 교통기반구축을 위하여 전주시가 첨단교통시범도시로 책정됨에 따라 첨단교통정보시스템(ITS)을 구축하되, 점차 군산, 익산 등 광역도시권으로 확대하여 시스템을 구축
- 천연가스시내버스의 도입확대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자전거길은 도시내 도로화충에서 단계적으로 도시-근교농촌을 연결하는 전원적인 자전거길을 건설·정비하여 본 지역의 환경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추진

<표 V-38> 광역교통계획에 따른 실천계획 종합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비 고
국제교류 및 물류시설	항 만	· 군장신항만 건설	국토해양부
	공 항	· 군산공항 확충	전라북도
	철 도	· 호남고속철도,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 전라선 및 군산선 복선전철화 · 광역도시철도	국가기간망계획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물류단지	· 전주종합물류유통단지, 군산종합물류유통단지, 익산종합 물류유통단지, 군산산업단지내 종합물류단지	전라북도
지역간 연결교통 수단	고속(화)도로	·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 군산-익산(합양)간 고속도로연장 · 새만금-무주간 고속화도로	전라북도종합계획 국가기간망계획 전라북도종합계획
	국 도	· 일반국도 확포장사업	전라북도
		· 기간국도 확포장사업	
		· 산업지원국도 확포장사업	
		· 국도우회도로	
		· 국도대체우회도로	
	지 방 도 화·포장	· 국가지원지방도 · 지방도 확포장사업	
광역도시교통 및 신교통수단	연계도로 및 도시교통여건 개선	· 전주권 외부순환도로(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포함) 전주권 내부순환도로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친환경 교통기반 구축	· 첨단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역사이전 및 건설 등	-

3. 광역공급이용시설 계획

광역공급·이용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광역도시계획지침에서 나타내고 있는 광역시설로서 정의 할 수 있음. 이 중에서 도로, 철도, 공원, 유원지 등과 같이 부문별 계획에서 개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배치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함

1) 광역공급이용시설의 수급 전망

(1) 용수공급시설

■ 급수현황

- '04년말 현재 전주권내 총인구는 1,413,338명이며, 이중 급수인구는 1,208,794명으로 72.4%의 상수도 보급율을 나타내고 있음. 보급률의 경우 전주시가 가장 높은 9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산시와 익산시가 다음으로 높은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음
- 전주권의 1인당 1일 급수량은 428ℓ로 나타났음. 그러나 군산시와 완주군의 경우 526ℓ, 591ℓ의 높은 급수량을 나타내고 있음. 시설용량의 경우 김제시가 가장 낮은 상수도 시설용량을 나타내고 있음

<표 V-39> 상수도급수현황

('04년말 현재)

구 분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	시설용량 (m ³ /일)	급수량 (m ³ /일)	1인당 1일 급수량 (ℓ)
전주권	1,413,338	1,208,794	72.4%	917,520	500,858	428
전주시	620,374	595,061	95.9%	305,300	244,728	407
군산시	269,865	236,456	87.6%	188,200	125,584	526
익산시	327,536	281,948	86.1%	287,100	106,112	378
김제시	111,339	72,561	65.2%	23,200	17,105	238
완주군	84,224	22,768	27.0%	113,720	7,329	591

자료: 전북통계연보, 2004

주: 전주 광역권의 보급률은 시급 도시의 상수도 보급률 평균임

■ 상수도 용량 분석

- 시·군별 상수도 여유용량을 보면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은 비교적 용량의 여유가 있으며, 김제시의 경우는 -13,881명의 부족분을 나타내고 있음
- 여유용량은 현재 시설용량에서 1인당 1일 급수량을 이용하여 산정하게 됨(이러한 용량의 산정은 시설용량의 100%를 가동하였을 경우를 말함)

<표 V-40> 광역계획권내 상수도 용량 분석

구 분	인구(인)	시설용량(천톤)	산정용량(인)	여유용량(인)
전주권	1,413,338	917	2,157,340	746,204
전주시	620,374	305	750,133	122,768
군산시	269,865	188	357,795	135,078
익산시	327,536	287	759,524	393,570
김제시	111,339	23	97,479	-13,881
완주군	84,224	114	192,420	107,669

자료 : 환경부, 상수도 통계연보, 2003.

주 : 전주 광역권의 1일 평균급수량은 개별 시군의 산출평균에 의한 값으로 개별 시·군의 평균급수량 합과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상수도 보급량 예측

- 상수도 보급량 예측을 위해 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 상수도 보급률(97%)과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평균급수량(351ℓ/인·일)을 고려하여 목표 연도 평균급수량을 산출하였을 경우 전주 광역권은 619,447m³/일의 용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주권 총량적으로는 298,073m³의 용량의 여유가 있음
- 시·군별 여유용량을 분석한 결과 김제시(21,454m³ 부족)만이 시설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V-41> 상수도 보급량 전망 및 용량 수급분석

구 분	계획인구(인)	보 급 률 (97%)	평균급수량 (ℓ/인·일)	2025년 1일 평균급수량(m ³)	현 시설용량	용량분석
전주권	1,835,000	1,779,950	351	619,447	917,520	298,073
전주시	824,000	799,280	341	272,554	305,300	32,746
군산시	405,000	392,850	367	144,176	188,200	44,024
익산시	381,000	369,570	341	126,023	287,100	161,077
김제시	135,000	130,950	341	44,654	23,200	-21,454
완주군	90,000	87,300	367	32,039	113,720	81,681

(2) 하수도처리시설

■ 처리현황

- 2004년말 기준으로 전주권의 하수처리인구는 총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하수종말처리 인구가 99%에 달하고 있음. 다만 김제시 및 완주군의 경우는 하수처리인구가 전체 인구의 39%와 25%로 절반이하의 인구가 정화조 시설 등 독자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V-42> 하수처리현황

시군별	총 인 구	하수처리인구 (A+B+C)	하수종말 처리인구 (A)	기 타 하 수 처 리 인 구	
				폐수종말처리 인구(B)	마을하수도 인구(C)
전주권	1,404,451	1,124,415(80)	1,117,140(99)	2,511(0)	4,764(1)
전주시	624,260	587,917(94)	587,917(100)	-(0)	-(0)
군산시	266,541	217,251(82)	217,251(100)	-(0)	-(0)
익산시	324,533	257,041(79)	253,511(99)	1,380(1)	2,150(1)
김제시	105,900	41,425(39)	38,122(92)	1,131(3)	2,172(5)
완주군	83,217	20,781(25)	20,339(98)	-(0)	442(2)

자료 : 전라북도 통계연보, 2005

주 : 괄호안의 수치는 %를 나타내는 것임

■ 수요추정

- 목표연도 2025년 1일 최대 발생오수량은 726,611㎥로 추정되었음. 전주권의 하수처리 용량을 총량적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용량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단 익산시와 김제시는 마을하수도 확충계획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도 시설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V-43> 하수처리시설용량 전망

구분	1일 오수발생량(㎥)	1일 지하수유입율(㎥)	1일 최대오수량(㎥)	시설용량(㎥) (마을하수도 확충계획포함)	부족량
전주권	631,836	94,775	726,611	791,817	65,206
전주시	278,006	41,701	319,706	407,660	87,954
군산시	147,059	22,059	169,118	205,675	36,557
익산시	128,544	19,282	147,825	119,202	-28,623
김제시	45,547	6,832	52,379	22,561	-29,818
완주군	32,680	4,902	37,582	36,719	-863

(3) 폐기물처리계획

■ 처리현황

- 2005년 현재 전주 광역권내 주민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0.90kg이며, 1일 총 배출량은 1,262톤에 달함
- 폐기물 중에 55.2%는 매립처리하고 있으며 소각, 재활용 비율은 각 1.8%, 43.0%에 그치고 있으나 재활용율은 매년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또한 군산 및 익산은 소각장시설이 없어 재활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전량 매립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44>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구 분	인구 (천인)	발생량 (톤/일)	수단별 처리량(톤/일, %)			1인당발생량 (kg/일)
			매립(%)	소각(%)	재활용(%)	
전주광역시	1,403	1,285	696(56)	23(1)	543(43)	0.90
전주시	624	577	280(47)	13(1)	306(52)	0.96
군산시	266	284	157(54)	-(6)	73(40)	0.86
익산시	325	267	186(57)	-(0)	107(43)	0.90
김제시	105	95	57(68)	10(0)	45(32)	1.07
완주군	83	63	16(64)	-(0)	12(36)	0.34

자료 : 전북, 2005 전북통계연보

■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망

- 폐기물발생량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폐기물배출을 줄이자는 국민적 운동에 의해 배출량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전주 광역권의 1인당 폐기물발생량은 0.70kg/일로 현재의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권역내 전체 폐기물발생량은 1,285톤/일에 달할 전망이다
- 처리수단으로는 매립, 소각, 재활용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목표연도 전주권 폐기물의 처리수단별 비율은 매립(50%), 소각(17%), 재활용(60%)로 결정함. 또한 매립은 기본 매립과 소각 후 발생하는 소각재를 매립하는 방향으로 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표 V-45>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전망

구 분	계획인구 (인)	발생량 (톤/일)	수단별 처리량(톤/일, %)			1인당발생량 (kg/일)
			최종매립(매립(50%)+ 소각재 재 매립(11%))	소각 (17%)	재활용 (60%)	
전주광역시권	1,835,000	1,285	666	218	771	0.70
전주시	824,000	577	299	98	346	0.70
군산시	405,000	284	147	48	170	0.70
익산시	381,000	267	138	45	160	0.70
김제시	135,000	95	49	16	57	0.70
완주군	90,000	63	33	11	38	0.70

주1 : 소각재 재 매립량은 현재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에서 폐기물 소각 후 발생하는 소각재의 양(11%)을 이용하였음

■ 처리시설 수급전망

<매립지>

- 목표연도 2025년에 1인당 0.70kg/일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면 1일 총 발생량은 1,285톤/일이 예상되며, 그중 매립발생량은 전주권 전체가 666톤/일 것으로 예상됨.
- 전주권의 매립시설의 매립가능년수를 산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시설용량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율을 60%로 높이는 가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목표 연도의 재활용율의 성과에 따라 매립시설의 사용가능년수가 달라질 수 있음

<표 V-46> 전주 광역권 잔여매립량 추정

구 분	총 매립 용량(m³)	기매립량 (m³)	잔여매립 가능량(m³)	1일 매립량(톤)	사용 가능(일)	사용 가능(년)
전주광역시권	6,527,600	3,354,420	3,173,180	666	4,763	13
전주, 김제, 완주	2,959,000	1,714,000	1,245,000	381	3,269	9
군산시	2,562,000	1,237,000	1,325,000	147	9,010	25
익산시	1,006,600	403,420	603,180	138	4,360	12

<소각시설>

- 소각시설은 전체적으로 218톤/일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6년 준공예정인 상림동 지역의 소각시설과 완주군 이성리, 익산시 부송동 일원 소각시설의 계획된 시설만으로도 전주권의 소각시설 용량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표 V-47> 착공중인 소각시설 현황

위치	면적	처리용량	사업기간
전주권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완산구 상림동 일원)	3만평	400톤/일	2002.11~2006.7
익산시 폐기물 소각시설(익산시 부송동 일원)	-	200톤/일	2004~2008.12

(4) 체육시설(운동장)

■ 체육시설 현황

- 전라북도내 종합경기장은 총 11개소가 있으며 광역계획권내 시군에는 5개소의 종합경기장이 분포함
- 군지역인 완주군의 경우 실내체육관 및 종합경기장외에 경기장 시설은 없는 실정임

<표 V-48> 체육시설 현황

구 분	경기장										등록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수영장		사격장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전 북	13	93,143	11	302,463	11	85,977	9	29,300	1	8,600	3	1	1	1	1	3
전주시	2	21,869	1	17,464	1	143	2	15,033	-	-	-	-	-	1	-	1
군산시	1	10,367	1	8,800	2	567	1	1,765	-	-	-	-	-	-	-	1
익산시	1	18,979	1	13,683	1	8,885	2	2,660	-	-	1	-	-	1	-	-
김제시	1	16,500	1	56,730	1	6,210	1	2,000	-	-	-	-	-	-	-	-
완주군	1	1,765	1	28,928	-	-	-	-	-	-	-	-	-	-	-	1

자료 : 전북 통계연보, 2005

2) 광역공급이용시설계획

(1) 용수공급시설

○ 상수도 공급의 효율성 유지를 위한 유수율 제고

- 전주 광역권은 유수율이 전북 평균유수율(65%)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상수도의 효율적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군산은 유수율을 52.1%→65%, 전주의 경우는 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유수율을 적용하여 64%→85%로 제고하며, 전북평균보다 높은 나머지 시군들 또한 최대 80%까지의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 및 보수를 하여야 할 것임(군산시 유수율(65%)로 제고할 경우 1일 평균급수량은 약 13천㎥가 절감될 수 있음)

○ 우수저장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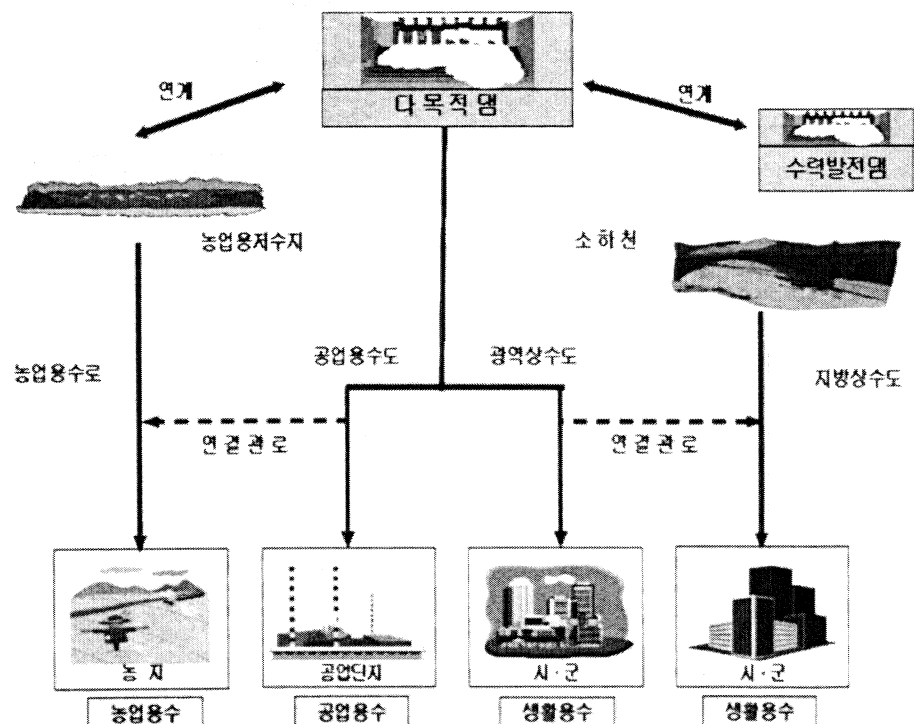
- 우수저장소 설치는 용수의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경작, 화장실 등에 사용되는 용수를 빗물로 대체하여 실제 상수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

○ 광역상수도(전주권 계통 및 섬진강 계통 상수도 분할 공급 유지)

- 1인 1일 평균급수량을 조정할 경우(430ℓ→451ℓ) 광역상수도는 전주권 계통이 680,801㎥/일, 섬진강 계통이 23,032㎥/일로 예측되었음. 광역상수도별 상수도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 전주권 계통은 용담댐을 상수원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현 용량(700천㎥/일)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농업용수 까지 포함하여 계상된 것이므로, 향후 농업용수는 상수도 이외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섬진강 계통 광역상수도 : 섬진강 계통 광역상수도는 김제시가 100% 공급을 받는 광역상수도 라인으로 현재의 용량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음. 김제시 또한 농업용수를 상수도로 공급하기 때문에 전주권 계통과 같이 농업용수의 대체 방향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임. 다만 취수원의 공급은 여유로우나 정수시설에 대한 용량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섬진강 계통의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인접시·군의 상수용량을 고려하여 수원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지방상수도 다양한 활용

- 전주권의 지방상수도는 목표연도 상수도 보급용량에 대비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음. 단 김제시는 목표연도의 지방상수도 보급 예측량이 현재 시설용량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단,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지방상수도의 시설 용량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갈수기 대비 상수용량 확보 : 지역별 집중호우 및 가뭄의 증가로 상수원에 대한 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상수도의 현재 시설을 유지하여 갈수기에 대비한 상수 공급 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임. 또한 지방상수 라인 정비를 통하여 만약을 대비한 깨끗한 물 수급을 실행하여야 할 것임
 - 수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상수도 활용 : 가뭄으로 인해 전주권은 하천의 건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의 수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만경강, 동진강 및 소하천의 건천화 현상을 막아야 할 것임. 또한 수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의 국지적 열섬현상 완화와 생태환경 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그림 V-33> 통합급수 모식도

<표 V - 49> 전주권 광역 및 지방상수도 수급량 예측

구분		현재	목표년도	차이	비고
계		917,520	652,512	265,008	
총수요	전주권	894,320	604,220	290,100	290,100으로 사용용량 감소
	김제	23,200	48,292	-25,092	25,092로 사용용량 증가
광역	전주권	680,801	543,798	137,003	용담댐용량(700천)으로 충분
	섬진강	23,032	47,809	-24,778	섬진강용량(90천)으로 충분
지방	전주권	213,519	60,422	153,097	현 시설용량(204천)으로 충분
	김제시	290	483	-193	현 시설용량(400)으로 부족

(2) 하수도처리시설계획(수요근접의 원칙)

하수도처리시설은 입지적 특성상 공동 이용을 위한 설치가 불가능 한 경우가 대다수 임. 따라서 하수도처리시설은 수요근접의 원칙을 적용 개별 시·군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시설배치 계획을 설치하여야 함. 또한 각각의 처리시설은 고도처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의 개량을 유도하며 이를 통하여 처리된 하수의 재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

○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및 신설

- 목표년도 하수발생량을 인구기준으로 예측하였을 경우, 총량적으로 전주 광역권은 현재 하수처리시설 용량으로도 목표년도 하수처리발생량을 충분히 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단, 익산, 김제, 완주 하수도 시설 추가 신설(총 90,222m³)필요, 각각 72천m³, 31천m³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설을 하여야 할 것임

○ 하수관거 보급률 확대(전국 평균수준으로 확대보급: 68.1%)

- 전주 광역권 내 5개 시·군과 전국 하수관거 보급률을 비교하였을 경우 전주시의 경우만 (72.1%)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4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음¹⁾
- 따라서 전주시는 하수관거 보급률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되 꾸준한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며, 4개 시·군은 추가적인 보급을 하여야 할 것임.

○ 하수도시설의 통합정비 및 하수관거 점진적 분류식화 추진

- 하수도 시설의 통합정비는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며, 관거의 분류는 우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해야 할 것임

1) 하수관거 보급률을 전국평균을 중심으로 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수환경 및 새만금 수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국평균보다 상회하는 방향으로 하수관거 보급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빗물, 비점오염 관리강화, 하수 처리수의 자원화 등 물 순환 개선

- 하수관거 점진적 분류식화와 더불어 빗물 및 비점오염 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하수 처리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화장실 사용을 빗물 및 하수 처리수로 활용, 경작에 필요한 수자원의 하수 처리수 활용 등)

○ 유역별 하수도관리 도입 등 하수관리 기반강화 및 우수저장소 설치

- 하수 처리수의 자원화 및 빗물 사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역별 하수도를 관리하여야 함. 이는 하수도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임

○ 축산폐수 및 산업폐수의 단독 및 처리용량 보장

■ 축산폐수

- 전주권은 익산, 김제, 완주 지역의 대형 축산 사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내 환경개선 및 하천환경 등 주변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각 시·군별 축산폐수처리시설 계획은 아래와 같음
 - 전주, 군산 : 소규모의 축산농가가 입지해 있어 집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신설토록 함
 - 김제, 익산 : 김제시는 현재의 축산폐수 처리용량을 보장토록 하며, 익산은 왕궁특수지역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및 용량을 보장하고, 왕궁지역외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신설토록 함
 - 완주 : 현재 연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함. 다만 기술적 검토와 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독처리가 가능한지 검토도 고려

■ 산업폐수

- 현재 전주권 내의 대다수 공장들은 자체처리를 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장의 경우 자체처리를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다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산업폐수는 대규모 공장의 경우 자체처리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다각도로 이용하며, 환경기준에 맞게 배출할 수 있도록 상시감독하여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소규모 공장 및 소규모 공단내의 공장의 경우 자체처리시설을 유도하지 못 할 경우 집단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각각의 방법으로 처리되는 하수는 환경기준 및 하천에 방류할 수 있는 수질을(유지용수 수질권고기준) 만족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며, 방류수는 소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해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폐기물처리시설계획

폐기물처리시설은 시설 신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갈등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임.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계획에 앞서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을 전제로 하여 협의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 상호교차사용(광역적 사용)을 유도함. 이를 위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조정 및 계획변경 여부의 검토 등을 수행하도록 함.

○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본 전제

- 또한 쓰레기 종량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지속추진, 분리수거 및 폐기물 발생량 감축의 필요성 홍보를 실시하며, 배출→수집→운반→재활용 순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
- 부식성 폐기물은 퇴비와 비료로 재활용 가능하므로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체계를 확립

○ 매립장

- 전주권은 군산시 및 익산시가 발생하는 폐기물을 전량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주광역권 매립장(전주, 김제, 익산)은 폐기물 발생량의 대다수를 재활용 및 소각시설을 통하여 매립량 자체를 줄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립장 사용방안에 대한 실천계획을 제시함

· 전주 광역매립시설 : 현재 전주광역 매립장은 1단계 매립장의 경우 대부분 매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며 2단계의 경우 소각 후 매립의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도록 함. 또한 목표연도 이후에는 추가적인 매립량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설치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군산 : 군산은 재활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전량 매립하고 있으나 매립의 방법을 기본 매립과 더불어 소각재 재 매립으로 전환토록 함. 소각재 재 매립을 실행할 경우 협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익산시의 소각장시설의 상호교차사용(광역적 사용)을 제안함. 단 익산시의 시설 인근 주민과의 상당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두 시에서는 최대한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며, 피해주민에게는 소각장시설의 열을 이용한 도시난방제공, 주민의 생활건강을 위한 체육공원 신설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 익산 : 익산은 현재의 매립시설로도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음. 다만 군산의 매립시설은 익산시 보다 더 많은 용량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익산시의 추가적인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군산시의 매립시설을 상호교차사용(광역적 사용)을 제안함. 이를 위하여 익산시는 군산시와의 협의와 시설 주변 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군산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해야 할 것임

○ 소각장

- 소각장 시설은 매립장과 마찬가지로 상호교차 사용을 원칙으로 함. 상호교차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별설치를 할 수도 있음. 단 전주권은 현재의 사용방법을 유지토록 함
- 전주 광역소각시설 : 전주시 상림동 소재의 광역 폐기물소각시설을 사용토록 하며, 현재의 용량만으로도 전주, 김제, 완주의 폐기물 소각이 충분함
- 군산 : 군산은 익산시의 소각장시설을 상호교차사용토록 함. 단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갈등조정과 협의가 전제되어야 함
- 익산 : 익산은 기존 소각시설의 신설계획을 준용하며, 군산의 매립장 시설과 상호교차사용(광역적 사용)을 제안함

○ 소각장 시설을 이용한 슬러지 처리

- 현재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전주권의 경우 100% 해양투기로 처리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해양투기 억제에 따른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고 있음
- 슬러지 처리시설은 전량 소각처리를 유도하며, 슬러지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은 기술적 검토를 통해 개별 시·군의 소각시설을 이용토록 함
- 전주, 김제, 완주(전주광역권) : 기존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슬러지 처리시설 또한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소각시설을 이용토록 함. 뿐만 아니라 임지적인 조건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 단지를 조성
- 군산 : 슬러지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은 익산시의 소각장과 단 시의 매립장 시설과의 교차사용을 제안함. 단 협의 및 갈등 조정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소각시설 설치를 유도함과 동시에 슬러지처리도 할 수 있도록 용량을 하루 400톤/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
- 익산 : 기존 소각시설계획을 준용하며, 소각시설에서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

○ 재활용 센터 운영

- 재활용품의 수거 및 수리, 재판매를 통하여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 전문단지를 설치
- 재활용품은 재활용에 대한 품질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함. 따라서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여 재활용률 제고

(4) 운동장시설이용계획 : 기 공급시설의 운영관리에 중점

- 당해 지자체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주민들의 수요충족에 걸맞는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여가 서비스 제공
- 기 공급시설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욕구충족과 유지관리비용의 조달을 위해 일부 시설 분양 등 시설의 활용도 제고

3) 광역공급이용시설의 적정배치 구상

(1) 유형별 입지기준

- 광역적 성격을 가지는 광역공급·이용시설의 유형은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에 따라 주변요소 의존형, 지역연계형, 기능연계형, 입지제한형, 기반규모 제한형으로 나눌 수 있음
- 광역공급·이용시설의 배치원칙은 토지이용 및 자연환경 측면에서 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므로 도시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군의 여건에 따라 협의·조정할 수 있음
- 광역공급·이용시설의 원활한 입지를 위해서는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사업주체 및 수혜자가 적정하게 부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전주광역권 내의 생활권간 광역공급·이용시설은 광역적 도시기능에 따른 공동이용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켜며 궁극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함

<표 V-50> 유형별 적정입지 기준

구 분	광역공급·이용시설	내 용
주변요소 의존형	하수처리장	· 해당시설이 필연적으로 주변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자원 또는 요소들과 관련성을 가지거나 직접 이용되는 경우
지역 연계형	상·하수도, 용수공급시설	· 시설자체가 가지는 물리적인 특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역간 연계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입지 제한형	매립장, 묘지, 화장장	· 도시시설이 갖는 고유한 기능적 특성 또는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주변지역에 생겨나는 부의 영향 또는 시설의 입지에 관한 법적기준의 제약으로 모든 지역의 균등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적정입지가 제한되는 경우
기반규모 의존형	정수장, 도축장	· 규모의 경제성이 큰 도시시설들은 각각의 시설별로 일정규모의 서비스 면적과 임계인구를 가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서비스 면적 또는 임계인구가 시설입지지역의 면적과 인구보다 초과되는 경우

(2) 시설배치시 고려해야할 사항

■ 용수공급시설

- 용수공급을 위한 취수장의 입지는 수질이 양호하고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계획취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결정
- 산사태, 지반의 붕괴, 탁도발생, 부유물 정체 등의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시설의 축조가 안전하고 용이한 장소에 입지
- 오수의 유입수를 피하고 하천의 경우 장래 개수계획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입지
- 한계자원인 용수에 대한 수요관리차원에서 절수의 생활화와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아이디어 개발사업을 추진

■ 하수배수시설

- 하수도시설의 신설 및 개량사업은 시·군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점진적으로 시행하며 침수지역이나 배수불량지역을 우선함
- 도시내 우수 배수관거로서 하천을 방류선으로 하는 경우는 하천의 호수위시 관거내의 경사를 산정하여 침수나 배수불량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필히 검토후 관의 규격을 선정
- 우수 유출량 산정시 도시내 또는 외곽 산지부의 유출계수는 현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장기 강우시 등을 고려하여 적용
- 하수처리장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시설로서 전주광역권내의 계획 하수·오수량을 산정하여 각 도시별로 배분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
- 하수처리장의 입지는 본 시설이 혐오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일정 폭의 수림대를 조성하고 주변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며 가급적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및 녹지로 이용토록 함
- 하수처리장은 건설비가 막대하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증설 또는 신규로 건설함
-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지역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공업단지 조성과 병행하여 자체 처리장을 건설함

■ 폐기물처리시설

- 일반 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 분리수거를 하여 처리토록 하며, 복합환경단지 조성 및 쓰레기 안전·위생처리시설 확충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위생처리를 강화
- 쓰레기 감량화 방안을 고려하여 쓰레기의 재활용화, 폐기물의 청정에너지화를 추진하여 자원순환형의 관리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의 규모는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발생량의 분포에 따라 각 시설이 보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며 무질서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입지를 선정
- 인구밀집지역 및 공공기관, 학교, 연구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근접하지 아니하고 도시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에 입지를 선정
- 풍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되고 시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곳에 결정
-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입지하여야 하고, 시설의 주위에 담장 등의 은폐시설을 설치
- 시설이 입지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편익시설입지에 우선권을 주며, 폐기물처리 위탁시 폐기물처리 분담금을 지불 등 자치단체간 이해를 조정

■ 대규모 운동장 시설

- 지역별, 생활권별 계획인구에 필요한 수요량을 감안하여 배치하되 운동장 주변에는 수림대와 휴게공간 등 가급적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
-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용이한 장소에 입지토록 하며, 특히 대규모 운동장에 대하여는 다수 이용자의 집산이 단시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도시내 교통기관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
- 대규모 운동장은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지역간의 교통 연결이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치는 가급적 평탄한 지형지대로 하고 기복이 있는 토지의 경사면은 부대시설 등으로 적절히 이용
- 또한, 본 시설은 광역도시권의 공간체계의 일환으로 입지를 선정토록 하며,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면서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입지를 선정

■ 정보통신시설

- 정보통신시설은 전주광역권의 계획인구 178만인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요량을 추정하고 광역도시권내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배치
- 전북권 T자형 산업벨트, 산업클러스터 등 산업집적지에 우선적으로 정보인프라를 설치·제공하여 신속한 정보교류와 공유 및 이용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도모
- 광역적인 정보통신시설은 시설의 설치 용이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에 필요한 시설을 집산화시켜 시설간에 상호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입지를 선정

(3) 시설배치·이용의 기본원칙

■ 합의원칙

- 각 시설들의 입지특성 및 지역의 특성상 공동이용 즉 광역적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전제로 합의원칙을 적용
- 광역시설의 이용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광역권의 주민, 전문가, 행정가 등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편,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중재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주권 광역시설 이용협의회 및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는 협력체계를 이용하거나 지자체간 상호 광역공급·이용시설에 대한 배치 및 이용 방식에 있어서의 갈등-희스원칙²⁾에 따른 보상원칙, 즉 인센티브를 상호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수요근접의 원칙(효율성의 원칙)

- 시설의 수요는 각 시·군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른 수요를 나타낼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설치 지역과 개별 설치지역으로 나타낼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수요에 입각하여 합의 원칙과 더불어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펌피(PIMFY)시설의 경우 시·군의 공동이용보다는 각 시·군의 사회·보건 측면에서 개별입지를 선호하게 될 수 있음. 이런 경우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가 발생할 수 있어 비용최소화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2) 이익을 얻는 편에서 부여한 금전적 가치가 이익을 잃는 편에서 부여하는 금전적인 가치보다 더 크면 효율성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기준, 파레토원칙의 변형

- 따라서 펌피시설의 경우 공동이용을 유도하며 이를 위해 시·군 이용자들간의 합의와 더불어 수요근접의 원칙을 적용

■ 비용최소화 원칙

- 시설의 설치입지가 결정될 경우,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역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경우 비용을 극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이러한 경우 설치비용이 설치 및 이용비용 등의 총비용보다 초과되는 경우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입지를 선택할 것을 권고

■ 입지우선의 원칙

- 광역공급·이용시설은 위의 3원칙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시설이 있음.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입지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시설 입지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시설 설치 주체와 관계기관,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해야 할 것임

4) 실 천 계 획

(1) 광역상수도의 확충계획

- 광역상수도는 현재의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과 섬진강 계통 광역상수만으로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추가적인 상수도 공급확충계획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함
- 다만 군산시의 경우 유수율이 다른 4개 시·군보다 낮은 실정이므로 유수율을 전북평균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하여 상수도 관거정비 및 보수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계획

<표 V-51> 광역상수도 확충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시행주체	비고
신규	광역상수도 확충계획	광역상수도 보급률 확대(95%)		~2025	전라북도	관로확충

(2)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

- 시·군별 가동율 100%를 가정한 부족량(148,497m³)에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며, 하수도 처리시설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공동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개별적 시설확충을 통한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이 바람직함
- 현재 도중점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기계화되어 있으나, 목표 연도가 2011년이며, 따라서 2025년까지의 추가사업이 필요함

<표 V-52> 하수처리시설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시행주체	비고
기계화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계획	68개소 1,103천톤/일	11,514억원	1990~2011년	전라북도 시·군	
기계화	하수관거 정비·확충 계획	하수관거 8,798Km	22,308억원	1990~2011년	전라북도 시·군	

- 또한 5개 시·군에서 기계화된 마을하수도 시설 확충계획을 준용토록 함

<표 V-53> 마을하수도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시행주체	비고
		개소수	처리용량 (톤/일)				
기계획	전주권	333	27,787	2,165	~2020	전라북도	
기계획	전주시	70	4,660	301	2004~2020	전라북도	
기계획	군산시	49	4,563	141	2006~2014	전라북도	
기계획	익산시	160	12,710	889	2004~2020	전라북도	
기계획	김제시	17	1,790	127	2005~2009	전라북도	
기계획	완주군	37	4,064	706	2004~2020	전라북도	

-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을 준용한다 하여도 전주권에는 약 151천㎥ 정도의 처리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따라서 전주권의 개별 시·군의 부족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수처리시설을 신설 혹은 증설토록 함³⁾

<표 V-54> 하수처리시설추가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시행주체	비고
		개소수	처리용량 (톤/일)				
신규	전주권 하수처리시설	-	151,000	1,520	~2025	전라북도	증설 및 신설
신규	전주시 하수처리시설 증설	-	6,000	6	2020~2025	전라북도	증설
신규	군산시 하수처리시설 증설	-	22,000	230	2015~2025	전라북도	증설
신규	익산시 하수처리시설 신설	-	72,000	752	2015~2025	전라북도	신설
신규	김제시 하수처리시설 신설	-	31,000	324	2020~2025	전라북도	신설
신규	완주군 하수처리시설 증설	-	20,000	209	2020~2025	전라북도	증설

(3) 축산폐수처리시설 확충계획

- 김제시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축산폐수처리의 용량을 확대하도록 함
- 전주, 군산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법률적 검토와 실천력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함

3) 시설의 선정은 개별 시·군의 하수처리시설 용량 및 향후 개발여건 등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지 결정하도록 함

(4) 광역쓰레기매립장 확충계획

- 현재 계획중인 매립장 계획은 전주권 광역매립장(Ⅱ단계)와 익산시 폐기물매립장이 계획되어 있음. 매립장의 사용방법은 앞서 서술한바와 같이 소각재매립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함

<표 V-55> 광역쓰레기매립장 확충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시행주체	비고
기계획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2단계)	매립용량 : 990천m ³ (소각재매립)	140	1990~2011	전라북도 시·군	
기계획	익산 폐기물매립장 시설 설치	매립용량 : 170천m ³	150	2000~2008	전라북도 시·군	

(5) 광역소각시설의 신설 및 기계획 준용

- 전주권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및 익산시 폐기물 소각시설은 기 계획을 준용하도록 하며, 별도의 추가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음(현 시설로도 충분)
- 군산은 소각시설이 전무하며, 새로운 소각시설 계획이 있지 않아 광역도시계획에서 소각시설의 신설 하도록 함(단 익산과의 상호교차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신설토록 함)

<표 V-56> 광역소각시설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시행주체	비고
기계획	전주권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400톤/일	1,133	1990~2011	전라북도 시·군	보강
기계획	익산시 폐기물 소각시설	200톤/일	576	2004~2009	전라북도 시·군	
신규	군산시 폐기물소각시설	200톤/일	600	2010~2015	전라북도 시·군	

4. 녹지·여가 및 문화·관광 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1) 녹지·공원

○ 공원분포

- 전주권내에는 대둔산·모악산 도립공원 등 2개소가 총 80.32km² 지정되어 있음
-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4.9m²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시민이 이용률이 적은 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 등이 16.5%를 차지함

<표 V - 57> 전주권 광역계획권 공원현황

구 분	인 구 (인)	도시공원 개소 (천m ²)						도시 공원 면적 (m ² /인)	자연공원 개소(천m ²)	
		계	어린이	근린	도시 자연	묘지	체육		국립	도립
전주	620,374	119 (3,382)	95 (211)	22 (2,500)	1 (250)	1 (421)	-	5.5	-	(1) (3,130)
군산	269,865	69 (1,684)	56 (124)	12 (1,504)	-	1 (20)	-	6.2	-	-
익산	327,536	63 (939)	30 (65)	32 (706)	-	1 (168)	-	2.9	-	-
합계	111,339	40 (407)	22 (18)	16 (83)	-	-	2 (306)	3.7	-	1 (28,220)
완주	84,224	13 (460)	4 (6)	7 (182)	1 (187)	1 (85)	-	5.5	-	1(1) (48,970)
합계	1,413,338	304 (6,872)	207 (413)	89 (4,975)	2 (437)	4 (694)	2 (306)	4.9	-	2 (80,320)

자료 : 전북통계연보, 2004

주 : ()는 중복된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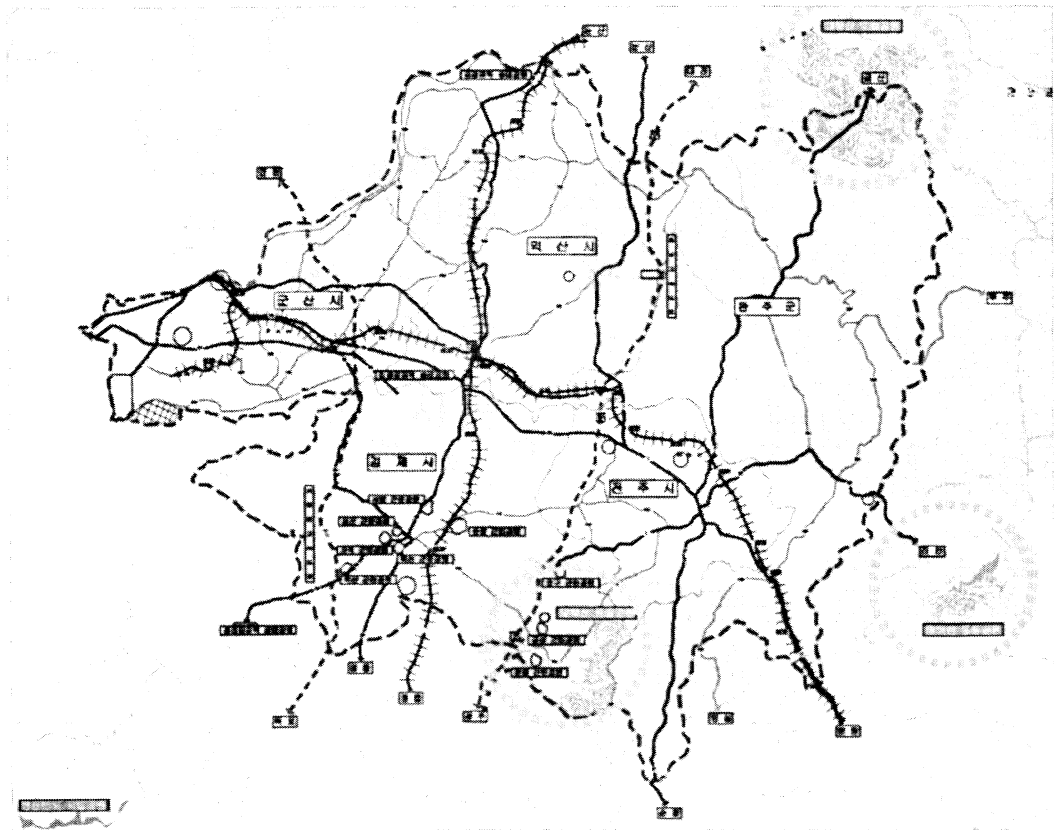
○ 녹지분포

- 전주권내 녹지는 총 454.08km²로 1인당 평균 321.3m²이며, 모악산과 대둔산을 중심으로 남북방향의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음

<표 V-58> 녹지현황

구 분	인구(인)	녹지면적(km ²)	1인당녹지면적(m ² /인)
전주광역시	1,413,338	454.08	321.3
전주시	620,374	155.76	251.1
군산시	269,865	82.64	306.2
익산시	327,536	44.64	136.3
김제시	111,339	31.60	283.8
완주군	84,224	139.44	1,655.6

자료 : 전북통계연보, 2004



<그림 V-34> 전주권 녹지분포 현황

(2) 관광·문화

○ 자원현황

- 전주광역시내 주요관광자원은 육상관광(대둔산 및 모악산국립공원 등)과 해양관광(고군산군도해상공원과 선유도해수욕장 등)이 어우러진 천혜의 다양한 자원 보유

익산의 비록사지석탑(국보 제11호)과 김제의 금산사 비록전(국보 제62호)등 국보급 유적과 천재도래지, 벽골제유물전시관 등과 연계한 탐사 여행의 자원 보유

<표 V-59> 관광자원 분포현황

구 분		개소수	분포지역
자연 자원	도립공원	3	대둔산, 모악산 (도립공원 2개소), 고군산군도해상공원
	온 천	1	화심온천
역사 문화 자원	천연기념물	3	전주(1), 익산(2)
	지방지정문화재	151	전주(42), 군산(14), 익산(32), 김제(36), 완주(27)
	중요민속자료	3	전주(1), 익산(2)
	무형문화재	2	전주(1), 완주(1)
기타	지역축제	4	김제지평선축제, 전국컴퓨터게임엑스포, 전국세계소리축제, 전국국제발효식품엑스포, 군산쭈꾸미축제, 전주마라톤축제, 군산벚꽃축제, 전주풍납제, 전주송이문화축제, 전주대사습놀이, 익산돌문화축제, 김제지평선축제, 익산서동문화축제
	문화전시관	2	익산보석박물관, 벽골제 수리민속전시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국립전주박물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자료 : 전라북도관광정보과, 2004

○ 이용현황

- 전주권 주요관광지의 총 이용객은 2,833,221명으로 각 시군별 구성비를 보면 전주의 33.0%, 군산시 19.5%, 익산시 9.0% 김제시 8.1%, 완주군 30.3%임

○ 관광의 수요전망

- 전주광역권을 찾고 있는 관광객은 2004년 기준, 전북 전체방문객 41,454천명의 7%인 2,893천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관광객의 내·외국인별 비중(2004년)은 내국인 99.6%, 외국인 0.4%임
- 관광객의 지역별 점유비중을 살펴보면 2004년 기준, 전주시가 32.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익산시가 8.8%로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임
- 2025년에 전주광역권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총 관광여행자수는 약 8,200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표 V-60> 지역별 관광자원 이용현황

시·군	대상지명	2004년			시·군	대상지명	2004년		
		내국인	외국인	합계			내국인	외국인	합계
전주시	소 계	932,642	3,662	936,303	김제시	소 계	288,427	2,466	230,787
	국립전주박물관	84,409	199	84,608		모악산	176,302	-	176,302
	동물원	193,282	706	193,988		벽골제	59,158	695	59,853
	전통문화센터	79,504	2,757	82,261		십포항	40,230	725	40,955
	경기전	130,011	-	130,011		성모암	25,854	228	26,082
군산시	소 계	549,931	2,303	552,234	완주군	소 계	854,883	3,194	858,077
	은파유원지	122,040	271	122,311		대둔산	301,137	2,930	304,067
	금강호관광지	229,369	409	229,676		모악산	176,302	-	176,302
	선유도	24,174	202	24,376		송광사	34,673	-	34,673
	오성산	141,256	431	141,687		고산휴양림	7,204	-	7,204
	금강호철새도래지	33,194	990	34,184		대아저수지	49,562	-	49,562
익산시	소 계	255,113	707	255,820	정읍시	소 계	255,113	707	255,820
	보석테마관광지	34,816	262	35,078		보석테마관광지	34,816	262	35,078
	웅포관광지	25,435	-	25,435		웅포관광지	25,435	-	25,435
	금마관광지	41,626	8	41,634		금마관광지	41,626	8	41,634
	미륵사지	68,706	256	68,964		미륵사지	68,706	256	68,964
	왕궁5층석탑	43,246	115	43,361		왕궁5층석탑	43,246	115	43,361
	익산쌍릉	34,069	44	34,113		익산쌍릉	34,069	44	34,113
	원불교총부	7,215	20	7,235		원불교총부	7,215	20	7,235

자료 : 전라북도관광정보과 2004

2) 문제점 및 과제

○ 개발압력에 따른 녹지자원의 훼손과 단절

- 지역간 완충기능의 녹지체계가 부족하여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는 기능이 미비하며, 녹지체계의 연속성과 위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본 광역계획권내의 체계적인 개발에 불리

친환경적 토지이용체계 확립을 위하여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지역을 환경수준에 따라 등급화하여 토지이용규제의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고, 개발가능지역은 선개발·후개발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 필요

특히, 본 지역은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향후 산업입지, 관광개발, SOC투자 등이 예견되므로, 기존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개발계획의 수립이 요구

○ 광역녹지 및 여가공간의 부재

- 수변지역 중심의 친환경적인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독창적인 테마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가녹지공간의 확충이 필요함
- 광역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공원 및 수변공간의 접근성 확보, 생태학습장, 보행자전용공간,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증진함

○ 생태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생태네트워크의 보전 필요

- 지역내 생태, 경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천~연안을 연계한 지역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동부산악지대~만경강생태하천~새만금의 서해안 생태네트워크 등 산~하천~연안을 연계한 지역생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질, 경관, 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전·보호할 수 있는 생태보전의 전략 지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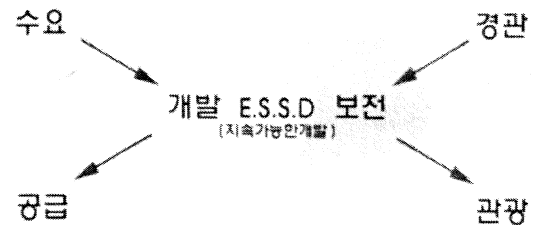
○ 지역관광자원의 종합적 연계 미흡

- 여가공간의 지역적 편재로 연계체계 미흡하며, 획일적 관광개발과 관광행태 수요변화에 대한 대처능력 부재함
-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여가공간이 부족하며, 여가수요에 대비한 시설의 부족 및 소규모 영세성을 지니고 있음
- 산악경관, 강변경관, 해양경관 등 자연 생태경관의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 전주 광역권내 산악형 관광과 해양형 관광의 종합적 연계성과 기능간의 체계적인 관광루트의 구축이 요구됨

(3) 관광권역의 개발 및 구상

○ 기본방향

-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에서의 5개 관광권역의 대권역내에서 전주광역계획권의 관광여가권역을 구분
-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적 특성을 지닌 동질지역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 특화 개발하여 지역별 고유잠재력 활용을 극대화
- 유사지역을 하나로 묶는 통합관광권을 조성하여 지역내에 산재된 관광자원의 공동이용을 도모하고 상징성과 경쟁력을 지닌 관광지대를 형성



○ 권역별 개발구상

-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에서의 5개 관광권역의 대권역내에서 전주광역계획권의 관광권역을 구분
-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적 특성을 지닌 동질지역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 특화 개발하여 지역별 고유잠재력 활용을 극대화
- 유사지역을 하나로 묶는 통합관광권을 조성하여 지역내에 산재된 관광자원의 공동이용을 도모하고 상징성과 경쟁력을 지닌 관광지대를 형성

<표 V - 61> 4대관광권 및 권역별 관광기능

관 광 권	관광개발방향	핵심자원	해당 지역
역사문화·전원휴양관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관광기능 및 음식, 숙박 등 배후도시 기능수행 · 백제문화권과 완산(조선)문화권 중심의 역사문화관광 기능 · 주요테마 : 역사문화자원과 전원휴양자원의 연계개발 	전통문화특구, 송광사,대둔산,전주한옥마을,대야호자연휴양림	전주,완주
수변관광·해양레저관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역 및 업무기반을 토대로 한 도시형 산업·위락·휴양관광 · 주요테마 : 수변관광 및 해양레저 	군장레저타운,금강수변관광지,고군산군도해상공원	군산
백제문화·보석테마관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체험 관광 · 주요테마 : 백제문화관광과 주변지역 위락관광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왕궁보석테마파크	익산
생태관광·농업문화관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역 및 업무기반을 토대로 한 도시형 산업·위락·휴양관광 · 주요테마 : 수변생태관광과 그린투어리즘 	동진강유역생태공원,그린랜드,모악산도립공원	김제



〈그림 V-37〉 권역별 관광개발구상

(4) 수변·해양·산림 등 복합관광루트의 개발

- 관광자원간 연계를 통한 광역관광루트의 개발을 통하여 점으로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들을 선, 면으로 확대 광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해양관광자원, 금강·만경강·동진강유역생태관광자원, 대둔산·모악산산림관광자원을 연계하여 3대관광요소가 결합된 종합관광벨트 구성에 따라 해양, 강유역, 산림의 네트워크를 그린투어리즘으로 구상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생태공원화 추진

3) 실천 계획

(1) 지역 생태네트워크의 구축

- 연안생태축과 하천생태축 및 산악·내륙생태축을 연결하는 지역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고군산군도(서해안) 해상공원 및 새만금 생태공원을 연안생태축으로 구성하고, 금강, 만경강, 동진강 유역 생태공원 하천생태축으로 구성, 대둔산, 모악산 도립공원을 산악내륙생태축으로 구축함

<표 V-62>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

구 분	지 역
연안생태축	· 고군산군도(서해안) 해상공원 및 새만금 생태공원
하천생태축	· 금강, 만경강, 동진강 유역 생태공원
산악·내륙생태축	· 대둔산, 모악산 도립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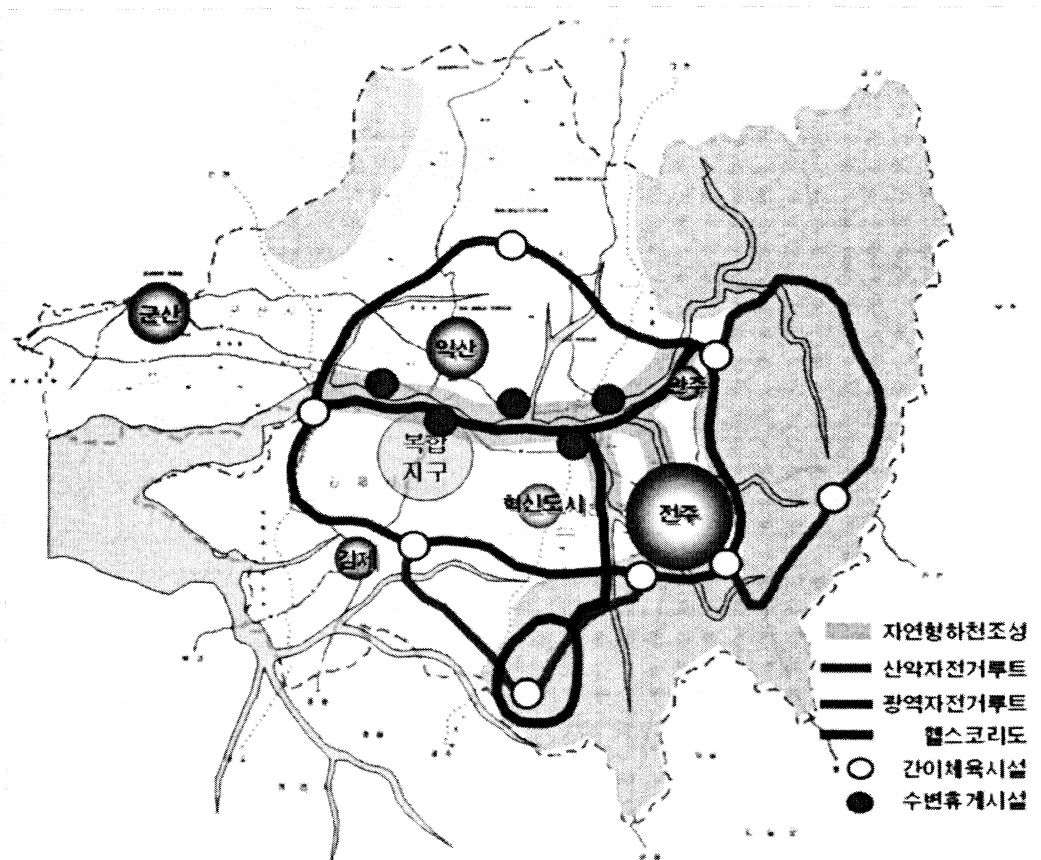
- 또한, 지역생태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등 개별 도시를 중심으로 소생태네트워크를 형성함과 동시에 이들을 광역적으로 연계함
- 공원을 중심으로 생태동로(Eco corridor)를 설치하고, 중심도시인 전주시를 핵으로 하여 주변도시와 하천, 그리고 문화유적지를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반딧불이, 금강의 천새 등 생태자원을 보호하며,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하고 완주군내 대둔산과 모악산도립공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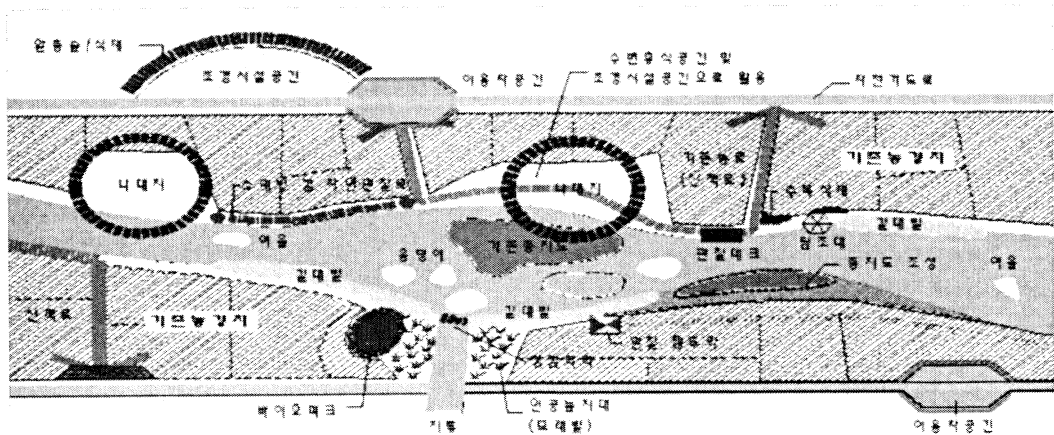
<그림 V-38> 생태동로의 구축

(2) 헬스코리도 등 광역여가활동 증진

- 광역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공원 및 수변공간의 접근성 확보, 생태학습장, 보행자전용공간,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증진함
- 수변 휴식공간의 조성은 하천환경개선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방문자에게 하천환경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들에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간으로서, 하상과 인접하고 있는 저수호안 주변이나 제방위, 제방사면을 비롯한 제방지역의 공간을 대상으로 함
- 조경시설공간은 수변휴식공간을 이용하고 고수부지의 농경지에서 경작활동을 하는 농민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제방밖(제내지)의 공간에 설치
- 친환경적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해 친수공간정비 및 조성사업을 추진하되, 하천과 도시, 농촌의 소하천을 치·이수 목적과 조화되는 수준에서 어류의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등 자연성을 높이고 직강화, 시멘트화된 기존 하천을 쾌적성과 자연성이 조화되는 자연형 하천(Eco-River)으로 개선



<그림 V-39> 광역여가활동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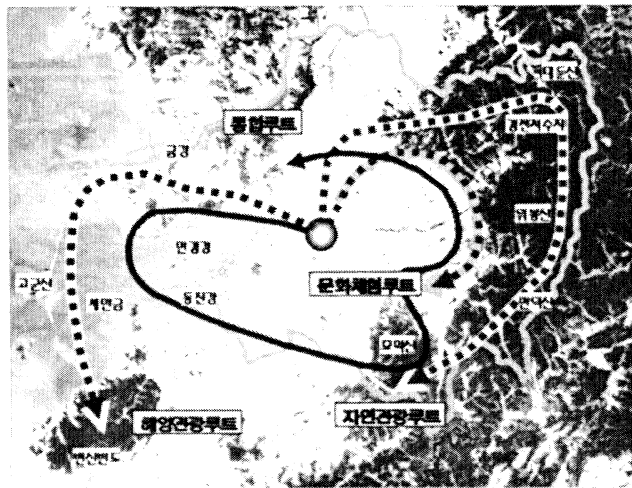
<그림 V-41> 자연형하천조성

(4) 통합관광루트의 개발 및 권역별 관광자원 확충

○ 자연관광, 문화체험, 해안, 통합루트의 개발

- 루트화에 따른 상품개발과 연관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과 대외이미지 및 지명도 제고 및 중복투자방지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함

- 자연관광루트 :
센터-대둔산-경천저수지-고산자연휴양림-위봉산-만덕산-모악산
- 문화체험루트 :
센터-보석가공-미륵사지-신산습지대-전주한옥마을-혁신도시
- 해안루트 :
센터-금강-만경강-새만금국제관광단지-빈산반도
- 통합루트 :
센터-새만금국제관광단지-동진강-모악산-혁신도시-전주전통마을-왕궁보석단지



<그림 V-42> 주요관광루트

○ 권역별 관광자원의 확충

- 군산시 : 월명공원내에 레크레이션 시설단지를 조성하고 은파유원지에는 도시민의 1일 레크레이션 활동 공간조성을 위한 피크닉랜드, 피크닉단지, 자연학습원, 테마파크, 관광농원 등 육상스포츠시설과 수상활동시설을 보충함.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 먹거리 문화 중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군산시 회타운내 동남아 관광객을 위한 어류전문 관광식당촌 및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전문식당 건립 추진

- 전주·완주권 : 전주시와 익산시를 중심으로 교통소요시간 30분 이내 지역인 춘포면, 백구면 일대에 도시민의 1일 관광을 수용할 수 있는 피크닉랜드 및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역사문화박물관을 개발하며 전주시내에는 덕진공원과 연계하여 전통문화유적공원을 조성함. 더불어 전주시를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전통문화유적지의 발굴과 함께 전주시 근교에 전통적인 예절학습을 위한 유교문화교양관 및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상설 공연장(판소리, 부채춤 등)을 건립하고 이를 연계하는 역사·문화 관광코스를 개발함. 완주군의 경우,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레크레이션 활동공간과 캠프장, 유스호스텔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4계절 관광지로 활용함
- 김제권 : 김제시 망해사 일대에 청소년 및 가족단위의 농업교육과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농산물채취형, 생산수단대여형, 위락공간제공형 관광농원을 개발하도록 유도
- 익산권 : 익산시 지역에는 교통이 편리한 합열읍을 중심으로 건강식품을 위한 임대형 관광농원단지를 조성, 도시민의 주말관광을 유도, 특히 참쌀엿으로 유명한 황등면 대동부락에 참쌀엿 제조과정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전시·휴식공간시설을 조성, 교육과 여가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

(5) 역사문화 자원의 유지·복원 및 문화이벤트 활성화

-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세계화 실현을 위해 지역내 역사문화자원의 유지·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백제문화권 개발을 비롯하여 전라감영복원, 유천도요지 복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과 유적지 정비 등 역사문화자원 유지복원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의 우수성과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
- 또한, 전통문화마을의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이미지를 확립하며, 지역문화 예술행사, 이벤트의 적극적인 개발 및 홍보,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세계화를 촉진
- 본 지역은 유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풍부한 문화·예술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예술 전통을 계승하고 유지·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세계소리축제,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주국제영화제 등 향토문화예술 이벤트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문예활동에 참여·체험할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공연장, 전시장, 문화전수시설과 문화의 거리, 문화광장 등 문화체험에 대한 대중적 접근성을 증진시키고 문화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생활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하며 지역주민, 기업,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종합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체계를 확립

(6) 1인당 공원면적 추가확보(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상의 12.5㎡/인)

- 전주권의 녹지공간은 농경지, 임야, 자연공원 등의 형태로 다수 존재하나, 도시지역(읍,면 등 도시화지역) 내에서 조성된 도시공원·녹지는 양적으로 풍부하나, 질적으로는 부족하며, 점적으로 분포하여 있어 네트워크화 되어 있지 않음.
- 전주권의 목표연도 도시지역 인구 대비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의 1인당 공원면적을 12.5㎡를 확보할 경우 익산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원면적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추가적인 공원면적(3,152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원조성이 필요함.
- 공원면적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도시내 각 지역에서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공원조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표 V-63> 목표연도 1인당 필요 공원면적 추정

구분	현재인구 (인)	공원면적 (km ²)	1인당공원 면적(㎡/인)	도시공원 면적(천㎡)	2025년 도시지역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인)	12.5㎡/인 확보시 도시공원 추가소요량(천㎡)
전주권	1,413,338	30.64	18.6	18,182	1,651,500	11.2	3,152
전주시	620,374	15.19	24.5	6,583	741,600	8.9	2,663
군산시	269,865	8.24	30.5	4,505	364,500	12.4	36
익산시	327,536	4.95	15.1	5,015	342,900	14.6	-
김제시	111,339	1.35	12.1	1,352	121,500	11.1	171
완주군	84,224	0.91	10.8	727	81,000	9.0	283

5. 환경보전계획

1) 현황분석 및 과제

(1) 자연환경보전

- 본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풍부한 자연환경, 다양한 생태 및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립공원 4개소 80.32km, 도시공원 304개소 6.87km가 지정되어 있음
- 그러나, 지역간 완충기능의 녹지체계가 부족하여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는 기능의 미비하며 녹지체계의 연속성과 위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본 광역계획권내의 체계적인 개발에 불리함
-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4.9㎡로 조사되었으나 이용률이 낮은 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 등이 16.5%를 차지하고 공원의 접근성 불량 등으로 인해 실제 시민이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편임

(2) 대기오염

- 전주권은 농경지 및 임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기의 질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군산시 등 산업 및 도시개발이 집중된 지역의 경우에는 아황산가스, 먼지 등 대기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전주 및 군산시는 아황산가스 수치가 서울의 평균수치보다 높은 오염도를 보이며, 먼지오염도의 경우도 서울의 평균수치를 상회하고 있음. 또한 오존오염도 및 빗물의 산성도 역시 서울의 평균수치를 상회하고 있음
- 난방에 의한 고정오염원의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높아 본 지역에서 난방용 연료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역내 대기오염원으로서 이동오염원의 비율이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수가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향후 대기오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대기오염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은 대기오염이 고정오염원 보다는 자동차와 같은 이동오염원에 의하여 심화되기 때문이며, 대기오염도는 대규모 산업 및 도시개발이 추진되는 경우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대응책이 요구됨

(3) 수질오염

- 전주권 수질오염 현황은 주요하천의 상류지역을 제외하고는 생활용수는 물론 산업용수로의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하천별로 상류와 중하류의 오염도가 상이하나 섬진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천오염도는 III~IV등급 수준($\text{BOD } 6\text{mg}/\ell$)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수질오염도가 가장 높은 하천은 만경강의 지류인 익산천과 만경강 하류지역으로 BOD가 각각 14.7ppm 과 7.1ppm 에 달하며, 가장 오염도가 낮은 청정하천은 금강 상류로 BOD 수준이 $1\sim 2\text{ppm}$ 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군산연안은 연안수질오염도 II급인 $1.8\text{mg}/\ell$ 로 아산, 인천, 대전 등 인근 서해안 연안에 비해서도 오염도가 높은 편이며, 인천연안에 비하여 산업화와 도시화가 부진한 군산연안의 수질오염도가 높음
- 만경강, 동진강 및 금강 중·하류의 오염이 심화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하고 축산농가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에 원인이 있음
- 유역별로 오염원을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특히 청정수역인 섬진강과 하천상류지역의 수질보전은 본 지역의 수질보전의 주요과제 임

(4) 폐기물

- 본 지역내 해상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 가운데 군산연안에 40%이상이 배출되고 있으며, 폐기물 해양투기가 해양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
- 전주권의 토양오염 현황은 전국평균수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도시근교, 산업밀집지대 인근인 전주시 주변지역의 토양오염도는 구리가 전북평균의 10배이상, 비소는 1.809로 6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2) 환경보전 전략구상

(1) 기본방향

○ 지역생태 녹지체계 형성

- 녹지~하천~연안을 연계한 생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주권의 자연생태자원 조사자료를 구축하며, 전주권이 가지고 있는 생태축을 복원하도록 함
- 잠재가치가 있는 생물서식공간(Biotope)의 발굴 및 보전, 복원 등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형성토록 함

○ 녹지공간 친환경적 개발

- 친환경적 지역개발 도입을 위하여 「선계획·후개발의 원칙(Planning Principle ahead of Development)」을 모든 개발사업 부문에 적용함으로써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함
- 개발과정과 시설운영을 계획내용과 연계시킴으로써 계획수립 → 환경평가(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 평가) → 계획승인 → 개발 → 운영·(환경지도)를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확인행정을 도모함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자동감시망 확충 및 자율환경관리제와 같은 광역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대기, 수질, 생활 환경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적 제도 기구 설치 및 파트너십을 형성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 열섬현상 방지를 위한 대기, 생태계, 토지이용 등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2) 부문별 환경보전 전략

○ 자연생태계 보전

- 기상, 토양, 산, 하천 등 자연환경과 동·식물 등의 생물종 또는 미생물에 이르는 조사연구 및 분석결과를 GIS 등 과학적 방법으로 실용화할 수 있는 DB를 구축함
- 교통시설, 주거공간, 산업시설 등으로 인하여 계획구역 내 녹지축이 단절되거나 훼손된 녹지공간에 대하여 생태이동통로를 복원 또는 확보함
- 친환경적 주거, 상업, 교통, 산업 등 공간구조를 확보

○ 대기질 보전

-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에너지 이용, 교통부문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오염도 특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과학적·효율적인 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지역의 대기질은 충분한 녹지공간(산림,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계곡, 하천 등), 구조물(공업 단지, 주거 및 상업시설 등)과의 조화로운 발전 속에서 개선 또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친환경적 토지이용을 통하여 공간계획과의 연계를 도모함

○ 수질보전

- BOD기준Ⅱ~Ⅲ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하천 및 호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지표별 하천별 환경기준 목표등급의 개선목표를 제시하고 고도처리방식의 도입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 하천이 지니고 있는 수리적 안정성과 친수성 및 자연생태적 특성을 위하여 인공적 재료로 건설된 호안블럭, 친변도로 등을 자연성 소재로 교체 또는 본래의 자연으로 복원하기 위한 생태하천 조성계획 및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함
-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새만금으로 흘러들어오는 하천 및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상류하천의 수질보전 대책을 추진함

○ 폐기물 처리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의 소각처리를 추진 하되 발생하는 폐열을 난방용·농업용·레크리에이션용 온수 등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토록 계획함
- 가연성폐기물의 소각시 처리방식은 소각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처리방식으로 최근 독일에서 개발되어 일본에서 시험운전 중에 있는 열분해 용융방식의 도입을 연구·검토함

○ 열섬현상 방지 대책

- 열섬현상은 대기질 오염, 하천 및 수변환경 부족, 녹지조성 부족, 고밀의 토지이용 등 다양한 영향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2차적 환경오염 현상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열섬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인 문제들의 저감 대책을 마련
- 대기질, 수질, 녹지환경, 경관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열섬현상에 대해 꾸준한 도심온도 모니터링과 제도를 마련 또한 도시열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변 도시들의 대책 연구를 습득하고, 모니터링 기술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열섬현상의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 등의 제도를 마련

3) 실천 계획

(1) 자연환경보전

○ 자연생태계 보전

- 시·군 공동으로 GIS를 이용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
- 광역 Governance체제를 구축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
- 산림, 늪, 계곡, 갯벌, 하천, 저수지 등 생물의 서식공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및 Partnership 형성

○ 생태녹지축 복원

- 도로 및 시설물에 의해 단절된 자연생태공간에 대하여는 연결통로를 건설하는 등 훼손녹지의 복원계획을 수립
- 이 경우의 복원방식은 Eco-Bridge 형식으로서 박스형 또는 육교형 등 안전과 경관을 고려하여 선정함
- 계곡 등 수변생태공간이 단절된 곳은 수로, 터널, 수로용 파이프, 측구 등으로 연결하여 동식물의 생태이동통로를 제공

○ 친환경적 토지이용

-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녹지자연도8등급 이상지역, 국립공원 등은 보전 지역으로 관리
- 개발사업시 친환경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수림, 늪, 하천, 계곡 등의 오픈스페이스와 자연지형은 존치 또는 변형을 최소화

(2) 대기질

○ 대기질 관리시스템 개선

-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확충, 운영하고 측정자료, GIS, 기상, 에너지, 교통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계한 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기질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전주(2개), 군산(3개), 익산(2개) 증설, 김제(1개), 완주(1개) 신설4)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오염도 특성, 재정적·기술적요소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

○ 공간계획과의 연계

- 하천,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는 바람통로의 기능을 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므로 공간계획에 있어 오픈스페이스계획이 중요
- 풍향과 풍속 등 자연요인을 고려하여 건물의 배치와 높이, 간격 등을 정하고 미개발지와 계곡을 보전하는 계획을 통하여 바람의 통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함

○ 이동오염원 관리

- 효율적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이동거리의 최소화와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자동차이용을 줄임
- LPG, LNG 등 청정연료 공급을 확대하고, 천연가스 운행 버스 등의 신개념 대중교통 서비스 시범적 실시 및 확충 공급⁵⁾
-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EST :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ransportation) 구축 및 신교통수단 중심의 교통체계 확립

○ 배출시설 관리(점·면오염원 관리)

- 공해 배출업소에 대하여 청정생산을 위한 정보제공, 기술·시설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경규제와 관리
- 굴뚝 TMS(Tele-Monitoring System)에 의한 대형배출사업장 관리를 통하여 산업단지 혹은 대형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측정
- 주거지역 및 산업단지 지역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Volatile Organic Compound)에 대한 저감정책과 측정장치 및 방지시설의 설치 권고

(3) 수질개선

○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를 대비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

- 금강수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대비하여 만경강 및 동진강 유역의 오염

4) 김제와 완주의 대기자동차충청당 시설은 현재 도시지역으로 인구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구 집중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제공을 위해서 측정망을 신설토록 하는 것임

5) 정부는 2010년 까지 전국에 23,000대의 천연가스버스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전북권도 천연가스 도입계획을 세워 대처할 수 있도록 함(현재 전북의 천연가스 보급률은 전국대비 4%임)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상시측정망 설치 및 오염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

- 강(江) 유역별로 실시되는 오염원 관리 및 배출량 관리 등에 사항은 개별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강(江) 하구에서도 오염정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단일화

○ 하천 및 호소수질 개선

- 수질오염 부하량이 큰 축산농가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경영기법을 제공하거나 지원
- 농촌지역 마을 하천의 생활하수, 축산오수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점에 자연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염을 저감시키도록 하며, 또한 정화된 물이 하천에 방류되는 지점에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이중 정화시킬 수 있도록 함
- 수질오염이 심각한 도심 하천수는 하류지역에 갈대숲, 갯버들, 부레옥잠 연못, 미나리광 등 수생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질소, 인 등 영양염류를 저감
- 새만금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계획하고, 왕궁특수지역의 축산폐수 저감을 위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증설을 통한 축산폐수저감과 축사매입 및 철거개발을 통한 축산오염원 해소사업을 추진

○ 환경기초시설 확충

- 하수 및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오수처리장,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 구도심지역의 노후관거를 교체하고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전환

○ 수질관리시스템 구축

- 상수원 상류지역에는 축산, 광산 등 일체의 산업 활동과 레크레이션 활동을 제한함
- 단지 등 개발사업 시 개발허가 조건으로 발생하수의 전량 고도처리 및 중수도시설에 의한 재이용으로 오수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
- 빗물, 하수처리수 등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중수도 시스템을 적극 도입

○ 만경강 수질개선 대책

-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 익산 왕궁 및 김제 축산단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대규모 보강

- 수질 개선을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 협조 유도
- 휴·폐업 축사 매입 추진
 - 축산단지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
 - 해당부지에 녹지공간 및 전원마을 조성
- 저류지·생태습지 조성
 - 축산단지를 끼고 있는 하천에 저류지 및 생태습지 조성을 통해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
- 시설 보강·확충 및 관련사업 추진
 - 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보강과 하수관거 확충·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등의 적극 추진
 - 새만금 수질개선 및 만경강을 살리기 위한 금강~만경강물길 잇기 조성사업 추진

(4) 폐기물처리

○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처리

- 폐기물 소각열 활용 등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추진
-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하도록 하며, 오·폐수처리를 통해 발생하는 슬러지를 소각처리하도록 함
- 산업단지나 개별입지 공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계획하여 광역 소각처리를 추진(전주광역권 소각장의 공동이용, 군산, 익산은 갈등문제 해결을 전제로 공동이용 하도록 함)

○ 부식성 폐기물의 퇴비화

- 나뭇잎, 과일껍질, 채소류, 음식쓰레기 등 부식성 폐기물은 전량 분리수거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수거체계를 수립
- 도시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슬러지가 비료공정규격의 중금속 초과로 인하여 전량 쓰레기매립장에서 단순 매립되거나 소각처리되고 있는 바, 이의 비료화 또는 퇴비화 방안 요구됨

○ 재활용 폐기물의 재활용

- 재활용 폐기물은 동일 성상별로 분류하여 국내 환경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성 상품에는 모든 부품의 수명, 사용횟수, 사용연한을 기록, 컬러화하여 재이용 또는 재활용이 용이도록 생산공정을 개선

- 재활용성 폐기물은 철저하게 분리수거하여 배출→수입→운반→재활용될 수 있는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
- 쓰레기종량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자원재활용을 위한 사이버뱅크 설치 운영

○ 불연성, 재활용 불가능폐기물의 매립

- 폐기물매립장의 입지는 공공시설물, 상수원보호구역, 침수지역 등이 아닌 지역으로 입지지역 주변 피해영향권역내 거주주민들이 없거나 적어 정책적으로 이주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함
- 주변에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건설비의 절감이 가능하거나 복토용 흙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또는 청소차의 운행으로 인한 미관을 해치거나 악취에도 문제가 없는 지역을 선정
- 입지선정시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대화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기획추진단을 조직하여 대화 또는 협상의 창구를 일원화

(5) 환경오염 자동감시망 확충 및 광역환경관리체계의 도입

- 다량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1~3종 사업장)에 대기 및 수질을 자동 측정하여 감시하는 시설을 확충
- 전주를 포함하여 전북 6개 시에 총 18개소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확충하고 이와함께 '대기·수질환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대기 및 수질오염 예측·평가시스템, 사이버환경감시 시스템,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관리망을 구축
- 자율환경관리제(VA: Voluntary Approach) 도입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계획의 수립을 적극 지원
- 재활용목표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재활용지정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재활용률을 제고, 사업장폐기물 감량을 지도하며,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
- 녹지, 대기 및 수질보전과 관련하여 지자체간 협력을 유도하여 광역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광역환경관리기구를 설치
- 시민, 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강화

-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자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환경기술수준을 제고하고 환경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연구단지 조성을 검토하며, 장기적으로 환경관련 교육기관의 유치를 추진

(6) 열섬현상 방지를 위한 자연환경 및 인위적 환경 개선

- 지역별 차량운행 제한 및 대중교통의 친환경적 연료사용 증대
- 오염제거 최적방지 기술(BAT : Best Available Technology)의 지속적 연구개발
- 도시 내 녹지훼손 방지와 녹지공간 확충 및 하천 등의 수변공간 생태환경 정비 및 확충
- 바람통로 생성을 위한 밀도 조정 및 건물옥상의 녹화 의무화
- 건축물 set-back 의무화, 중앙분리대 녹지화 확대
- 지속적인 나무심기를 통한 도심녹화
- 건천하천의 활성화 및 복개하천 복원 추진

※ 건축물옥상 녹화 의무화(일본의 예) : 일본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형 빌딩의 옥상공원 조성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건물 옥상을 공원 용지로 활용하자는 일본정부의 전략이다. 특히 도시화로 줄어들고 있는 녹지를 건물의 옥상에 꾸며 도시인들에게 숲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연을 만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도쿄도는 2001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신축되는 대형빌딩의 경우 녹화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 결과 지난해만 해도 옥상정원을 조성한 건물이 1천개를 넘었다. 이는 16ha정도로 히비야공원 만한 녹지 가 새로 만들어진 셈이다. 이같은 효과에 도쿄도는 기존의 건물에도 옥상정원을 조성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대형 빌딩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면 열섬 효과는 물론 대형건 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처리 능률도 좋아져 실제 무더위로 시달리는 도쿄 시내 국토교통성 옥상의 온도는 32도, 아스팔트 표면 온도는 44도로, 옥상정원 조성으로 온도를 무려 12도나 하강시켜 에너지절약면에서도 큰효과를 얻었다. 또한 옥상정원 한쪽에는 레스토랑을 설치, 직원들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공간을 만들어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어 자연스레 숲과 친근해지고 있는 것이다. 록본기힐즈는 옥상공원을 관광코스에 넣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3년전 옥상에 공원을 조성한 건설중장비 메이커인 고마즈의 경우, 사원들의 회식이나 파티장소로 활용 부수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 열섬현상을 개선을 위한 도심온도 지속적 모니터링과 광역권 내 열섬방지 시범지역을 선정

(7) CO₂저감방안

-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저감

-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기존의 석유자원의 활용 비중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건축에서는 고단열·고기밀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자연채광 및 차양 등의 설치를 권고하도록 함.
- 자원절약을 통한 저감
 - 빗물 저장시설과 같은 자연순환방법을 도입
 -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시키는 폐기물 저감방법 도입
- 배출된 탄소의 흡수를 통한 저감
 - 공원·녹지 등의 녹지공간 조성
 - 생태공원·텃밭 조성을 통한 단지내 녹화
 - 건물의 지붕·벽면 녹화 및 친환경 방음벽 설치 등의 입체 녹화 추진

(8)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

- 신·재생에너지 추진
 - 전주, 완주: 태양열, 태양광발전소, 바이오매스, 지열 등을 이용
 - 군산: 해양에너지, 풍력, 소수력에너지 등을 이용
 - 익산, 완주: 연료전지, 폐기물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이용
- 공공기관 보급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 건축면적 3천㎡ 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 일반주택·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보급
 - 신·재생에너지 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의 일환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바이오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일반주택 및 공공주택에 설치
- 태양광주택 보급 및 지방보급사업 추진
 - 태양광주택 보급 활성화(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
 -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에너지융합리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표 V-64>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실천사업

추진시책	사업 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자연환경 보전	녹색 도시환경	녹색도시가꾸기사업, 환경보전우수마을 지원, 수종갱신 및 지역특색녹화 등 녹화진흥사업, 반딧불이 생태공원, 금강 칠새 조류공원, 도시 및 녹지테마공원
대기질 개선	대기 환경보전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천연가스 시내버스공급확대, 환경 오염자동측정망사업
수질개선	수계별 하천관리	만경강, 섬진강, 동진강 생태하천가꾸기, 오염하천 정화사업
	광역환경 관리체계도입	항만, 산업기지 주변의 대기오염 등 환경사고에 광역적 대처
	하수유입지 자연정화시설설치	부레, 물혹 등 하수의 하천유입부에 자연정화시설을 설치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폐기물매립장, 쓰레기소각장, 농어촌종합폐기물매립장,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시설
열섬현상 방지	대기, 수질, 토지환경 등 종합적 관리	도심밀도 계획실시, 바람통로 확보, 친환경에너지 사용, 수변공간 증대, 오염제거방지기술 개발, 건물의 옥상녹화 제도적 도입
CO ₂ 저감방안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도시 녹화	기존의 석유자원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태양열, 태양광 등의 에너지 자원을 활용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화 도시내 녹지공간 추가확보 및 벽면 녹화 등 추진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계획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일반주택 보급확대	신축 공공기관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의무화 일반 및 공공주택의 태양열, 태양광 등의 에너지시설 설치 확대 공공주택의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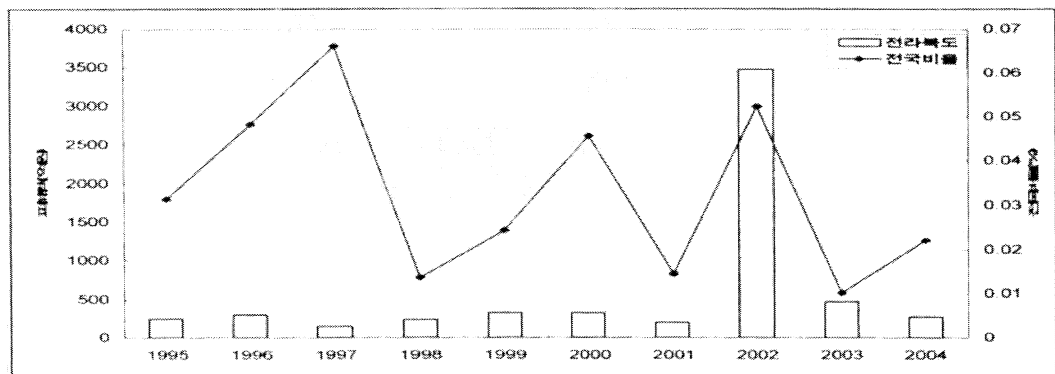
6. 방 재 계 획

1) 현황분석 및 과제

(1) 재해현황

○ 재해발생

- 전북지역의 피해액의 경우, 전국대비 피해액 비중은 2002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전주권은 과거 2000년도에는 전북 피해액 중 43%를 차지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낮아진 25%(2004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피해액 기준으로 전주권의 시설별 피해현황을 살펴 볼 경우는 공공시설 부분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군별로는 전주권 전체 시군이 골고루 높은 피해액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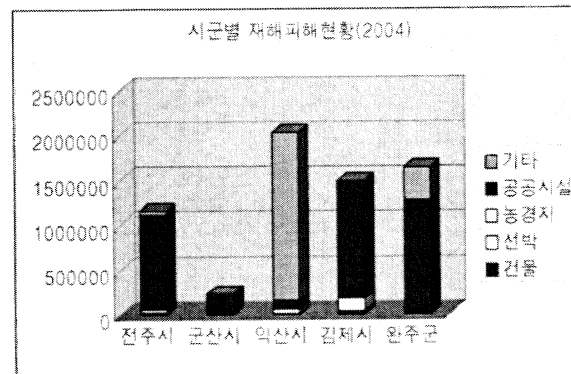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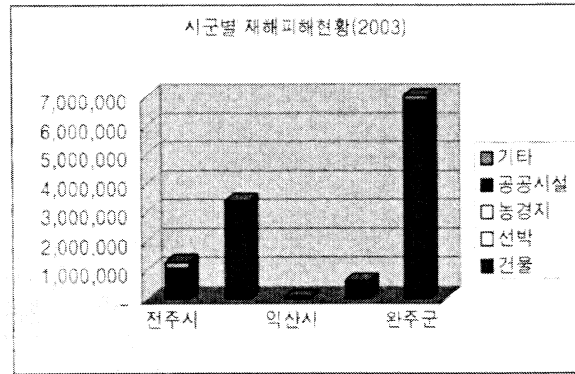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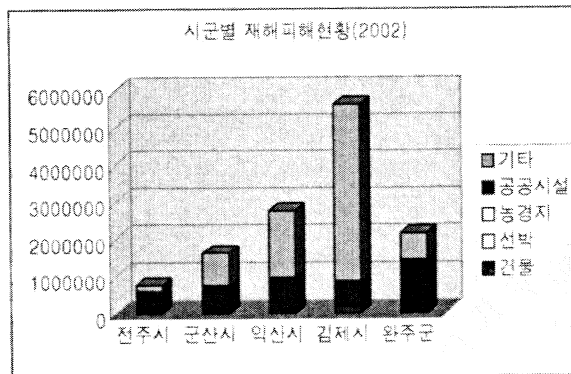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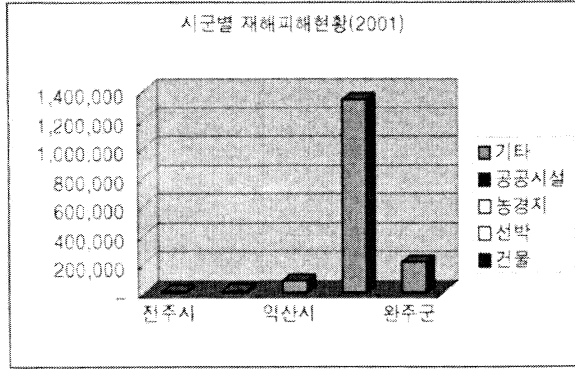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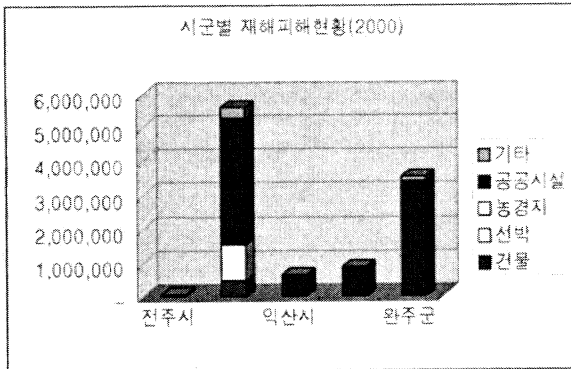


<그림 V-43>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현황

<표 V-65> 최근 5년간 풍수해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전북지역						전주권					
	계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 시설	기타	계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 시설	기타
2000	23,813	1,222	1,650	157	18,424	2,361	10,681	624	1,053	41	8,563	399
2001	16,801	74	-	278	12,146	4,303	1,659	10	-	-	-	1,649
2002	320,645	1,666	240	21,241	259,466	38,031	12,850	338	57	-	4,204	8,251
2003	44,591	284	25	418	42,304	1,562	12,393	89	21	63	11,906	315
2004	26,721	207	-	442	23,561	2,510	6,566	94	-	202	3,965	2,305



주 : 5개 시·군 통계연보, 2001~2005

<그림 V-44> 시·군별 풍수해 피해현황

○ 재해위험지구 분포현황

- 전라북도 내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1996년 이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57개소(해제지역 8개소 포함)에 달함
- 시 지역 중 전주시가 덕진외 야전(시가지 침수) 1개소만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도내에서 가장 재해위험지역이 적은 곳으로 나타나 있고 군 지역 중에서는 완주군이 고산의 오산(지방2급 하천)외 1개소(1개소 해제)로 가장 적음



<그림 V-45> 재해위험지구 현황

○ 인위적 재난발생빈도 및 피해규모 현황

-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내에는 화재 등 인위적인 재난빈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지만 본 지역의 인구비중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임
- 재난발생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피해를 기록한 것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모두 교통사고이며, 화재가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는 재난발생빈도에 비해 인명피해 비중이나 재산피해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장소별 재난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도로를 제외할 경우 대규모 건축물이나 다중이용 시설보다 주거용 건물에서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총 재난건수 중 화재가 주택지역내 사고의 일차적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음

<표 V-66>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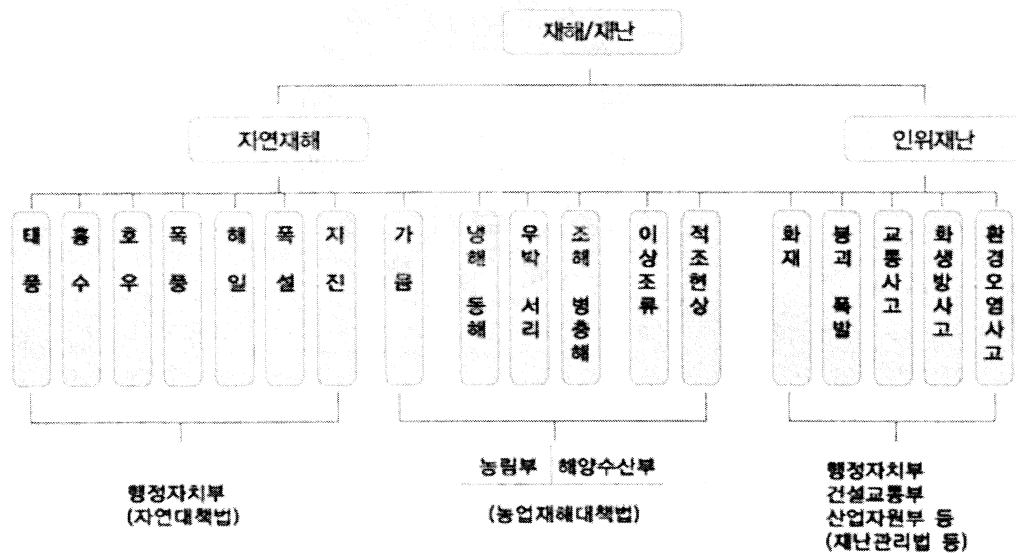
(단위 : 건, 명)

년도	합계		화재		산불		붕괴		폭발		도로교통		환경오염		해난(기타)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연평균	12,790	19,581	1,195	108	35	2	2	2	3	11	12,036	19,675	4	-	52	35
1997	12,312	18,185	595	78	40	4	-	-	2	1	11,712	18,029	4	-	117	73
1998	11,112	17,235	830	89	18	4	7	9	11	38	12,134	19,368	6	-	29	2
1999	11,261	21,835	883	116	28	-	3	3	5	23	13,771	22,700	4	-	49	9
2000	15,841	23,524	967	99	53	-	3	2	1	4	14,520	23,165	3	-	32	3
2001	14,077	20,400	1,580	116	57	2	2	4	2	6	12,268	20,140	1	-	47	8
2002	12,652	18,847	1,493	85	48	6	-	-	1	1	10,881	18,556	3	-	47	11
2003	13,001	19,827	1,593	153	12	1	-	-	4	12	11,343	19,657	6	-	43	4
2004	12,062	16,792	1,622	129	23	1	-	-	-	-	9,659	15,787	4	-	50	168

자료 : 전라 및 각시군 통계연보, 1998~2005

(2) 지역방재체계의 과제

- 일반하천 및 소하천의 하천 개수율이 저조하고 미개수된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에서 단면 부족으로 인한 홍수범람 등으로 세방 및 인근농경지가 유실되는 피해가 빈번히 발생. 또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율은 지방2급의 경우 다른 국가하천 및 지방 1급 보다 저조
-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의 경우 항구적인 개량복구가 어렵고 원상복구 중심의 사업만이 가능하여 동일 지역에서 매해 풍수해가 반복되는 문제점 내포. 또한 기 수립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오래전 수립되어 있어 현재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⁶⁾
- 매년 태풍이 올 경우 매년 많은 피해를 입는 지역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초기 대응 및 향후 복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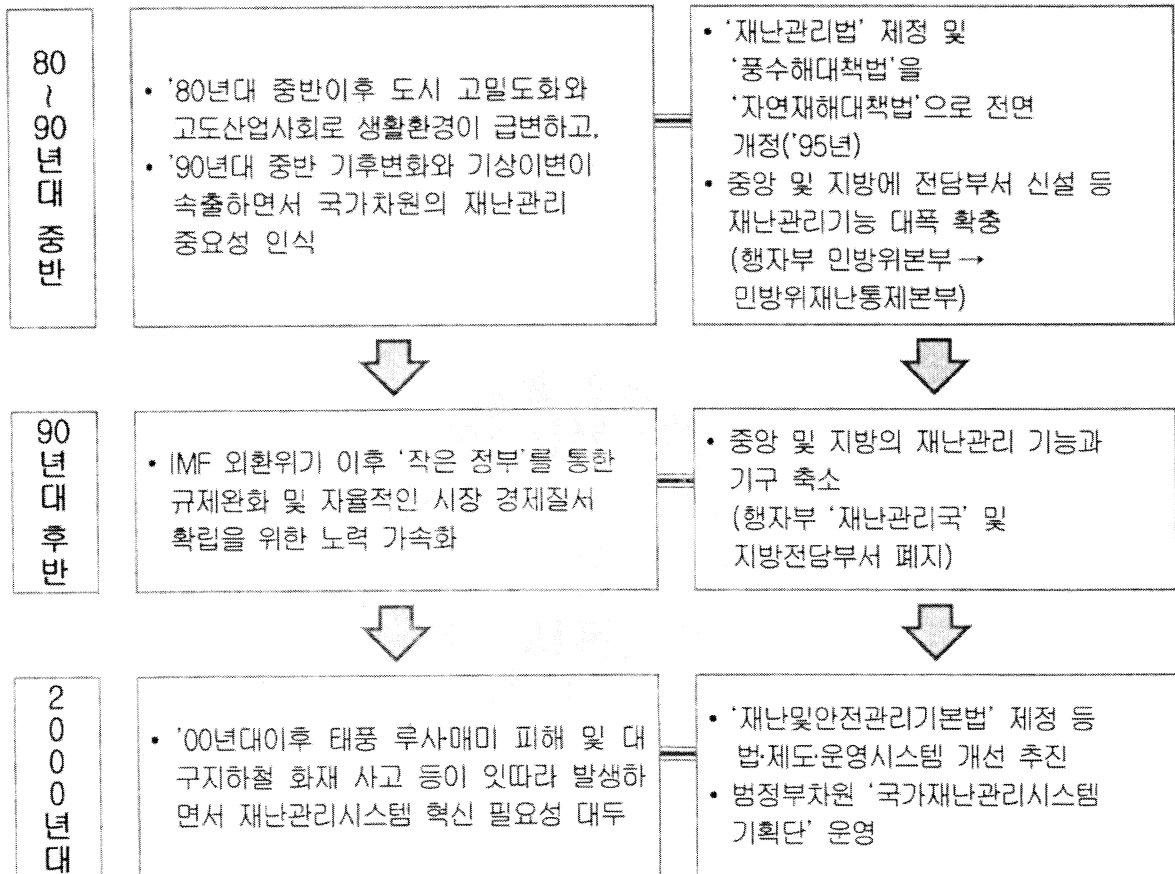
<그림 V-46> 재해/재난별 관리체계

- 1970년대에 설치된 소교량, 소하천 시설물 등이 노후화되어 집중호우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의 규모가 시설규모 이상으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기존 시설의 규모 확충 및 현대화가 시급히 요구됨
- 한편 해안지역에서는 방조제 시설의 노후로 인한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며 방조제의 상당수가 노후되어 보수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남

6)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20년이상 경과했으며, 지방1급하천은 10년이상 경과됨. 더욱이 배수문이나 배수펌프장 등 배수시설의 노후화와 시설규모 부족 등으로 인하여 해안 및 평야지역에서는 호우시 해수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가 빈번

전라북도는 재해방지시설 뿐만 아니라 재난방지시설도 부족한 실정으로 소방관서는 전국 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그나마 소방관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는 것은 대기소·파견소 등 소규모 시설물로 구성됨

재난환경과 재난관리시스템 변화 추이



- 국가 재난관리 총괄·조정기구로 소방방재청 발족('04. 6. 1)
- 비전과 목표, 정책방향 정립 등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혁신
 - 방재 인프라 구축, 국민보호장치 마련, 선진안전의식 확산 등 국가 재난관리 정책기조 구체화

※ 주요 법률 연혁

- 재 난 관 리 법 : '95년 제정 → 2차 개정 → '04년 폐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 자연재해대책법 : '67년 제정 → 8차 개정 → '04년 예방중심으로 전면 개정
- 소 방 법 : '58년 제정 → 17차 개정 → '04년 폐지, 분야별 4개 법률로 분법

2) 방재대책 및 전략

(1) 향후전망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위험 증대

- 대규모 개발사업 및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재해의 발생가능성과 이에 따른 방재계획의 수립 필요성 역시 증대가 예상되며 도시형 재해의 가능성이 높아짐
- 삼림, 초지 등이 도시화에 따라 불투수면으로 바뀌게 되어 홍수유출량이 증가하고 도달시간도 단축되어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됨

○ 기상이변과 재해유발 증대

- 기상이변에 의한 재해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기존 방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
- 간척사업으로 인해 해수면 상승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으며 해수면의 상승은 내륙부의 도시화 진전과 결합되어 홍수시의 내수피해가 지역내의 주요 재해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동부산악지역은 하천개수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동부산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피해의 집중가능성은 증대될 것임

(2) 방재전략구상

○ 방재형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유도

- 토지이용계획과 지역개발의 경우 토지형질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초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계획에서 방재형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시설 및 건축물의 설치 기준지침의 강화

- 재해로 인해 피해액이 높게 나타난 시설은 전주권 전체적으로 건물 및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난 바, 향후 재발 가능한 재해에 대해서는 방재시설 설치 및 건축물 설치 기준을 강화를 통한 재발 방지

○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분석 및 대책마련

- 수십억 이상의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 한지라도 재해지구지정에 낮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낮은 피해를 입고서도 재해지구지정이 높은 지역이 있음. 이렇듯 현재에 대한 피해조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되어야 할 것임

○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상설 지역재해관리시스템 구축

-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재해방지를 위한 지역재해관리시스템을 구축

○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시행

- 사전예방차원에서의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하며, 도시계획 및 기타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임

3) 실 천 계 획

○ 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에 방재개념 도입

-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의무화(투수포장재사용)
-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재해방지계획 반영 의무화
- 재해영향평가의 내실화 강화

○ 하천개수 및 배수개선사업 확충

-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개수 지방하천에 대한 개수사업 추진
- 하천정비기본계획 미수립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개량형 개수를 추진
- 계획수립하천은 계획기간내 신속한 개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하천의 경우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재해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수작업을 추진
- 노후화된 배수문과 배수펌프장의 교체 등 배수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
- 미착수 사업대상지 가운데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배수불량으로 인한 상습침수지 발생문제를 해소

○ 방재시설, 소방시설의 확충 및 방재기반 구축

- 노후수리시설 및 시설용량이 부족한 수리시설을 교체·개량
- 해안지역의 상습침수구역 해소를 위하여 방조제의 개·보수를 조속히 추진
- 재난방지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방재 시설을 확충하며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광역권내에 부족한 소방시설 및 기구를 대폭적으로 확충
- 전기·가스·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후수습대책을 강구하여 도시의 방재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부실공사에 따른 재해의 사전적 예방을 위하여 건설안전기준 및 건물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대책을 강화

○ 상습재해지역에 대한 상시관리체계 구축

- 상습재해지역 및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전 정비체계를 확립하며, 원인진단과 근본적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광역권내 재해발생지역의 최소화를 도모
- 재난위험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험도 등급에 따른 상시관리체계를 확립
-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은 가급적 보전용도를 부여하고 지구지정이나, 시설 정비 투자확대, 저지대는 유수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위험지역은 해당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을 도시계획에 명시
- 재해위험지역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방재대책을 수립, 관리

○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역주민의 방재의식 강화

- 재해의 예방과 피해저감을 위하여 재해예보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위하여 재해관리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국지성 집중호우지역의 경우 자동우량경보시설 등을 확충
- 비규격 자재의 사용 등으로 인한 농어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방재 교육 등을 통해 규격화 자재의 사용을 촉진
- 거주지역내 재해·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관리감독체계를 확립

○ 단기간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

- 단지조성 시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지반고를 높여서 자연배수가 되도록 함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감소를 위해 하수관거의 설계강우 빈도를 현행 간선 10년 지선 5년에서 간선 20~30년, 지선 10년으로 상향 조정

○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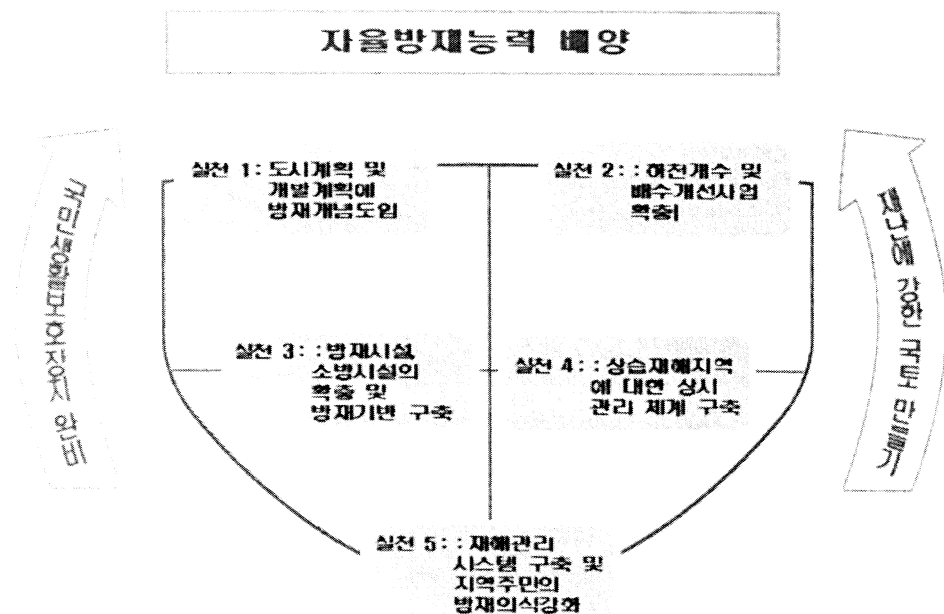
- 저지대, 상습침수지구 등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해가능성 예측을 통해 제방, 우수지, 저류시설 등 방재시설의 설치 의무화
- 홍수예방을 위한 친환경적 투수성 포장유도 및 충분한 녹지의 확보 유도

○ 해일 및 파랑에 의한 방조제지역의 안전성 확보 대책 수립

- 오픈스페이스와 시설은 재해발생시 대피장소이자 재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도시개발시 되도록 충분하게 확보토록 유도
- 안전한 대피를 위해 일정한 폭원 이상의 도로 등 완충기능을 가진 오픈스페이스 확보

○ 친환경적인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도입

- 도시화 예정용지의 개발 시 종전의 물 함유능력을 유지시켜 집중호우 시 우수유출이 저감되어 하수관거 및 하천에 미치는 부하가 최소화되도록 유도
- 불가피한 개발시 환경파괴 문제의 최소화와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잔디도랑, 투수구덩이, 투수·저류 연못 등 친환경적인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적극 도입



<그림 V-47> 자율방재능력 배양

7. 생활권 계획

1) 생활권의 설정

(1) 기본방향

-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권별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생활권별 기능체계화 및 지역발전 기반조성을 통한 인구 및 산업의 자발적 정착과 유입을 유도함
- 지역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생활권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지형·지세, 하천 등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감안하여 설정함으로써 광역생활권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함
-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불필요한 교통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시설간 종합 이용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생활권별 계층구조에 따라 각종 생활편익시설의 광역적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

(2) 설정원칙

- 생활권의 설정은 가급적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토록 설정하며, 상위 및 관련계획상의 권역 구분을 고려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검토하여 지역 생활권을 설정함
- 전주 광역권의 발전방향, 공간구조, 통근권과 함께 시가지의 조성시기·밀도 등 인구가동 추이 및 거주인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함

(3) 생활권의 구분

- 제3차 전라북도종합계획에서 전북지역을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고유의 잠재력과 자원활용의 극대화를 통하여 종합적 지역발전인 도모하고, 지역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첩형 생활권을 구상함
- 중첩형 생활권은 중심대도시권이 지니고 있는 도시기반 서비스기능을 여타 주변생활권으로 연계하여 분산투자에 따른 지역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증진함
- 본 계획에서는 상위계획과 개발축, 도시기능 및 토지이용의 특성, 광역교통체계,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주생활권 및 완주·군산·김제·익산생활권의 5개 대생활권·16개중생활권으로 설정함

<표 V-67> 생활권의 설정

대생활권	해당지역	중생활권	면적(km ²)
전주생활권	전주시	중심권,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26.22
완주생활권	완주군	고산산업권, 삼봉도시권, 근교도시권	820.92
군산생활권	군산시	중앙권, 동부권, 산업단지권	378.19
김제생활권	김제시	김제권, 만경권, 백구권, 죽산권, 금구권, 금산권	545.20
익산생활권	익산시	중앙권, 부송권, 도시권	506.97

2) 생활권별 정비방향

(1) 지역생활권 정비과제

- 전주시의 경우, 지역생활권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연계 및 기능보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활권 정비가 필요함
- 서부해안지역이나 동부산악지역의 경우,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시·군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생활권 정비계획이 요구됨
- 또한, 생활권별 다양한 주민활동의 공간범위와 중첩성을 고려하여 지역간 연결교통망을 정비하며, 쾌적한 거주공간의 확보를 위해 만경강의 수변축과 모악산과 대둔산의 산악축 등 광역녹지축에 대한 정비계획이 필요함
- 부문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활권별 정비방향을 제시, 생산과 주거가 통합된 종합적인 생활기반 조성 및 인접 지역과의 기능적 보완체계를 구축함

(2) 생활권별 정비방향

① 전주생활권

도심활성화 및 역세권개발로 도심기능의 강화

- 기본방향
 - 지역특성에 적합한 개발수법 적용(도심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 신규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용지는 공공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된 시가지조성을 유도
 - 도심부적격 시설 및 이전적지는 고밀화 개발이 되지 않도록 공공용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오픈스페이스로 활용
- 정비계획
 - 역세권 인근 토지는 개발잠재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중·고밀도로 개발하고 각 지역의 중심지와와의 원활한 연계를 도모키 위해 연계환승 교통체계를 구축
 - 기존 도심의 위상 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주변지역으로의 점진적 확대 시행
 - 신시가지 개발 및 시가지 정비 등에 관한 도시의 전반적인 개발사업 지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시가지내 자연 발생적으로 시가지가 조성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진북동, 금암동, 동·서완산동 등의 불량주택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
 - 기타 도심내 산재한 부적격 시설의 이전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이전적지에는 부족한 오픈스페이스와 공공시설 확보에 주력
- 토지이용 정비
 - 주거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시가화예정용지는 기존 도시지역보다 밀도가 낮은 전원 주거지로 유도
 - 상업 : 도심 및 생활권을 중심으로 구분된 각 중심지별 역할 분담과 상업기능의 위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핵화를 유도
 - 공업 : 기존의 공업용지의 규모를 존치
- 시가지 및 기반시설정비
 - 도심지 정비, 공원내 취락정비, 전통문화특구지역 지정, 공업지역 정비, 불량주택정비
 - 군부대 이전지 개발
 - 서부신시가지, World Sports City(WSC) 조성, 전주 테크노파크 조성
 - 생활권간 연계가로망 정비 및 광역교통망 확충
 - 송천동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 시가지 개발

- 조촌지역의 부도심기능 강화, 전주1·2공단 일원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북전주 개발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일부지역과 보전용지 등 월드컵경기장 일원을 시가지 예정용지로 계획
- 장래 군부대 이전에 대비하여 송천동 35사단과 항공대 군부대용지를 시가지예정용지로 계획
- 전주역 뒤편 장재마을에 있어 인후부도심과 인접하여 시가지개발 압력이 예상됨에 따라 시가지예정용지로 계획
- 시가지예정용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후 개발용도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계획

• 세분 생활권별 정비방향

<표 V-68> 전주생활권 정비방향

중생활권	소생활권	정비방향
중심권	중앙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활성화 및 역세권개발로 도심기능 강화 • 전통문화 예술의 관광자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문화특구지정(경기전~오목대~향교~한벽당) - 조선조 중요 문화유산 복원정비(전라감영, 객사 등)
	덕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심 정비 : 역세권 개발 • 종합위락공간 : 덕진공원
동부권	인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기능 정비 • 시가지 정비 : 주거
	아중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기능 정비 • 시가지 정비 : 주거
서부권	효자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신시가지 조성 • 행정타운 조성 : 중추행정, 업무기능(도청사 이전)
	서신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 정비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 상업기능 특성화(대형할인점)
남부권	완산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 정비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 상업기능 확충
북부권	조촌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rld Sports City(WSC) 조성 • 물류·유통단지 조성 • 공업지역 정비 및 지원기능 강화
	송촌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3공단 및 전주첨단산업단지 배후주거기능 • 군부대 이전지 정비 : 문화, 공원, 주거, 스포츠 등

② 완주생활권

삼례·봉동 시가지의 정비를 통한 도시중심지체계 구축

• 기본방향

- 중심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삼례-봉동간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범 도시 조성
- 생활권간 광역적·통합적 도시연계체계를 확립하고 삼례, 봉동 시가지 정비를 통한 도시 중심지체계 구축
- 녹지공간의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보행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인간중심도시 조성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지역의 토지이용질서 확립과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등 도시 계획의 합리적 재정비

• 정비계획

- 환경공생형 주택과 환경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
- 소양면과 고산면 일원에 실버타운 및 건강복지타운 도입
- 읍지역 이외 지역에 무질서한 고층아파트 입지에 대한 규제를 위한 관련 조례 및 건축 기준 마련
- 시가지정비사업과 시장현대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정비효과를 극대화시키고 1차적으로 삼례읍과 봉동읍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타지역에 동기유발 유도
- 연계도로망체계의 정립 및 군도이하 도로의 전면적 재정비(모악산관광지와 구이호반촌을 연결하는 순환도로(12km)개설 등)
- 군산-함양간 고속도로노선상 IC 2개소(소양면1개소, 용진면1개소)와 국도27호선 우회도로 노선상 JC 7개소 및 국도17호선 확장에 따른 JC2개소에 대한 검토
- 자전거도로망 정비(전주-완주간, 전주-제3공단-전주침단, 송광사-화심온천-신촌테마파크-죽림온천, 전주-삼천천-모악산-구이면)
- 상수도시설의 민간위탁관리·경영제도 도입과 상수도관 대체사업의 단계적 추진
- 오수와 우수의 분리관거를 단계적 확충, 중수도개념 도입

• 세분 생활권별 정비방향

<표 V-69> 완주생활권 정비방향

구분	정비방향
삼봉도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광역계획권의 배후 거점도시권으로 육성 삼례읍 : 교육문화 및 물류유통 중심도시개발 유도 봉동읍 : 첨단산업기지의 산학협력 및 정주 생활 거점 만경강 생태공원 연계 거점관광지구 조성
고산산업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휴양 및 관광중심지로 육성 익산·마한백제문화권, 대전광역계획권 및 무진장관광권과 연계 자연생태관광권 조성 및 산림학습공간의 확충 대둔산 도립공원주변 거점관광지구 및 고산 거점관광지구 조성
근교도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쾌적한 전원 테마마을 만들기 시설원에 등 도시근교농업의 활성화 및 친환경농업 추진 녹색농원(Green Farm)의 체계적인 조성으로 도농간 교류 강화 모악산-구이저수지 연계 도시근교위락공간 및 송광사주변 등 거점관광지구 조성

③ 군산생활권

기존 도심을 정비하여 국제교류기능 유치를 위한 수용공간 확보

• 기본방향

- 연안지역에 입지한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 정비
- 장래 도시발전 주제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도시용지 확장
- 기존 도시는 시가지를 정비하여 상업기능을 강화하고, 대도시발전에 대비 부도심을 계획
- 군산, 대야, 임피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특성 살린 생활권별 정비
- 역세권개발 및 신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생활권별 중심기능을 강화
- 난개발방지를 위해 미개발지에 대한 계획적 정비관리체계 구축

• 정비계획

- 군·장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산북동 일원의 녹지를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 계획하여 직주근접을 유도
- 해망동, 신흥동, 중앙로 1가동 일원의 공업용지는 군산의 중심지로서 점진적으로 공장시설을 이전 유도하며 추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중심상업기능 유치
- 군산-장항간 철도개설로 신역사가 입지하게 될 내흥동지역 일원에 역세권 부도심 중심상업 기능을 유치하기 위하여 별도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 추후 터미널 이전시 이전부지 일원에 대한 유통상업기능 유치
 - 군산 서부지역에 군·장 국가산업단지등 대규모 공단입지로 토지이용의 순화를 위해 기성 시가지내 공업용지는 점진적으로 이전토록 유도
 - 군·장 산업단지와 연결된 산북지역은 시가지와 완충기능 유지를 위해 녹지로 보전
 - 기존 시가지의 정비, 만경강생태하천, 수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적 생태도시 창출
 -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기반확충
- 세분 생활권별 정비방향

<표 V-70> 군산생활권 정비방향

구분	세분	지역	정비방향
중앙권	중앙	중앙1,2,오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도심은 시가지를 정비하여 상업기능강화 • 산재 공장의 이전을 유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중심상업기능 유치
	남부	신평, 나운, 미룡, 지곡, 수송, 쌍봉, 옥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자유무역도시 조성에 대비하여 산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도시기능 조성
동부권	동부	조촌, 개정, 경암, 구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기반확충 및 도시 편의시설 확보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 청정한 도시건설
산업단지권	군장	오식, 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산업단지의 위락과 휴양기능 담당 • 국제위락단지 조성 및 산업관광 활성화
	서부	미성, 소룡, 산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장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을 산업단지 배후주거지로 계획 • 군·장 국가산업단지와 연결된 산북지역은 시가지와의 완충기능을 위해 녹지로 보전

④ 김제생활권

환경보전형 농업을 육성 도시배후 전원도시의 기능 수행

- 기본 방향
 - 노후불량주택의 밀집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주민자체 개선방안을 제시
 - 전체 도시에 대한 TSM사업 시행으로 교통관계 시스템 개선
 - 생활권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특정도로에 대한 차량진입을 금지시키고 보행자전용도로 혹은 보행물 확충
 - 보행동선간 연계체계 수립으로 안전한 보행공간의 확보 및 차량의 시가지 진입 축소
 - 시급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 용량 조기 확보

• 정비 계획

- 생활권별로 적합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자연지형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신규 개발지에 대한 환경친화적 단지조성 수법을 도입
- 신규개발지의 계획시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충분한 용량을 부여하여 장기적인 대비가 가능토록 함
- 시청사의 통합으로 이용객 편의도모 및 업무의 유기적 관계도모
- 도심지내 현대화 쇼핑센타건립, 소규모상가의 집단화, 시장의 도시외곽 이전 유도
-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하여 공영터미널화 및 진·출입 지점에 대한 교통 개선대책 수립
- 학교시설을 현대화 하고 신규 개발지역내 학교용지 확보
- 공업용지의 시외곽으로 이전, 이전부지는 주거 및 업무·공원시설로 활용
- 불량주택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적절한 보상대책의 수립 및 이주계획을 수립
- 도심지내 부족한 녹지 및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이전부지 및 주택정비사업시 15% 이상의 녹지확보 의무화

• 세분생활권별 정비방향

<표 V-71> 김제생활권 정비방향

구분	지역	정비방향
김제권	김제시, 백산면, 봉남면, 황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와 인접한 미개발지 개발을 통한 배후주거기능 강화 • 공업기능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존 시가지 정비를 통한 쾌적한 환경전원도시 조성
만경권	만경읍, 청하면, 진봉면, 광활면, 성덕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제시 북서부지역의 중심도시로 개발 • 계획적 개발에 의한 미래형 도시로 개발하고 대중국교역의 전진기지로 설정 •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환경전원도시 개발
백구권	백구면, 공덕면, 용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취락을 중심으로 고급형 전원주택개발 • 도로, 상하수도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 근교농업 육성 및 농산물 가공 유통기능 강화
죽산권	죽산면, 부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개발에 대한 지원기능 분담 • 구시가지 정비 및 생활 기반시설의 정비로 정주환경 개선 • 전원도시환경 창출을 위해 저밀도 개발
금구권	금구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가지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개선 • 미개발지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통한 전원주택지 조성 • 지방재정확충과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개발
금산권	금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악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로 개발 • 고급 주택지 조성 및 친환경도시 건설 • 기존시가지의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⑤ 익산생활권

익산역 주변을 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하여 입체화된 역세권 개발추진

• 기본방향

- 기존시가지는 용도지역상의 토지이용계획이 준수 될 수 있도록 행정유도를 강화하여 부적합 시설 등을 정비하고 주거환경 불량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점진적으로 재정비
- 시가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하여 지구단위별로 시행
- 도시전체의 종합적인 패턴을 충분히 고려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도입 체계적인 도시정비 유도
- 도시의 인적, 물적 유동요소를 감안하여 시가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
- 기존 용도지역의 불합리로 인해 기능의 혼재가 이루어진 지역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
- 도심내부에서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각종 공장들은 시가지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여 시가지내 공업용지의 확장은 제한
- 시가지개발시 훼손되기 쉬운 수림 등은 최대한 개발을 억제하여 도시내에서의 여유있는 녹지공간 조성
- 신시가지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

• 정비계획

- 중심시가지내 불량지구의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노후불양 밀집지역)
- 시가지내 산재된 공장 이전(개발예정용지 산업기능내)
- 도시근린공원 조성, 공원시설의 훼손방지
- 가로망 체계의 불합리로 인한 비효율적 토지이용 형태의 정비개선
- 기존 익산역 주변을 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하여 입체화된 역세권 개발추진
- 귀금속, 보석 및 석재 관련산업과 보석박물관, 보석대학 등의 유기적인 연계와 섬유패션, 니트산업을 활성화시켜 보석 및 패션도시로 특화
- 금마도시지역은 미륵산을 배산으로 저밀도 개발유도하고 금마저수지 주변관광지의 관광 기능 강화 및 기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정비

- 함열도시지역은 도농통합의 전원도시로 개발하며 종합병원, 전문대학, 농산물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황등도시지역은 시가지의 정비 및 자연산업인 석가공산업 육성과 기존 구이리시 도시세력과 개발예정용지(행정신시가지)와의 연계된 도시개발유도
 - 용안도시지역은 배후농촌지역의 지원 및 상업·유통의 기능을 담당하는 서비스 기능의 도시로 조성
 - 여산도시지역은 농촌지역을 배후로 농·축산물의 집산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로 정비
 - 춘포도시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구이리시와 인접한 삼례·봉동시가지 축상에 입지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도시로 정비
- 세분 생활권별 정비방향

<표 V-72> 익산생활권 정비방향

구분	세분	정비방향
중앙권	모현	• 재개발에 의한 시가지개발과 주택개발사업등으로 주거기능강화
	신동	• 행정·주거·상업의 복합기능을 부여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
	영등	• 주거·상업의 계획적 정비를 통한 주거기능 강화
	중앙	• 도심기능의 구축을 위해 기존 상업시설의 정비 및 중심상업기능의 강화
	마동	• 주거와 공업기능의 체계적인 정비로 기능간 상충문제 최소화
	동산	• 상업기능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주거기능의 보호
부송권	북일	• 주거·상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부도심으로서의 상업기능 강화
	부송	• 북일권과 기능연계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통한 쾌적한 주거지개발
	팔봉	• 공단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유도, 저밀주거지개발
	금마	•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기능 강화
도시권	신시가지	• 행정·주거·상업의 복합기능 부여 및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
	함열	• 시가지개발과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전원주거기능의 강화
	황등	• 시가지 정비 및 석가공산업의 육성
	용안	• 배후 농촌지역의 지원 및 서비스 기능의 강화
	여산	• 농촌지역을 배후로 농·축산물의 1차 집산지로의 개발
	춘포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구 이리시가지와 삼례, 봉동 시가지와 연계 개발



집행 및 관리계획

1. 투자사업의 선정
2. 투자사업계획
3. 집행 · 관리체계
4. 파급효과 분석

VI. 집행 및 관리계획

1. 투자사업의 선정

1) 사업검토의 기본방향

- 전라북도 내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광역계획권 및 인접 시·군에 걸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현안사업을 검토함
- 광역적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하거나, 지자체간 조정·협약이 요구되는 등 지역 발전과급효과가 크거나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의 실현성을 제고함

(1) 검토대상 사업

○ 중앙정부 추진 및 지원사업

-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의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과 제3차 전라북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 중 공간적으로 광역계획권에 해당하거나 광역계획권내 시·군과 연계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함

○ 광역적 기초단체 사업

- 광역계획권내 5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재정비)계획 등 하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 중 광역적 차원(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협약이 필요한 경우)에서 고려해야할 사업을 검토함

○ 중점관리대상사업

- 실질적으로 당해연도(2006년)에 예산확보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전라북도 중점관리대상사업과 시·군 중점관리대상사업(시·군정보고)을 해당 지역의 계획과 비교·검토함으로써 사업 진행여부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함
- 중점사업을 통하여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제3차 전라북도종합계획 및 시·군 도시계획 수립 등 기존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역점 사업의 파악뿐만 아니라 사업 실현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와 예산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함

○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전략산업, 전북 국제사업 발굴사업 등

- 기타 참여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전략산업, 신규사업으로서 전라북도가 시행한 전북 대형국제사업 발굴사업과 시·군에서 별도로 제안한 사업 등을 검토함

(2) 사업선정의 원칙

○ 연계성 확보 및 정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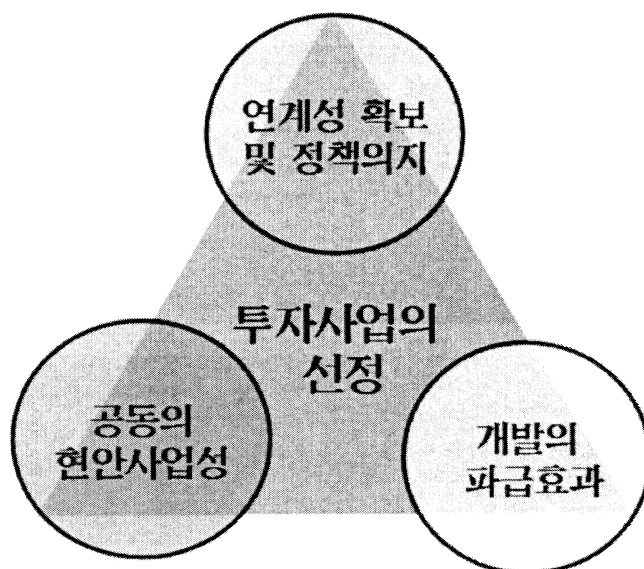
- 기본적으로 상위계획 및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예산확보의 타당성,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공동의 현안성

- 광역계획권내 사업을 기본적인 범위로 하며,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사업은 '공동' 사업으로 검토하며, 2개 이상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타 시·군과 협의가 필요하거나 광역적 지역을 포괄하는 경우, 타 도시와의 차별성 또는 특이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개발의 파급효과성

- 광역계획권내 고용창출,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광역계획권내 개발의 선도효과 및 타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 지역경제 및 전주권내 개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자치단체별 재정수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그림 VI-1> 사업선정 원칙

2. 투자사업 계획

1) 부문별 투자내역

(1) 광역교통시설

○ 도로계획

- 도로계획은 기계화와 신규계획으로 구분됨. 기계화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7,648억원이며, 신규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45,000억원 임

<표 VI-1> 투자내역-도로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06 기투자)	향후 투자	사업기간	시행 주체	비고
기계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완주군 용진면~전남 순천시 해룡면 (전주권 구간 25km)	7,648 (1,381)	6,267	1998~2009	도로 공사	전주 완주
신규	외부순환도로	전주-완주-익산-군산-김제 순환형 (연장 약134km)	22,000	22,000	2010~2025	전교부	5시군
	내부순환도로	전주광역권내 내부순환형도로 (약 35km)	6,500	6,500	2016~2025	전교부	5시군
	군산-함양간 고속도로연장	군산(새만금)~익산시 왕궁면 (장수-익산간 고속도로와 연계) 연장 약50km	16,500	16,500	2009~2014	도로 공사	군산
	새만금-무주간 고속화도로	새만금-김제-혁신도시-전주-무주 연장 158km(4차로)	12,161	12,161	2006~2013	전교부	김제 전주

○ 철도계획

- 철도계획은 기계화와 신규계획으로 구분됨. 기계화의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24,613억원이며, 신규 계획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9,500억원 임

<표 VI-2> 투자내역-철도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06기투자)	향후 투자	사업기간	시행 주체	비고
기계획	진라선 복선전철화	익산~순천간 154.2km (전주권 40km)	4,491 (1,540)	2,951	2002~2010	철도 공사	전주, 익산, 완주
	군산선 복선전철화	익산~대야의 연장 약 11km구간	3,958 (15)	3,943	2007~2011	철도 공사	군산, 익산
	호남고속철도 건설	서울~목포간 약 322.6km (전주권 구간 42km)	16,164 (37)	16,127	2001~2015	철도 공사	익산, 김제
신규	광역도시철도	군산-익산-전주-혁신도시 (연장 약 41.5km)	8,500	8,500	2010~2025	철도 공사	전주, 군산, 익산
	동서횡단 철도	동서횡단철도 (총: 123.7km, 전주권 구간: 60km)	11,090	11,090	2020~	철도 공사	전주, 김제, 군산, 새만금

○ 공항 및 항만시설계획

- 공항 및 항만시설은 기계획과 신규계획으로 구분됨. 기계획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0,259억원이며, 신규사업계획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30억원임

<표 VI-3> 투자내역-공항 및 항만시설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06기투자)	향후 투자	사업기간	시행 주체	비고
기계획	군산 신항만 건설	군장국가산업단지 복합수송체계 구축 도류제 10.0km, 안벽 6.9km, 방파제 4.2km등,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등	10,259 (9,563)	696	1990~2011	해양 수산부	군산
신규	군산공항 확충	군산공항의 시설관리 및 확충	30 (5)	25	2000~2010	전라 북도	군산

(2) 광역공급이용시설

- 광역공급이용시설 계획은 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광역소각시설 그리고 물류 시설로 구분됨

○ 하수처리시설계획

- 하수처리시설계획은 새롭게 계획된 사업임. 하수처리시설계획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2,741억원임

<표 VI-4> 투자내역-하수처리시설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06 기투자)	향후 투자	사업기간	시행주체	비고
신규	하수처리시설증설 (진주)	처리용량 : 6천m ³ /일	6	6	2011~2025	전라북도	전주
	하수처리시설증설 (군산)	처리용량 : 22천m ³ /일	230	230	2011~2025	전라북도	군산
	하수처리시설신설 (익산)	처리용량 : 72천m ³ /일	752	752	2011~2025	전라북도	익산
	하수처리시설신설 (김제)	처리용량 : 31천m ³ /일	324	324	2011~2025	전라북도	김제
	하수처리시설증설 (완주)	처리용량 : 20천m ³ /일	209	209	2011~2025	전라북도	완주

○ 마을하수처리시설계획

- 마을하수처리시설계획은 기계화된 사업임. 마을하수처리시설계획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520억원임

<표 VI-5> 투자내역-마을하수처리시설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06 기투자)	향후 투자	사업기간	시행주체	비고
기계화	하수처리시설설치 (진주)	처리용량 : 4,660m ³ /일	301	301	2004~2020	전라북도	전주
	하수처리시설설치 (군산)	처리용량 : 4,563m ³ /일	141	141	2004~2020	전라북도	군산
	하수처리시설설치 (익산)	처리용량 : 12,710m ³ /일	889	889	2004~2020	전라북도	익산
	하수처리시설설치 (김제)	처리용량 : 1,790m ³ /일	127	127	2005~2009	전라북도	김제
	하수처리시설설치 (완주)	처리용량 : 4,064m ³ /일	706	706	2004~2020	전라북도	완주

○ 광역소각시설계획

- 광역소각시설 계획은 기계화와 신규계획으로 구분됨. 기계화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57,603억원이며, 신규로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60,000억원임

<표 VI-6> 투자내역-광역소각시설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06 기투자)	향후 투자	사업기간	시행주체	비고
기계획	익산폐기물 소각시설	처리용량 : 200톤/일 (100톤*2기)	576 (90)	486	2004~2009	전라북도	익산
신규	군산폐기물 소각시설	200톤/일	600	600	2010~2015	전라북도	군산

○ 물류시설계획

- 물류시설계획은 기계획과 신규 계획으로 구분됨. 기계획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2,000억원이며, 신규 계획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4,200억원임

<표 VI-7> 투자내역-물류시설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06 기투자)	향후 투자	사업 기간	시행 주체	비고
기계획	전주종합물류 유통단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일대 15만 평규모(농수산물유통 및 축산중 합물류단지)	1,100	1,100	2010~2015	전라 북도	전주
	군산종합물류 유통단지	군산시 개정면일대 10만평 규모 (제조업물류지원 및 화물터널)	900	900	2008~2013	전라 북도	군산
신규	군장산업단지내 종합물류단지	군산시 소룡동 일대 - 기계산업물류지원센터 - 화물터널 및 차량기지	800	800	2010~2020	전라 북도	군산
	익산종합물류 유통단지	익산시 황등면 일대 - 유통시설, 지원시설, 유통가공 시설, 주유세차, 공급처리시설, 전시시설, 공공시설 등	3,400	3,400	2010~2015	전라 북도	익산

(3) 기타사업

- 기타사업은 기계획인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혁신도시건설사업으로 구분됨. 기타 사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1,204억원임

<표 VI-8> 투자내역-기타사업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06 기투자)	향후 투자	사업기간	시행 주체	비고
기계획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하천환경개선, 수변휴식공간, 조경시설공간 등 조성	1,024 (299)	725	1999~2010	전라 북도	5시군
기계획	혁신도시건설	공공기관(13개)입지, 280만평	10,000	10,000	2007~2012	건교부	전주, 완주

2) 총투자 규모

(1) 시설별 투자총액

- 시설별 투자총액은 교통시설, 광역공급이용시설 그리고 기타로 구분됨. 교통시설의 기계획된 사업의 투자비는 42,520억원이며, 신규사업의 투자비는 76,776억원임. 광역공급이용시설의 기 계획된 사업의 투자비는 4,741억원이며, 신규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6,320억원임. 마지막으로 기타사업의 사업비는 기 계획된 사업만으로 구성되며 총 사업비는 11,024억원임
- 이를 종합하면, 전주권광역도시계획에 투자되는 총 투자비는 141,381억원임. 이중 기 계획된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58,285억원이며,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83,096억원임

<표 VI-9> 시설별 투자총액

(단위 : 억원)

구 분	투 자 내 역				
	기 계획된 사업			신규사업	투자비 총액
	소 계	기투자	향후투자		
교 통 시 설	42,520	12,536	29,984	76,776	119,296
광역공급이용시설	4,741	90.0	4,650.6	6,320	11,061
기 타	11,024	299	10,725	0	11,024
합 계	58,285	12,925	45,360	83,096	141,381

(2) 주체별 투자내역

<표 VI-10> 주체별 투자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계획 구분	투자비 총액	투 자 분 담			
			국비	지방비	민간	기타
총 계	기계획	58,285	44,915	1,590	0	11,780
	신규	83,096	60,818	18,540	0	3,738
교 통 시 설	기계획	42,520	42,520	0	0	0
	신규	76,776	59,276	17,500	0	0
공급이용시설	기계획	4,741	1,830	1,131	0	1,780
	신규	6,320	1,542	1,040	0	3,738
기 타	기계획	11,024	565	459	0	10,000

시설별 투자내역을 바탕으로 전주권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는 사업들을 주체별 사업비의 구성은 국비, 지방비, 민간 그리고 기타로 구분됨. 국비, 지방비 그리고 기타로 분담되는 총 사업비는 각각 105,733억원, 20,129억원, 15,518억원임

(3) 단계별 투자내역

- 전주권광역도시계획에서 실행되는 각 시설별 단계별 투자내역은 아래의 <표 VI-11>과 같음. 구체적으로 기 투자된 총 사업비는 12,925억원이며, I 단계에는 52,783억원, II단계에는 42,347억원, III 단계에는 17,183억원, IV 단계에는 16,142억원임

<표 VI-11> 단계별 투자내역

(단위 : 억원)

구분		기투자 (~'06)	I 단계 (07~'10)	II 단계 (11~'15)	III 단계 (16~'20)	IV 단계 (20~'25)	합계
교통시설	기계획	12,536	21,387	8,597	0	0	42,520
	신규	0	19,394	25,859	15,762	15,762	76,776
광역공급 이용시설	기계획	90	2,938	992	722	0	4,741
	신규	0	1,340	3,900	700	380	6,320
기타	기계획	299	7,725	3,000	0	0	11,024
합 계	기계획	12,925	32,050	12,589	722	0	58,286
	신규	0	20,734	29,759	16,462	16,142	83,096

3. 집행·관리 체계

(1) 광역적 집행의 필요성

- 도시기본계획은 개별 시·군·구의 자립적 성장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자체 도시의 이점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자체도시의 약점을 보강하지 못함으로써 성장의 한계를 가져옴
- 따라서, 주변 도시간의 강점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성장을 도모하고, 약점을 보강함으로써 자체 도시의 편익을 증대시켜야 함
- 광역도시계획은 시·군·구간의 개별 주체의 이익보다는 개별시·군간의 협력을 통하여 공익을 도모하고 이 공익이 개별 시·군의 발전을 견인하는 회귀적 집행 관리행정이라 할 수 있음

(2) 집행 및 관리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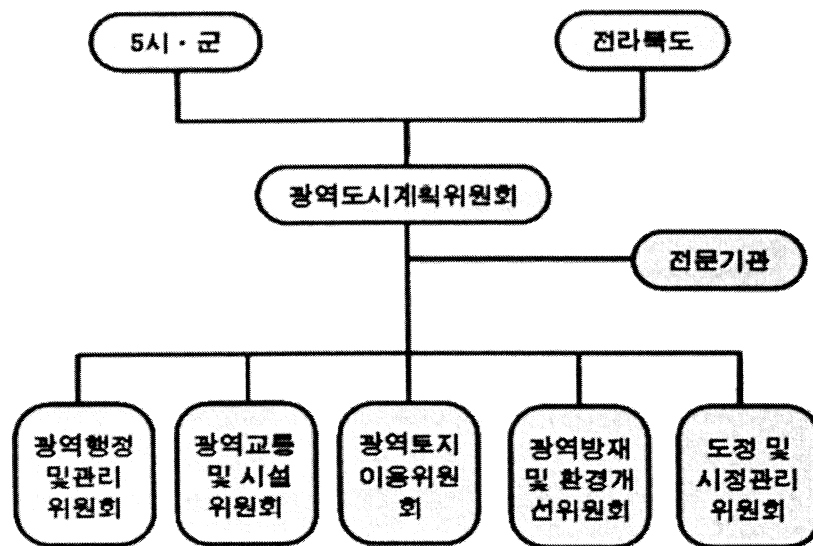
- 광역도시계획의 집행수단은 하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광역계획을 수용하여 개발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도시기본계획임
-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역계획내용을 수립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필요시에 구성하며, 의견을 청취토록 함
- 광역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의 관리수단인 도시계획(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단위사업계획)의 관리지침을 제공하고 평가토록 함

(3) 관련주체의 역할분담

- 전북도의 역할은 광역행정의 조정, 국가행정과의 연계
- 5시·군의 역할은 도시기본계획 조정 및 관리계획 작성, 개발관리
- 개발사업주체(위탁사업자 포함)의 역할은 개발계획안 작성, 단계별 사업추진

(4) 집행관리체계 구축방안

- 광역도시계획위원회는 전북도 및 계획주체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며, 각 부문별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함



<그림 VI-2> 광역도시계획위원회

4. 파급효과 분석


1) 파급효과 분석방법 설정

(1) 파급효과 기법 검토

- 특정한 경제활동에 대한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생산함수기법(production function method), 경제기반모형(economic base method), 산업연관분석(input - output method), 회귀분석기법(regression method) 등이 있음
- 지역경제현상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경향이나 추세 또는 방향 정도를 분석한다면 경제기반 모형이나 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할 수 있겠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간 지역간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연관분석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 분석기법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과 같은 간접효과까지도 분석하도록 함

(2) 파급효과 분석 모형설정

-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파급효과 분석모형은 한국은행에서 2003년에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사용하도록 함.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역산업연관표의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중 간 수 요						최 종 수 요						지역내 산출액					
			지역 1		...		지역 n		지역 1		...		지역 n							
			산업1	...	산업n	산업1	...	산업n	소비	투자	수출	소비	투자	수출						
국 산 투 입	지 역 1	산업1 : : 산업n							Z_{1n}		Y_{11}^d		...		Y_{1n}^d		X_1			
	...	산업1 : : 산업n							배 분 구 조											
	지 역 n	산업1 : : 산업n							Z_{n1}		Z_{nn}		Y_{n1}^d		...		Y_{nn}^d		X_n	
	수입 투입	산업1 : : 산업n							M_1		M_n		Y_1^m		...		Y_n^m			
부가가치									V_n											
지 역 내 산 출 액			X_1						X_n											

<그림 VI-3> 산업연관표 기본구조

- 본 연구에서는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전라권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로 나타내도록 함.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역산업연관표는 강원권, 전라권, 수도권 등 권역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며, 또한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의 실행으로 전라권에 나타낼 수 있는 효과라고 할 수 있음

2) 파급효과 분석

(1) 분석을 위한 사업설정

-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선정되는 개발사업은 교통시설 및 광역공급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함. 이중에서 기계화된 사업에 대한 부분은 개별 사업의 실행에 앞서 파급효과의 분석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규 사업에 부분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정리하면 교통시설 부문에서의 신규사업 사업비는 76,776억원, 광역공급이용처리시설의 신규사업 사업비는 6,32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사업은 신규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계획에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통하여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도록 함

(2) 사업별 파급효과 분석

○ 교통시설에 따른 파급효과

- 광역계획권에 신설되는 교통시설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외부순환도로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등의 도로시설, 광역도시철도, 동서횡단철도 그리고 전라선·군산선 복선전철화 등의 철도시설 그리고 공항 및 항만시설 등으로 구성됨
- 이러한 교통시설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76,776억원임. 76,776억원을 투입하여 산출된 부가가치효과, 생산유발효과 그리고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4,868,274백만원, 10,910,484백만원 그리고 9,5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됨

<표 VI-12> 교통시설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항 목	부가가치유발액
비용자보수	2,649,808
영업잉여	1,419,734
고정자본소모	424,579
간접세(보조금공제)	374,152
부가가치계	4,868,274

<표 VI-13> 교통시설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명)

업종	생산 유발액	취업 유발인원	업종	생산 유발액	취업 유발인원
농 립 수 산 품	30,403	12	수 송 장 비	7,378	2
광 산 품	59,133	35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9,221	5
음 식 료 품	20,929	6	전 력, 가 스 및 수 도	60,607	15
섬 유 및 가 죽 제 품	4,138	4	건 설 업	7,709,124	7,901
목 재 및 종 이 제 품	59,233	23	도 소 매	69,528	129
인 쇄, 출 판 및 목 제	7,332	12	음 식 점 및 숙 박	52,154	72
석 유 및 석 탄 제 품	123,026	3	운 수 및 보 관	179,825	200
화 학 제 품	145,890	26	통 신 및 방 송	58,196	23
비 금 속 광 물 제 품	745,963	345	금 용 및 보 험	150,696	147
제 1 차 금 속 제 품	412,917	3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539,451	275
금 속 제 품	168,731	156	공 공 행 정 및 국 방	2,211	3
일 반 기 계	26,058	18	교 육 및 보 건	55,041	91
전 기 및 전 자 기 기	50,810	23	사 회 및 기 타 서 비 스	11,985	16
정 밀 기 기	929	929	기 타	149,575	0
계	10,910,484	9,578			

○ 광역공급시설 투자 효과 분석

- 광역계획권에 신설되는 광역공급시설은 하수처리시설 및 광역소각시설 등으로 구성됨. 총 투입되는 투자비는 6,320억원으로 나타났음
- 광역공급시설의 6,320억원의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전라권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400,744백만원, 898,123백만원 그리고 788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표 VI-14> 광역공급시설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항 목	부가가치유발액
비용자보수	218,125
영업잉여	116,869
고정자본소모	34,950
간접세(보조금공제)	30,799
부가가치계	400,744

<표 VI-15> 광역공급시설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명)

업종	생산 유발액	취업 유발인원	업종	생산 유발액	취업 유발인원
농 림 수 산 품	2,503	1	수 송 장 비	607	2
광 산 품	4,868	3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759	5
음 식 료 품	1,723	0	전 력 , 가 스 및 수 도	4,989	15
섬 유 및 가 죽 제 품	341	0	건 설 업	634,595	7,901
목 재 및 증 이 제 품	4,876	2	도 소 매	5,723	129
인 쇄 , 출 판 및 목 제	604	1	음 식 점 및 숙 박	4,293	72
석 유 및 석 탄 제 품	10,127	0	운 수 및 보 관	14,803	200
화 학 제 품	12,009	2	통 신 및 방 송	4,791	23
비 금 속 광 물 제 품	61,406	28	금 용 및 보 험	12,405	147
제 1 차 금 속 제 품	33,990	3	부 동 산 및 사 업 서 비 스	44,406	275
금 속 제 품	13,889	13	공 공 행 정 및 국 방	182	3
일 반 기 계	2,145	1	교 육 및 보 건	4,531	91
전 기 및 전 자 기 기	4,183	2	사 회 및 기 타 서 비 스	987	16
정 밀 기 기	76	0	기 타	12,313	-
계	898,123	788			

(3) 총 효과 분석

광역권계획에 포함된 신규시설에 투입되는 금액은 총 83,006억원으로 이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2,600억원에 달할 것이며 생산유발효과는 118,08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0,366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표 VI-16> 신규 총사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항 목	부가가치유발액
비용자보수	2,867,934
영업잉여	1,536,603
고정자본소모	459,529
간접세(보조금공제)	404,952
부가가치계	5,269,018

<표 VI-17> 신규 총사업의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명)

업종	생산 유발액	취업 유발인원	업종	생산 유발액	취업 유발인원
농 립 수 산 품	32,906	13	수 송 장 비	7,986	3
광 산 품	64,001	38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9,980	5
음 식 료 품	22,652	6	전 력, 가 스 및 수 도	65,596	16
섬유및가죽제품	4,479	4	건 설 업	8,343,719	8,551
목재및종이제품	64,109	25	도 소 매	75,252	139
인쇄,출판및복제	7,936	13	음 식 점 및 숙 박	56,447	78
석유및석탄제품	133,153	3	운 수 및 보 관	194,627	216
화 학 제 품	157,899	28	통 신 및 방 송	62,987	25
비금속광물제품	807,369	373	금 융 및 보 험	163,101	159
제 1 차 급 속 제 품	446,907	38	부 동 산 및 사 업 서 비 스	583,857	298
금 속 제 품	182,620	169	공 공 행 정 및 국 방	2,393	3
일 반 기 계	28,203	19	교 육 및 보 건	59,572	99
전 기 및 전 자 기 기	54,993	25	사 회 및 기 타 서 비 스	12,971	18
정 밀 기 기	1,005	0	기 타	161,888	-
계	11,808,606	10,366			

